사하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역사 속 사하구 모습

사하구지









여는글

발간사

우리 고장 사하(沙下)는 낙동정맥(洛東正脈)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과 남해바다가 만나서 천혜(天惠)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찍이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삶의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땅에 터를 잡고 살았던 우리 선인(先人)들의 삶의 궤적과 자취, 그리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고찰(考察)은 1986년 12월『사하지(沙下誌)』의 발간으로 그 첫걸음을 디뎠으며, 이번에 그간의 변화된 모습들과 기록들을 새롭게 정리 · 보완하여 그 후편으로『**사하구지(沙下區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역적(地域的)이긴 하지만 수천 년 이어온 역사의 면면을 빠짐없이 다루고, 한 권의 책에 아우러는 작업을 1년이란 단기간에 이루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어떤 부분은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오늘을 볼 수 있었으며, 또 내일을 열어갈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역의 발전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의 발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제발전 및 지역발전은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로 이어지고, 수준 높은 문화적 역량은 곧 지식산업이 되어 우리의 미래 성장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우리 구의 환경은 문화적인 자양분(滋養分)을 키우는데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꾸며 발간한『**사하구지(沙下區誌)**』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우리 구의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는 동시에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축간사

우리 구 향토지를 새롭게 정리하여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동료의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번에 간행한 『사하구지(沙下區誌)』는 사하의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통하여 소중한 역사 자료를 집대성한 매우 훌륭한 향토 사료라 생각합니다. 옛부터 사하는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풍부한 역사 자료와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자료는 사하구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인들의 삶의 체취와 전통문화, 지명, 전설 등 잊혀져 가는 옛 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노력이야말로 대단히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 것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구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 데 모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하구지』는 사하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가 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토애를 고취시켜 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사하구지』가 우리 구의 미래를 밝히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가가 됨은 물론 아름다운 사하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2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

사하구 연혁

History

1910. 10. 1 : 부산부 사하면
1914. 3. 1 : 경상도 동래군 사하면
1942. 10. 1 : 부산부 사하출장소
1957. 1. 1 : 부산시 서구 사하출장소
1975. 10. 1 : 부산직할시 사하출장소
1983. 12. 15 : 부산직할시 사하구 (13개 동 및 을숙도, 일웅도 편입)
1988. 5. 1 : 자치구제 실시
1995. 1. 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의 상징

상징마크



고니
사하구의 이니셜 'S'와 철새(고니), 일출을 상징

을숙도
을숙도, 승학산, 사하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

· 고니의 힘찬 날개짓처럼 진취적인 사하구,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사하구를 형상화한 것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는 사하구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줍니다.

브랜드 슬로건

VISION Saha

VISION Saha(비전 사하)
· 구민과 함께 비전 있고 꿈이 있는 아름다운 미래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

구목(區木) : 회화나무



· 원산지 : 한국, 중국
· 특징 : 높이 20~25m까지 자라는 낙엽교목으로 흔히 마을주변에 심으며, 가지끝에 황백색 꽃이 달린다.
· 상징 : 괴목(槐木)이라고도 부르며 괴정동의 유래가 됨. 스스로 질서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구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

구화(區火) : 장미



· 원산지 : 아시아, 유럽
· 특징 : 꽃의 여왕으로 불리며, 덩굴성 나무로 줄기에 납작한 가시가 많고 꽃이 화려함.
· 상징 : 아름다움(美), 사랑(愛), 사모함을 나타내며, 구민의 화합과 정열을 상징.

구조(區鳥) : 고니



· 원산지 : 동아시아, 북유럽, 러시아 등지
· 특징 :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암수 모두 순백색이고 어린 새는 회갈색을 하고 있음.
· 상징 :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대표 조류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순백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형에 가족애가 끈끈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비상하는 진취성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60년대



나무배를 탄 신사들이 기념 촬영한
동양시멘트 주변 감천항의 옛 모습(1958)

1960년대



감천항 모습(1960)



고기망태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해녀들의 모습(1960)



돛단배(1950)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60년대



다대동 전경(1960)



낙동강 하구 하천부지에서 수확한 파를
소달구지로 운반하는 모습(1960)

1960년대



조개잡는 아낙네의 모습(1960)



감천화력발전소 모습(1964)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60년대



감천동 전경(1967)

1970년대



가락타운1단지 조성 전의 전경(1971)



신평배고개 모습(1970)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70년대



◀낙동로(1970)

괴정동 모습(1970)▶





◀당리천 모습(1970)



채취한 재첩을 고르며 씻고 있는 모습(1978)



홍티 마을 어민들이 김을 말리고 있는 모습(1970)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70년대



하단동 전경(1971)



신평 정책이주지 모습(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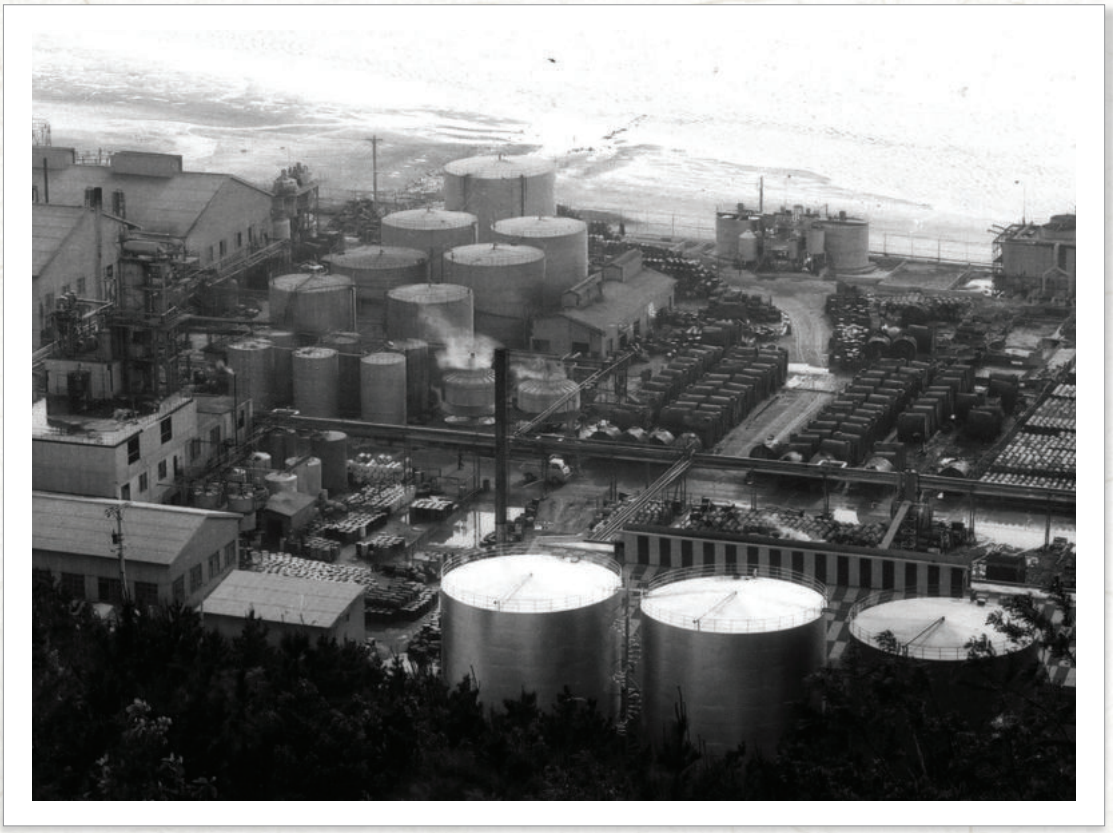
하단선착장(1978)



울숙도 구름다리(1979)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70년대



비누를 제조하던 동산유지 공장 모습(1979)



낙동강변의 침수 모습(1979)

사하구 향토지 최종_1장~8장 12. 2. 29. 오후 12:41 페이지 19



재첩국을 팔기 위해 차를 기다리는 모습(1980)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80년대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강변대로 연결 공사 전의 모습(1980년대 말)



괴정천 복개 전의 모습(1980년대)



괴정사거리(1980년대 말)



신평·장림산업단지 주변 모습(1986)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80년대



다대5지구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기 전의 다대1동 모습(1980년대 말)



사하초등학교(1980년)

1990년대



중소조선지방산업단지(1999년)



괴정천 복개 후 모습(1999년)



강변대로(1999)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



낙동강하구둑 상류(1999년)



낙동강하구둑 하류(1999년)

1990년대





괴정사거리(1999년)



낙동대로(1999년)

사하의 어제와 오늘

1990년대



대티터널(1999년)



하구둑 다리(1999년)



사하초등학교 뒤 산복도로 개설 모습(1990년대 초)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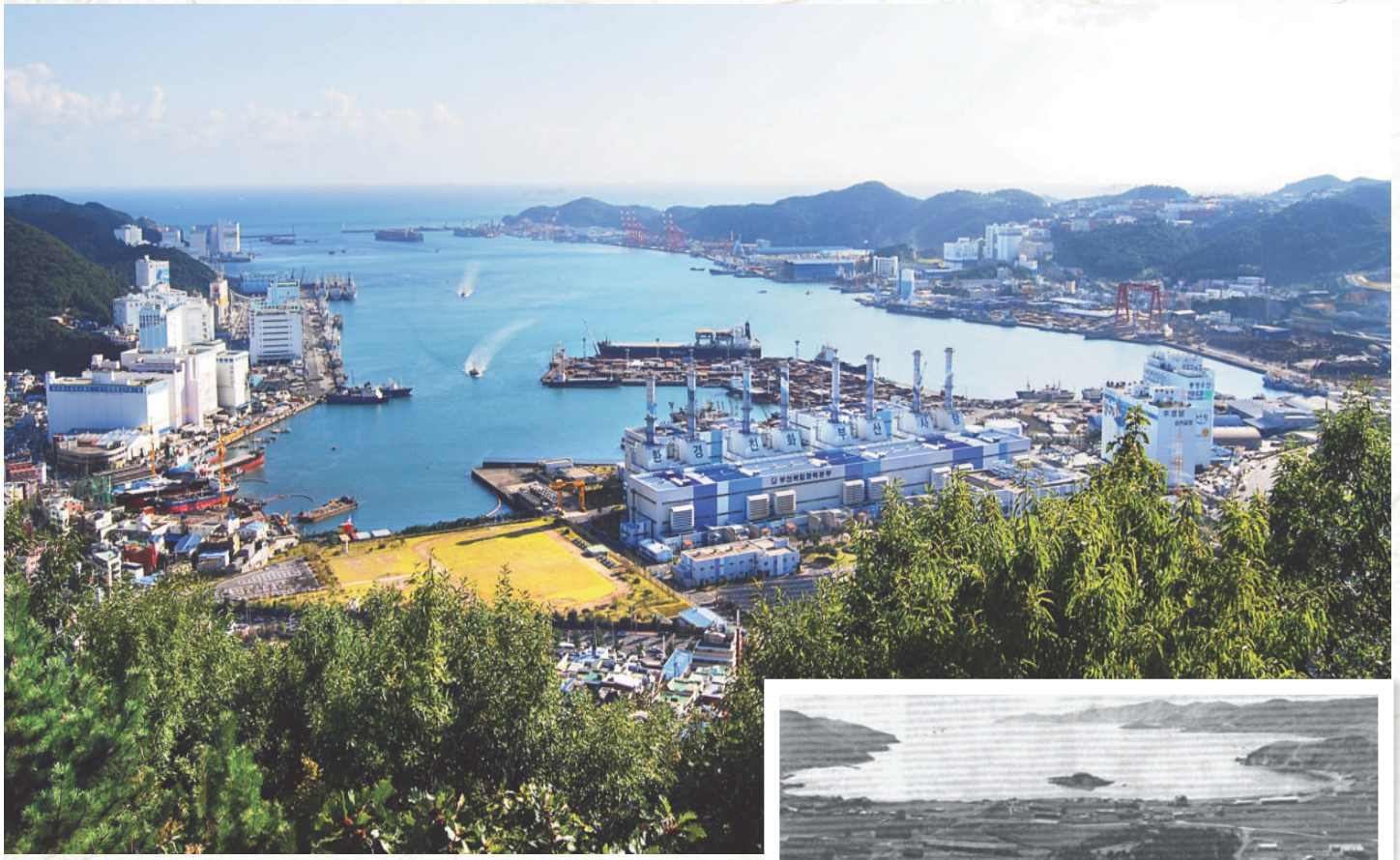
동산유지 전경(1990년 초)



하단선착장(1999년)

사하의 어제와 오늘

2000년 이후





감천항 전경



2000년 이후





하단오거리 전경



신평·장림산업단지

사하의 어제와 오늘

2000년 이후



몰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전경



을숙도문화회관 전경

2000년 이후





낙동강하구둑 야경



괴정사거리



사하의 어제와 오늘

2000년 이후





감천동 문화마을 전경





강변대로

사하구 향토지 최종_1장~8장 12. 2. 29. 오후 12:42 페이지 33





응봉봉수대 복원 후의 모습





에덴공원 전경

문화와 관광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고니



을숙도 하단부의 갈대와 철새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을숙도의 새모고랑이 습지와 갈대 습지



오리

문화와 관광

꿈의 낙조분수











꿈의 낙조분수









문화와 관광

다대포해수욕장과 해양레포츠











다대포해수욕장과 해양레포츠















문화와 관광

을숙도 문화회관 조각공원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와 생태공원







철새탐조대



에코센터에 조성된 보리밭

문화와 관광

낙동강 야미산전망대









승학산 사계절



봄



가을



여름



겨울



승학산 등반 모습

문화와 관광

감천 문화마을





감천 문화마을



감천 문화마을











문화와 관광

몰운대



몰운대 전경



몰운대 자갈마당

몰운대



몰운대에서 본 쥐섬



몰운대 안에 위치한 다대포객사



몰운대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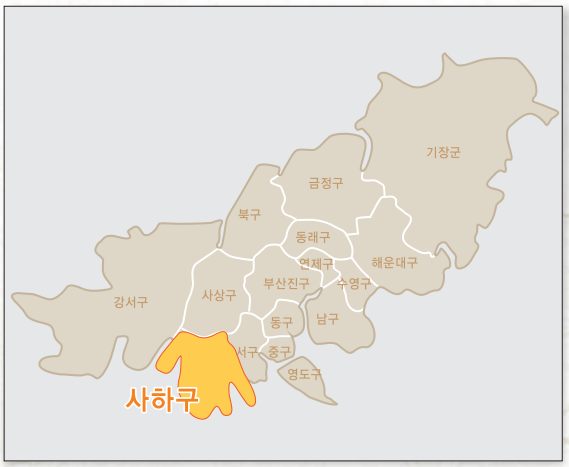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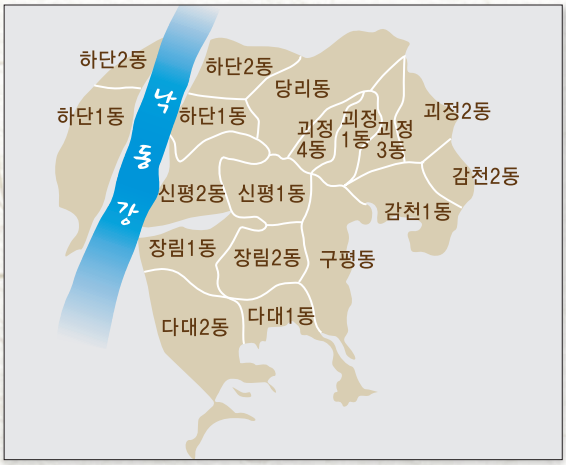
몰운대 안에 위치한 정운 순의비



몰운대 산책로

사하구의 행정구역 –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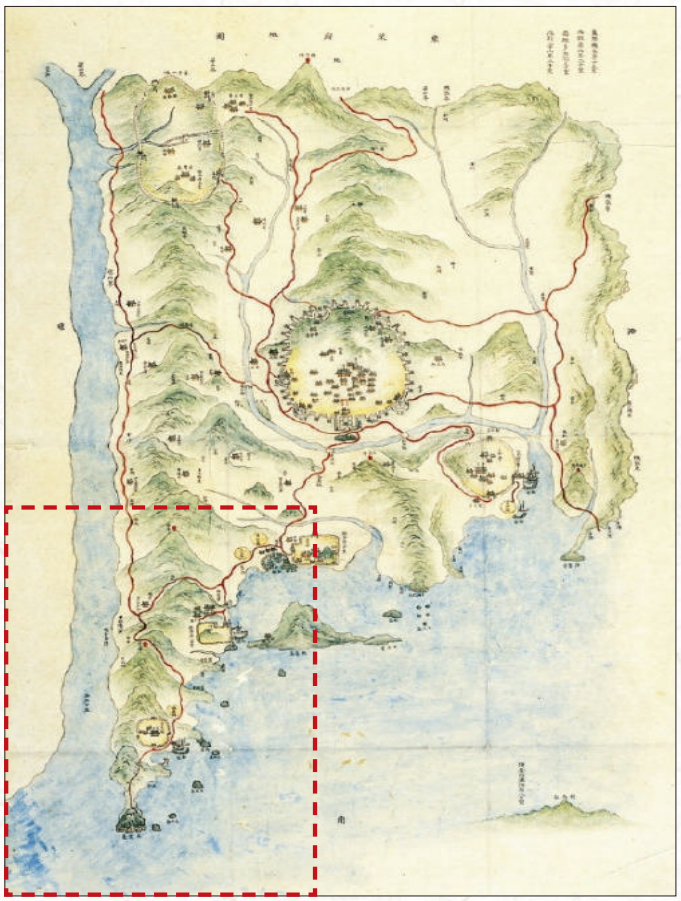








1872년 군현지도의 동래부 서평진 지도



1872년 군현지도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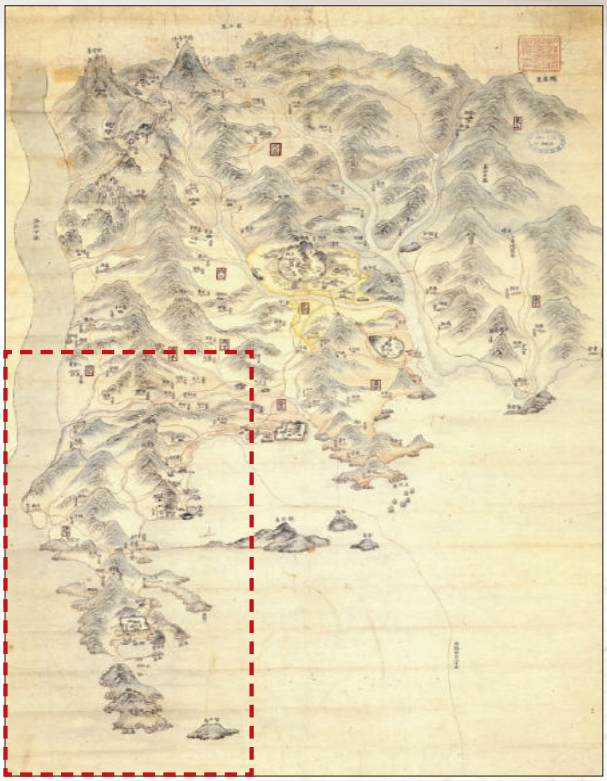


1872년 군현지도의 동래부 다대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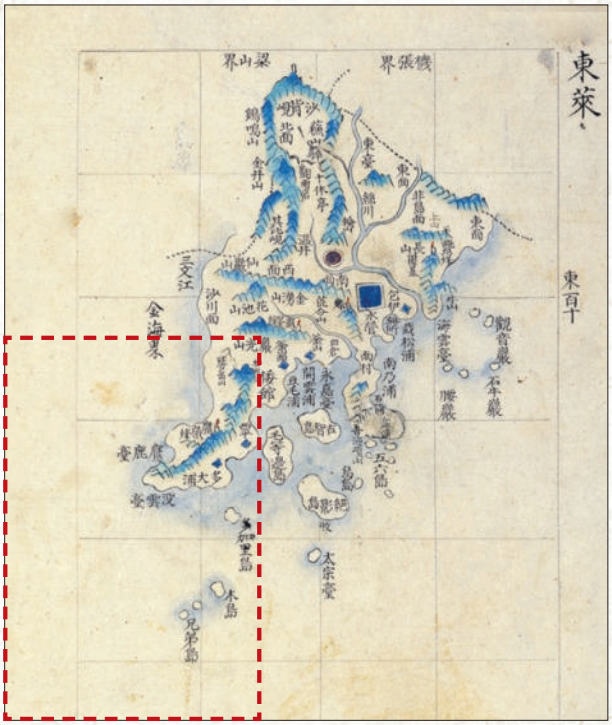
사하구의 행정구역 – 고지도



여지도(1736~76)에 보이는 사하구 부분



동래부산고지도(19세기 후반) 가운데 사하구 부분



동국지도(18세기 중엽)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부분

사하구의 행정구역 –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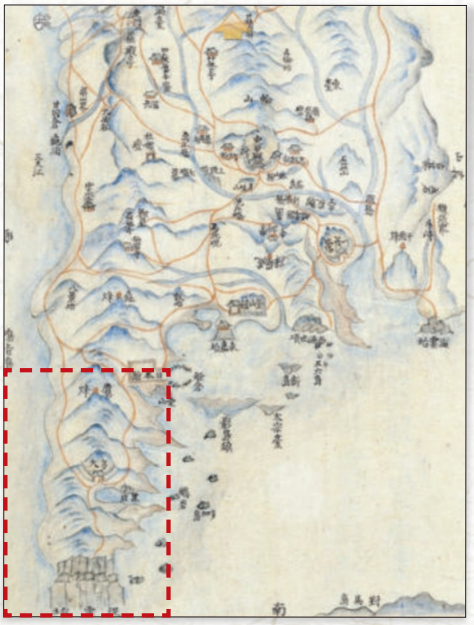
영남도(18세기 중엽)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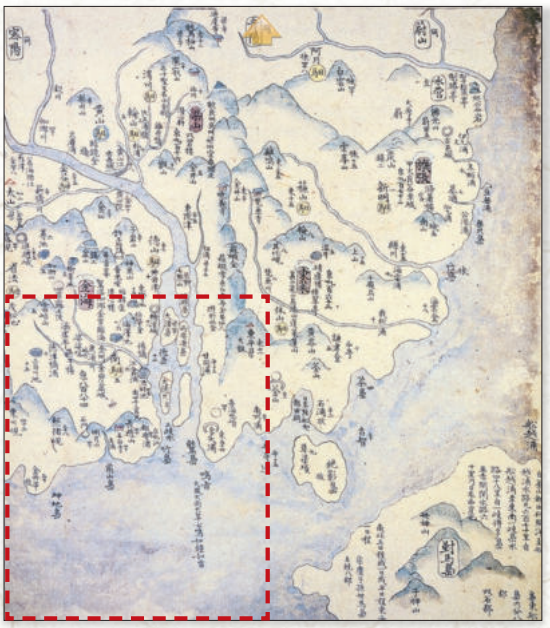
경주도회좌통지도(18세기 중엽)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부분



각읍지도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부분



영남읍지(1894년)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부분



동여비고(1682년경)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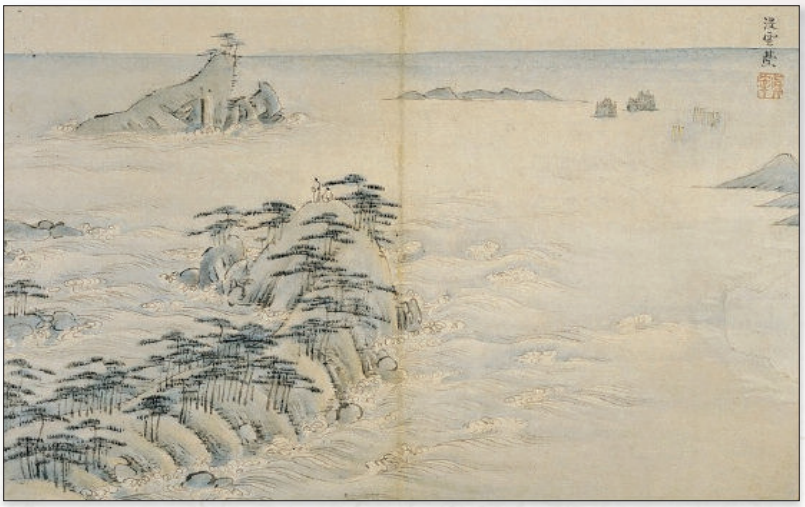
사하구의 행정구역 –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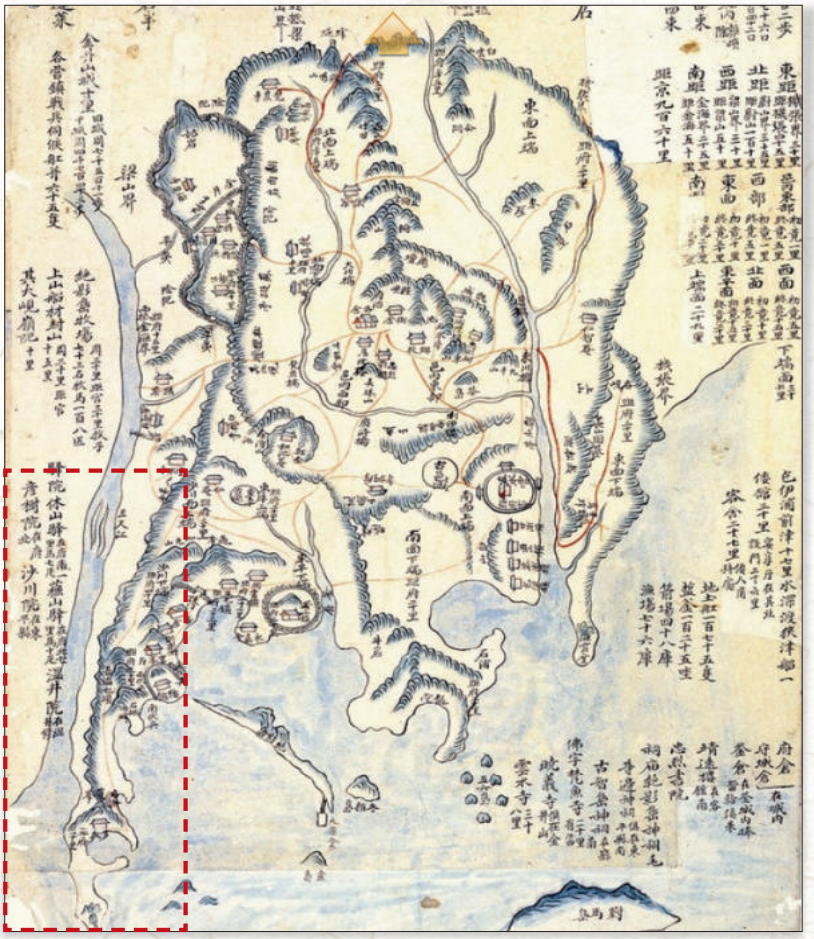
경상도 명승도(조선 후기) 가운데
여섯 번째 그림 몰운대 부분



임진전란도(1834년). 왼쪽 아랫부분이 다대진전투 모습



김윤겸의 진재화집(18세기 초) 속에 그려진 몰운대 모습



해동지도(18세기 중엽)의 동래부 가운데 사하구 모습

사하구 향토지 최종_1장~8장 12. 2. 29. 오후 12:42 페이지 56

목차

제1장 역사 59
1. 선사시대 60
2. 고대 69
3. 중세 87
4. 근현대 106

제2장 삶의 지리적인 환경 143
1. 자연과 삶 – 자연지리 145
2. 지리와 삶의 공간 159

제3장 행정 173
1. 행정 조직 174
2. 동의 유래와 역사 187
3. 사회복지와 문화의 현황 220

제4장 문화유산과 관광 229
1. 국가 지정 문화재 230
2. 시 지정 문화재 231
3. 유적지 245
4. 박물관 258
5. 금석문 260
6. 관광자원 276

사하구 향토지 최종_1장~8장 12. 2. 29. 오후 12:42 페이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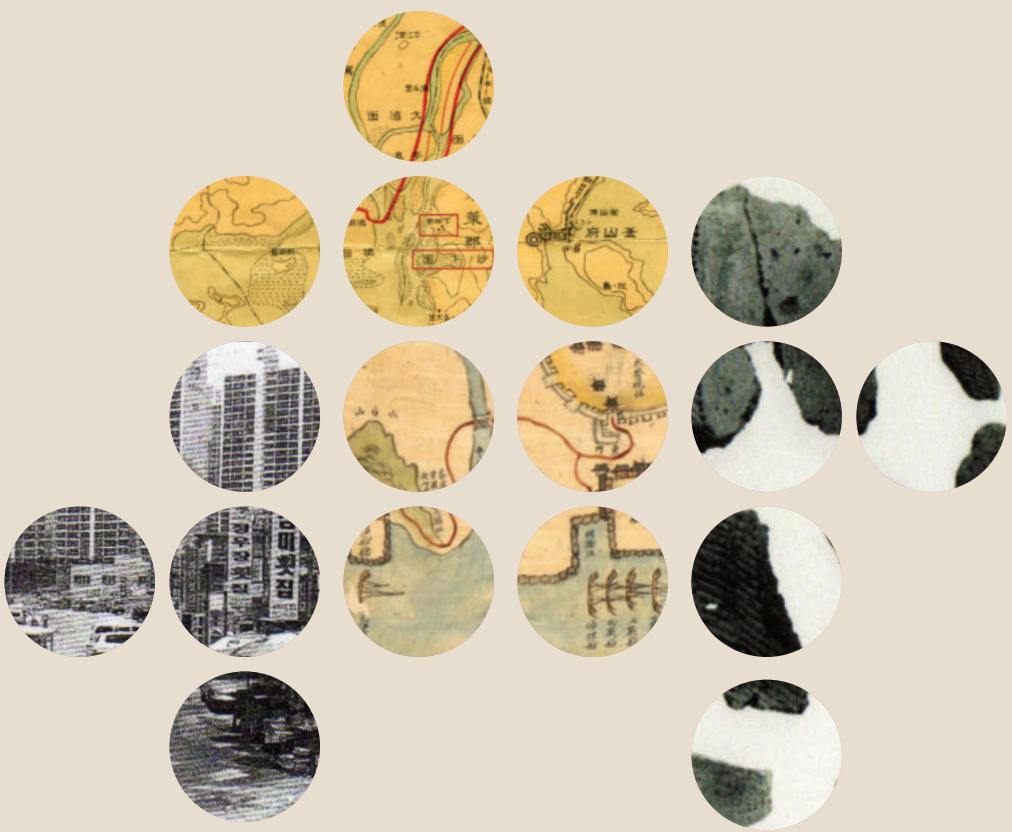
제5장 성씨와 인물 289
1. 성씨 290
2. 인물 297

제6장 경제와 산업 329
1. 경제개발과 함께 한 부산의 산업기지 330
2. 개발의 시작 – 공유수면 매립 335
3. 기반시설 확충 339
4. 공업단지 조성 354
5. 산업의 전개 362

제7장 교육과 종교 379
1. 교육 380
2. 종교 410

제8장 민속문화 439
1. 당산신앙 440
2. 구비문학 457
3. 사하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481

【참고문헌】 483



제1장
역 사

1. 선사시대
2. 고대
3. 중세
4. 근현대

제1장 역사

1.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것은 1천만년 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때는 인간과 원숭이가 분리되기 이전이라고 한다. 약 200만년 전 무렵부터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생물학적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과 비슷한 여러 생물학적 개체 중에서 인류라는 존재로 진화하게 된 요인은 언어의 사용과 언어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였는데, 지금도 인류는 언어와 학습을 이용한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선사시대에는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이어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한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고, 그 이전의 시대는 역사 이전이라는 의미의 선사(先史)시대라고 한다.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의 역사는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복원되고 있다. 고고학상으로 인류의 역사는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역사도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함경북도 종성의 동관진 유적이 보고되었지만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가 있었다. 그 당시의 조사와 연구는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석기시대의 것임이 확실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조사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다. 즉 1962년에는 함경북도 웅기의 굴포리에서, 1964년에는 충청남도 공주의 석장리에서 각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 상당히 많은 유적이 조사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를 전기·중기·후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전기 구석기시대는 적어도 50만년 전부터로, 중기 구석기시대는 8만년전 전후로, 후기 구석기시대는 약 2만년 전으로 보고 있다. 조사보고에 따르면 구석기시

대의 유적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구석기인은 비록 수가 적었지만 전국 각지에 널리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석기인이 진화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은 불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낮 시간뿐 아니라 밤까지 활동시간을 늘리고, 익힌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화의 부담을 줄여 두뇌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구석기인은 점차 지혜롭게 되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향상시켜 나갔다.

사하가 속해 있던 부산 지역에서는 좌동유적·중동유적·청사포유적 등 해운대 지역과 금정구 노포동유적 등의 여러 곳에서 구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조사되었다. 이 지역에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약 2만 5천년 전 무렵에 구석기인이 살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구석기인들은 한반도 안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강변의 낮은 언덕 위에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사냥·채집·어로 등으로 식생활을 꾸려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도구는 대개 나무나 돌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습되는 유물은 대부분 석기류인데, 초기에는 막돌을 적당히 떼어내 날을 세운 뗀석기들이었으나 점차 정교해져서 중석기시대에 이르면 더욱 날카로운 잔석기[細石器]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사하 지역에서는 아직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곳에서 구석기시대인이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거주했다면 그 성격은 해운대 지역의 구석기 유적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하 지역은 해운대 지역 구석기시대인들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과 동일한 생활권역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신석기시대

(1) 개관

구석기시대에 있었던 빙하기가 끝나고 따뜻한 환경으로 변하면서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다. 구석기시대의 표지(標識) 유물은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인데, 신석기시대는 석기의 제작 기술이 발달하여 돌을 깨고 주요 부위를 갈아 만드는 간석기[磨製石器]가 나타났다. 구석기시대의 발명이 불이라면, 신석기시대의 발명은 토기이다. 그 이전에도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지만, 부패하거나 작은 동물과 곤충에 의해 식량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흙을 빚어 만드는 토기는 밀폐된 저장수단으로 식량을 안심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간석기 및 토기의 제작 방법과 용도에 기준하여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한다.

신석기시대의 전기는 원시민무늬토기[原始無文土器]와 돋을무늬토기[隆起文土器]·덧띠토기[粘土帶土器]를 사용하던 시기이다. 이들 토기는 함북 웅기 굴포리유적·부산 영도 동삼동조개무지·경남 통영 상노대도유적 등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의 맨 밑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신석기 전기의 상한 연대는 대략 기원전 6000년 무렵에서 기원전 8000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중기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를 주로 사용하던 시기이다. 신석기시대의 후기는 대략 기원전 2,000년 무렵부터 만주 칠무늬토기[彩文土器]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타났다. 이때 빗살무늬토기의 바닥이 납작하게 되고, 물결무늬와 번개무늬의 문양이 있는 토기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문화의 유적으로는 함북 청진 농포동유적, 강원도 춘천 교동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토기의 변화를 통하여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세 차례의 큰 변화를 겪었던 셈이다. 현재 신석기인, 특히 빗살무늬토기인을 대체로 고아시아족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과는 다른 계통의 인종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파상적인 이동을 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석기인과는 달리 이들 신석기인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어 한민족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들 집단은 서로 융합되고 또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나 서로 결합되어 한민족 집단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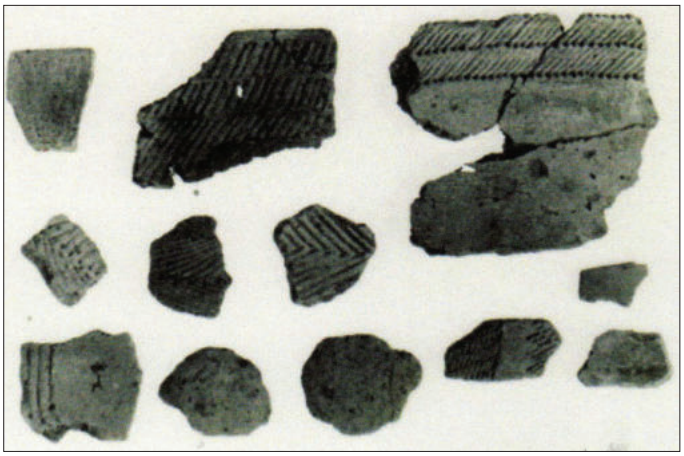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바닷가나 강가에서 주로 땅을 파고 만든 움집에서 무리지어 살았다. 주로 바다나 강 등의 물가에서 살았던 신석기인은 식생활을 고기잡이나 식량 채집에 크게 의존하였다. 작살이나 낚시로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으며, 또 흔히 발견되는 구운 흙이나 돌로 만든 그물추는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잡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패총(貝塚) 즉 조개무지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굴이나 조개 등을 채집해 먹기도 하였던 것이다.

(2) 부산 지방과 사하 지역의 신석기 문화

바다와 낙동강에 인접해 있는 부산 지역은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가 많이 남아 있다. 바닷가에 있는 조개무지의 경우 영도구의 조도·동삼동·영선동과 사하구의 다대동, 강서구의 가덕도 등지에 조개무지[貝塚]가 분포되어 있고, 강가에 남아 있는 유적으로는 북구 금곡동 율리, 강서구 범방동·강동동 북정리, 그리고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등지의 조개무지가

있다.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볼 때 부산 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이른 시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시기적인 공백없이 신석기 문화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 조개무지는 신석기시대를 비롯하여 삼한시대 및 가야시대의 유적이다. 유적의 층위는 네 개의 문화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제3문화층에서 신석기시대의 돋을무늬토기·빗살무늬토기·붉은간토기[丹塗磨硏土器]·흑요석·겹아가리[二重口緣] 토기의 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나 실연대로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기원전 2,000년 후반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적은 남해안 신석기시대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 특징은 농경보다는 어로나 채집으로 식량을 확보한 것이다. 즉 남해안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여 물산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도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곡식을 채집하는 등 식량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하구에도 다대포 조개무지가 있었던 사실에서 보듯이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사하구는 낙동강 하구 유역의 율리·범방동·북정리 등과 매우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신석기인이 상당히 많았으며 지역간의 교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흑요석제 유물의 발견은 일본열도의 규슈[九州]와의 교류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대포 조개무지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유물들



다대포 조개무지가 있었던 곳

3) 청동기시대

(1) 개관

신석기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대륙 초원지대에서 발생한 북방의 청동기문화가 만주와 몽고지방을 거쳐 한반도에 이르게 되었다. 청동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12세기 무렵의 일로 연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는 대개 기원전 4세기 무렵까지 계속되다가 철기시대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 시기의 청동기문화는 만주의 송화강과 요하유역으로부터 한반도에 걸쳐서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때에 사용된 요녕식동검(遼寧式銅劍)인 비파형동검과 다뉴조문경(多鈕粗紋鏡)은 대체로 만주 지역에 한정되어 출토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그 다음 단계의 청동기인 세형동검(細形銅劍) 즉 한국식동검이 제작 사용되었다. 이 시기에 함께 사용된 토기는 민무늬토기[無文土器]였는데, 한반도에서도 신석기 후기부터 빗살무늬토기가 민무늬토기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인 고인돌[支石墓] 또한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청동기인의 활동무대는 남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있었다고 하겠다.

바닷가나 강가에 살면서 채집이나 어로를 주로 하던 신석기인과는 달리, 청동기인의 삶의 흔적인 유적은 주로 산을 등지고 강을 따라 펼쳐진 평야를 앞에 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언덕진 구릉지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인은 구릉지대의 생활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청동기인의 식생활이 농경에 크게 힘입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1천년 무렵 한반도를 둘러싼 자연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고 기온이 내려가는 기후 변화를 맞이하여 풍부한 식량자원이 부족하게 되자 남해안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동기인들은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는, 이른바 생산경제의 단계로 변화하였으며, 인구도 증가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주식인 쌀도 이때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증거는 반달돌칼[半月形石刀]이나 홈자귀[有溝石斧]를 사용한 사실로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매장하는 본격적인 매장시설이 등장하는 것도 신석기시대와 다르다. 인류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행위가 나타난 것은 구석기 후기부터라고 한다. 신석기시대에는 여러 가지 신앙이 발전함에 따라 일정한 의식을 갖추고 장례의식을 치르고, 땅을 파서 직육면체의 구덩이를 만들어 시신을 묻었다. 청

동기인은 신석기인보다 돌을 다루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무덤도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돌로 만들었다. 고인돌이나 돌널무덤[石棺墓]과 같은 무덤은 청동기시대의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며, 독무덤[甕棺墓]과 널무덤[木棺墓 혹은 土壙墓]도 차례로 나타나 앞서의 무덤과 함께 이용되었다.

청동기시대라고 하여도 청동제 유물의 출토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한 도구는 석기와 목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만드는데, 우리나라 청동기는 주석보다 아연과 납을 많이 합금하였다. 그것은 주석의 원료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합금하거나 주조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비파형동검이나 다뉴조문경과 같은 청동기는 당시 일부 특수층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 청동기의 소유자는 소수의 권력자였으며, 청동기는 그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이는 고인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고인돌은 한 사람의 시체를 묻는 개인묘였다. 때로는 그 길이가 9m, 무게가 70t에 이르는 거대한 덮개돌[支石]을 얹은 고인돌이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평등한 공동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권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를 권위의 상징물로 소유하고 고인돌에 묻힐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자는 이전부터 공동체의 구성원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이끌어 왔다. 그들은 아마도 신석기시대 씨족장의 후예로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자였을 것이다.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생산기술이 발달하여 식량의 확보가 유리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공동체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여러 개의 생산단위체로 분화되었으나, 사회단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통합되어 부족 규모의 운명공동체로 커져갔다. 부족집단 내부에 분화되어 있었던 생산단위체는 대가족 규모의 집단이었고 이를 운영하는 자는 연장자로서 소위 가부장(家父長)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 지배자로 등장한 그들은 우수한 기술로 농기구에 의한 생산물을 더욱 많이 거둬들이고, 또 지역간의 교류를 통해 얻은 고급 물품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자는 나지막한 구릉 위에 토성(土城)이나 목책(木柵)을 만들고 스스로를 방위하면서 그 바깥 평야에서 농경에 종사하는 일반민을 지배해 나가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치적 단위체는 부족사회의 뒤를 이은 군장사회(君長社會)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문헌기록에는 나라, 즉 국(國)이라고 불렀다. 이 군장사회는 한국에서의 최초의 국가였으며, 한국에서의 국가 기원은 군장사회로부터 잡아야 할 것이다.

(2) 부산 지방과 사하 지역의 청동기 문화

지리적으로 바다와 접하고 낙동강 하류에 임해 있는 부산은 평지가 적고 산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환경조건은 바닷가나 강에서 어로를 주로 하는 신석기인에게는 편리했지만 들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에는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부산 지방에서도 농기구, 민무늬토기와 간석기 등 각종 도구의 사용, 고인돌과 돌널무덤과 같은 묘제(墓制)의 등장, 청동기의 사용 등과 같은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뒷받침해주는 유구와 유물이 대부분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에 비해 청동기유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부산 지방에서도 신석기 문화에 이어 곧바로 청동기 문화가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시작된 벼농사는 대동강과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 지방에서 점차 남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부산 지방에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수영강변인 두구동·노포동·금사동·반여동 일대와 온천천변인 부곡동·온천동·사직동·거제동 연산동 일대의 낮은 지역에는 소규모이지만 벼농사가 일반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집은 땅을 파서 만든 반지하식의 움집이 기본이다. 움집의 평면 형태는 중부이북 지방의 경우에는 대개 장방형이다. 이에 비해 중부이남 지방에서는 장방형과 방형 외에도 원형 평면의 집이 많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부 지역도 처음에는 북쪽 지방과 마찬가지로 장방형이나 방형 주거지였는데, 점차 방형으로 변한 것 같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움집은 크기가 15~18㎡ 정도로, 거주 인원은 4~5인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울주 검단리유적은 취락(聚落) 전체를 방어하는 시설물이 만들어져 있는 환호(環濠) 마을유적인데, 한 시기에 약 30기 정도의 집터가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마을 전체의 인구는 120~15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움집과 취락생활은 부산 지방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 온천동에서도 최근 청동기시대의 환호가 발견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부산의 고인돌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대개 남방식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하구의 감천동과 동래구 온천동의 고인돌을 들 수 있다. 돌널무덤은 청동기시대 이후 시베리아를 비롯하여 중국의 동북 지방과 한반도,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 일원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묘제인데, 부산 지방에서는 두구동·괴정동·사직동·대신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동기 후기가 되면 철기유물이 새로이 전래되고 널무덤[木棺墓]과 독무덤[甕棺墓] 등의 새로운 무덤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부산 지방에서는 동래구 낙민동에서 독무덤이 조사된 바 있고, 널무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동래구와 금정구에서 출토된 간석기류와 영도구 조도와 동래구 복천동 내성유적에서 확인된 세형동검의 출현을 알리는 삼각형점토대토기(三角形粘土帶土器) 등도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유물로서 주목된다. 그리고 생활 습속으로는 조도 조개무지에서 나온 인골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년이 되면 앞니를 뽑는 발치(拔齒) 습속이 있었다. 그리고 뱃길을 이용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일본과도 왕래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야요이[弥生]식 토기편이 조도 조개무지, 복천동 내성유적에서 나타나고, 이곳과 같은 형태의 고인돌·민무늬토기·간석기 등이 일본 규슈[九州] 지방에서도 발견된다.

이상 언급한 것들로 미루어 부산 지방의 청동기문화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문화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또 이 지역에서 신석기시대에 이어 청동기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부산 지방의 청동기인들은 북구 금곡동, 사하구 다대동과 같은 낙동강 유역에도 살았지만, 주로 감천동·괴정동·대신동·두구동·노포동·반여동·장전동·사직동·범전동 등과 같이 좁은 지역의 하천 유역에서 살면서 농경과 어로활동을 병행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짐작된다.

사하구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있으므로, 사하 지역에도 청동기인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유적은 괴정1·2동 유적과 감천동 고인돌이 있다. 현재는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져버렸지만, 조사 당시의 보고서가 있어 사하구의 청동기 사회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감천동 고인돌

먼저 괴정2동 유적은 1964년 감천동의 부산화력발전소 배후도로 확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의 돌널무덤[石棺墓]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붉은간토기[丹塗磨硏土器]와 간돌칼[磨製石劍] 각각 1점, 간돌화살촉[磨製石鏃] 5점이 출토되었다. 괴정1동 유적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모두 파괴되었으나,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항아리모양 민무늬토기[壺形無文土器]가 출토되었다. 괴정1동 유적과 괴정2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 추정되며, 괴정2동 고인돌을 축조했던 사람들이 괴정1동의 주거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천동 유적에서는 고인돌이 6기가 발견되었다. 1964년 부산화력발전소 배후도로 확장공사와 도시화로 인해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바둑판식 고인돌 및 개석식(蓋石式)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남방식 고인돌에 해당된다. 도로공사 도중에 발견된 간돌칼, 즉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자루에 홈이나 단(段)이 없는 일단병식석검(一段柄式石劍)과, 자루 중간에 단이 져 있는 이단병식석검(二段柄式石劍)으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 후기의 유적이다. 감천동 고인돌은 부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고인돌 군(群)을 이룬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덕도 두문 고인돌과 해안 입지의 고인돌이라는 점에서 부산 지역 고인돌의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모르는 사이에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파손되어 3개의 유적밖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하구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부족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구릉지대에 움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농경도 했을 것이지만, 사하구 지역이 낙동강 하구와 바다에 연해 있는 관계로 어로에 더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천동 고인돌이 부산에서 볼 수 있는 해안 입지의 남해안식 고인돌이라는 점은 어업과 관련된 집단의 지배자로 볼 수 있으므로, 해양도시 부산의 전통적인 경제생활과 역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거주지가 낙동강과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과 교역도 쉽게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사하구 지역의 교통지리적 특성상 그들은 부산 지방의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일본과도 교류를 했을 것이다. 그러한 전통은 고대의 삼한시대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 고대

1) 삼한시대

(1) 개관

삼한시대를 토기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는 민무늬토기가 발전된 삼각형점토대토기시대, 후기는 와질토기(瓦質土器)시대로 나눌 수 있다. 삼한시대 전기는 초기철기시대로 부르고 있듯이 처음부터 철기문화를 체험하고 있었다. 현재 삼한시대 초기의 철기가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예는 없다. 점차 시간에 지남에 따라 철 생산과 철기의 보급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그것은 우선 이 무렵 토기문화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반도 중부의 괴정식토기가 경남 남해안의 늑도식토기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직접적 원인은 기원전 2세기 초 고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나 중국에서 망명해온 위만(衛滿)에게 왕위를 빼앗긴 준왕(準王)이 남천(南遷; 한반도 남부지역으로의 이주)한 이후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준왕 집단의 남하는 토기문화뿐만 아니라 철의 생산과 철기의 보급에도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당시의 고조선이 중국 연(燕)나라와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고조선이 연나라와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교류가 있었다.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이 고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도 연나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연나라는 철기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의 철기문화가 전국시대 연나라 계통이라고 보는 학계의 정설도 바로 이러한 교류의 사실에서 나온 것이다. 고조선을 통한 중국 계통의 철기문화는 육로로 바다로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경남 부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문헌 기록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의 시조 혁거세(赫居世) 거서간(居西干)의 탄생신화, 즉 신라 건국신화에 의하면, "혁거세가 국왕으로 추대되기 전에 고조선의 유민들이 영남 지역의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조선 주민의 이주로 인해 영남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토기문화와 철기문화를 본질로 하는 삼한시대 전기의 묘제(墓制)는 어떠하였을까. 청동

기시대의 고인돌은 이때 거의 소멸하였고, 널무덤[木棺墓]이 주된 묘제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덤을 만드는 방법이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무덤이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무리를 지어 군집(群集)을 이루더라도 삼한시대 후반보다 군집 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초기에 출현한 널무덤의 군집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해 갔다. 이때부터 묘역(墓域)은 생활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특정 지역에 형성되었다. 삼한시대 전기의 문화내용은 사하 인근의 김해나 부산 지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사하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삼한시대의 후기는 토기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와질토기(瓦質土器)시대이다. 삼한사회의 여러 나라들은 중국 한(漢)의 변방 군현인 낙랑군과 교류를 빈번하게 행하였는데, 정치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토기나 금속의 제작 기술 등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었다. 삼한시대 후기의 초반에 영남지방에서는 와질토기가 등장하는데, 이 토기는 종래의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기반 위에 낙랑의 토기제작기술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주로 분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부장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와질토기가 처음 나타난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창원 다호리 1호 널무덤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와질토기가 기원전 1세기의 중국 거울인 성운경(星雲鏡)과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추측할 수 있다. 사하를 포함한 부산 지역에서 발굴된 이 시기의 토기로서는 구서동 출토품이 유일하다. 급격한 도시화로 훼손되었지만, 구서동 유적은 분묘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한시대 후기 전반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창원 다호리·경주 조양동·김해 양동리·김해 대성동 등지의 분묘군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에 의하면 이 시기의 주된 묘제는 널무덤이었다. 이 널무덤들은 세형동검(細形銅劍)들이 부장된 삼한시대 전기의 널무덤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사하를 포함한 부산 지역에서는 삼한시대 후기 전반대의 널무덤이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 이 시기의 토기 자료가 수습된 구서동 유적이 분묘군으로 짐작되지만, 정식 발굴조사도 아니며 그 유적도 소멸되었다. 그리고 변한(弁韓) 독로국(瀆盧國)의 중심집단 묘역이 동래 복천동 고분군 주변의 평지로 여겨지지만, 오랫동안의 개발로 거의 파괴된 것이 확실하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분묘유적은 존재했겠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멸되었을 것이다. 사하를 포함한 부산 지역의 삼한시대 후기 전반대의 묘제는 위에서 언급한 영남 지방의 다른 지역 묘제와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시대 후기 후반대에 들어서면 후기 전반대에 성립된 와질토기가 크게 변한다. 먼저 전반대 와질토기의 하나인 소형옹(小形甕)이 사라지는 대신 화로모양토기[爐形土器]가 새

롭게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후반대 와질토기시대의 후반에는 굽다리접시[高杯]도 등장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후반대 와질토기가 전반대의 와질토기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또 다른 중국 토기문화의 영향에 의한 부산물로 간주된다. 후반대 와질토기가 출현한 상한연대는 서기 180년 정도이다. 이는 김해 양동리 유적의 부장품인 중국거울의 제작연도로 알 수 있다. 독로국의 중심지로서 국읍(國邑)인 동래 지역에서 후반대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곳은 노포동 분묘군이다.

삼한시대 후기 후반대의 대표적 묘제는 덧널무덤[木槨墓]이다. 관(棺)은 시신을 묻기 위해 만든 시설이지만 곽(槨)은 부장품이 들어가는 매장시설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에 따라 그 규모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와 더불어 유력자와 일반인의 묘역(墓域)이 뚜렷이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유력자의 무덤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고리자루큰칼[環頭大刀]과 같은 부장품이 출토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 시기의 엄격한 계층적 정치질서를 살펴볼 수 있다.

독로국의 중심집단의 무덤들은 복천동 고분군이 있는 구릉의 아래쪽 주변 주택가나 동래시장통 등에 조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찾아볼 길이 없으므로 독로국의 정확한 실상은 알 수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덧널무덤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독로국은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과 급격한 내부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변한과 진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변한 독로국과 사하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고고학적 유산을 가진 삼한시대, 특히 사하 지역이 속해 있던 변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3세기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 이하 『위지동이전』)을 통하여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데, 다음의 기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 변진(弁辰)도 12개국으로 되어 있다. 또 여러 작은 별읍(別邑)이 있으며 각기 거수(渠帥)가 있다. 세력이 큰 지배자는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험측(險側)이 있고, 다음에는 번예(樊穢)가 있고, 다음에는 살해(殺奚)가 있고, 다음에는 읍차(邑借)가 있다. 이저국(伊抵國) · 비사국(不斯國) · 변진(弁辰)미리미동국(彌離彌凍國) · 변진(弁辰)구야국(狗邪國) 변진(弁辰)독로국(瀆盧國) 등의 나라가 있는데, 변한과 진한의 합계가 24국이나 된다. 대국은 4~5천 가(家)이며, 소국은 6~7백 가로, 총 4~5만 호(戶)이다. 그 중에서 변한의 12국은 진왕(辰王)에게 속해 있

다. 진왕은 항상 마한 사람으로 왕을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으며, 진왕은 자립하여 왕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들의 풍속에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서로 길을 양보한다. 12국에도 왕이 있으며 그 사람들의 형체는 모두 장대하다. 법규와 관습은 특히 준엄하다(『위지동이전』 변진전(弁辰傳)).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는 마한·진한·변한의 삼한이 있었는데, 모두 78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다. 마한에는 54개 나라가 있었고, 변한과 진한은 각각 12개의 나라가 있었다. 변한과 진한은 현재의 경상도 지역에 위치하는데, 그것을 지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변한과 진한의 나라들의 위치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진왕(辰王)은 목지국(目支國)을 다스린다. 신지(臣智) 가운데 어떤 자는 우대하는 호칭으로서 신운견지보(臣雲遣支報)·안야축지(安邪踧支)·분신리아불례(濆臣離兒不例)·구야진지렴(拘邪秦支廉)의 칭호를 더하여 부른다.'고 하였는데, 당시 삼한은 6개의 지역권을 이루어 낙랑군·대방군(帶方郡)과 교섭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우대하는 칭호는 이들 지역권의 대표자에게 붙은 칭호로서 변한에도 안야국과 구야국이 유력한 나라로 존재하였다. 안야국은 경남 남해안의 교섭대표자이고 구야국은 낙동강 유역의 교섭대표자였다. 구야국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며 완만한 흐름을 이루는 낙동강을 이용하여

그 유역에 연하여 있는 변한·진한의 여러 나라와 교역을 전개하는 한편, 낙동강 유역을 대표하여 낙랑군 등 중국 군현과의 교섭을 주도하였다. 변한의 12개 나라에는 모두 왕이 있었다는 기사를 통해서 볼 때, 변한의 각 소국은 독자적인 정치단위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한의 나라들은 그 조직의 결속력이 고대국가와 같이 견고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변한과 진한에 존재한 작은 별읍은 소국의 일부로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개별 읍락을 가리킨다. 별읍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사회적 구성이나 조직원리의 측면에서는 일반 읍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읍락의 일반적인 규모는 위의 기사로 볼 때, 5백 호 이상 1천 호 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집단이라면 단일한 자연촌락이 아니라 다수의 취락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변한의 나라는 중심 읍락으로서의 국읍과 여러 읍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국의 지배자로 국읍에 있었던 주수(主帥 : 군장(君長) 즉 임금)는 당시까지는 소속 읍락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중앙집권적이지 못하고 분권적인 상황에 있었다. 그러므로 읍락은 여러 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거수(渠帥)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독자적인 정치단위체였으며,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지방통치의 기본단위인 촌(村; 행정촌, 후대의 현(縣))로 되었다. 각국의 주수는 주수끼리 서로 연계하여 대외교섭을 행하고 물자와 기술을 확보하여 권력을 상징하는 위세품을 읍락의 지배층에게 하사하여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권력의 수수관계(授受關係)를 통해 결속을 다져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였다.

변한에 속한 나라 가운데 독로국은 부산 지역으로 비정되는 나라였다. 구야국이 낙랑군·대방군과의 교섭을 주도한 반면에, 한반도 동남해안에 위치한 독로국은 일본열도의 왜와도 교섭이 활발하였다. 즉 낙동강하류역의 구야국과 독로국은 중국 군현이나 일본열도 왜와 교섭을 전개하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하 지역은 그 위치로 보아 변한 12개국 가운데 부산의 독로국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삼한시대에 사하에 거주한 사람들은 삼한시대의 토기·묘제문화를 공유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다른 삼한 지역과 동일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어 마한·동예·일본열도의 왜가 철을 사갔다고 하며 낙랑군과 대방군에도 수출하였다고 한다. 변한의 경우 철 자원의 개발, 철제 농기구를 통한 농업생산력의 증대 등으로 각지의 정치집단들 사이에 교역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여러 읍락을 대표하여 국읍의 우두머리가 모든 교역활동을 주관한 것이다. 국읍을 중심으로 하는 지

배체제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집단 사이의 무력 항쟁과 이에 대한 공동방어, 그리고 소도(蘇塗)에서 거행되는 초읍락적인 제천의식 등의 군사적·종교적 목적에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위의『위지동이전』기록에 의하면, 변한과 진한의 24개국 가운데 변한의 12국이 마한 목지국(目支國)의 지배자인 진왕(辰王)에게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며, 진왕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채로 선출에 의한 대표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기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변한의 12개 나라가 마치 진왕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변한 12개 나라가 진왕에 속해 있다는 의미는 중국 군현인 낙랑군·대방군의 교섭에서 진왕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 진왕이 삼한을 정치적인 관계 하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 기록의 5명의 유력한 신지가 속한 나라는 교통지리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마한과 변한의 5개의 유력 소국으로 중국 군현과 교섭하였는데, 반면 진한 지역의 경우 유력한 소국은『위지동이전』에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즉 '낙랑군이 본래부터 삼한의 나라들을 통할하였으므로, 진한의 8개 나라를 분할하여 낙랑군에게 주었다(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而與樂浪)'라고 한 기록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초(景初) 연간에 조위(曹魏)가 군현을 매개로 하는 삼한과의 교섭 대상을 재조정하였을 때, 서해안과 남해안에 연하는 마한과 변한의 소국들은 대방군과 교섭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진한의 8국은 낙랑군과 교역하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진한 소국 가운데 동해안의 교섭을 주도한 것은 바로 울산의 우시산국(于尸山國)과 세력을 결합한 경주의 사로국(斯盧國)이었을 것이다.

다음은 자료를 통해 변한의 경제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 변진의 토지는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 누에치기와 뽕나무 가꾸기를 알아 비단과 베를 짤 줄 알았으며,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 … 변지의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韓)·예(濊)·왜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낙랑과 대방의) 두 군(郡)에도 공급한다 … 그 중에서 독로국은 왜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 의복은 청결하며 장발로 다닌다. 또 폭이 넓은 고운 베를 짜기도 한다.

먼저 농경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콩·보리·밀·팥 등 밭작물들이 고루 재배되고 있었으며, 기후와 토양이 벼의 재배에도 적합하여 벼농사가 특히 발달하였다. 벼농사의 대부분은 논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농기구가 점차 목제 등에서 철제로 전환되면서 생산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이다. 수확도구와 주요 농기구가 철제로 전

환되어 작업과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농기구들은 공통적으로 철제 무기와 교역을 통해 입수된 희귀품이 풍부하게 부장된 대형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철제 농기구가 지배계층의 부장품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생산도구 그 자체가 중요한 자산일 뿐 아니라 무기 못지않게 정치적인 권위와 경제적 부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지배집단은 경작지의 확대와 생산력의 증대라는 경제적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고 있었으며, 이는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배집단의 권력기반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잉여산물의 급속한 축적은 집단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사회·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변한에서는 교역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삼한에서는 각 나라 사이에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군현을 비롯하여 왜와 삼한 사이에 활발한 국제교역이 전개되고 있었다. 해안의 교역 지점에 위치한 나라들은 대외 교역의 창구 기능을 하면서 교역품의 관리와 중개 등을 통하여 훨씬 효과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낙동강 하구의 김해 지역의 구야국을 들 수 있다. 김해 지역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낙동강 중상류의 각지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서해 및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요지이다. 이와 같은 관문의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교역체제를 관문교역체제[Gateway Trading System]라고 한다. 여기에 김해 지역을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더욱 발달하게 만든 것은 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자원이다. 변한의 각지에서 일차적인 제철과정을 거친 철기 소재가 낙동강이나 해로를 통해 김해 지역으로 운반되었다. 이러한 철을 구매하기 위해 마한·동예·왜 등지에서 찾아왔다. 또 그 철을 매개로 낙동강 하구 지역에는 낙랑과 대방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의 교역품들이 모여들고, 이러한 물자들은 다시 각 소국 사이의 교역망을 통해 변한의 각지로 확산되어 나갔다. 당시에 각종 물자의 구매에 철이 화폐처럼 사용된다는 위의 기사는 바로 철을 매개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교역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인 것이다.

독로국의 경우 쓰시마[對馬國]를 경계로 하여 일본열도의 왜와 교역이 활발하였다. 『위지동이전』 왜인전(倭人傳)에 의하면 '대방군에서 왜로 갈 때 해안을 둘러서 바닷길로 간다. 삼한의 여러 나라들을 지나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면 (왜의) 북쪽 대안(對岸)인 구야한국(狗邪韓國)에 이르며, … 처음으로 큰 바다를 건너 천여 리를 가면 쓰시마[對馬國]에 이른다. … 좋은 농토가 없어 해산물을 먹고 스스로 살아가며 배를 타고 남북으로

다니면서 식량을 구입하였다[남북시적(南北市糴)]. 또 남쪽으로 한해(瀚海)라는 큰 바다를 천여 리로 건너면 일지국(一支國 : 이키)에 이른다. … 농토가 있어 농사짓더라도 식량이 부족하여 또한 남북으로 다니면서 식량을 구입하였다. 또 바다를 건너 천여 리를 가면 말로국(末盧國 : 후쿠오카 북부)에 이른다. … 동남쪽으로 육로로 5백리를 가면 이도국(伊都國 : 후쿠오카 하카타만)에 이른다'고 하여 대방군에서 한반도 동남해안을 거쳐 일본열도의 북부 규슈에 이르는 노정(路程)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록은 대방군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한반도 동남해안에서 일본열도의 북부 규슈로 가는 길은 신석기시대 이래의 전통적인 교통로임은 물론이다. 한반도 동남부의 구야국이나 독로국은 서북방의 대방군과 교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열도의 규슈 지역과도 교역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나라가 대방군과 전개한 교역에서 획득한 철 이외의 교역물품은 정치적 권위나 지위를 상징하는 품목이라기보다는 바단·칠기·수정 등 경계적 부를 과시하는 사치품이 많았다. 비단도 그 가운데 하나였는데, 변한에서 만든 생사(生絲)는 낙랑에 수출되었는데, 중국에까지 알려진 낙랑견(樂浪絹)이라는 낙랑 비단의 원료가 되기도 하였다. 변한의 비단 제조기술은 위의 인용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교역활동으로 말미암아 변한을 포함한 삼한 지역은 토착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성장한 철기문화의 사회단계로 전환할 수 있었다. 교역을 통해 확보된 철기와 권위상징물[prestige goods]은 다시금 생산력 증대와 잉여산물 확보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삼한이 점차 백제·신라·가야로 발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삼한사회의 정치·경제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변한의 사회를 엿볼 수 있게 하는『위지동이전』변진전의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혼인하는 예법은 남녀의 분별이 있었다.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나무를 가로로 쌓아서 만들기 때문에 감옥과 흡사하다. … 습속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 어린 아이가 출생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금 진한 사람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다[편두(褊頭)]. 왜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남녀가 문신(文身)을 하기도 한다. … 변한은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성곽(城郭)도 있다.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속은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문의 서쪽에 모두들 조신(竈神 : 조왕신)을 모신다. … 법규와 관습은 특히 엄준하다.

먼저 변한의 주거를 보면, 변한의 가옥은 나무를 가로로 쌓아올려 마치 중국의 감옥 모

양과 같다고 한다. 변한의 집은 지상에 지은 것으로 초가집의 원형인 귀틀집과 비슷하며, 지하로 땅을 파서 짓는 무덤 형태의 구덩식 움집에 사는 마한과 차이가 있다.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주거지 평면은 원형·방형·말각방형(抹角方形) 등으로 다양하며, 지붕은 갈대나 이엉으로 덮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용도·계절에 따라 편차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해안의 기후는 마한과 달리 비교적 따뜻하여 지하로 땅을 파지 않고 지상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취락을 둘러싼 방어시설인 성곽은 삼한에 모두 목책(木柵)이나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지동이전』 기록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등에 밧줄을 뚫고 끼우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성곽을 만들 때 우리나라 전통의 지게를 만들어 흙이나 짐을 져다 나르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성곽 축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방어시설은 중심 취락인 국읍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기록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변한은 마한과 마찬가지로 수확축제를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한에서는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면서 밤낮으로 즐겼다고 한다. 위의 인용기사에 "노래하며 춤추며 술마시기를 좋아한다"라고 한 내용은 수확축제 때의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도 고대 한국인은 음주가무(飮酒歌舞)로 심한 노동의 피로를 극복하였고 서로 간에 정(情)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읍락이나 마을을 단위로 하는 축제가 사람들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각 나라들의 제천행사도 시행되어 각 나라마다 소속 읍락들이 유대감을 키워 나라의 통치와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변한에는 귀신을 제사지내는 방식이 진한과 다르다고 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의 신앙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 신앙은 마한에서 큰 나무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고 하는 소도(蘇塗)신앙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태양과 산악에 대한 신앙과 숭배가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시간이 내려가면서 불교·유교·도교가 수입되어, 고유신앙과 사상체계와 융합되면서 소위 무불습합(巫佛褶合)의 독자적인 신앙으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죽은 자가 하늘에 오르기를 바라는 뜻에서 큰 새의 깃털을 함께 묻어준다는 변한의 장례습속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마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장례 습속은 고고학적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널무덤과 덧널무덤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새는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메신저로 이해되고 있었다. 신라 김알지신화에 나타나는 닭토템도 새에 대한 신앙체계 즉 새토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순장과 점복(占卜)의 습속도 있었지만, 또 특이한 습속으로는 편두(褊頭)를 들 수 있다. 위의『위지동이전』기사에서는 진한인의 습속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김해 예안리 고분에서 발견된 두개골에서 편두 사실이 입증되므로 편두의 습속은 변한과 진한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문신하는 풍속도 있었다고 하는데, 마한에서도 그러하였다. 일본열도의 왜인도 문신을 하였는데, 중국에서도 있었던 습속이었다.『위지동이전』왜인전에 의하면 중국 상고의 은(殷)나라 때에 양자강 유역의 수인(水人)들이 어패류를 채취할 때 수금(水禽) 즉 물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새겼으며, 이들을 '왜인(倭人)'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중국인이 일본열도의 사람들이 미역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할 때 문신을 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을 왜인이라고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남해안 일대에 어민들이 잠수하여 어패류를 채취하였으므로, 문신하는 습속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야시대의 사하

(1) 개관

3세기 후반에 이르면 변한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 이전 3세기 중엽까지 변한은 12개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 3세기 중엽 이후 변한을 포함하는 삼한사회, 더 크게 넓혀 보면 동아시아 국제사회에 변동이 일어나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관계에서 정치적인 관계가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국 서진(西晋)의 3국 통합에서 일어났다. 265년 이전 중국은 위(魏)·오(吳)·촉(蜀) 3개의 나라로 분립되어 있었다. 중국의 자연환경은 아열대·온대·한대의 세 가지 기후대와 해안지대와 내륙지대로 나뉘어 있어 물산이 다양하였고, 중국대륙 내부에서 물자교류와 문화교류가 전개되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는 상황으로 바뀌면 동서교류나 남북교류 등 지역간의 교류가 막혀 물자의 부족현상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 3세기 전반 중국이 3국으로 분열되었을 때가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여러 나라들은 외부 이민족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중국에서 볼 때 동방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추진한 것은 조위(曹魏)였다.

2세기 말 중국 요동의 호족인 공손씨(公孫氏)가 후한(後漢)의 본국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낙랑군을 점령하였는데, 낙랑군을 분할하여 그 남쪽 지역에 대방군을 설치하고 삼

한·왜 등과 교섭을 전개하였다. 이는 공손씨가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시도한 것이다. 그 후 조위는 3세기 전반 당시 오·촉과 정립 대치한 긴박한 상황에서 긴요하게 필요로 한 것은, 전시(戰時)의 중요 물자인 철을 비롯하여 이전의 한대(漢代)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였던 남방물자였다. 그리하여 조위는 한·예·왜 지역과 교섭할 필요가 있었으며, 후한 말부터 공손씨가 장악하고 있었던 낙랑군과 대방군을 빼앗았던 것이다. 따라서 후한대의 소극적인 동방정책과 달리 조위는 대방군을 거점으로 삼한 등과 교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진(西晋)은 265년에 위·오·촉 3국을 통일하여 중국 남방을 통합함으로써 중국 내부만의 물자교류를 통해 필요한 물자가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동방지역과의 교섭의 필요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반면에, 삼한의 여러 나라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교섭에 대한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서진의 중앙정부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포기하여 변군(邊郡)으로 삼아 대외교섭의 역할을 없애자, 삼한의 여러 나라들은 요동에 있었던 서진의 동이교위부(東夷校尉府)에까지 직접 나아가 교섭을 전개하였다. 그것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진서(晋書)』 제기(帝紀)와 동이전에서의 서진·삼한의 교역

번호	『진서』 제기의 연도	교역국수	마한전의 교섭 기록	진한전의 교섭 기록
1	함녕 2년(276) 2월	* 8국		
2	함녕 2년(276) 7월	# 17국		
3	함녕 3년(277) 시세	* 3국		
4	함녕 4년(276) 3월	* 6국		
5	함녕 4년(276) 12월	* 9국		
6	태강 원년(280) 6월	10국		○
7	태강 원년(280) 7월	20국	○	
8	태강 2년(281) 3월	5국	○	
9	태강 2년(281) 3월	* 5국		
10	태강 3년(282) 9월	# 29국		
11	태강 7년(286) 8월	11국		
12	태강 7년(286) 시세	11국	○	
13	태강 8년(287) 8월	2국	○	
14	태강 9년(288) 9월	* 7국		
15	태강 10년(289) 5월	11국		
16	태강 10년(289)	# 30여 국		
17	태희 원년(290) 2월	7국		
18	영평 원년(291)	# 17국		

는 마한의 나라들의 교역 가능성이 높은 기사

* 는 변한의 나라들의 교역 가능성이 높은 기사

『진서』의 제기에 의하면 삼한의 나라들이 서진과 교섭한 시기는 276년(함녕咸寧 2) 부터 291년(영평永平 원년)까지로 되어 있다. 여기서 유의하여 볼 것은 앞의 표에서『진서』의 마한전이나 진한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도에 삼한의 나라들이 서진과 집단적으로 교섭한 사실이다. 그것은 마한의 목지국이나 진한의 사로국이 중심이 되어 서진과 교섭한 횟수보다 2회나 더 많다. 즉 앞의 표에 의하면 1·2·3·4·5·9·10·14·16·18 등 모두 10회에 이르며, 이 교섭 활동 중에는 목지국 중심 이외의 마한 지역 나라들의 교섭이나 변한 지역 나라들의 교섭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3세기 후반의 교섭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과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다. 3세기 중엽 이전과 달리 각각의 나라들은 읍락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3세기 중엽 이후 삼한의 대중국(對中國) 교섭은 각 지역권 내의 유력한 나라가 등장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의 교통로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교통중심지를 단위로 하여 소국들이 대중국 교섭동맹을 형성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3세기 중엽까지 목지국으로 대표되어 온 대중국 교섭체계가 3세기 후반에 이르면 목지국의 통제를 탈피하여 유력 한 나라를 주축으로 하는 각 지역별의 교섭단위를 이루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역교섭단위는 정치적으로 결속되어 연맹왕국을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섭단위는 구야국과 독로국이 주축이 되어 연맹왕국, 즉 전기가야연맹을 이루게 되었으며 사하 지역도 이에 편입하였던 것이다.

(2) 가야시대의 사하

『삼국사기』에 의하면 3세기 말엽에 사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지역의 교섭단위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실직곡국(悉直谷國 : 강원도 삼척)과 음즙벌국(音汁伐國 : 경북 포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예족 계통인 실직곡국이 주도한 예족의 남하현상은 3세기 말엽 당시 포항 지역까지 미쳤으며, 이로 인하여 음즙벌국과 경계를 접하면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사로국은 사건의 해결이 어려워 구야국의 수로왕에게 중재를 요청하자 수로왕이 이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로국 내의 유력한 세력인 한기(韓岐)세력이 반발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났는데, 수로왕이 그 지배자를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기 지역은 석탈해의 세력 기반으로 구야국과 함께 철 생산과 교역을 통해 경쟁하던 관계에 있었으므로, 구야국과 사로국의 충돌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후 사로국은 정복전쟁으로 경북 지역의 진한 12개 나라를 통합하여 연맹왕국을 건설하

였는데, 구야국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으나 사로국과 같은 방식으로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4세기에 이르면 낙동강 하구 지역교섭단위의 중심인 구야국은 동남해안의 대왜교섭을 주도한 독로국과 연합하여, 두 나라를 주축으로 하는 가야연맹왕국을 이룩하게 되었다. 가야연맹왕국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항아리 같은 모양의 양이부호



몽고발형주. 기마문화의 징표

280년대 즉 3세기 말엽 낙동강하류역에는 새로운 제작기법을 가진 도질토기(陶質土器)가 등장한다. 최초의 도질토기로서 나타난 것은 양이부원저단경호(兩耳附圓低短頸壺)이다. 이 토기는 그릇의 어깨 부분에 양의 귀모양의 두 꼭지가 마주보게 붙여져 있고 바닥이 둥글고 목이 짧은 항아리로서 중국 서진의 도기문화(陶器文化)가 들어온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새로운 문화는 변한의 나라들이 280년대를 전후하여 서진과 교섭한 사실과 잘 부합된다. 한편으로 새로운 문화의 유입도 나타나고 있다. 인마(人馬)의 희생(犧牲)의 례, 무기를 구부려 부장(副葬)하는 행위, 몽고발형주(蒙古鉢形胄), 괘갑(挂甲), 기승용마구(騎乘用馬具) 등 북방 유목민족만이 가지는 특유의 습속·문화와 동반되고 있다. 동해안에서 예족 세력이 남하하여 진한 세력과 충돌했던 시기도 3세기 말엽이었는데, 낙동강하류역에 북방 유목문화가 유입된 시기와도 부합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서기 300년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오호(五胡)의 남하 등과 같이 민족이동기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상황이었는데, 낙동강하류역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낙동강하류역에서는 구야국과 독로국이 주축이 되어 가야연맹왕국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사하 지역은 독로국 소속의 작은 읍락으로 존재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연맹왕국 내부 지역간의 교류나 국제적인 대외교류에서 중간 기항지로서 존재하였다. 구야국과 독로국이 빈번한 교류가 수행되려면 사하 지역이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구야국의 중심 세력은 대성동고분군 집단이고 독로국의 중심 세력은 복천동고분군 집단이다. 대성동세력과 복천동세력이 서로 왕래하려면 낙동강 하구

와 동남해안의 교차지점인 사하 지역을 거쳐야만 했다.

가야연맹왕국이 성립된 이후 4세기 후반에 이르면, 백제가 일본열도의 왜와 교섭을 개시하게 된다. 고구려는 313년과 314년에 중국 군현인 낙랑군과 대방군을 점령하여 백제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양국은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369년부터 371년에 백제와 고구려 양국은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면서 서로간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이 시기 백제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고구려의 국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남방의 지원세력을 구하게 되었다. 백제는 먼저 신라에 접근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신라가 고구려와 동맹을 맺게 되자 가야에 접근하였다. 백제가 낙동강하류역의 가야연맹왕국에 접근하면서 가야를 통해 일본열도의 왜와도 친선을 맺게 되어 드디어 백제-가야-왜의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고구려-신라 동맹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백제-가야-왜의 동맹체제가 구축되면서 가야연맹왕국의 중심 세력인 구야국은 국제교섭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국제교섭에서 김해의 구야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사하 지역은 이전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제교섭뿐 아니라 전쟁 수행에서도 사하 지역의 역할은 중시되었다. 4세기 말엽 백제-가야-왜 동맹체제와 고구려-신라 동맹체제는 무력대결로 전환되었다. 평양성 전투 패배 직후 소수림왕 때 지배체제를 정비하여 국력을 회복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380년대에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략하였고, 이에 백제는 왜의 용병을 끌어들여 고구려에 대항하고 있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신라가 왜로 가는 백제 사절의 교역품을 약탈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삼국사기』 박제상 열전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서 보아 고구려의 동맹국인 신라는 동남해안을 거쳐 이루어지는 백제 및 가야연맹왕국의 대왜교섭(對倭交涉)을 방해하였던 것이다. 이즈음 일본열도의 왜는 신라의 방해공작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추측컨대 왜군의 침공로는 쓰시마를 거점으로 하여 두 갈래 길로 신라를 공격하였을 것이다. 하나는 쓰시마에서 울산만으로 직격하였을 것이며, 이는 왜군 단독의 군사행동이었다. 또 하나는 쓰시마에서 사하 지역을 거쳐 양산천을 따라 양산지구대를 통해 신라 서울[경주]을 공격하였을 것인데, 이 경우 가야-왜 연합군이었을 것이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399년(기해년) 신라가 왜군이 신라 왕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위급함을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보고하여 구원을 요청하자 이듬해 고구려는 5만의 보병·기병 혼성군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소위 '광개토왕의 남정(南征)'이다. 이때 왜병이 퇴각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 : 가야연맹왕국)로 갔다고 하였음에서 보아 왜병은 경주-언양-물금-김해로 퇴각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왜의 신라 공격

은 단독행동이라기 보다는 가야와 연합하여 주로 쓰시마-사하-물금-양산지구대의 통로를 이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일본서기』에 보이는 다다라(多多羅)라는 지명이 사하 지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도 입증이 된다.『일본서기』계체기(繼體紀)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김해의 남가라(南加羅)를 공격한 거점이 다다라였으며, 다다라의 위치는 사하 다대포로 비정된다. 이와 같이 사하 지역은 가야연맹왕국의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인하여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가야연맹왕국은 와해되어 각각의 나라로 분립되었다. 이로써 사하 지역은 중간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5세기 중엽 이후 독로국이 신라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면서 이전과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면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신라 · 통일신라시대의 사하

(1) 개관

광개토왕 남정으로 가야연맹왕국이 와해된 이후 사하 지역이 속한 독로국은 5세기 중엽에 이르러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신라는 유력한 세력인 독로국을 직접 지배하기 위해 내부세력을 분열시켰는데, 기존의 중심세력인 복천동고분군 세력에 버금가는 연산동고분군 세력을 지원하여 독로국의 힘을 약화시켜 5세기 후반에는 점차 직접 통치해 갔다.『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신라는 독로국을 거칠산군(居柒山郡 : 현재의 연제구)으로 편제하였으며, 505년 지증왕 때에 이르러 지방통치제도인 주군제(州郡制)를 시행하면서 거칠산군 산하에 대증현(大甑縣 : 부산진구)과 갑화양곡현(甲火良谷縣 : 기장군)을 설치하였다. 6세기 당시 신라의 지방제도는 현제도(縣制度)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주(州)-군(郡)-촌(村)의 체계로 되어 있었고, 거칠산군도 거칠산촌(居柒山村 : 현재의 연제구)으로 불렀다. 그리고 대증현은 대증촌(大甑村), 갑화양곡현은 갑화양곡촌(甲火良谷村)으로 불렀을 것이다.

신라의 지방통치제도는 처음 5세기에는 옛 나라의 중심지에 도사(道使)를 파견하여 거점으로 삼았고, 그 다음 6세기 전반에는 주(州)-군(郡)-촌(村)의 체제를 갖추어 주에는 군주(軍主), 군에는 당주(幢主), 일반 자연촌을 여러 개로 묶어 행정촌(行政村)을 설정하여 그곳에 도사를 파견하였다. 옛 독로국인 부산 지역의 경우, 새로운 중심지인 연산동 지역인 거칠산촌(居柒山村)에 당주를 파견하고 행정촌인 대증촌과 갑화양곡촌에는 도사를 두

었다. 각 행정촌에는 토착세력의 대표자를 촌주(村主)로 인정하여 지방행정을 보좌하게 하였다. 사하 지역은 대증촌에 소속된 자연촌이었다. 7세기에 이르면 행정촌을 중국식 제도인 현으로 개명하였는데, 이때 기록에 전하는 바와 같이 거칠산군 산하에 대증현과 갑화양곡현으로 되었던 것이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 신라는 크게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즉 통일신라 전체의 영토를 수도인 왕도(王都)를 비롯하여 9주(州) 5소경(小京)으로 편제하였는데, 부산 지역의 경우 거칠산군을 비롯하여 대증현과 갑화양곡현이 그대로 있었으며 그 아래 행정촌을 새로이 설정하고 일반 마을을 자연촌으로 두었다. 삼국시대와 달리 통일신라시대에는 전쟁이 없어 인구가 항상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방통치체계는 확대 개편되었던 것이다. 군현 단위 외의 행정촌에도 새로이 토착세력의 대표자인 촌주를 두었으며, 촌주층 가운데 유력자를 선발하여 군을 대표하는 군촌주(郡村主)를 두어 지방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경덕왕 때에는 중국 당(唐)나라의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쓰면서 군현의 이름을 고유의 이두식 지명을 중국식 지명으로 바꾸었다. 부산 지역의 경우 거칠산군을 동래군(東萊郡)으로, 갑화양곡현을 기장현(機張縣)으로, 그리고 대증현을 동평현(東平縣)으로 개명하였다.

신라 하대의 혼란기에 이르면 중앙정계가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이 발생하자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져서 중앙과 지방이 관계가 이완되어 갔으며, 귀족이 백성 정전(百姓丁田) 즉 민전(民田)을 침탈하게 되어 지방민의 경제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어 생존권이 위협 당하게 되었다. 촌주 등 토착지배층은 국가의 지방통치에 협력하면서 자신의 신분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유지해왔는데, 자기 지역민의 보호를 통해서만 자신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음을 새로이 인식하고 점차 군현 단위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만들어갔다. 특히 진성여왕의 즉위는 중앙정치의 불신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후백제(後百濟), 태봉(泰封)이 성립되어 신라와 함께 후삼국이 성립되었다. 토착지배층은 독자적인 호족(豪族)으로 변모하여 군을 단위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였다. 대체로 그들의 지역 정부 소위 관반체계(官班體系)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신라 말기 지방 호족의 관반체계

당대등(堂大等) — 대등(大等) ┬ [호부(戶部) : 행정]; 낭중(郎中)—원외랑(員外郎)—집사(執事)
├ [병부(兵部) : 군사]; 병부경(兵部卿)—연상(筵上)—유나(維乃)
└ [창부(倉部) : 재정]; 창부경(倉部卿)

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정부의 구성은 당대등과 대등이라는 호족 대표단과 지역의 행정·군사·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신라 중앙 행정관청의 이름과 같다. 지역의 최고 지배자는 화백회의의 구성원인 대등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성주(城主)·장군(將軍)이라고 자칭하였다. 즉 그들 호족은 신라 중앙과 대등한 관직 칭호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부산 지역의 경우 전하는 기록이 없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호족정부의 구조를 가졌을 것이다.

(2) 신라·통일신라시대의 사하

5세기 중엽을 경계로 부산 지역은 독로국에서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어 신라의 영역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사하 지역도 거칠산군에 소속되었다. 신라시대에 이르러서도 사하 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마립간 시기의 신라 · 왜 기사

번호	연대(년월)	내용	지명	비고
1	자비왕 6년(463) 2월	왜인의 삽량성 공격에 매복하여 격퇴하고 주변에 두 성을 쌓음	삽량성	농성전 매복전 축성사업
2	자비왕 19년(476) 6월	왜인의 동쪽 변경 침입을 격퇴하고 2백 명을 살획함	동쪽 변경	전투
3	자비왕 20년(477) 5월	왜인이 다섯 길로 침입, 곧 퇴각함		전투
4	소지왕 4년(482) 5월	왜인이 변경을 침입함	변경	
5	소지왕 8년(486) 4월	왜인이 변경을 침입함	변경	
6	소지왕 15년(493) 7월	임해진 장령진을 설치하여 대비함	임해진 장령진	장봉진의 잘못
7	소지왕 19년(497) 4월	왜병이 변경을 침입함	변경	
8	소지왕 22년(500) 3월	왜인이 장봉성을 함락함	장봉성	함락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에서 일본열도의 왜가 신라를 침공한 기록 가운데 일부이다. 신라 자비왕 때부터 소지왕 때까지 5세기 후반에 왜가 신라의 변경을 7회에 걸쳐 침입하였는데, 먼저 463년(자비왕 6)에 왜가 삽량성(歃良城 : 양산시)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왜가 쓰시마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 양산을 공격하려면 사하 지역을 거쳐야 한다. 사하구의 두송반도와 몰운대는 당시의 고(古)김해만의 내해(內海)와 동남해안의 외해(外海)를 가르는 경계지점에 있었으므로, 쓰시마에서 양산으로 북상하는 왜군이 반드시 거쳐야 할 요충지였다. 이에 대해 신라는 493년에 임해진(臨海鎭)과 장봉진(長峯鎭)이라는 군진(軍鎭)을

설치하여 대비하였다. 임해진은 기장군에 설치한 군진으로 생각되며, 장봉진은 사하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00년에 왜군이 장봉진의 성을 함락하였으나, 곧 회복하였을 것이다. 가야연맹왕국 시기에 사하 지역이 가야연맹왕국과 친선을 맺고 있었던 일본열도 왜가 구야국으로 가는 중간 거점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반면에, 신라시대에 사하 지역은 왜가 신라를 공격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관방(關防)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사하구 괴정1동 화신아파트 부근의 괴정동고분군은 1975년에 조사하여 구덩식돌방무덤[竪穴式石槨墓] 29기, 독무덤[甕棺墓] 10기 등 모두 39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이들 무덤에 부장된 토기형태는 거의 신라식토기화된 것들이 주류이다. 부산의 곳곳에서 많은 고분이 축조되던 전성기에 형성된 유적중의 하나이다. 괴정동고분군은 사하 지역에서 알려지고 있는 고분군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며, 또 낙동강 하류 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고분유적이다.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의 부산 지방 고분들과의 상호관계는 물론, 낙동강 하류 지역 고분문화의 전반적인 성격 규명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즉 5세기 중엽 신라가 부산 독로국을 병합하여 거칠산촌·대증촌·갑화양곡촌 등 3개의 거점을 설정하였으나, 그곳에만 통치를 위한 거점을 둔 것은 아니었고 괴정동고분군이 있는 사하 지역에도 토착세력을 활용하여 왜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 등 대외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세기에 이르면 신라는 거칠산군 산하에 대증현(大甑縣)과 갑화양곡현(甲火良谷縣)을 설치하였는데, 사하 지역은 대증현에 소속되어 신라 변경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의하면 529년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사하의 다다라에서 김해의 남가라(南加羅)를 공격하였다고 한다. 이는 사하 지역이 5세기 중엽 이전 가야연맹왕국 시기와는 달리 신라 변경의 요충지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부산 지역에 형변(兄邊)을 설치하였다. 형변은 신라 제사제도의 체계에서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가운데 중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사의 4독(四瀆)의 하나였다. 4독은 해양제사로서 신라의 사신이나 무역선들이 항해를 할 때 중요한 해양 거점에 이르러 선박을 수리하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여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신라는 남해안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항해를 할 경우, 울산만에서 출발하여 동남해안으로 부산 수영만의 형변에 이르러 해신(海神)에 대한 제사의례를 행하고 항해 상황을 정비한 후에야 남해안으로 나아갔다. 사하 지역에 이르면 두송반도 부근에서 임시 정박하여 일기의 변화를 감안하고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물의 형편을 살핀 다음, 가덕도를 거쳐 본격적으로 남해안으로 항해를 하였다.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전국의 군현 이름을 중국식으로 개정하였을 때, 부산 지역의 경우

거칠산군을 동래군(東萊郡)으로, 갑화양곡현을 기장현(機張縣)으로, 그리고 대증현을 동평현(東平縣)으로 개명하였다. 동래군이란 중국의 산동반도에 있는 내주(萊州)에서 따온 것으로 중국의 내주는 외국 사신이나 무역선들이 오는 중국 동쪽의 해양관문이었는데, 부산 지역의 거칠산군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여 동쪽의 내주로서 동래라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장현은 한자의 뜻 그대로 국가의 기밀[기(機)]을 시행하는[장(張)] 의미를 담고 있어 기장 지역이 신라의 관방으로서 중요하였기 때문에 명명한 것이다. 동평현은 한자 뜻 그대로 동쪽이 평온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이다. 통일신라시대에도 부산 지역은 여전히 국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하대의 혼란기에 이르면 전국 각지에서 호족이 발호하여 할거하였는데, 부산 지역의 호족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다. 신라시대의 군현체제를 토대로 호족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만 할 수 있다. 후백제의 견훤이 절영도의 명마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 부산 지역이 한때 후백제의 세력권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려시대에는 부산 지역이 울주(蔚州)와 양주(梁州)의 속현(屬縣)으로 소속되었다.

3. 중세

1) 고려시대

(1) 개관

918년에 건국된 고려는 935년 신라의 투항과 936년 후백제의 멸망으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의 국가적 성격은 호족연합정권이었으므로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방분권적인 체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983년(성종 2) 12목(牧)에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한 이후에는 부산이 형식상 상주목(尙州牧)에 속하였으며, 성종 14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2경(京) 4도호도(都護府) 10도(道)로 편제하였다. 부산 지역은 10도 가운데 영동도(嶺東道)에 속하였다. 또한 12목을 12주(州) 절도사(節度使)로 고쳤다. 성종 때에는 지방호족을 통할하기 위하여 호족의 독자적인 관반체계를 향직(鄕職)체계로 개편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고려 초기 지방 향리의 향직체계

호장 (戶長)	부호장 (副戶長)	사호(司戶 : 행정); 호정(戶正)	부호정 — 사(史)
		사병(司兵 : 군사); 병정(兵正)	부병정 — 병사(兵史)
		사창(司倉 : 재정); 창정(倉正)	

신라 말기의 호족은 각 고을마다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후삼국 통일 후 고려가 한동안 호족을 지배체제 내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 지배체제의 한 축으로서 호장체제로 편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각 고을의 향직체계는 신라말의 호족 관반체계를 완전히 해체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후 고려의 지방제도가 확립된 것은 1018년(현종 9)의 일이었다. 10도제(道制)를 8목체제로 개편하면서 부산 지역은 동경(東京 : 경주)에 속하게 하였으나, 다시 5도 양계(兩界)제로 확립되었다. 양계는 동계(東界 : 영동과 함경남도 남부)와 북계(北界 : 평안도 일대)로서 외적의 위협에 대비하는 병농일치의 둔전체제로서 진(鎭) 단위의 군사적인 특수지대였다. 5도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설정하면서 부산 지역은 경상도에 소속되었다. 지방의 행정체계는 주와 현이 일반적인 소위 주현(州縣)제도로서 부(府)·주(州)·군(郡)·현(縣)으로 조직화하였고, 전국의 지방관은 4도호(都護)·8목·56지주군사(知州郡事)·28진장(鎭將)·20현령(縣令)으로 편제되었다.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특징은 주현제와 부곡제로 대별되는데, 일반 군현의 체계는 주속체계(主屬體係)라고 한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 의하면 전국의 고을 약 500개 소 가운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은 3경(京)·8목·3도호의 소위 14계수관(界首官)을 비롯하여 일반 지주부군사(知州府郡事)·현령 116개 소로 모두 130개 소에 불과하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屬縣)은 373개 소나 된다. 주속체계는 중앙정부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에 직첩(直牒 : 중앙의 명령 하달과 지방의 보고)하고 속현은 주현이 관할하는 누층적 구조였다. 그 후에 중간기구로서 양계의 병마사(兵馬使)와 5도의 안찰사(按察使)가 계수관을 대체하였다.

다음 부곡제는 향(鄕)·소(所)·부곡(部曲)의 특수 행정조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고려는 정(丁)의 다소에 따라 고을의 격을 목·주·부·군·현으로 등급화 하였는데, 그 기준에도 미달되면 부곡제에 편입시켰다. 물론 고려에 대항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부곡제 지역은 미개발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고려 정부는 권농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고려 후기에는 부곡제가 점차 약화되어 조선 초기에는 거의 모두가 폐지되어 일반 군현이 되었다.

(2) 고려시대의 사하

고려시대 지방의 행정체계는 주현제와 부곡제로 대별되는데, 일반 군현의 체계는 주속체계(主屬體係)라고 한다. 부산 지역의 경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은 없었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는 부산 지역의 동래현·동평현·기장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동래현은 본래 신라의 거칠산군인데 경덕왕이 동래군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 본주[울주(蔚州) : 울산]에 내속(來屬)되었고, 뒤에 현령을 두었다. 온천이 있다."고 하였다. 신라 때에 동래군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동래현으로 격하되고, 더욱이 울주의 속현으로 되어 버렸다. "기장현은 원래 갑화양곡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동래군의 영현으로 되었다. 그 후[고려시대]에 본주[양주(梁州 : 양산)]에 이속(移屬)되었다. 현종 9년에 다시 울주에 이속되었다.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따로 차성(車城)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동평현은 본래 신라의 대증현이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동래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현종 9년에 본주[양주(梁州 : 양산)]에 내속되었다. 절영도(絕影島)가 있다."고 하였다. 신라시대에 동래군의 영현이었던 동평현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소속이 바뀌어 양주의 속현으로 되었는데, 동평현에 속해 있었던 사하 지역도 양주의 소속으로 되었다.

위와 같이 부산 지역은 신라시대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독립된 군현체제를 이루고 있었다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양주나 울주의 속현으로 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후백제의 견훤이 절영도의 명마를 고려 태조 왕건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추측해 보면, 부산 지역이 한동안 후백제의 편을 들었거나 그 영토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후백제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고려의 입장에서 취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에는 향·소·부곡이 상당히 많았던 점도 아울러 참조해야 할 것이다.

부곡제는 향(鄕)·소(所)·부곡(部曲)의 특수 행정조직으로 부산 지역의 경우 9개나 되어 동래현 등 3개의 속현에 비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래현 및 기장현의 고적(古跡)조에 의하면, "고지도부곡(古知道部曲 : 부산만에 위치, 일제강점기 때에 매립공사로 사라짐)은 곧 고지도이다"고 하였고, "조정부곡(調井部曲 : 금정구 두구동)은 동평현의 북쪽 20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형변부곡(兄邊部曲 : 수영

만)은 동평현의 남쪽 해안에 있으며, 신라가 남해신(南海神)을 여기서 제사지냈는데 [『삼국사기』 제사지의] 중사(中祀)의 기록에 실려 있다."고 하였다. "부산부곡(富山部曲 : 보수동·대신동 일대)은 부산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생천향(生川鄕 : 대연동 일대)은 동평현의 남쪽 20리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촌부곡(古村部曲)은 기장현 서쪽 10리에 있다.", "결며부곡(結旀部曲)은 기장현 서쪽 10리에 있다.", "사량촌부곡(沙良村部曲)은 기장현 동쪽 5리에 있다.", "사야부곡(沙也部曲)은 기장현 동쪽 3리에 있는데, 지금의 사야촌(沙也村)이다." 등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부산 지역에는 모두 8개의 부곡과 1개의 향이 존재하였다.

향·소·부곡에 대해 천민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천민은 아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과거의 응시를 제한하고 외부로의 혼인도 금지되었던 것이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꺼려했을 뿐이다. 부곡제 지역은 미개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여 일반 군현보다 사회적 인식이 낮게 보여졌던 것이다. 부곡제 지역에는 일반 군현과 마찬가지로 향리가 있었는데, 토착세력인 부곡리(部曲吏)가 있어 그 사회를 운영하고 주현에 보고하였다. 이후 부곡제 지역의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고려 후기에는 동래현에 현령이 파견되었고 기장현에는 감무가 두어졌다. 이와 같이 부산 지역의 속현들이 군현으로 환원되어짐에 따라 부곡제 지역도 본래의 군현에 편입되었으며 조선 초기에 이르러 모두 폐지되었다.

군현의 아래에는 촌이 있어 토착인들에 의해 자치적인 조직이 있었다. 촌사(村司)라는 자치조직에는 촌장(村長)과 촌정(村正) 등이 있어 촌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기장의 사야부곡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사야촌으로 환원된 점과 결며부곡과 고촌부곡이 현재의 철마면의 일부 지역이었던 점에서 미루어 보면, 부곡제 지역의 규모는 촌의 규모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고려 후기에 부곡제 지역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일반 군현으로 승격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점차적으로 군현 내의 촌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부산 지역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없이 속현으로 되었던 점은 후백제와 관련 것 이외의 요인도 있었다. 가야시대나 신라시대에는 부산 지역이 대외전쟁이나 대외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중요시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서울 개경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당시 대외관계가 북방의 요(遼)·금(金)·원(元)과의 대립과 교섭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고려 중앙정부는 북부 지역을 동계·북계라는 특수 군사지대로 설정하여 북방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에, 남방에 있는 일본열도의 왜는 국내의 사정으로 대외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 아래, 고려의 적극적인 외교교섭에 응하지 않고

쇄국으로 일관하여 남방에서의 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고려 중앙정부는 남방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이 북방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고려 남방의 최전선임에도 주현보다는 속현으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왜구(倭寇)의 침입이다. 왜구의 침입을 촉발시킨 것은 여원동정(麗元東征)이었다. 몽골족이 세계를 제패하고 중국을 정복하여 세운 원나라는 정복욕을 앞세워 고려를 지배하에 넣은 뒤, 고려를 핍박하여 일본열도마저 정복하고자 하였다. 당시 원나라의 세조(世祖) 쿠빌라이[忽必烈]칸(Khan)은 일본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기 위해 모두 6차에 걸쳐 고려와 원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했으나, 일본이 원의 요구에 불응하자 원은 무력을 동원해 일본을 굴복시키기로 하고 대규모의 원정군을 파견했다. 1차 원정은 1274년(원종 12) 원 세조의 명으로 이루어졌다. 2만 5,000명의 몽한군(蒙漢軍)과 8,000명의 고려군과 6,700명의 선군(船軍)을 지휘했다. 여원연합군은 900여 척의 전함을 동원해 쓰시마 섬[對馬島]과 이키 섬[壹岐島]을 정복하고, 이어서 일본 본토를 공격했으나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다음 달에 귀환했다. 이후 원의 세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본에 선유사(宣諭使)를 파견하는 한편, 고려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치하고 남송(南宋)을 정복한 직후인 1279년(충렬왕 5)부터 일본원정을 준비했다. 그동안 원의 일본 초유나 원정에 대해 소극적이던 고려는 적극적으로 원정에 참여했는데, 충렬왕은 이 원정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부원세력(附元勢力)을 축출하고 자신의 측근세력을 육성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고려는 병선 900척, 선군 1만 5,000명, 정군(正軍) 1만 명, 병량(兵糧) 11만 석, 그 밖의 많은 병기들을 동원하는 등 1차 원정 때보다 훨씬 많은 인적·물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한편 원도 3만 명의 몽한군 이외에 멸망한 남송의 군대 10만 명을 더 동원해 1차 원정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다. 1281년(충렬왕 7) 5월 고려군과 몽한군은 900여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합포(合浦)를 떠나 이키 섬으로 향했고, 남송 출신의 강남군(江南軍)도 3,500여 척의 배를 동원해 이키 섬에서 모두 합류했다. 그러나 일본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했고 또다시 태풍을 만나 원정군은 10만 명의 병력을 잃는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침략을 받은 왜는 특히 일본 서부 지역은 더 이상 여원동정이 없었음에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행해진 대외교섭이 완전히 끊어져 30여 년이 지나자 경제적으로 심각한 파탄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 서부 지역의 영주나 상인집단은 무력으로 중국의 원·명이나 고려를 침략하여 약탈을 통해 경제적 파탄을 만회하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2차례에 걸쳐 고려와 원의 연합군이 정벌한 바 있는 규슈[九州]와 쓰시

마 등 그 주변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가장 곤궁하여, 고려와 중국 해안 지역을 노략질한 해적 무리는 거의 이 지역 출신이었다.

왜구의 노략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350년(충정왕 2)으로, 뒤이은 공민왕 때에는 115회, 우왕대(1375~88)에는 278회의 침입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14세기 후반에는 왜구가 자주 침입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500척의 함대를 이끌고 몰려오는 등 그 규모도 커졌다. 노략질하는 지역도 남부 해안 지역에 그치지 않고 평안도·함경도 등 전국에 걸쳤으며, 심지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급습하는가 하면 한때 개경을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왜구의 침입이 절정을 이루는 우왕 때에는 바다에서 조운선(漕運船)의 곡물을 약탈하거나 해안 지역에 있는 조운 창고의 곡물과 군현의 관아 또는 부잣집의 재물을 노략질했으며, 주민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해쳐서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고려에서는 권력층 사이에서 치열한 정권 다툼이 계속되고 농장(農莊)이 발달하는 등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이 허술해졌으며 중국도 원 왕조 말기의 내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인도 왜구가 창궐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다. 고려가 왜구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무엇보다도 무수한 인명이 살해되고 재산을 잃었으며 노략질당한 것이 가장 큰 피해였다. 남부 지역의 섬은 물론 해안 지역에 살던 주민의 대부분이 피난함으로써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으며, 당시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였던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해안 지역 농토가 황무지로 바뀌었다. 아울러 바닷길을 통한 조운을 하지 못하여 육로로 조세를 운반하도록 했지만 왜구가 내륙까지 횡행한 까닭에 이 또한 원활하지 못해서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받았다.

1364년(공민왕 13)에는 진해에서 경상도 도순문사(都巡問使) 김속명(金續命)이 3,000명의 왜구를 격파한 바 있고, 1376년(우왕 2)에는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이 충청도 홍산(鴻山)에서 대첩을 거두었다. 1380년(우왕 6)에는 금강 어구의 진포(鎭浦)에 정박한 왜선 500척을 해도원수(海道元帥) 나세(羅世)·심덕부(沈德符)·최무선(崔茂宣) 등이 화포를 써서 모두 불태웠으며, 이때 상륙하여 남부 지역을 횡행한 왜구를 도순찰사(都巡察使) 이성계(李成桂)가 지리산의 황산(荒山)에서 무찌르는 대첩을 거둠으로써 왜구의 위세를 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려는 차츰 군사제도 정비와 국방 강화에 힘을 기울여 농민 시위군(侍衛軍)과 수군(水軍) 등의 군대를 조직하고, 기존에 해안 지역에 설치된 수소(戍所)를 증설한 데 이어 산성(山城)·읍성(邑城) 등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화포(火砲)를 개발함으로써 왜구 격퇴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특히 강화된 수군이 왜구 격퇴에 크게 이바지하여 1383년에는 해도 원수 정지(鄭地)가 남해 관음포(觀音浦)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1389년(창왕 1)에는 경상도 도순문사 박위(朴葳)에게 전함 100척을 거느리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소탕하도록 함으로써 왜구 침입은 뜸해졌다.

신라시대부터 이들 왜구는 쓰시마를 중간 거점으로 하여 바다를 건너 노략질하기 때문에 주 침입로는 동래·양산·김해·울산 등을 비롯한 동남해 지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 지역은 지역적인 조건으로 보아 문헌 기록보다 훨씬 많은 왜구의 침입이 있었으므로, 고려 후기 부산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부산 지역의 속현 가운데 바다와 관련이 깊은 동래현과 기장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고려 정부는 강경한 대응과 함께 온건한 교섭이라는 양면책을 실시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왜관이 금주(金州)에 있었는데, 1056년(문종 10) 10월에 일본국사(日本國使) 정상위(正上位) 권예(權隷)인 후지와라(滕原) 등 30인이 와서 금주에 묵었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여원동정의 1차 원정이 1274년(원종 12) 원 세조의 명으로 이루어졌을 때, 국신사(國信使)가 일본으로 왕래한 곳이며 동정군의 집합처도 금주였다. 또한 1281년(충렬왕 7)에 원이 금주에 진변만호부를 설치하는 등 여원동정 시기에 동남해안의 군사적 중요도가 부각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의 왜구의 창궐로 더욱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1350년(충정왕 2)에 왜구가 동래군을 침구하였고, 1376년(우왕 2) 11월에 왜적이 동래현·기장현 등지를 분탕질한 데 이어 다음달인 같은 해 12월에 왜구가 양주·울주 및 의창·회원·함안·진해·고성·반성·동평현·동래현·기장현 등지에서 살인과 방화를 저질렀다는 기록에서 보아 왜구는 동남해안을 기점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동해안까지 침략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고려와 왜의 간헐적인 교류가 있었고, 고려 후기에는 왜구 침략의 기점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면 동남해안 관방의 요충지로서 중시되어 갔다.

2) 조선시대

(1) 개관

부산이란 지명은 부산포에서 유래된 것으로 15세기의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산포(富山浦)라 하였고,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지금 동구 좌천동에 있는 증산(甑山)의 모양을 따서 부산(釜山)이라 불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부산포는 당시의 독립된 지방행정 단위는 아니었다. 초기에는 동래현과 그 속현이었던 동평현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그 후에는 계

속해서 동래도호부(東萊都護府)의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1367년(태조 6) 동래진(東萊鎭)이 설치되고, 병마사(兵馬使)가 동래의 행정관인 판현사(判縣使)가 그 임무를 겸하게 되었다. 한편 동래현의 속현인 동평현(부산진구 일대)은 1405년(태종 5)에 양주의 속현에서 동래현의 속현이 되었고 1409년에 다시 양주에 소속되었다가, 그 후 1423년(세종 5)에는 병마사가 첨절제사(僉節制使)로 개칭되었고, 판현사를 겸하게 되었다. 1428년에 다시 동래현의 속현으로서 현령의 행정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그 후 속현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동래현에 통합되었다. 1440년에는 부산포에 일본인의 내왕이 빈번하게 되자, 진을 속현인 동평현으로 옮겼다가 동래로 환원하였고, 다시 판현사는 현령으로 바꾸었다.

그 후 1547년(명종 2)에 도호부로 승격시켜 문관(文官)이 아닌 무관(武官)을 부사(府使)로 임명하고 그 아래에 판관(判官)을 두었으나, 1601년(선조 34)에 외교상의 사정을 감안하여 당상(堂上 : 정3품 이상 고위관료)의 문관을 부사로 삼고 판관제도는 폐지하였다. 1655년(효종 6)에는 동래부에 독진(獨鎭)을 설치하여 1690년(숙종 16)에는 부사가 방어사(防禦使)의 임무를 겸하게 되었으나, 2년 후에 방어사는 곧 없어졌다. 1739년(영조 15)에는 부사가 동래성과 금정산성의 수성장(守城將)을 겸하여 1895년(고종 32)까지 계속되었다.

군사적으로는 고려말부터 계속되는 왜구의 창궐로 그 폐해가 심하였는데, 태종은 1407년 동래의 부산포(富山浦)와 웅천의 내이포(乃而浦, 薺浦)를, 1418년(태종 18)에는 울산의 염포(鹽浦)와 고성군의 가배량(加背梁)을 개항해 이곳에만 정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세종 1) 대마도 정벌을 계기로 개항장은 폐쇄되었다가 그 뒤 대마도 도주(島主) 소오 사다토시[宗貞盛]의 간청으로 1423년(세종 5)에는 부산포와 내이포, 1426년에는 염포에 왜인의 내왕을 허가해 삼포(三浦)가 개항되었다. 왜관은 이 개항장에 설치된 것으로, 여기에서 교역·접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1443년에 계해약조(癸亥約條)를 맺어 무역선의 수와 세사미두(歲賜米豆)의 수량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즉 조선 세종 때부터 해마다 쓰시마 도주 소오씨에게 내려 주던 쌀과 콩을 계해약조의 규정에 따라 처음에는 200석을 주었으나, 중종 때 삼포왜란 이후에는 100석으로 줄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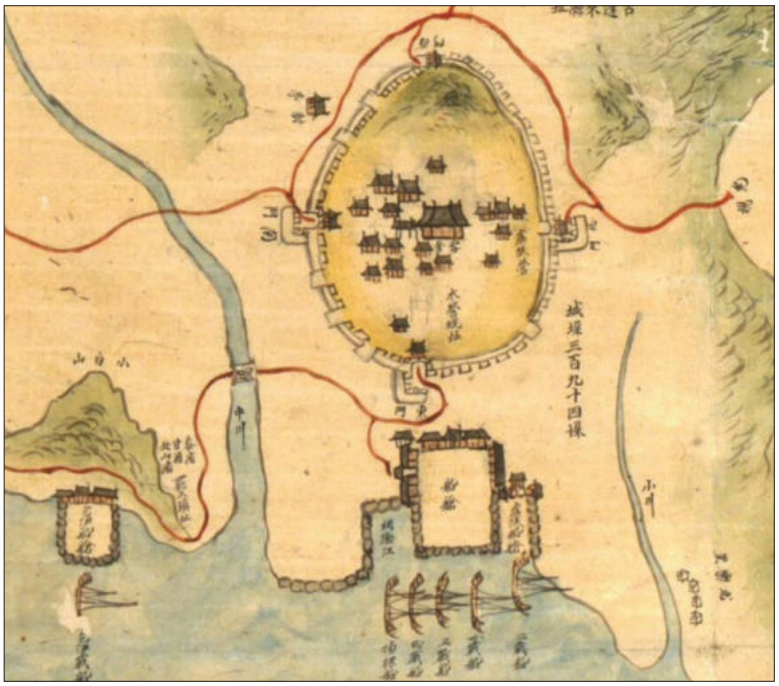
왜관은 개항장의 설정과 변천에 따라 치폐(置廢)를 거듭하였다. 1510년(중종 5) 경오왜변(庚午倭變) 이전까지는 부산포왜관(현 자성대 부근)이 있었으나, 1544년(중종 39)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으로 다시 통교가 중단되자 왜관도 폐지되었고, 다시 1547년(명종 2) 정미약조(丁未約條)의 체결로 부산포에만 왕래를 허락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으로 다시 폐쇄되었다. 1603(선조 36)에는 잠시 절영도왜관(현 대평동 부근)이 있었고, 1607년 국교 회

복과 더불어 부산항내에 두모포(豆毛浦 : 현 동구 수정시장 일대)에 왜관이 새로 설치되었다가 1678년(숙종 4)에 다시 초량(草梁 : 용두산 일대)으로 옮겼다.

그리고 삼포의 왜관은 지역을 제한하여 임진왜란 이후에도 동래부사가 일본사신을 접견하였으며, 왜관에서만 왜인들의 거주가 허락되었다. 왜관 주위에는 복병막소(伏兵幕所 : 중구 대청동의 복병산)를 설치하여 왜인은 물론 조선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1678년(숙종 4)부터 1876년(고종 13)까지 초량왜관(현 용두산과 복병산 일대)이 존속하다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에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로 바뀌었다.

한편으로 부산 지역에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 즉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이 있었다. 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1908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의 경상좌수영은 태종 이전에는 부산의 감만이포(戡蠻夷浦 : 남구 감만동)에 있었으나 태종 때 이를 울산의 개운포(開雲浦)로 이전하였고, 이후 선조 때에 동래 해운포(海雲浦), 즉 오늘날의 수영동으로 옮겨왔다.

경상좌수영 관내에는 원래 1개의 첨사영(僉使營)인 부산진(釜山鎭)과 10여 개의 만호영(萬戶營)인 동래부(東萊府)의 다대포영(多大浦營: 사하구 다대동)·해운포영(海雲浦營 : 수영구 망미동)·서평포영(西平浦營 : 사하구 구평동), 기장현(機張縣)의 두모포영(豆毛浦營), 울산(蔚山)의 개운포영(開雲浦營)·서생포영(西生浦營)·염포영(鹽浦營), 장기(長鬐)의 포이포영(包伊浦營), 경주(慶州)의 감포영(甘浦營), 영덕(盈德)의 오포진(烏浦鎭), 영해(寧海)의 축산포영(丑山浦營), 흥해(興海)의 칠포영(漆浦營)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에 다대포영이 첨사영으로 승격되고, 해운포영·염포영·오포영이 폐지됨으로써 임진왜란 이후에는 2개의 첨사영과 8개의 만호영이 있었다. 그 후 임진왜란 때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해상 방어의 요충지인 부산 지역으로 두모포영·개운포영·포이포영·감포영·축산포영·칠포영이 옮겨와 10진(鎭) 체제가 갖추어졌다. 1751년(영조 27)에 감포·축산포·칠포가 혁파됨으로써 경상좌수영에는 7진 체제가 확립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경상좌수영 영지도형(營地圖形)』에 보면, 칠포·감포·축산포를 '혁파된 3진 터[罷三鎭址]'라고 표기되어 있다.



1872년 제작된 좌수영성지도(좌수영성 부분만 확대)

위와 같이 그 산하의 수군영(水軍營)뿐만 아니라 경상좌수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동이 많았다. 1636년(인조 13) 사천(絲川; 지금의 수영강)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자 다시 감만이포로 옮겼으나, 감만이포는 두모포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1652년(효종 3)에 옛 터인 수영으로 옮겨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의 군제개혁으로 경상좌수영이 혁파될 때까지 243년간 있었다.

조선 후기의 부산지역은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다. 1740년(영조 16)에 편찬된『동래부지(東萊府誌)』에 의하면 동래부에는 읍내면(邑內面)·서면(西面)·북면(北面)·동면(東面)·남촌면(南村面)·동평면(東平面)·사천면(沙川面) 등 7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읍내면은 동부(東部 ; 동래읍성 동문 일대, 13개의 리)와 서부(西部 ; 동래읍성 서문 일대, 12개의 리)로 구분되어 모두 25개의 리가 있다. 서면은 지금의 동래구 서남부와 연제구, 부산진구 동부 일대에 11개의 리가 있었으며, 북면은 지금의 금정구 일대에 9개의 리가 있었다. 동면은 지금의 금정구 및 동래구의 동부와 해운대구 일대에 12개의 리가 있었다. 남촌면은 상단(上端)과 하단(下端)으로 구분되어 16개의 리가 있었다. 동평면은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에 13개의 리가 있었으며, 사천면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어 상단은 사상구 일대 6개의 리로 하단은 사하구 일대 9개의 리로 모두 15개의 리가 있었다. 1868년(고종5)에 편찬된『동래부사례(東萊府事例)』에 의하면 읍내면·동면·북면·서면·남촌면의 이름은 그대로 전하고 새로이 동평면·부산면·사상면·사하면이 보이고 있어 1868년 이전에 신설되어 7개 면에서 9개 면으로 변동되었던 것으로 동평면과 사천면을 다시 편제하였다. 이 중 동평면은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의 13개의 리 가운데 지금의 동구 일대 7개의 리를 부산면으로 분리

하였다. 사천면은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여 각각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편제하였다.

(2) 조선시대의 사하



20세기 초에 필사된 『대동여지도』 동래부·기장현지도

고려시대까지 사하 지역은 양주의 속현인 동평현의 작은 마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왜구의 창궐로 인하여 동남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예로부터 사하 지역은 왜가 들어오는 길목으로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교섭에서 중간 거점으로서 역할을 맡아 왔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중요성이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동남해안에는 경상좌수영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 설치된 경상좌수영의 7진(鎭) 가운데 사하 지역에 속하는 수군영이 다대포영과 서평포영 2개나 있었다. 그 중에서 다대포영은 국방의 요새지로 가장 중요시하였는데, 세종 이후 만호영이었다가 임진왜란 이전에 첨사영으로 고쳤다. 조선 팔도 가운데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 보통 첨사)가 설치된 곳은 다대포와 조선과 만주 국경에 설치된 만포진(滿浦鎭) 2곳뿐이었는데, 무관으로서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이 관직은 수군절도사와 동격이었다. 다대성은 석축 둘레가 6,960m이고, 성내의 면적은 26,162㎡이다. 1652년(효종 3) 경상좌수영이 지금의 수영으로 다시 옮겨진 이후 7진 중의 하나이던 다대포의 방비군 규모는 전선 2척, 수군 2,160명, 무학사부(武學射夫)가 236명이었다. 좌수영

상비군의 편성함대에서 좌사파총(左司把摠)을 다대포첨사가 맡았는데, 좌사파총전선(左司把摠戰船)에는 사부(射夫) 18명, 교사(敎師) 5명, 포수(砲手) 24명, 능로군(能櫓軍) 120명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다대포영에 배치되었던 예비병력은 전선 2척, 사후선(伺侯船) 4척이었으며, 몰운산·두송산·금티산(金峙山) 등의 3곳에 병고(兵庫)를 두었다.

다음 서평포진(西平浦鎭)은 세종 때까지만 해도 부산 첨사영(僉使營)에 속한 하나의 작



서평포진성이 있었던 곳(현 YK스틸)

은 성에 지나지 않았다. 이웃의 다대진이 만호영에서 첨사영으로 승격되어 무관 당상관 정3품인 첨사가 임명된 데 비하여, 서평포진은 무관 종9품의 권관(權官)을 수장(守將)으로 하는 작은 진보(鎭堡)였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에 이어 1519년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난 후 진관제(鎭管制) 개편의 필요성에 의해 서평포가 신설된 것이다. 임진왜란 후에 성이 무너져 진보를 유지할 수 없어서 다대진의 성안으로 옮겼다가, 1668년(현종 9) 다대포성이 좁아 다시 서평포로 환원하였다. 1677년(숙종 3) 서평포진이 왜관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수장(守將)의 관계(官階)가 낮아 체통이 서지 않는다고 하여 무관 종4품의 만호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으로 승격되었다. 만호 아래에는 군관 8명, 진리(鎭吏) 6명, 지인(知印) 3명, 사령(使令) 2명을 두었다. 그리고 서평포의 병선으로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고, 수군 1,081명, 무학사부 118명이 있었다. 이 밖에 서평포진에는 선박 자재의 조달을 위해 벌목을 금하는 봉산(封山) 1개 소가 있었다. 서평포의 만호는 경상좌수영의 상비군 편성에서 좌사파총에 딸린 좌초관(左哨官)이었다. 이러한 군제는 1894년 갑오경장에 의해 구군제(舊軍制)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하 지역에는 또한 봉수(烽燧)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도는 고려시대의 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횃불을 올리는 거화(炬火)방식이 5단위로 체제를 확립하였다. 부산 지역에는 해안에 설치된 연변(沿邊)봉수로서 직봉(直烽) 5로(路) 가운데 제2로인 동래-한성(漢城) 간 봉수망의 직봉 및 간봉(間烽)이 있으며, 동평현 관내의 석성(石城)봉수 동래현 관내의 황령산(黃嶺山)봉수·간비오(干非烏)봉수가 있었다. 기장현에는 남산(南山)봉수·임을랑포(林乙郎浦)봉수(당시에는 울산부 소속)가 있었으며, 후에는 계명산(鷄鳴山)봉수·아이(阿爾)봉수 등이 추가되었다. 부산 지역에서 시작되는 제2로 봉수체계, 즉 봉수상준(烽燧相准)의 순서는 석성봉수→황령산봉수→간비오봉수→남산봉수→임을랑포봉수를 거쳐 북상하여 경북 영해에서 안동으로 가서 한성 남산으로 이어지는 19개 봉수로 되어 있었다. 그 후에는 개정하여 계명산봉수→양산 위천(渭川)봉수→언양 부로이산(父老伊山)봉수→경주 소산(所山)봉수로 이어져 한양까지 10개소로 연결되도록 하여 연락시간을 단축시켰다.

사하 지역의 경우 석성(천마산)봉수대는 다대포진을 방수(防戍)하는 후망소(侯望所)로서의 임무를 맡았는데, 1425년(세종 7)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다대포의 응봉봉수대(鷹峰烽燧台)가 첨가되고 있음에서 1530년(중종 25) 이전에 석성봉수대가 폐지되고 다대포 응봉봉수대가 설치 운영되고 었던 것이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에 의하면 "다대포에는 군수염분일좌(軍須鹽盆一坐)가 있다."고 하여, 다대포 지역에 염분이 있어서 소금을 생산하여 관아에 납품했음을 알 수 있다. 서평포진의 감천만에는 바다로 출입하는 배와 사람들을 검문하는 수문(守門)과 공청(公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때는 괴정 지역과 함께 목마장(牧馬場)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응봉봉수대의 모습

서평포는 이웃에 설치된 왜관과 가까워 왜의 배와 인원의 출입 점검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요지였으며, 그 부근에 독지장(禿旨場 : 구평동)이 섰던 교역의 중심지였다. 1일과 6일에 장을 열어 사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장림에서 생산된 소금, 그리고 수공업품 등이 물물교환이나 미·포, 또는 전화(錢貨)에 의하여 교역되었다. 조선 후기 사하 지역의 독지장은 동래장(東萊場 : 2일·7일)·좌수영장(左水營場 : 3일·8일)·부산장(釜山場 : 4일·9일)과 함께 부산 지역의 다른 장과 닷새간의 일정한 순번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목장성 터(왼쪽 위의 산)



목장성 터에 남아 있는 성벽

『동래부지』(1740년)에 의하면 사천면(沙川面)의 하단(下端)이 신초량리(新草梁里)·구초량리(舊草梁里)·대티리(大峙里)·목장리(牧場里)·감천리(甘川里)·독지리(禿旨里)·장림리(長林里)·다대리(多大里) 등 9개의 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1868년(고종 5)에 편찬된 『동래부사례(東萊府事例)』에 의하면 1868년 이전에 3개 면이 신설되어 7개 면에서 9개면으로 변동되었는데, 사천면은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여 각각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편제하였다.

이들 사하 지역은 1899년(고종 33) 지방제도의 개정에 따라 부산부(釜山府)에 편입되었다가 일제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3) 임진왜란과 사하

1592년에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커다란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4월 13일 사하의 응봉봉수대에서 봉화로 일본군의 침입을 알리게 되자 7년간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령 하에 쓰시마를 출발한 일본군은 이날 절영도 앞바다를 지나 오후에 선봉대인 고니시 유키나가[小四行長]의 군대 18,700명은 700여 척의 병선에 나누

어 타고 부산포로 향하고 있었다.



다대진성 주변의 지도(『대동여지도』 동래부 · 기장현지도)

이러한 과정은 임진왜란이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대외관계에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이라 보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명나라의 멸망 원인은 대체로 북로남왜(北虜南倭)로, 즉 중국 북방의 유목민족의 침입과 남방 왜구의 노략질에 의해 국력이 쇠진되어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명(1368~1644)의 대외정책은 해금(海禁)이었는데, 이는 당시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14세기 후반 이후 동아시아는 사회경제적 발전 속에서 대외무역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명나라는 주변 이민족국가들에게 조공(朝貢)-책봉체제(册封體制)를 강요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쇄국정책을 고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시아 3국은 명의 비단·도자기·원사(原絲), 조선의 곡물·면포, 일본의 구리·은·유황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식적인 무역을 하였는데, 조선은 사대교린(事大交隣) 정책에 입각하여 명-조선-일본을 연결한 중개무역을 행하였다. 당시 물자가 부족한 일본은 비단과 면포 등의 교역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조선에서의 삼포왜란과 명나라의 영파(寧波)의 난(일본 상인들간의 무역주도권 쟁탈전)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조공관계가 성립된 이후 무역량과 허가가 극히 제한된 감합무역(勘合貿易)이 시행되었는데, 일본 쪽에서는 무역에서의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물자욕구도 충족

될 수 없었다. 그마저도 1551년 중단되었고, 교역장에서 일본인들이 일으킨 소요사건은 조선과 명나라 양국이 대일무역을 더욱 제한시키게 되어 해금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일본은 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과 명나라를 침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먼저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일본군이 내세운 정명가도(征明假道)는 조선을 속이기 위한 허울좋은 핑계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무역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한 명나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구호였던 것이다. 1590년 일본 전체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 직후의 정국혼란을 수습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라이벌 세력의 약화를 꾀하기 위해 해외전쟁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총병력 29만여 명 가운데 조선 침략군은 약 154,000명이었는데, 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편성표

군대 편성과 대표 장수	군사수	군대 편성과 대표 장수	군사수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	18,700명	제6군 고바야카와 타카카게	15,700명
제2군 가토 키요마사	22,800명	제7군 모리 데루모토	30,000명
제3군 구로다 나가마사	11,000명	제8군 우키다 히데이에	10,000명
제4군 모리 요시나리	14,000명	제9군 하시바 히데카츠	11,500명
제5군 후쿠다 마사노리	25,000명	수군 구키 요시타카	9,000여 명

부산포에 진입한 다음날인 4월 14일 오전에 일본군은 부산진성을 공격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정발(鄭撥) 장군이 분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사하고 성이 함락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길을 나누어 대다수의 병력은 동래로 향하고, 나머지 소수 병력은 다대진성을 포위하였다. 4월 15일 일본군은 군대를 재정비하여 총공격을 시도하자 첨사 윤흥신은 민·관·군을 이끌고 최후까지 싸웠지만 성은 함락되고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이 그 기세를 타고 인접 지역의 서평포진(西平浦鎭 : 구평동)과 다대진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다대첨사 윤흥신은 동생 윤흥제(尹興悌)와 군·민(軍民)을 이끌고 수많은 일본군과 싸웠는데, 첫날에 일본군이 다대포진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윤흥신이 힘을 다해 물리쳤다고 한다. 그 다음날 적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였으나, 병력을 보강한 일본군의 공격이 전날보다 더 격렬하여 마침내는 모두가 순사(殉死)하였던 것이다.

윤흥신이 첫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였던 것은, 당시 조선군의 전투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이 침입할 경우 해상의 적은 수군이 막고 육지에 상륙한 적은 육군이 격퇴하게 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 분담

에 따라 전투에 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수륙 양동작전이 구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다대진성전투 가운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하였던 것은 일개의 전성에 지나지 않은 다대진을 무시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와 같은 조선군의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선군의 문제점은 이순신의 부산포해전에서 해소되었다.

일본군이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함락한 후 곧장 북상하지 않고 사하 지역의 다대포진성을 공격한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대포진이 두 가지의 전략적 요충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다대포는 낙동강을 통해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일본군이 북상할 때 낙동강을 통한 보급활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충지였고, 동래와 양산을 함락시킨 일본군이 4월 18일에 제3군 가운데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가 이끄는 5천, 오토모 요시무네[大友義統]의 6천, 제4군의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가 이끄는 2천 등 총 13,000명의 왜군은 부산에서 다대포를 건너 김해의 죽도[竹島]에 진주하였다. 19일에 불암창[佛岩倉]까지 진출하고 김해성을 포위하여 진주한 이후 6년 7개월 동안 낙동강 하구를 점령하여 북상한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삼아 전세를 계속 유리하게 이끌었던 것이다.

둘째, 다대포는 남해안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동남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해당된다. 쓰시마에서 출발한 일본 수군이 남해안으로 전선을 형성할 때 일본과 조선의 해로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조선의 수군을 얕잡아보고 소수의 병력으로 조선 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李舜臣)은 한산도해전과 안골포해전을 통해 제해권을 장악한 뒤 일본군의 근거지인 부산을 공격해서 일본군의 본국과의 연락을 두절시키기 위해, 그 해 8월 24일에 부산포로 향했다.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와 함께 전라좌우도(全羅左右道)의 전선을 거느리고 출전해 도중에 경상우수사 원균을 만나 일본군에 대한 소식을 물은 뒤 함께 낙동강 하구로 나아갔다. 9월 1일에 조선의 연합함대 166척은 화준구포(花樽龜浦)·다대포·서평포·절영도 등을 거치면서 적선 24척을 불지르고, 이어서 일본 병선 470여 척이 줄지어 있는 부산포의 내항으로 거북선을 앞세우고 전 함대가 돌진했다. 이때 우부장 정운(鄭運)과 거북선 돌격장인 이언량(李彦良)을 비롯하여 선봉장 이순신(李純信)과 중위장 권준(權俊), 좌부장 신호(申浩) 등이 앞을 다투어 적선을 불태우며 쳐들어가 일본 전선에 타고 있는 적병을 쳤다. 그러자 배에 탄 군사들과 육지의 일본군들이 산으로 도망쳐 올라가 총포와 화살을 난사했고, 조선군은 적선을 쳐부수었다. 이순신은 상륙하여 싸우려다 불리할 것으로 판단, 적을 완전히



다대진 성터(현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부근)



다대진성의 잔존 석축(다대1동 857-2)

섬멸하지 않은 채 일본 병선 100여 척만을 파괴하고 함선을 가덕도 방향으로 돌려 앞바다에 돌아와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이 전투에서 죽은 일본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면, 조선군 피해는 6명의 전사자와 25명의 부상자뿐이었다. 조선 전사자 중에는 녹도만호 정운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본거지를 격파당했기 때문에, 이후의 일본군은 해전(海戰)을 꺼려하게 되어 육상전(陸上戰)으로 전환했고 전세는 예상외로 장기전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다대진성전투에서 윤흥신(尹興信) 첨사를 비롯한 다대포 주민이 보여준 항전(抗戰)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전해지는 기록은 빈약하여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전사(戰史)는 다대포의 영광이요,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다대포는 우리 수군과 대결하던 제일선이요, 격전지였다.

임진왜란 때 사하 지역이 차지한 역사적 위치에 대해 알려주는 사적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치열한 전장이었던 다대포진성(多大浦鎭城)은 석축의 둘레가 6,960m이고 성내의 면적은 26,162㎡인데, 도시화로 인하여 거의 다 무너지고 극히 일부만 주택의 담장이나 축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현재 남아 있는 옛날 건물은 몰운대로 이전된 첨사영(僉使營)의 객사(客舍) 하나뿐이다. 다대포 첨사가 조선 수군을 통솔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던 동헌(東軒)이 있었던 곳에는 다대초등학교가 세워져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으나, 첨사영 건물의 하나로 몰운대에 이전 복원된 다대포객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역사적 가치

가 높다. 윤공단(尹公壇)은 다대초등학교의 구석진 곳에 비석만 우뚝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1970년에 현재의 주산 꼭대기로 옮겨 세우고, 1976년에 비석단(碑石壇)을 개축하고 홍살문을 세워 성역으로 표시하고 정비하였다. 윤공단은 현재 부산시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포해전 때 정운이 전사한 곳이 몰운대(沒雲台 : 당시에는 섬이었다)의 앞바다이다. 1798년(정조 22)에 정운의 순절을 기리는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가 몰운대 정상에 일본을 향하여 세워져 있다. 비문은 이조판서(吏曹判書) 민종현(閔鍾顯)이 찬술(撰述)하고 훈련대장(訓練大將) 서유대(徐有大)가 쓴 것이며, 정운의 8대손인 정혁(鄭爀)이 다대첨사가 되어 세웠다.



다대포객사

다대진성전투와 관련된 유물로는 또한 갑옷과 투구, 『다대선생안(多大先生案)』이라는 역대 다대포첨사의 명부가 있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소실되어 찾을 수 없고, 지금 전해져 오는 명단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다대진은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정운공 순의비

한국 전근대의 역사상에 사하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대를 불문하고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크다. 그것은 사하 지역이 단순히 부산 지역의 일부로서 차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시각에 비추어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4. 근현대

1) 개항기 물류유통의 중심지, 사하구

(1) 개항기 일본인의 진출과 부산항의 물류유통

개항 직전 동래를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의 경제는 농업이 중심이었다. 그 외 밭작물도 생산되었는데, 특히 약재의 생산이 활발했다. 일본으로 수출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영도를 비롯한 몇 군데에서 축산업도 활발하였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입지 때문에 수산업도 성행했는데, 대구와 청어는 유명하였다. 제조업으로는 담뱃대, 도자기, 소금 등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담뱃대 생산은 일제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외에도 용두산 공원 주변에 설치되었던 왜관을 중심으로 한 한일 무역과 이와 연계된 상업도 발달하였다. 동래의 전통적인 산업은 1876년 개항과 함께 개항장 경제구조로 재편되어 간다.

개항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조선의 쌀을 비롯한 곡물과 해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해 가고 일본 및 자본주의 국가들이 생산한 상품을 수입해서 교환하는 데 있었다. 개항 당시 80여 명에 불과했던 일본인 상인들은 개항과 함께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수출해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개항기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고 일본에서 공산품이 수입되면서 조선과 동래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는 점차 개항장 무역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개항기 부산의 제조업은 부산 거류 일본인들의 소비와 일본 수출을 위한 단순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주조업과 정미업이었다. 주조업은 조선의 풍부한 곡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부산 거류 일본인들의 소비가 많았다. 한편 정미업은 조선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이었다. 조선 쌀은 대부분 일본의 오사카와 코베 지방으로 수출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일본의 신흥공업지역이었다. 일본 미곡 또한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일본 쌀은 일본 농촌에서 도정된 후 이곳으로 유입되었다. 따라

서 이곳에는 정미시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산에서 이곳으로 수출되는 쌀 또한 도정된 상품이어야 했다. 그래서 개항장에 도정공장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 개항기 대표적인 업종은 무역과 이와 관련한 도정업 및 도소매업 등 상업과 일본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료품 산업이 중심이었다.

한편 개항 이후 조선인들 또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조선인들은 일본인 거류지 인근인 부산 초량과 부산진 등에 거주하면서 일본인 상인과 조선 내륙의 상인들 사이에서 중매 역할로 자본을 축적하였다. 개항 후 일본인들은 법적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되기도 하였지만, 교통불편과 내륙 상품 정보에 어두웠기 때문에 조선인 상인을 매개로 영업하였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기 이전 부산과 경상도 내륙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로는 낙동강 수운이었다. 따라서 초량 주변의 조선인들 뿐만 아니라, 하단, 구포 등 낙동강 연안의 주요 포구를 무대로 활동한 상인들도 성장하였다. 이들을 객주라 불렀다. 이러한 상품유통을 배경으로 한 분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박기종은 1889년 기선회사를 설립했다. 기선회사는 증기를 이용한 선박으로 낙동강을 오르내리면서 부산까지 운항하였다. 그리고 그는 1898년 부하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부산과 하단포간 철도설립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함경도 상인들은 1900년 함경도 지방의 명태를 유통시킬 목적에서 경상도 내륙과 함경도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인 부산에 명태고방을 설치했다. 이곳은 부산 조선인 상인들의 주요한 활동 근거지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인들은 개항 이후 상업의 발달에 편승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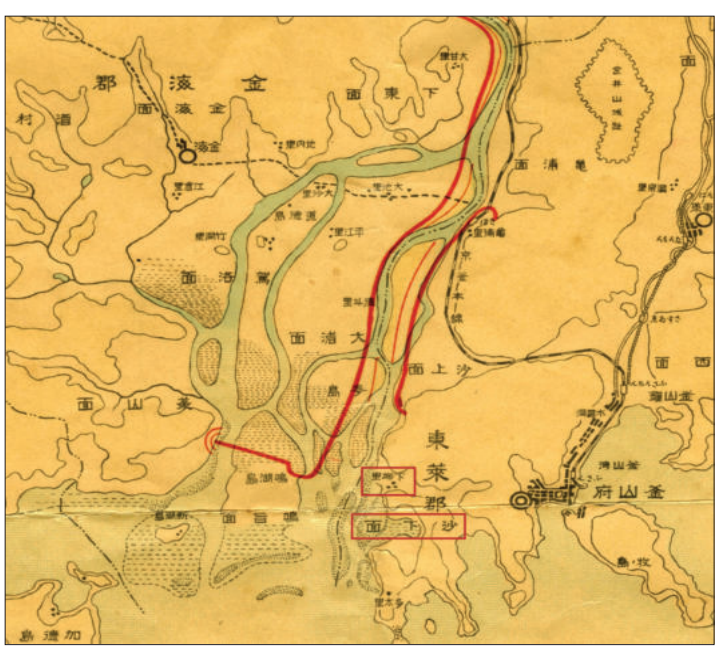
개항 직후 거류지 주변으로 제한되었던 일본인 상인들의 활동 반경은 1894년 청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내륙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05년 경부선과 마산선의 개통은 부산의 일본인들이 경상도 내륙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조선인 상인을 매개로 한 수출상품의 구입과 수입상품의 판매는 일본인들로 대체되었다. 경부선 역이 설치된 곳은 일본인들의 거점이 되었다. 반면 조선인 상인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한편 부산에서는 일본인 상인들의 유통과 일본인들의 생활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북항 매축과 영선산착평공사가 진행되었다. 북항 매축은 1902년~1905년, 1907년~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곳에는 부산역, 부산세관, 부산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해운관련 시설, 정미소 등 수출산업 관련 시설이 등장하였다. 한편 영선산착평공사는 부산 초량과 거류지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산을 제거하는 공사였다. 이 공사로 초량과 거류지가 연결되었고, 주변으로 새로운 시설이 등장하였다.

개항기 부산 경제를 장악했던 일본인들의 의도가 조선의 쌀을 비롯한 곡물 수출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곡물 수출과 관련한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개항기 부산의 공업은 정미업과 주조업을 비롯한 식료품 공업이 중심이었다. 자본금에서 청주 주조업이 높지만 생산액에서 정미업이 약 80%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부산의 미곡 수출항으로서 기능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는 식민지로 접어든 이후에도 일정기간 계속된다.

(2) 개항장 무역의 발달과 하단포 객주의 성장

개항기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조는 부산과 인근 경상도 내륙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었다. 경상도 내륙과 부산과의 교통은 낙동강을 활용한 선운(船運)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산항과 가까운 낙동강변 포구는 하단과 구포였다. 구포와 부산은 육로로 약 7km, 해로로 16km 정도다. 하단에서는 일단 하역된 곡류를 계량한 뒤 다시 포장하여 선박에 옮겨싣는다. 그런데 부산까지의 해로는 하구 부근의 물살이 거칠어 매년 수십척의 선박이 침몰되었다. 육로로 부산까지는 7km가 안되지만 대티고개가 있어 화물이송은 소말짐 및 등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郡
面
東
面
面
面

항에는 중요한 포구마다 객주들이 있었다. 부산, 초량, 서하, 영도, 부평, 하단, 엄궁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하단은 낙동강과 부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로 당시 낙동강 연안의 포구 가운데 가장 번성한 곳이었다.

개항기 부산의 객주들은 초기에 난립하였다. 1889년 부산의 객주는 총 150~160명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1890년 이후에는 60명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객주의 증가로 스스로의 이익이 침해를 받자, 일본인 상인들의 자본력에 대항하기 위해 객주들은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 객주상회사를 조직하였다. 객주상회사는 정부의 수세업무를 대행하거나 또는 정부에 정기적으로 영업세를 납부하면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상품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구전(口錢)'을 징수하였다. 객주상회사는 하위의 소상인을 통제하는 구실도 하였지만, 개항장에서는 외국상인의 물품거래를 통제하고 국내 상권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객주는 특정 상품이나 특정 지역의 상인들과 거래를 독점하였다. 하단포 객주들도 인근 밀양, 진주, 고성의 상인들을 상대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1899년 부산객주상법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래부에서는 이 회사 44인에게 영업세를 징수하고 독점권을 인정하였다. 나머지 중소객주들은 이들 대객주 아래로 편입되어야 했다. 당시 부산의 대객주는 초량, 영도, 부평, 하단 등의 객주였다.

그리고 1890년 3월에는 통리아문에서 부산항 객주 25명에게 전관 지역을 지정하고 부산항 객주 영업세 장정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특정 지역의 물산에 대한 독점영업권을 일부 지정객주에게 부여하고 대신 이들로부터 1인당 60관문의 신원보증금과 2관문의 영업원 수수료를 징수하였고, 정기적으로 영업세 명목으로 구문의 일부를 상납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탈락된 객주들은 25명의 객주에게 분속되어야 했다.

이처럼 부산항 객주상법회사 44명의 객주를 25명으로 줄이고 전관 지역별 읍주인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일본 상인과 접촉하는 객주를 통제하기 용이하다는 점, 일본 상인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거래체제의 단순화, 구문 징수의 강화로 세금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대응하여 국내 소상인이나 일본 상인들은 객주들의 구문이나 각종 잡세의 폐단을 지적하고 철폐를 한국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다양한 자료에 등장하는 '하단포 객주가 거두는 8분세를 혁파해 달라는 요청'이나 '외항 객주와 밀양 등지의 주인이 (영업세)를 직접 상납케 해 달라는 요청' 등은 지역을 단위로 독점권을 지니고 있던 하단포 객주를 상대로 하는 하위 단위 상인들의 요구였다.

아래 자료들은 하단포 객주들의 활동을 보여준다. ②④의 사료는 하단포 객주에게 주변 고을을 중소 객주들의 분속을 거론하는 자료이다.

① 京鄕의 浮浪輩가 稅監을 圖差하여, 下端 各浦에서 8分稅를 捌出하여 客主에게서 白徵하고 農土船 都主人이 卜船을 與賃하여 5分稅를 更設하는 등 殘民을 괴롭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外衙門에서 새로 정한 節目으로 시행한다고 해당 各浦에 布諭하고 馳報하라는 關文(『釜山港關草』 1893년)

② 密陽·晉州·固城 등 3邑의 主人을 下端의 客主都中에게 移付하라는 關文(『釜山港關草』 1893년)

③ 河端 嚴弓浦로 差定해 내려보낸 收分監官 金現逸이 上納을 愆滯하고 있으니, 그를 붙잡아 春納金 1,250兩을 20일내 外衙門으로 輸納하도록 하며, 尹永旭에게서는 稧社上納金 2,000兩을 來納하도록 하라는 關文(『釜山港關草』 1893년)

④ 前 釜山監理의 來牒과 下端 各浦 客主들의 稟稱에 의거하여, 該 客主들이 설치한 商會社에 大邱·靑道·密陽 세 고을의 主人들을 劃付하니, 該 浦의 官·商民에게 周知시키라는 關飭(『釜山港關草』 1893년)

⑤ 下端浦의 八分稅와 農土船都主人이 卜船을 賃賃하여 받는 5分稅 등을 영구히 폐지하고, 새로 정한 節目에 의해 上納하되, 該浦 客主들의 所納額이 2,950兩에 이르니 그 情勢로 보아 逐年排比해도 末由이므로 별도의 矯捄策이 필요하다는 報告(東萊統案, 1893.06.07)

⑥ 下端浦 句管客主 金子鴻이 上納할 抽分稅 800兩 중에서 그간에 所捧한 705兩을 時價로 割利하고 紙幣로 바꾸어 106元 82戔을 우선 上送하니 나머지는 차례로 輸上하겠다는 報告(東萊統案, 1893.06.07)

⑦ 下端浦 8分稅 抽分 중 衙門에 納할 3월 當五錢 1,250兩을 上送한다는 牒 제4호(東萊統案, 1893.06.07)

한편 개항기 하단은 조선인 객주와 일본인 상인 사이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조선인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아래 사료는 낙동강 하류에서 일본인 어부들의 어로행위가 조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일본 영사관에 이의를 제기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부산 낙동강 하류 三浪에서 下湍과 鳴湖 등의 곳은 江流인데도 이곳에서 근래 일본인이 어채를 자행하여 쟁단이 자주 일어나니, 전라, 경상, 강원, 함경 4도의 해빈에서 捕魚함은 章程에 나와 있으나, 沿江漁業은 章程에 없는데도 외국인이 임의로 침탈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

산 거주 朴昶奎 등의 청원서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니, 연강은 海面과 다른데도 일본인이 章程을 어기고 어채를 자행하여 我民의 영업을 임의로 침탈하니, 外部大臣이 東萊監理에게 轉飭하여 낙동강 하류 연강에서 일본인이 捕魚하는 弊를 그 港 日本領事에게 知照하게 하여 금지시키도록 하라는 照會 제9호. (『農商工部來去文』(발신자 민영기, 박제순) 1899.05.13.)

다음 사료는 개항기 부산에서 생활하던 일본인들이 전관거류지와 가까운 초량은 말할 것도 없이 영도 방면의 조선인 소유지를 매입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이 거류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조선정부의 감독이 강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들의 매도와 일본인의 매입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아래 사료에서는 초량과 영도만이 아니라 사하면에도 일본인들의 토지매매가 성행해지고 있다는 보고 자료이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가 엄정히 대처토록 지시하고 있다.

絕影島와 沙下面 富平 平林 槐亭 大峙 下端 等地 田畓家舍를 6월부터 8월에 日人에게 賣買한 일이 많다고 하는데 賣買時의 奸滑輩를 嚴懲하고 影島에 日本人이 산 땅은 賣主를 嚴飭하여 還退하도록 하며, 沙下面 富平 等地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按章 遵辦하라는 指令 제5호.
(『釜山港關草』 1893년)

이상에서처럼 개항 후 낙동강 하구와 부산항을 잇는 물류거점이었던 하단포에는 객주들의 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은 물론 일본인들의 다양한 형태로의 침탈도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하단의 위상은 많이 낮아졌다. 1910년 무렵 하단의 인구 구성을 보면 조선인 약 700명, 일본인 약 150명이었다. 일본인들은 일본인회를 만들었으며, 조선인 일본인 대부분은 어업을 영위하였다. 이 무렵 미곡의 중매업을 하는 조선인은 약 10명이고, 일본인측은 부산미곡조합의 출장소를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개항기 물류유통의 중심지, 하단

① 기선회사의 설립과 운영

개항기 박기종은 관료와 기업가로서 활동하였다. 개항전 초량왜관을 출입하면서 거간으로 돈을 모았다는 설도 있고, 오늘날 부산 앞바다에 어장을 사 어장경영으로 얻은 이익금으로 강서구 대저동에 수천두락의 농지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개항 전후 상당한 재



개항기 박기종의 사진

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개항 후 1886년 부산항 경찰관에 임명된 후 기선회사 설립에 관여하였다. 당시 부산항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해운업이 필요하였다. 낙동강을 이용한 물자유통은 조선시대 조세운반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하였다. 그런데 낙동강 하구, 다대포 앞바다는 전통적으로 선박의 침몰이 많은 지역이었다. 안전하고 규모가 큰 해운업이 필요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산항에 1887년 2월 전찰회사(電察會社)가 있었고, 소형기선 1척으로 화물과 상인을 싣고 낙동강 유역과 경상도 연안 각지를 정기운항했다. 이 회사는 1888년 7월 남연회사(南沿會社)로 명칭이 바뀌고, 통리아문에 10분의 1세를 상납하는 대신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었다(10년간 다른 기선운항을 허가하지 않는다). 1889년 4월 기선회사(汽船會社)가 설립되는데 이것은 남연회사의 후신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1890년 일본인 송미원지조(松尾元之助 : 朝日組 이사)로부터 기선 태륜환(舷輪丸)을 구입해 운항했다. 선원은 일본인 10명을 고용했다. 계획에 의하면 이 배는 부산항을 출발해 구포, 삼량진까지 운항하는데, 2~3일에 1회 왕복하고, 편도 8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배는 부선을 끌고 부산항에서 낙동강을 오르내렸는데, 흘수(吃水 : 배의 바닥이 물에 잠기는 정도)가 깊어서, 간조 때에는 운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태륜환(舷輪丸)으로는 부산항에서 낙동강 하구 하단까지 왕복시키고, 하구에서 낙동강 내 각 나루까지는 1890년 11월 웅내환(雄乃丸)을 구입해 운항했다. 이 배가 뒤에 3-5척을 끌고 다녔다. 이 배 또한 연비가 높고, 풍랑에 약해 정시도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흘수가 얕아 삼랑진을 지나 밀양까지 운항했다.

1891년 11월 30일 웅내환은 낙동강 하구에서 강풍으로 침몰해 선원이 전원 사망하고, 회사는 손해를 보았다. 이에 회사는 1892년 2월 조일조(朝日組)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선회사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전부 양도하고, 대신 매월 운임수익의 10%를 기선회사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조일조는 다시 대판상선과 계약해 경상도, 전라도, 인천까지의 연안 항로를

넘기게 된다. 이후 기선회사는 실질적인 해운항로 경영에서 손을 떼었다.

② 부하철도주식회사의 설립

회사의 계획 노선은 부산항과 낙동강 하구 하단까지의 약 6km로, 경편철도였다. 당시 하단에서 부산항 사이의 육로는 약 7km, 해로는 약 16km였다. 낙동강을 통해 내려온 화물을 하단에서 화물선으로 옮겨 싣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하단 부근에는 매년 수십척의 재래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어 위험하였다. 그래서 육로로 인력 또는 우마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통 사정 때문에 철도건설이 계획되었다.

1897년 9월 첫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노선의 폭, 용지매수, 착공시기와 준공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보충해 1898년 5월 발기인 박기종, 윤기영, 보증인 윤기선의 명의로 청원서를 제출, 이 해 6월 3일 부하철도회사 설립이 허가되었다.

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은 당시 개화파 관료였던 안경수(安駉壽), 제일은행 부산지점 지배인이었던 토지(土岐)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제일은행장이면서 이후 경부철도주식회사 사장인 섭택영일(渋沢榮一)은 뒤에 경부철도주식회사 정관을 만들 때 박기종으로부터 부하철도회사의 정관을 요청해 참고하고 있다.

이 회사의 도사장(都社長) 이재순, 사장 안경수, 부사장 민영철, 총무원 박기종이었다. 안경수는 이미 정관 작성과정에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민영철은 1898년 3월 박기종을 서울로 불러올리는 인물이다.

하지만 부하철도의 건설은 좌절되었는데, 이유는 무엇보다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점, 경부철도건설이 구체화되었다는 점, 후원자였던 안경수가 일본에 망명했던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해발 130미터가 넘는 대티고개를 경편철도로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 기술상의 문제점도 있었다.

2) 일본인의 하단 상권의 침탈과 하단 상인들의 애국계몽운동

(1) 국채보상운동

일본인의 상권침탈에 대응한 조선인 상인들의 저항이 현실화된 사건이 1907년 초에 전국적으로 펴진 국채보상운동이었다. 1905년 화폐정리채 명목으로 일본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1,300여 만원을 갚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07년 1월 29일 대구 광문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산항상무회의소가 중심이 된 '동래부국채보상일

심회'가 먼저 제안하였다. 국채보상을 위한 기부금, 단연동맹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모았다. 자료를 통해 사하면의 다대리, 엄궁리, 당리, 하단리에서도 국채보상의무금을 모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료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한 사하 지역의 기부금 납부자 현황이다.

『황성신문』 1907년 3월 19일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 및 액수

東萊府沙下面多大里
李璇弘 尹鼎澔 李璋祜 金源培 朴基性 鄭益珌 朴基權 金致鎬 姜大晉 韓永錫 朴容昊 朴鋌佑 朴泳佑 李東華 韓逸壽 朴基億 崔濟善 梁千文 李在殷 韓鎔夏 崔德彦 盲人 金大植 各三十錢 誼契 李允宗 等 二圜 合 八圜六十錢

『황성신문』 1907년 5월 31일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 및 액수

東萊府沙下面多大里
李璇弘 尹鼎澔 李璋祜 김 源培 朴基性 김 致鎬 朴基權 鄭益필 韓영錫 李東華 朴정 佑 朴泳佑 박容昊 李東華 韓日守 崔濟善 李在殷 韓龍夏 崔德彦 朴琪億 梁千文 金尙璡 리 熙弘 李贊弘 李桂琳 박 英佑 尹琪贊 李良俊 金志民 金琪信 金萬殷 李星壽 韓奉壽 韓進壽 韓洽壽 韓哲壽 韓在敬 李茁伊 金俊 李道植 金德佑 리 京順 金啓俊 姜大瑀 許奎 복埰允 박 京九 禹敬允 兪漢俊 黃燦琦 金基洙 鄭世榮 朴斗植 金在甲 李允道 김 炳圭 李先 리益見 崔긔 度 李啓敦 韓在業 張命茁 裵聖律 林億支 김 聖壽 孫德俊 房達文 김 能贊 김 周贊 裵有文 金贊壽 韓台洽 韓命壽 李釗根 黃國立 黃相吾 김 化述 정 東學 朴日淳 김 時宗 韓今俊 李益淳 김 末律 김 仲光 김 命昆 崔學壽 金仲文 金次壽 崔긔 化 金仲先 韓殷祚 梁德寬 朴末順 金致壽 李容守 崔學坤 裵義俊 金命植 金達守 鄭末律 沈在弘 金尙淑 金大碩 各三十錢 合 新貨 三十圜六十錢

『황성신문』 1907년 5월 21일

釜山港嚴弓里第一回
명 五謙 김 珠淑 孫生杓 夫人김氏 尹聖武 박윤七 林士正 정榮若 리 序七 文道彦 尹周憲 리 基用 姜在文 리 士淳 崔道集 黃正伯 박 文英 黃致卿 리 秀玉 김 亨玉 김 益賢 黃在도 各三十錢 吳洛見 강 正八 리 致玉 박 聖彦 박 文七 리 德仁 安處仁 姜武伯 張性老 김 文見 리 希度 白禹益 김 方九 리 性七 김 成九 文益瑞 김 元三 김 奇瑞 김 先若 高召史 박 召史 各二拾戔 리 敬道 리 仁俊 김 卜三 김 成俊 李殷仲 리 道元 박윤 伯 韓召史 명 召史 各十錢 김 達生 八젼 김 順一 林士弘 予 六錢 合 新貨 十二圜二十錢

釜山港堂里第一回
李裕眞 金根實 洪啓哲 李裕日 尹希九 리 白榮 김 翼重 梁在日 梁在國 최 在榮 張學九 車俊 權泰宗 趙達載 朴柱學 崔영 守 裵영 禧 리 寬逸 朴基祚 강 周영 梁在玉 정 元朝 李德祚 白益先 金以祐 田允伯 梁在己 洪병 翼 裵奉煥 金相斗 李尙敏 劉在皓 池大仁 복 奉珠 金弘伊 리 長元 洪啓禹 甘基福 崔聖弘 梁錫贊 車基俊 박 今用 徐敬祚 리 七吾 金在俊 田致萬 金致

勳 리 在雨 全章文 林應奎 元光錫 裴윤 伊 車敬順 尹영 先 각 二拾戔 合 新貨 十圜八十戔

釜山港下湍里第一回
安敬文 金銀言 李璡若 各三十錢 강 基祿 朴子現 崔敬彦 石性伯 都敬和 尹性守 田致玉 강윤 吉 金洛彦 朴先台 柳舜五 崔明壽 李達支 강 基五 강윤 尙 崔士益 河元淑 許性一 박 文윤 강 基彦 李性伯 김 舜西 리 武益 박 允瑞 박 泰玉 리 文一 강 舜三 尹性樂 리 文宜 崔明彦 柳 相珠 김 文圭 蔡元必 金尙五 文士震 金云山 張德佑 金仁吉 뉸 性文 강 明淑 崔德伊 裴尙 具 德和 梁順益 강 命述 林星烈 金希和 金尙進 裴윤 贊 각 二拾錢 合 新貨 十환 七拾錢

(2) 근대학교 설립운동

우리나라의 신교육은 개항과 동시에 서양 문화에 자극받은 선각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초창기에는 주로 기독교계 학교 설립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배재학당(1885년)과 이화학당(1886년)이다. 민간인이 설립한 대표적인 사학은 원산의 원산학사(元山學舍, 1883년),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興化學校, 1895년) 등이었다.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근대교육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한성사범학교(1895년)가 설립되면서 근대교육의 진정한 모습을 갖추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도 근대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먼저 부산 경무관이었던 박기종은 수신사를 따라 일본에 두 번이나 갔다 온 선각자로 부산의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 교육에서도 1895년 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1896년 2월 사립부산개성학교를 개교하였다. 개성학교는 1899년 구관지교와 부산진지교를, 1900년에는 동래일어학교와 밀양개창학교, 마산일어학교를, 1904년에는 기장일어학교와 경주계림일어학교를 산하 보조교 형식으로 확대하였다. 이들 학교는 주로 일본어와 수학을 가르쳤고, 교사 또한 일본인도 많아 일본이 일제 식민지교육의 전초작업을 위해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개항 후 기독교 선교활동이 활발해지는데, 특히 1891년 호주 장로교 여자 선교연합회가 부산에 와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일신여학교이다. 1895년 좌천동 한 초가집에서 개교한 이 학교는 1909년 학부대신의 인가를 얻어 3개년 과정의 고등과를 병설하고 여성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동래에는 1898년 동래부학교를 만들어 신교육을 시작했으나 1904년 개성학교 교장 주선으로 개양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가 일본 자금으로 운영되어 성격이 친일적이었기 때문에 동래 기영회원들이 1906년 삼락학교를 만들어 대응하였다. 그리하여 개양학교는 학생을 삼락학교에 빼앗겨 학생들이 줄어들자 나머지 학생들을 삼락학교에 편입시키고 폐

교되었다. 삼락학교는 개양학교를 합병한 후 1907년 동명학교로 개명하였다.

이 외 개화기 부산에 세워진 교육기관은 육영재(育英齋, 1899년), 양정숙(養貞塾, 1908년), 다대포 사립 실용학교(私立實用學校, 1902년), 사립 구명학교(1907년), 사립 옥성학교(1908년), 사립 명정학교(범어사 금어암, 1908년), 사립 양정학교(하단, 1908년), 사립 초량학교(1909년), 가인학교(加壹學校, 1909년)이 있다.

신교육은 1905년 이후 항일운동과 결합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말 애국계몽운동가들은 교육을 통한 애국정신의 함양, 민족의 각성과 단결도모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각종 학교 이외에 전습소, 강습소, 서당, 야학을 통해 교육운동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민중에게 근대 학문을 보급하였으며, 국어·국사 같은 민족교육을 가르쳤다. 1910년 7월 현재 세워진 학교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신교육은 과거 응시를 목적으로 한 구교육을 지양하고, 근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화 교육이었다. 그래서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과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국어·국사교육이 중심이었다.

다대포 사립 실용학교의 설립 취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東萊府沙下面多大里私立實用學校趣旨書

夫主權之振立은 在乎民智之發展이오 民智之發展은 在乎學術之擴充也라 現今 全球大闢에 各國에 交涉ᄒᆞ고 新學이 互濟ᄒᆞ야 各爲富强之方과 開明之策인ᄃᆡ 顧此我韓士庶가 方慨今日之所遭ᄒᆞ고 追悔往年之罔悟ᄒᆞ야 設立學校에 樂育英才가 自京而鄕ᄒᆞ고 從近而遐ᄒᆞ야 臨時綢繆ᄒᆞ고 隨處蔚興ᄒᆞ니 二千萬同胞가 竭殫丹衷ᄒᆞ야 三千里大界에 振興靑邱ᄂᆞᆫ 卽今日之急務오 亦此時之先覺也 衣君食君之民과 祖國父國之孫이 孰無激勵之心이며 詎無報答之誠이리요 忠臣之捐身扶危와 學生之斷指同盟은 日月昭鑑이오 今古罕有라 忠之所激에 百身難贖이오 侮之將至에 萬心齊奮ᄒᆞᄂᆞ니 以是而懦如嫣婦도 莫不團會而評議ᄒᆞ고 愚如樵牧도 亦有夜學而勉旃ᄒᆞ야 期就將來之蘇星에 圖免已往之慢侮者 皆非身謀오 實爲國計也인ᄃᆡ 顧我本洞이 雖蕞爾偏坊이나 均是一視下涵養之物노 擡頭猛省에 頓覺醉睡之朦朧이오 拭眼默揣에 便起灰心之吹動ᄒᆞ야 八九同志로 刱一學校ᄒᆞ야 名之以實用이라 ᄒᆞ니 盖普踏實地ᄒᆞ야 需用國家之義也라 辛勤辦資가 未繼兩年之支撥ᄒᆞ야 團結學徒가 方遭半途之觧散ᄒᆞ니 何期寸心之圖報가 遽至一簣之虧功고 可歎者乏力也오 可惜者前績也라 昔非不足이어니 今豈有餘ᄂᆞᆫ 卽人性之同粹오 靡不有初로ᄃᆡ 鮮克有終은 卽人力之不齊也라 雖然이ᄂᆞ 欲棄之則 膠守舊規가 有非此時禦侮之策이오 欲就之則 棄窮新貨에 全沒此際做課之方ᄒᆞ니 當此而彷徨ᄒᆞ고 執此而逡巡호ᄃᆡ 莫定其基礎ᄒᆞ고 未得其方便일ᄉᆡ 監校同志로 更加協議ᄒᆞ야 一邊은 各增自辦ᄒᆞ고 一邊은 或 聚義捐ᄒᆞ야 仍舊貫加一層ᄒᆞ야 廣集學生ᄒᆞ고 別購書具ᄒᆞ야 俾得始終成就ᄒᆞ며 以爲萬一報答케 ᄒᆞ오니 有志僉君子ᄂᆞᆫ 照亮ᄒᆞ시옵 發起人 正三品 李璇弘 正三品 尹鼎澔 李璋祜 金禮龍 正三品 金致鎬 韓永錫 朴鋋佑 朴永佑

『황성신문』 1898년 3월 8일

3) 일제강점기 사하구의 사회 문화

(1) 사하구의 근대 경제구조

일제강점기 사하구의 인구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자. 1917년 동래 전체의 인구 통계를 제시한다.

1917년 동래군 인구분포

面名	일본인		조선인		합계	
	戶數	인구	戶數	인구	戶數	인구
동래면	194	599	3,039	15,150	3,233	15,749
북 면	2	33	955	5,620	966	5,653
좌이면	152	517	1,296	6,538	1,448	7,055
사상면	43	153	1,193	6,857	1,236	7,010
사하면	112	396	1,528	8,094	1,640	8,490
서 면	64	226	1,338	7,753	1,402	7,979
남 면	50	169	1,121	6,079	1,171	6,248
기장면	53	221	1,245	6,557	1,298	6,778
일광면	4	12	821	4,673	825	4,685
장안면	14	45	1,085	6,152	1,099	6,197
정관면	1	5	724	3,971	725	3,976
철마면	1	4	669	3,974	670	3,978
합 계	699	2,380	15,014	81,418	15,713	83,798

久納重吉,『東萊案內』1917, 5~6쪽

1917년 현재 동래군의 전체 인구는 8만 3천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동래면의 인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사하면으로 8천 4백여 명이었다. 이 무렵의 사하면 인구는 1936년에는 10,358명으로 증가하였다. 사하면 인구의 민족별 분포를 보면 조선인이 약 8천여 명, 일본인이 4백여 명이었다. 사하면의 인구는 동래군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1910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인들이 건설한 이주어촌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주어촌은 일본인 어민들이 조선으로 이주하여 건설한 어촌마을을 말한다. 이주어촌은 전국의 해안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나, 특히 경남이 많았다. 부산에는 영도, 용당, 다대포, 하단, 대변에 이주어촌이 만들어졌다.

부산 지역 일본인 이주어촌의 현황

	이주시기		戶	인구	어선수	어획고
영 도	1876	집단이주	1,138	4,214	258	692,510
용 당	1906		23	100	15	14,000
다대포	1906					
하 단	1908	자유이주	43	174	25	12,800
대 변	1907		34	109	20	33,500

자료 : 慶尙南道, 『慶尙南道における移住漁村』 1921
김수희,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2010, 76~78쪽

위 표에 따르면 이주어촌 가운데 영도에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이 가장 많고 다음이 하단과 용당이다. 어선 수가 적지않지만, 어획고 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봐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하단과 다대포에 거주한 일본인들은 어업 이외에 김을 비롯한 다른 수산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하에 일본인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일본인 학교의 설치로도 확인된다. 1917년 당시 사하면의 교육기구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제강점기 사하구 학교 현황(1917년)

민족별	학교명	창립시기	남학생	여학생	1개년 경비
조선인	사립양성학교	1908년	55명		430엔
	사립실용학교	1906년	54명	9명	800엔
일본인	하단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08년	15명	8명	899엔
	다대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09년	6명	2명	739엔

納重吉, 『東萊案內』 1917, 10~11쪽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인 학교에 비하면 일본인 학교의 학생 수는 아주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비율은 조선인 학생들에 비하면 아주 높았다. 그리고 학교 경비는 학생 수에 비교해 일본인 학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조선인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었음을 의미한다.

사하면의 주요 산업구조는 농업과 수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통계표가 없어 확인하기 곤란하다. 1930년대 자료이긴 하지만 사하면에서 사하번영책 좌담회가 있었는데, 그 때 논의된 내용 가운데 경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농업개량촉진, 어업진흥, 부업장려 등이다. 물론 당시 대부분 농업과 어업이 중요한 산업이었기는 하지만, 특히 사하

구가 두 가지 모두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자연지리적인 요인과 관련있어 보인다. 이보다 앞서 사하면 하단리에서는 농어촌진흥을 위한 하단진흥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사하구를 대상으로 보도한 언론 기사들은 대체로 수산업 관련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하단과 다대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산업이 중요한 산업이었음을 말한다. 낙동강 하구의 수산업과 관련해 특히 중요시 할 수 있는 분야는 해태(海苔)이다. 낙동강 하구에서 김 양식은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해 일본 후쿠오카 출신인 박우길(泊友吉)이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초 일본인들은 주로 김 생산을 대경영으로 하였으나, 높은 인건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생산은 시설투자에 의한 증산보다는 대부분의 생산공정이 사람들의 손에 의존했다. 따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투자대비 수익이 낮았다. 일본인 투자자들은 중간상인, 지도검사원으로 변신하면서 김 생산에 소극적이었다. 대신 김 생산은 주로 조선인들의 가족노동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1932년의 경우 조선 전체 김 생산량의 93%가 조선인이 생산할 정도였다. 사하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였다.

① 지난 20일 오후 3시 동래군 사하면 낙동강 해태어업조합에서는 다대 명지 낙동 3조합 이사가 집합하야 해태 도난방지방법을 협의하는 외 종래 각 조합어장 경계가 분명치 못하야 종종의 분쟁이 이러났음으로 피차에 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든 중 이번 기회로 원만해결되었다.
『동아일보』 1932.12.6.

② 경남 동래군 사하면에 있는 낙동강해태조합에서는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으로 지난 19일에 동조합사무소에서 임시총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을 개선한 결과 박진용씨가 당선되었다.
『동아일보』 1933. 3.25.

③ 경남 동래군 사하면에 있는 낙동강 해태어업조합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동사무소에서 임시총대회를 조합장 박진용씨 사회하에 개회하고 다음의 의안을 토의 결정한 후 감사 1인의 보결선거를 한 결과 김용안 씨가 당선되었다 한다. 1. 건해태위탁판매에 관한 건 2. 소화7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의 건 『동아일보』 1933.12.21.

위 ①번 사료에서는 낙동강 하구에 낙동, 다대, 명지에 세 개의 해태 관련 어업조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하구에 포함되는 낙동과 다대 어업조합이다. 조합장은 박진용, 김용안 등 조선인이 맡고 있는 것으로 봐, 생산자가 조선인 중심임을 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태의 도난 문제, 어장의 경계가 조합 사이의 분쟁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번 사료에서 마른 해태 위탁판매 즉 유통문제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태 어업에 종사하던 조선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은 아니었다. 1934년의 홍수로, 낙동강 하구 해태어업이 궤멸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의 사료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 ④ 경남 낙동강 해태가 전멸되어 3천여 종업원은 생도가 막연하야 기아선상에 헤매는 자가 2천 5백여 명에 달하고 그들의 식료품은 청해태와 하등싸라기를 섞어서 죽을 끄려서 근근이 연명하여 오는 현상인데 그 현상은 날이갈수록 심각화할 뿐이라 오즉 구제의 손만 기대려고 있다 한다. 이에 그들 3천여 명의 종업자 중 결식자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한다. 2일 1식자 694인 호수 139호, 1일 1식자 968인 호수 191, 1일 2식자 875인 호수 178 합계 결식자 2537인 우 동호수 508호 『동아일보』 1935.1.29.

식료품이 없어 하등품 해태로 죽을 만들어 먹으면서 근근히 생활할 정도였다. 조사에 의하면 2일에 한끼 식사한 호수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김 흉작에 따른 사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사하면 어촌의 고기잡이 어부들의 생활도 해태 생산업자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항상 바다라는 자연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어로과정에서 자연재해를 만나 사투를 벌인 다대포 어민들의 모습을 다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경남 동래군 사하면 감천리 이종윤, 이종기, 김남수, 최기술 등 4명이 다대포 어구에서 8해리되는 지점에서 고기잡이를 하든바 돌연 폭풍을 만나 목선이 전복되어 선원과 도구 전부가 침몰되어 혹한과 파도가 심한 바다 우에서 선원들은 굳게 결심하고 전복된 배를 잡고 헤엄을 쳐서 육지로 향하야 오든 중 표류한지 6시간 만에 다행으로 지나든 어선을 만나 전부 구조되어 생명을 구하엿다는 기적적 사실이 있다 한다. 『동아일보』 1934.1.24.

한편 일제강점기 사하 지역의 사회시설과 관련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소방시설의 등장이다. 이 시대 소방시설은 일본인들이 아주 중요시하였는데, 사하 지역의 조선인과 일본인은 1933년 사하소방조(沙下消防組)를 설치하였다. 이 소방조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소방조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조두(組頭)는 일본인이 담당했다.

(2) 일제강점기 사하구의 청년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문화정치로 전환하면서 조선 민중들은 다양한 계층들의 부문운동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각 지역별로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1운동을 전후해 다양한 단체들이 등장하였는데, 청년회가 조직화되는 것은 1920년대 전반기이다. 1922년 2월 5일 동래청년회, 구포청년회가 창립되고 있는 것으로 봐 이 즈음 각 지역별 청년회도 창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하면 단위 청년회는 1928년 조직되고, 이전에는 각 리단위의 청년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료로 하단청년회가 사하청년회보다 먼저 확인된다. 하단청년회는 1925년 11월 25일 설립되는 동래청년연맹의 단체로 참가하였고, 대표 이일영은 집행위원에 포함되었다.

먼저 하단청년회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25년 8월 하단청년회 간부인 이일영씨 등 10여 명이 수재구제방책을 강구하였으나 당국의 제지로 실패하자 연극의 한 형태인 소인극을 시작하여 17원 58전이라는 자금을 모아 수재구제회에 전달하였다.

1916년 11월 3일 하단청년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작년 수해이재민을 위한 구제자금으로 사하면에 전달된 자금을 각 마을에 출장하여 분배하는 일과 공용 자금의 횡령에 대한 징계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여기서 청년회의 활동이 마을 주민들과 관련한 비정치적 자금, 모금운동에 의해 확보된 자금의 사용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단청년회는 매년 음력 정월 초 지역 유지의 후원으로 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는 1927년 2월 9일과 1928년 1월 28일 남조선각극대회(南朝鮮脚戱[씨름]大會)이다. 이 대회에 걸린 상품은 일등 농우 1필, 2등 이하는 현금 혹은 백목, 수건, 시계 등 기타 다수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제9회 하단청년회 정기총회를 보면 청년회 활동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하단청년회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집행위원장 이봉흡씨가 사회를 맡고, 재무보고와 임시의장으로 장부근씨와 집행위원을 개선한 후 결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장 피해의 건, 부정회원 성토 제명의 건, 신입회원 모집 및 명부정리의 건, 제5회 각극(脚戱)대회 개최의 건 등이다. 마을 포장과 관련한 문제점에 개입하고 있으며, 회원 관리가 엄정함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추진해 오던 씨름 대회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다.

1927년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청년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전환이 모색되었다. 종전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정치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었다. 기존 동래청년연맹이 1928년 2월 26일 동래청년동맹으로 새롭게 결성되었다. 동래청년동맹은 청년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민

족적 이익의 획득,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 및 훈련의 철저를 기함, 청년대중의 확고한 조직의 완성, 파벌주의 배격 등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민족적 정치운동을 실현하려는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동래청년동맹은 설립된 후 삼총(조선청년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해금문제, 소년문제, 여성문제, 농민문제, 어민문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논의하였다. 동래청년동맹은 동래 지역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동래청년동맹 설립 후 각 지부 설립에 나섰다. 산하 지부는 사하지부, 기장지부, 좌천지부, 여고지부, 동래지부, 구포지부였다.

이에 따라 하단청년회는 해소되고 동래청년동맹 사하지부로 재편성되었다. 1928년 5월 6일 동래군 사하면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동래청년동맹 사하지부 설치대회를 거행하였다. 준비위원 장순혁씨의 경과보고 후 동아일보 특파원 김인호씨의 취지설명과 동래신간회 외 4단체의 축문낭독이 있고 경상남도 도연맹 집행위원 박일형씨의 축사가 있었다. 창립총회가 있은 후 현실문제를 토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괴정 다대간 도로 건설을 위해 부역을 부과하는 것은 농번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하면 행정 당국의 잘못된 인식이라 생각하고 사하지부 집행위원회에서 맡아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논의사항은 1.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자유 획득의 건, 1. 기회주의 및 파벌주의 적극적 박멸의 건, 1. 신간회 적극적 지지의 건, 1. 문맹퇴치의 건, 1. 삼총(三總) 해금운동의 건, 1. 조혼폐지의 건, 1. 농민교양의 건, 1. 농민조합의 건, 1. 본부 대회 건의안의 건, 1. 본부 대회 대의원 선거의 건, 1. 사하면 운동통일의 건, 1. 괴정 다대간 도로문제의 건, 위원=위원장 이봉흡, 후보 임근수, 위원 김지태, 박규석, 장순혁, 이재헌, 문재철, 임병태, 김동명 등이다.

사하지부의 장순혁이 1929년 3월 동래청년동맹 조직선전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사하지부와 동래청년동맹의 관계는 긴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립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단순히 사하 지역의 문제만을 다루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론 기존 하단청년회가 추진해 오던 대중적인 행사였던 씨름대회는 지속되었다.

동래청년동맹 사하지부의 조직으로 각 마을 단위의 '반'이 설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9년 4월 2일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 장남선 씨 집에서 동래 청년동맨 사하지부 하단반을 설치하였는데 반원 수는 17명이었다. 위원은 반장 박갑진, 서기 박갑동, 위원 이영주, 장남선 등이었다.

사하지부의 사회운동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명퇴치운동이었다. 문맹퇴치 기념강연을 개최하였는데, 장소는 1차 괴정리 동사, 2차 하단야학교였고, 강연제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았다. 문맹퇴치운동의 의의, 독서를 권함, 조혼의 해독(장순혁), 미신을 타파하자, 백의를 폐지하자(임병태) 등이었다. 사하 지역 사람들에게 근대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동래청년동맹의 정치적 활동은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하지부가 5월 6일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려는데 부산경찰로부터 금지를 당하였다. 그리고 다시 5월 12일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서를 부산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또 금지 당하였다. 이처럼 경찰 당국이 청년동맹의 활동을 제지한 것은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뒤로는 더욱더 강력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청년동맹은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사하 지역의 청년운동도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기존의 동래청년동맹 사하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 청년동맹이라는 조직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단의 서병수, 장순혁, 전두만 등이 1930년 9월 3일 하단 노동야학교에서 백여 명을 모아놓고 소비조합을 창립하였다. 조합장 서병수, 총무이사 장순혁, 이사 전두만 외 1인, 감사 박진용, 김승대, 박성상 등이다. 장순혁은 동래청년동맹 시절 간부를 맡고 사하지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인물이다. 청년운동보다 소비조합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1933년 11월 26일 사하면 청년들이 박병국 외 13명이 발기하여 사하동우회를 조직하였다. 창립총회는 임명조씨의 사회로 진행하였는데 참석자는 80여 명이었다. 토론 내용은 회원 자체교양에 관한 건, 사하공보교(沙下公普校) 학급 증가와 개축운동 촉진에 관한 건 외 4건, 임원 집행위원장 등이다. 회원들 교육과 사하면 내 학교문제가 논의 내용이었다. 이전 동래청년동맹 사하지부가 내새웠던 내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 문제와 관련해 사하공립보통학교 부형회는 1933년 6월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 백여 명이 참석하여 결산보고와 규약변경, 부채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형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단체로 10여 년 이상된 오래된 조직이었다. 이 부형회 미취학 아동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사 증축이 필요하여, 앞선 학부형총회에서 증축기성회를 조직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박진용, 부회장 김양수, 총무 한학동, 박재수, 조경래, 재무 임학조, 서기 김경삼, 전두만, 평의원 김용배, 장순혁 외 32명 등이다.

1934년 2월 28일 사하면 하단에서 가정부인 80여 명이 금검저축과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하단부인회를 조직하였다. 조직을 보면 회장 추부업, 부회장 장소숙, 간사 이금숙, 한

복숙, 박복선, 박소옥 외 8명이었다. 부인회는 마을 단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리부인회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부인회는 봉사활동에 주력했다. 1934년 낙동강 연안 이재민들을 위해 부인회는 모금운동을 펼쳐 하단부인회는 4원 20전을, 당리부인회는 8원을 모아 기부하였다.

사하면 감천리에서는 진영학원 원장 박영호와 동학원 교원 김경술 등이 1935년 1월 20일 부인회를 창립하였다. 50명의 회원이 출석하였는데, 토의한 내용은 1. 미신타파의 건 2. 색의장려의 건 3. 회원교양의 건 4. 공동경작의 건이었다. 임원은 회장 문완숙, 부회장 최남순 외 11인 등이다.



下端婦人會創立

오천二(사하)시에지난一월二十八일

하단부인회 창립 모습(『동아일보』 1934. 3. 3(3)1)

1933년 8월경에는 하단진흥회가 조직되었다. 사하면 하단리 지역의 농어촌진흥운동을 위하여 조직이 필요하였다. 이 조직은 조선총독부의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의 추진과 관련있는 조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단진흥회의 활동이 침체 상태를 면하지 못했다는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농촌진흥운동이 초창기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과 같이 완전한 농촌이 아닌 곳은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하지만 하단진흥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34년 3월에 회원 70여 명이 참석하여 다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4) 해방 후 사하구의 변화

(1) 한국전쟁과 피난민 마을

부산의 산동네가 대규모로 사람이 사는 주거지로 바뀐 것은 한국전쟁의 영향이었다. 해방 후 귀환동포 약 10만여 명이 부산에 남았지만, 일본인들이 빠져 나간 공백을 매웠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해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피난민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쟁 전 약 47만이었던 부산인구가 1·4후퇴 이후 약 84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면 약 40만 명 정도가 부산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으로 피난온 피난민 수가 이 정도라면, 전체 피난민이 1차 피난 당시 약 100만, 2차 피난 때 약 500만 명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많은 수는 아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민이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산 유입 제한조치였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부산에 사상이 위험해 보이는 월남 피난민들을 들여 놓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산 인근의 경남과 제주도로 분산 수용했다. 특히 경남의 거제도에는 함경도 피난민들이 많이 이주했다. 이곳에 약 10만 명 정도 수용할 계획이었다. 다행히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부산으로 들어온 월남 피난민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1950년 12월 6일 부산항에 입항한 피난민들은 미군트레일러에 실려 거제포로수용소(현 연제구 거제3동, 연산동 일대)로 이송됐다. 여기서 피난민들의 성분을 조사해서, 직업별로 분류해 이북에서 공산당 가입여부를 가려냈다.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여기서 공산당원으로 판정나면 일반 전쟁포로와 같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않았다고 한다. 월남피난민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또 한번 의심받아야 했다.

정부의 분산정책은 집단 피난의 경우에는 약간의 실효성이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자유피난민'들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했다.

부산의 인구는 한국전쟁으로 약 40만 명 증가하였다가 휴전 이후 약간의 감소를 보였으나, 1955년부터 다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쟁 피난민들의 직접 이주보다 한국전쟁 중 농촌경제의 몰락과 부산 인근으로 피난와 있던 피난민들이 휴전과 함께 그동안의 통제가 해제되자 부산으로 다시 이주해 왔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정부는 피난민 수용을 목적으로 수용소를 마련하였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인 극장,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기 수용소, 영도의 대한도기주식회사, 영도 해안가, 영도 청학동, 대연고개, 남부민동, 괴정 당리 등 40여 개의 수용소에 7만 명 가량을 수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1950년 연말부터 시작된 중공군 개입으로 인한 유엔

군과 국군의 후퇴로 시작된 대규모 피난이 시작되자 여관, 요정, 적산가옥 등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면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동원하는 행정력으로도 엄청나게 부족한 수용시설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다.

한국전쟁 전후 부산의 인구변화(단위 : 명)

	남	여	계
1945	142,137	139,023	281,160
1949			473,619
1951	414,054	430,080	844,134
1952	413,195	436,997	850,193
1953	402,030	425,540	827,570
1954	405,481	434,699	840,180
1955	529,112	520,251	1,049,363
1956	490,099	512,292	1,002,391
1957	494,320	525,107	1,019,427
1958	507,134	537,447	1,044,581
1960			1,162,614

자료 : 부산시, 『시세일람』 1959, 12쪽

행운이 있어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는 피난민은 다행이었으나,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자신이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싼 방세가 문제였으며 그나마도 방한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웠다. 물가나 여관비, 집세를 올리는 원주민들에게 동족애를 발휘하자는 도지사의 담화는 신문기사였을 뿐 아무런 영향력이라곤 없었다. 구호 식량 또한 단체 피난민에게만 지급되고, 자유피난민들은 적용되지 않았다.

수용소가 턱없이 부족했고, 셋방 가격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몰린 피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판자집을 짓는 일이었다. 다음의 기사 한토막이 당시의 실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 "살길을 차자서 남하한 피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수용소에 수용되엇고 수용되지 안흔 사람들은 한칸 방을 구하여 방황하던 곳애 여기저기 공지에 간이주택인 바락크를 지어 초개(草芥)와 가튼 슬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잇다. …… 번지업는 부락의 바락크 주민들은 누구의 동정과 은혜도 밧는 일 업시 그 슬픈 잠자리에서 자고 깨며 자력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하고 장사를 하며 귀향의 날을 고대하고 잇는 가운데 버림바든 이들 압해는 또 하나의 커다란 생

명의 위엽이 다처왓다. 즉 현재 부산시내에 공방(空房)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공방을 조사하여 입주알선의 성의와 능력이 업스며 무서운 고액의 방세를 착취하고 잇는 부산 집주인들에게 양심의 권고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안코 또 한랭의 가두를 방황하다 못해 발견한 공지에다가 눈물야린 피와 땀의 바락크를 세우는 당시에 이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방임한 때문에 이미 바락크는 수만 생명의 보금자리화 하엿고 또 재산화한 오늘에 와서 부산시 당국은 돌연 전시내의 바라크를 일제 철거할 계획을 실천할려고 하고 잇는 것이다."

『동아일보』 1951.4.13(2)8.

피난민들이 짓는 판자집은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한 용두산, 복병산, 대청동, 부두를 배경으로 한 부두 주변, 영주동, 초량동, 수정동, 범일동, 영도 바닷가 주변인 태평동, 보수천을 중심으로 한 보수공원과 충무동 해안가 등에 집중되었다. 이곳은 정부나 부산시 소유지가 대부분이었고, 지대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이곳에다 판자집을 짓고 세를 받기도 하였다.

피난민들이 살았던 공간은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 대신동, 아미동, 초량동, 수정동, 좌천동 등 산동네를 배경으로 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산동네 거주자들이 조금씩 살기 시작했지만, 한국전쟁으로 더욱 급증하였다. 반면 평지였던 부평동, 신창동, 남포동, 부용동, 토성동 등의 인구는 위의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산동네의 인구 증가는 1950년대를 통해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종전으로 농촌인구나 피난민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전쟁기를 보낸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부산이 지니고 있던 1950년대 경제력의 성장도 이런 이주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부산으로 이주한 피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생계 문제였다. 단체이주민들은 수용소에서 생활할 경우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배급을 받았지만, 자유피난민들은 생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전쟁 중에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상업, 공무 자유업이었다. 자유업 가운데서도 부두노동자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조물자와 무역으로 인한 부두 하역노동이 많이 필요하였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었고, 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수월하였다. 하지만 중간에서 하역업자들의 농간으로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수준은 낮았다. 그리고 부산역이나 버스터미널, 시장 등지에서 물건을 운반해 주는 지게꾼들이 대부분 자유업에 해당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직업 분포(단위 : 명)

	1951.12	1952.12		1953.12		1954.12	
		남	녀	남	녀	남	녀
농업	26,820	11,233	5,658	8,898	4,063	8,720	4,710
수산업	15,152	4,185	531	3,292	449	3,754	650
광업	784	944	487	450	61	3,694	692
공업	41,784	31,096	7,876	16,103	4,391	18,429	7,801
상업	94,499	34,099	15,542	33,849	16,428	30,666	16,642
교통업	11,532	15,149	978	8,335	561	5,899	799
공무 자유업	96,343	48,569	6,944	37,291	8,156	47,538	17,217
가사 사용인	23,022						
기타 유업	149,144	54,885	15,333	56,876	20,705	56,953	30,749
실업		18,912	34,196	20,705	22,771	44,191	30,678
무업	392,361	241,510	403,155	204,443	335,696	185,637	324,761
합계	851.441	460,582	490,700	392,308	420,484	405,481	434,699

자료 : 부산시, 『시세일람』 1959, 12쪽

국제시장은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 가운데 하나였다. 점포상인도 있었지만, 노점상인이나 행상들도 적지 않았다. 1952년 2월을 기준으로 국제시장 상인은 시장 조합원으로 고정 점포를 가진 1,150점, 무허가인 노점상 2,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가운데 고정 점포의 50%가 월남피난민, 20%가 서울피난민, 노점상의 90%가 월남피난민, 행상인의 95%가 피난민들이었다. 월남피난민을 비롯한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많은 수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시장에서 짐을 지게로 운반해 주고 먹고사는 지게꾼도 피난민들이 쉽게 해 볼 수 있는 직업이었다.

부산 피난민들이 국제시장이나 부두 주변의 산동네에 많이 살게된 이유는 이처럼 생계수단이 가깝기 때문이었다.

> "온종일 … 사람에 시달리다가 황혼이 시장골목을 덮기 시작할 때까지 양말 한켜레 못팔게 되는 날에는 저녁꺼리 죽이나마 끄려서 먹으려고 할 수 없이 본전도 못되는 헐값에 상품을 집어던지고 터벅터벅 한숨을 지우며 용두산 마루턱이나 영주동 산골 또는 개천가에 구며놓은 작난감 같은 하꼬방 촌을 찾아가는 어미니도 있다."
>
> 『동아일보』 1952.3.1(1)1.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의 경우 용두산, 영주동, 개천가 등 국제시장에서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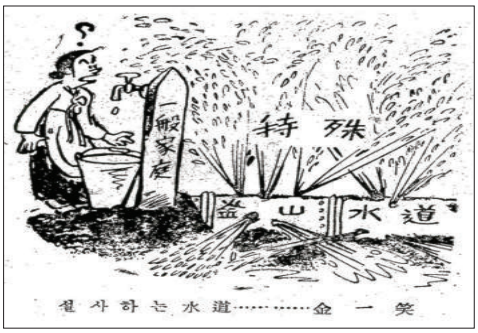
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안식처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천가는 위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서 보수천 주변에 많은 피난민들이 거주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피난민들의 생계수단이 국제시장과 부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과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야 했다. 당시 주요 주택이었던 판자집이 있던 곳을 보면, 1953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도로변과 하천변에 2만 2천 호, 산마루에 1만여 호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료에 의하면, 1953년 7월 4일 당국이 조사한 판자집이 2만 8천 619호였는데, 다소 규모가 큰 판자촌을 보면 영주동 산기슭에 약 1천 호, 영도대교로 해안가 7백 호, 보수동에 약 6백 호, 송도에 약 3백 호, 국제시장에 약 1,200호로 한국전쟁 종전 당시 이들 지역에 판자집들이 많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전쟁이 끝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빈자리는 1952년 흉년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농촌에서 몰락한 유랑민이 채웠다. 그리고 경상남도 각 지역에 수용되었던 피난민, 특히 거제도에 수용되었던 피난민들은 그곳에서의 생활난 해결을 요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시 유입되었다. 이들에 대해 부산시가 수용소에 수용해 구호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공지에 천막을 치고 추위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 복귀피난민들이 파는 판자집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부산시장이 이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판자집의 주거환경을 잘 보여주는 기사 한 토막을 보자.

> "낙엽진 포푸라가 눈바람 속에서 추워떨면 판자집 문틈으로 … 겨울바람이 한결 차거웁디. 피난도 서러운데 새우잠도 벌써 3년째 버리고온 서울집도 눈에 더피여 떨고 있렜거이 … 가마니 장판위에 담요를 쓰고 몇 번째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들은 잠들었는데 남편들은 아낙의 바눌끝이 언다, 바람이 언다. 이제 임진 365일도 찌끗찌끗 어 … 설마 내년에야 … 지지지지 타고있는 석유 등불에 그래도 실날같은 희망이 있어 무십코 잠든 아이들의 얼굴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 악착스런 비운과 오뇌와 가난을 휩쓸어 다시는 약속없을 영원한 망각으로 가거라."
>
> 『국제신보』 1952.12.12(2)8.

하지만 피난민들이 판자집에서 생활하는 환경 자체는 아주 열악했다. 재료가 판자부스러기나 미군부대에서 나온 박스로 만든 것이었으니 겨울이면 바람을 막을 창문도 온전치 않아 바람이 들이치고, 바닥은 가마니로 장판삼고, 온기라야 피워놓은 석유 등불이 전부였을 정도였다. 영주동 같은 산비탈의 경우에는 교통 문제, 위생 문제, 상수도 문제 등이 피난민들을 괴롭혔다. 그렇지만 이런 불편한 판자집에서라도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피난민에게 더 큰 고통은 판자촌 철거였다.



국제신보 1952.7.19



국제신보 1953.1.26

정부나 부산시는 도시미관이니 위생문제니, 교통난이니 하면서 틈만나면 판자집을 철거하였다. 철거 문제는 1950년 11월부터 확인되고 있다. 부산시는 1951년 4월 시내 판자촌을 철거해 피난민들을 괴정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괴정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는 대티고개가 있어 왕래에 불편이 많은 곳이었다.

부산시는 1951년 동안 용두산, 복병산, 부평동, 보수천 부근 등의 판자집 철거를 추진했고, 여기에 반발한 피난민들은 정부나 부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든지, 직접 찾아가 철거를 반대하였다. 정부의 철거명분을 보장해 준 것은 화재였다. 화재는 그 자체로서 피난민에게 큰 위협요소였지만, 정부에게 철거명분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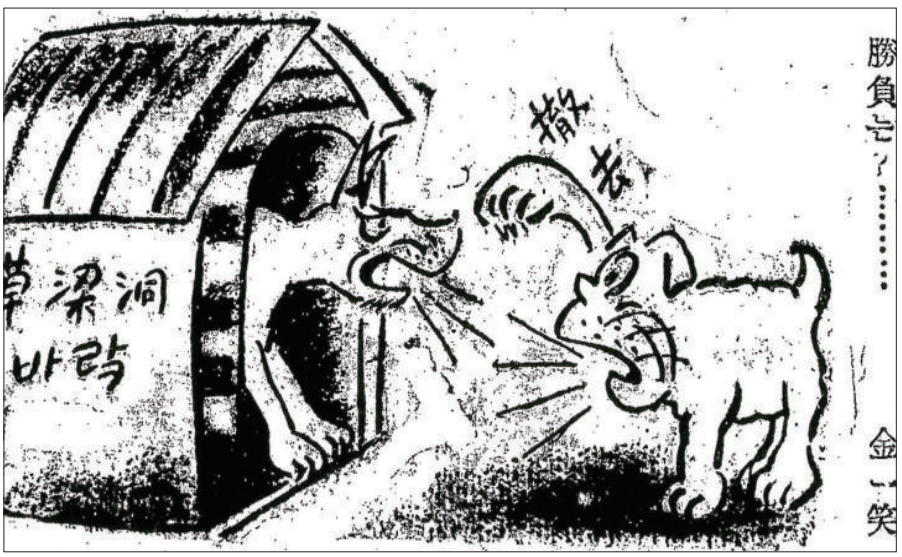
한국전쟁 당시 부산을 대표하는 말 가운데 '났다 하면 불'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 화재사건이 사료로 확인되는 것은 1950년 11월 24일 영도 대한도기회사 피난민수용소 화재가 처음이다. 1952년 1년간 화재가 490건에 피해액 355억 원에 이를 정도였으니, 당시 화재는 큰 골칫거리였다. 화재의 원인은 판자집 내 초롱불, 촛불, 아궁이불 등이 원인이었고, 겨울의 강풍과 판자집 재료, 집들의 밀집 등이 피해를 키웠다. 화재는 피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1953년 11월 일어난 부산 역전 대화재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조리 잃게된 어느 피난민의 자살 이야기는 화재가 피난민에게 준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화재사건으로 터전을 잃게된 피난민들은 부산시가 알선하는 수용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런 화재사건이 준 직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이를 빌미로 피난민들이 만들어 온 기반을 빼앗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3부두의 피난민 철거가 기름탱크 폭발 위험을 예방하려던 미8군이 요구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1953년 11월 30일 부산 역전 대화재 이후 시내 중요 건물 소유자들이 부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판자집 철거를 요구한 사례 등에서

화재가 판자집 철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판자집 철거는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피난민들은 밤이면 다시 세워, 부산시의 행정력에 도전하였다. 이만섭의 증언에 따르면, 이승만관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보수동 산동네에 판자집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한 이승만이 판자집 건축을 제지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현지 피난민들은 밤 동안 외관만 만들어 이미 세워졌던 판자집으로 보이게 하고, 낮에는 내부공사를 할 정도로 판자집 설치는 행정력으로도 막기 어려웠다.

철거가 좀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53년 11월 부산 역전 대화재 이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측에서는 철거를 위한 경찰이나 군인을 적극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부산시에서는 이재민들의 수용소 이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화재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판자집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당장 12월부터 5차에 걸친 철거계획을 세우고 복병산, 동광동, 보수천 주변, 해안가 등지에서 철거를 시작했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1954년 들어서는 초량, 영도, 부산진까지 확대하였다. 철거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국제신보 1952.9.26

철거민 이주 지역으로 사하구 괴정, 진구 양정, 영도 청학동 세 곳으로 정하였다. 1954년 1월 부산 대화재 이재민들의 입주 장소로 양정과 괴정에 수용소를 기공하였다. 이후 1954년 1월 영주동 화재 이재민은 영도 청학동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보수천에서 철거된 피

난민들은 괴정 '새마을'로 이주하도록 요구받았다. 정부는 양정과 청학동에 후생주택을 건설하여 이재민 이주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입주비용이 비싸 피난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 국제시장 주변에 있던 생계수단과 연결되지 못해 반대를 하였다.

피난민들은 부산시의 철거에 대응해 그때 그때 행정기관이나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철거반대운동을 벌였다. 이 문제는 계절적인 영향도 고려되기도 해, 철거가 보류되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피난민을 부산항 중심지로부터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시장 주변의 용두산, 복병산 판자촌에 살았던 월남피난민들은 철거에 대응해 이북오도지사에게 호소하거나 부산시, 국무총리, 대통령에게 진정하였다. 그리고 3부두 바락철거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바락철거반대위원회를 결성해 진정서를 제출한다든지, 철거대상과 관련해 서로 타협을 보기도 하였다. 부산 역전 대화재 때는 복구위원회연합회를 조직하여 부산시 혹은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응하였다. 특히 1954년 7월 보수천 주변의 판자집에 살던 피난민들, 이 가운데는 자신이 직접 만든 판자집도 있었으나, 종전을 전후하여 부산으로 다시 들어온 피난민들은 대부분 매입하였다. 얼마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이 철거는 4일 만에 종료되었다. 국가로부터 추방당한 경험은 피난민들로 하여금 저항을 못하고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사하 지역의 인구 변화

	1954	1958	1964
괴정1동	10,878	7,469	13,035
괴정2동	1,679	8,589	4,144
당 리 동	639	766	828
하 단 동	2,984	3,074	3,350
신 평 동	739	727	819
장림1동	665	1,856	1,928
장림2동	1,128		
다 대 동	6,113	4,079	3,930
구 평 동	848	1,361	1,459
감천1동	3,403	12,594	3,422
감천2동			11,374
합 계	29,074	40,515	44,677 (79명, 309명)

釜山市, 『統計年報』 1965, 41~42쪽.
참고 : 1964년 감천동 79명과 동 미상 309명이 누락되어 있음

(2) 사하구의 새마을

한국전쟁 이후 사하 지역의 인구 변화이다. 전체적으로 약 1만 5천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변화의 폭이 큰 지역은 괴정과 감천 2동이다. 오히려 다대동은 약 2천여 명이 줄어들고 있다.

사하 지역 직업 구조

	괴정1	괴정2	당리	하단	신평	장림	다대	구평	감천1	감천2
총인구	12,880	4,144	828	3,350	819	1,928	3,930	1,459	3,422	11,374
농업, 어업 등	277	71	120	237	131	404	548	110	239	5
광업	2	4		1		1				1
제조업	512	182	17	87	25	17	31	23	109	993
건설업	146	85	3	5	4	13	8	3	8	39
전기, 가스, 수도	21	14	2	26		1	1			3
상업	676	366	56	336	16	87	79	8	77	1580
운수업, 보관업	98	57	7	80	5	9	34		31	31
서비스업	895	202	48	144	21	24	120	26	162	1,338
농가(가구 수)	167	30	59	108	71	176	183	90	88	
비농가(가구 수)	2,271	762	99	509	74	166				

釜山市,『統計年報』1965, 41~42, 54~55쪽
참고 : 1964년 감천동 79명과 동 미상 309명이 누락되어 있음

각 지역별로 직업구조를 정리하였다. 인구증가가 많은 지역과 증가의 폭이 둔한 지역의 직업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괴정이나 감천 2동처럼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는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다. 반면 나머지 지역에는 기존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업과 어업의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상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하 지역의 인구증가는 한국전쟁 피난민으로 부산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정착한 결과였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희망촌, 양지 마을, 신촌 마을, 태극도 마을 등이 확인된다.

양지마을은 오늘날 낙동로를 중심으로 괴정3동 주민센터 건너편 부근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다. 희망촌은 괴정4동 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 주변 마을이다. 신촌 마을은 괴정3동 주민센터와 괴정시장 사이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들 가운데 이주 당시 마을 주민들이 남아 있고, 마을 형성 당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신촌 마을과 태극 마을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① 태극 마을



이주 초기 태극 마을 사람들의 놀이문화

태극 마을은 이름에서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듯이 '태극도'라는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처음 이곳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태극도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이미 천덕사(天德寺)라는 절에 있는 사람과 토박이, 한국전쟁 피난민 등 합쳐 5~60세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55년 태극도를 믿는 신앙촌의 집단이주 때문이다. 1948년 부산 보수동에 본부를 두고 있던 태극도 신앙촌이 감천으로 오게 된 것은 1953년 1월 국제시장 대화재, 1953년 11월 부산 역전 대화재 등 빈발하는 화재와 관련 있다. 당시 정부와 부산시는 물론, 시내 건물주들은 계속된 화재의 원인을 피난민의 판자집에 있다고 판단하여,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판자집을 철거했다. 정부는 태극도 신앙촌에게 영도구 청학동으로의 이전을 요구했다. 정부가 주선한 청학동은 택지조성이 어려울 정도의 경사지이고, 토지도 대부분 사유지여서 매입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던 태극도는 다시 논의를 거쳐 1955년 7월 감천 2동으로 이주하였다. 원래는 감천 1동이었으나 이주한 인구수가 많아져 1958년에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태극마을은 감천 2동에 해당한다.

태극도는 마을을 9감으로 나누어 이주해온 신도들을 정착시켰다. 이 마을은 행정구역인 통, 반 보다 태극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역을 나눈 1감, 2감, 3감 등으로 부르는 게 더 잘 통하였다고 한다. 마을 내 공간 편성은 대체로 출발지 군(郡)별로 구성되었다. 1감은 충주 방면, 2감은 김천 방면, 3감은 천안 방면, 4감은 괴산 방면, 5감은 중산·영주 방면, 6감은 괴산 방면, 7감은 청주 방면, 8감은 충주 방면, 9감은 연풍 방면으로 각각 이주하였다. 그리고 헌금 납부액에 따라 시내 방향이 가까운 거주공간에 정착하도록 했다. 그 외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 태극도 때문에 이주해온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전한다. 보수동에서

집단 이주해 올 때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판자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이주할 공간이 없던 사람들도 함께 이주해 왔다. 권태정 할머니는 살고 있던 판자집을 헐어서 트럭에 싣고 옮겨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다시 판자들을 가지고 얼기설기 일렬로 나란히 집을 지었다. 태극도의 운영자금은 신도들의 헌금이 중심이었고, 그 외에도 미곡창고와 도정공장을 운영하여 확보된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다음은 태극 마을의 생성 초기 인구, 생활, 주거 상황을 살펴보겠다. 1965년 발행된 통계연보를 근거로 하면 다음과 같다.

1964년 현재 태극 마을 주민 현황

총인구	**11,374명**
13세 미만	3,714명
13~59세	7,135명
60세 이상	524명
직업별 취업자	**4,031명**
판매종사자	1,574명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및 기타 단순노무자	1,048명
교통 및 체신업종사자	948명
산업별 취업자	**4,031명**
제조업	993명
상업	1,580명
써비스업	1,338명
부산 태극도 신도 수	**6,392명(남 3,300, 여 3,092)**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1965, 42쪽

감천2동의 인구는 1958년 8,238명에서 1964년에는 11,565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1964년 말 현재 부산의 태극도 신도는 6,392명(남 3,300, 여 3,092)이었다. 당시 13세 미만 어린이가 약 4천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태극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태극도 신도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태극도를 믿으면서 월성금, 표성금, 치성금의 명목으로 태극도 본당에 기부를 해야만 신도로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기부금을 충당하기 위해 고향에서 누리고 있던 재산을 모두 팔아야 했고, 부산에 와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무학도통(無學道通)'이라는 구호 아래 자식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1958년 조철제 사망 이후 간부들 사이의 권력싸움과 비리의 폭로, 그리고 당시 자유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용에 의한 정치적 이용, 태극도 간부의 주민 감시 등은 초기 태극도에 대한 믿음에 한계를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 형성 초기 몇 가지 경제지표를 통해 마을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 1964년 현재 인구

수 11,374명에 경제활동인구 4,149명 가운데 취업자 수 4,031명으로, 취업자 수의 비율은 아주 높은 편이었다. 취업자는 판매종사자와 단순노동자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와 거의 비슷한 것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돈벌이를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향을 떠난 마을 주민들이 도회지 부산에서 먹을거리를 구해야 했고,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주민들은 행상이나 지게를 이용한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구술에 의하면, 앞서 통계표에서 인용한 판매종사자나 상업 종사자는 행상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엿, 양은 냄비, 솥 장사를, 여자들은 밥상 행상을 주로 하였고 이들의 영업망 범위는 아주 넓었다. 가까이는 국제시장에서부터 멀리는 동래까지 걸어 다녔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수준은 낮아 생활보호대상자가 3분의 2에 이를 정도였다. 이 동네 어린이들 대부분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것은 태극도의 영향이기도 했으나,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기도 했다.

1964년 태극 마을의 주거 환경

집 수		거주기간		방 수		식수		집 상태	
총수	2,177	1년 미만	1	1개	1,080	공동우물	2,175	양호	
자가	2,150	1~10년	2,158	2~3개	1,063			요 재건	2,175
세		11년 이상							

부산시, 『부산시 제4회 통계연보』 1965, 67쪽

1964년 무렵이 되면 감천 2동 주민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는 거의 없었다. 이들의 거주 연한 또한 1~10년 사이인 것으로 보아 태극도 신도의 이주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 방의 개수는 대부분 1개와 2~3개의 경우였다. 마을의 집수는 2,177채인데 자가는 2,150채로 대부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거주 연한은 1~10년 미만이 2,158가구로 주민 대부분이 이주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의 내부구조는 방과 부엌으로만 나뉘어져 있었다. 아마도 입주 당시 경제력에 따라 집의 규모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거지는 건축된 지 1~9년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요재건(要再建)'으로 분류되었다. 모두 판자집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만큼 주거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판자집의 주요 재료는 판자와 당시 미군 군용물품인 씨레인션 박스로 바람벽을 만들었다. 이 중에는 흙으로 담을 쌓고 서까래를 걸친 뒤 루핑을 덮은 토담집도 있었다. 복지시설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 상수도, 소방도로, 화장실이 없었다. 상수도가 없어 주민들은 계곡에 우물을 파서 식수와 세탁하는 물로 사용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은 마을 아래



태극 마을 형성 초기의 모습

우물까지 오르내리면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다. 때문에 물 부족이 심했고, 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툼도 많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공동화장실은 항상 초만원이었고, 쓰레기와 연탄재는 계곡이나 산에 마구 버려 위생이 불량하였다. 이러한 주거환경 때문에 이 마을 처녀총각들이 결혼을 하려 해도 이 때문에 퇴자를 맞기 일쑤였다고 한다. 1963년 9월 부산 전역으로 콜레라 환자 총 142명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산에서 태극 마을이 가장 많은 환자(34명)와 사망자(6명)가 발생하는 고통도 있었다.

② 괴정 새마을

괴정에 피난민 마을을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1951년부터 행정당국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여기에 본격적인 마을을 만든 것은 1954년 7월이다. 보수천과 그 주변의 판자집을 철거하여 여기로 이주하였다. 경남경찰국이 약 2천명을 동원하여 약 2천동의 판자집을 철거하고, 괴정에 약 2천호 입주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주시켰다. 철거와 이주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4일이었다. 15일 철거를 시작하여 18일 입주를 완료하였다. 얼마나 가혹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게다가 국제시장에서 이곳까지는 약 4㎞ 떨어진 외진 곳이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은 노동을 위해 국제시장 주변으로 매일 출퇴근하였다.

이곳으로 입주한 사람들의 지역별 출신은 이북, 경상도, 전라도 등 다양한 지역이었다. 괴정의 새마을은 다른 피난민 마을처럼 출발지 지역의 동일성보다는 여러 지역 출신자들

이 혼합된 마을이었다.

이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주택건설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주거공간은 적게는 5평에서 많게는 10평 크기로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건설비용과 자재문제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크기가 정해졌지, 결코 욕심부리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간혹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해도, 뒤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양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괴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미동이나 당감동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 마을이 만들어질 당시 잡화상 20개, 이발관 4개, 주류상 5개, 음식점(냉면 포함) 10개, 기타 수십개의 과자점, 일용품점 등이 장사를 시작하였다. 약 2천명이었던 마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였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마을 주민들 가운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주 이전처럼 국제시장이나 자갈치 시장 주변에서 자유업에 종사하였다. 짐꾼으로 지게를 지든지, 아니면 행상을 하였다. 여성들은 이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들은 북한에서의 직업과 관계없이 피난지에서 다양한 장사를 하였다. 특히 냉면 가게의 경우, 북한 재료와 약간의 차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품을 만들어 갔다. 대부분 이들은 북한에서 냉면 장사를 한 경험은 없었다고 한다. 이성철의 모친은 충무동 방면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까치고개를 넘나들면서 이 마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피난민 생활이 장사를 하게도 하고, 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착을 유도하게 하였다. 이 마을의 시장은 마을 사람들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의 마을 정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3) 산업화시대 사하구의 변화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사하 지역의 인구 증가를 확인해 보자. 1960년대와 1970년대 인구 증가를 주도하는 지역은 괴정과 감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부산 시내의 철거작업으로 이주해 오던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이들 지역과의 경제관계를 맺고 있었다. 괴정은 인구 증가가 빨라 1966년 1월 1일부로 괴정1동을 분동하여 1동과 3동으로 나누고, 또 1979년에도 괴정1동을 1동과 4동으로 나눌 정도로 급속해 팽창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말 신평동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1968년 3월 서구 충무동의 바닷가 제방 축조로 인한 철거민 1,630세대가 이주하면서 급증하였다.

사하구 각 동별 인구 변동

	부산시	사하구	괴정1	괴정2	괴정3	괴정4	당리	하단	하단2
1964	1,360,630	27,879	12,880	4,144			828	3,350	
1970	1,842,259	64,820	8,704	8,569	15,685		1,946	5,668	
1972	2,015,162	76,502	9,945	10,110	16,238		2,804	7,346	
1973	2,071,950	79,458	10,312	10,258	16,377		3,017	7,422	
1976	2,573,713	105,915	18,518	13,574	17,266		5,139	7,546	
1979	2,879,570	147,140	15,881	17,693	19,049	13,029	11,601	13,649	
1981	3,249,643	169,918	20,078	19,875	18,278	15,282	16,616	18,735	
1983	3,395,171	188,977	21,179	20,620	21,751	15,782	20,950	25,562	
1986	3,578,844	221,395	24,383	21,216	22,468	18,947	26,622	32,605	
1988	3,750,626	249,196	25,737	21,736	23,402	20,365	27,942	36,213	
1990	3,798,113	277,339	26,626	24,314	24,692	21,257	29,638	38,351	
1992	3,887,278	370,380	25,837	24,730	23,668	22,149	34,901	24,806	26,708
	신평	신평2	장림	장림2	다대	다대2	구평	감천1	감천2
1964	819		1,928		3,930		1,459	3,422	11,374
1970	13,160		5,524		5,564		1,741	6,656	16,498
1972	14,200		9,672		6,187		2,233	8,322	19,435
1973	14,836		11,014		6,222		2,487	8,586	16,882
1976	17,798		17,600		8,474		3,471	12,159	19,043
1979	21,108		25,563		9,567		4,520	16,803	24,107
1981	22,312		29,028		9,714		5,350	20,997	26,029
1983	22,642		15,979	14,980	9,532		5,809	23,348	26,005
1986	26,725		18,297	15,941	14,191		6,476	26,710	25,234
1988	32,537		19,268	18,023	23,973		7,498	31,967	24,840
1990	38,161		20,398	22,055	31,847		7,752	33,077	24,478
1992	31,035	12,502	17,843	25,650	23,989	14,708	6,742	30,900	24,212

부산시, 『부산시 통계연보』 각 연도판

1980년대 들어 당리, 하단, 신평, 장림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지역에 새로이 등장하는 주거시설인 아파트의 신축과 주민들의 입주가 활발해지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림동 인구가 증가한 것은 1971년대 초 부산시가 서구 남부민동과 중구 대청동을 잇는 산복도로를 만들면서 형성된 이주민 1,400세대, 대티터널 공사 때 대티고개 부근에서 철거된 360세대 등이 이주해 오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다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평장림공단의 형성과 관련해 공단 주변 주택지로 다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사하 지역은 1975년 시 직할 출장소로 승격된 이래, 1983년 12월 15일 사하구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초기 인구가 증가했던 괴정과 감천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다대, 신평, 하단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감천의 경우, 감천2동인 태극 마을은 기존의 주거시설이 불량하고,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 젊은이들의 거주가 크게 감소하였다.



신평장림공단. 1990년 공단 준공은 사하구의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하 지역의 인구 증가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차 산업, 즉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던 사하 지역의 경제구조는 1970년대부터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하 지역의 공업화는 전통적인 공단 지역인 부산진 지역에 비해 낮았지만, 인근의 북구, 서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하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1989년부터 조성에 들어간 사하장림공단의 조성은 경제력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하 지역 인구 증가와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사하 지역의 공장 등록현황이다. 공업 지역으로 변화해 가는 사하 지역의 공업화 특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까지는 섬유, 화학, 기계 분야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당시 부산 경제계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하 지역의 공장 수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신평장림공단이 완공된 후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1990년대 들어 공장 수가 많이 늘어난다.

하지만 사하장림공단이 설립된 이후 이 지역의 경제구조는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는 기존 섬유와 화학공업 중심의 부산경제구조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혼란에 빠질 무렵이다. 반면 사하 지역의 제조업 공장은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사하구의 제조업 공장 등록 현황(1976~1986)

	총 수		섬유		화학		기계		기타	
1976	220	23,033	33	8,709	46	2,745	10	478	140	11,101
1977	197	24,228	32	8,709	21	2,745	47	1,673	97	11,101
1978	372	28,104	53	7,971	49	2,457	101	4,479	169	13,197
1980	375	24,375	53	6,706	50	2,267	89	4,194	183	11,208
1981	358	30,485	52	7,926	51	5,328	87	5,078	168	12,153
1982	358		44	5,756	42	3,760	96	6,197	176	8,152
1983	404	25,502	45	5,534	57	3,679	92	4,451	210	11,838
1984	434	29,264	50	7,238	53	4,535	121	6,009	210	11,482
1985	517	36,127	58	7,349	81	7,401	140	8,674	238	12,703
1986	630	42,997	70	8,896	102	8,625	178	9,766	280	15,710

사하구 제조업 공장 수

	합계	1	2	3	4	5	6	7	8	9
1987	670	85	83	47	29	104	31	26	207	58
1988	734	83	91	50	34	108	34	30	241	63
1989	801	81	111	45	38	120	31	34	271	70
1990	710	51	88	27	26	100	24	29	328	37
1991	1033									

자료 :

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3.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출판업
5.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 제조업
6. 비금 속광물 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9. 기타 제조업

부산의 제조업은 1970년대 후반 공업구조 개편,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따른 기술집약 공업구조로의 개편, 인적자본의 지역유출 방지의 기회를 수용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인 공업이면서 해외 원자재와 시장을 해외에 의존했던 신발, 섬유, 의류 공업이 대거 부도사태를 일으켰다. 1990년대 초반 부산의 부도사태는 전국적으로도 유래없는 가혹한 것이었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 신발, 섬유 등 경공업 중심의 부산 제조업이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을 즈음, 사하 지역의 산업구조는 기계, 금속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巖鷹
瑞牧
岩黒

제2장
삶의 지리적인 환경

1. 자연과 삶 – 자연지리
2. 지리와 삶의 공간

제2장 삶의 지리적인 환경

낙동강 하구의 이곳을 사하로 부르기 시작한 때는 조선시대부터이다. 원래 사천면(沙川面)의 하단(下端)으로 불렀으며, 사천면이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분리되면서 사하(沙下) 지명이 생겨났다. 한반도 백두대간의 삼수령에서 갈라진 낙동정맥이 남쪽으로 뻗어 부산에 들어와 계명봉과 금정산에서 솟은 줄기가 남으로 이어져 낙동강 하구에서 사하 지역을 이루고 이후 몰운대에서 바다와 만난다. 이에 따라 사하는 낙동정맥의 말단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그리고 남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산과 물이 어우러져 천혜의 환경을 이루며 일찍부터 삶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바다와 접하여 일찍부터 바깥으로 진출하려는 해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양 세력의 침입을 막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낙동강을 통해 내륙으로 진출하려던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있는 다대성과 응봉 봉수는 일본의 대륙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 거점이었다. 감천항과 다대포항은 바다 진출의 거점이다. 부산항의 보조항과 국가 어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부산 신항만과 을숙도대교를 연결하는 도로가 관내의 동서를 달리고 있어 부산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한다. 낙동강 변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또한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진전란도의 다대성 일대 모습

1. 자연과 삶 - 자연지리

태백산맥 말단부의 서쪽 산록에 위치한 사하는 여러 산지로 둘러싸인 소규모의 침식 곡저평야가 발달하였다. 낙동강 하구 유역에는 을숙도·일웅도 등의 삼각주가 있으며, 장림동과 다대동에 이르는 하천 유역에는 낙동강에서 운반되는 토사의 퇴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남쪽에 바다와 연한 곳은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다대반도와 두송반도 사이에 다대만이, 두송반도와 암남반도 사이에 감천만이 있다. 해안 지역은 대부분 급경사의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다대반도의 말단부에는 사주의 발달로 육계도가 된 몰운대와 사빈해안인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다.

1) 산지

사하의 북쪽에 위치한 구덕산은 관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사상구, 서구와 경계를 이룬다. 구덕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줄기는 안부(鞍部)에서 대티고개를 이루고, 이곳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줄기는 봉화산으로 이어져 승학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줄기와 만난다. 한편 구덕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줄기는 서구와 경계를 이룬다.

구덕산 서쪽 산줄기는 사상구과 사하구의 경계를 이루며 이곳에 승학산이 있다. 승학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줄기는 신평 일대의 동매산(210m)을 거쳐 봉화산에서 구덕산 줄기와 만난다. 봉화산에서 곧장 남쪽으로 이어진 줄기는 두송산으로 이어지면서 두송반도를 이룬다. 이 반도는 다대포항과 감천항의 중앙에 있어 방파제의 역할을 하다. 이곳의 두송산은 조선시대에 몰운산·금티산과 함께 경상좌수영 관할의 봉산(封山)으로 전함을 만드는 목재를 조달하는 곳이었다. 감천동에 소재한 금티산(187m)은 천마산·아미산과 함께 감천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괴정동·신평동·구평동과의 경계를 이룬다.

봉화산 줄기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진 줄기는 홍티 고개를 지나 육지와 사주로 연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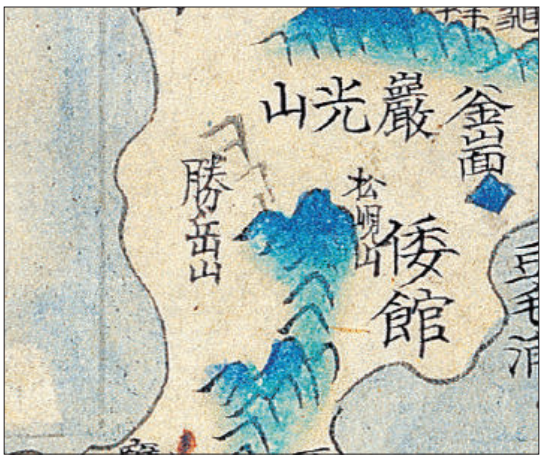
몰운대로 이어진다. 몰운대는 구릉성 산지로 사면은 완만하나 바다에 접하는 부분은 단애를 이룬다.

(1) 구덕산(九德山, 565m)

서구와 사상구 그리고 사하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부산의 등줄산맥인 금정산맥의 주능선에 솟은 산이다. 북동쪽으로는 엄광산·백양산·상계봉으로 연결되어 금정산의 고당봉에 이어지고, 남서쪽으로는 시약산, 승학산과 연결된다. 전형적인 노년 산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옛부터 부산 일대의 명산으로 이름나 있다. 보수천의 발원지로 동쪽산록에는 구덕 수원지가 있다. 옛날 '고저기(高低岐)' 또는 '구지기(久至岐)'라고도 불리어 오던 '구덕산' 지명은『초량화집』에 "구덕산 아래 구덕사(舊德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일본인의 침입이 심하여 20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다.『조선귀호여록』에도 구덕산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2) 승학산(乘鶴山, 497m)

사하구 당리동과 사상구 엄궁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승학산은 북동쪽으로 구덕산에 이어지고 남서쪽으로는 신평의 동매산(210m)을 지나 몰운대에 연결된다. 전형적인 노년산지로 산정은 종순형이나 산록은 비교적 가파르다. '승학산' 지명은 산의 모습이 마치 학이 나는 듯하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고려 말 무학 대사가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산세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을 보니 마치 학이 웅비하는 듯하다고 하여 승학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옛 지도의 승학산 일대
(출처 : 동국지도3, 국립중앙도서관)

(3) 천마산(天馬山, 326m)

사하구 감천동과 서구와의 경계를 이루는 천마산은 엄광산에서 남쪽으로 암남반도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에 솟아 있다. 전형적인 노년산지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산록이 완만하여 옛부터 목마장으로 이용되었다. 지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서식할 정도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산이라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에 오해야항(吾海也項) 목장이 있었으며, 『동래부지』에는 '석성산(石城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장군산(將軍山, 152m)

서구와 경계를 이루는 장군산은 천마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줄기가 대한해협에 몰입하면서 형성된 암남반도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구릉성 산지의 모습을 지니며 산림으로 뒤덮여 있다. 대한해협 건너편의 대마도를 볼 수 있으며 주변 풍광이 뛰어나다. 지명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전적을 기리기 위해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5) 시약산(蒔藥山, 391m)

시약산은 서구 서대신동과의 경계를 이룬다. 산 정상에서 낙동강 하구 일대가 한눈에 조망되어 경관이 뛰어나다. 괴정천이 서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낙동강으로 유입한다. 산 아래쪽으로 서구와 사하구를 연결하는 대티터널이 개통되어 있다. 지명은 '시(蒔)'자가 '모종낼 시', '풀이름 시'로 약초를 심거나 채취한 곳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한다.

(6) 봉화산(燧火山, 157m)

조선시대 응봉 봉수가 있던 산이다. 직봉 제2로의 기점이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응봉 봉수는 '동쪽으로는 오해야항에 응하고 서쪽으로는 김해 성화례산에 응한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수군 진영이었던 다대포진과 서평포진을 내려다보며 낙동강 하구 일대와 몰운대 앞바다를 한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옛 지도의 봉화산 일대
(출처 : 동국지도3, 국립중앙도서관)

(7) 대치고개

시약산과 아미산 사이에 있는 고개로 사하구 괴정동과 서구의 서대신동을 잇는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1930년대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사하구 하단에서 옛 부산포로 넘어가는 유일한 교통로 구실을 하였다. 1973년 이곳에 터널이 개통되면서 기능이 사라졌다. 소나무가 많아서 솔티라고도 불렀다.

2) 물길

구덕산과 승학산, 천마산 산록에서 발원한 여러 계류천들이 서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하며, 일부 하천들은 남해로 흘러 들어간다. 낙동강을 제외하고 사하구에서 가장 큰 하천은 괴정천이다(유로연장 5.16km, 유역면적 9.56㎢). 이 하천은 구덕산 남쪽의 시약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괴정·당리·하단동을 관류하면서 낙동강 본류에 흘러드는 도심 하천이다. 상류는 경사가 급한 계류하천이나 중류에서 반월형으로 괴정동 시가지를 감싸고 흐르면서 침식분지를 형성하고 하류에서는 승학산에서 발원한 당리천과 함께 좁고 긴 하곡 평지를 이루고 있다.

당리천은 구덕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당리동 시가지를 관류하다가 하단1동에서 괴정천과 합류한다. 옛 지명으로 제석골 거렁이라고도 불렸다. 상류는 승학산 일대의 골짜기인 제석골을 따라 흐르면서, 유속이 빠른 계류천을 이루나 당리 시가지를 지나 괴정천에 합류하는 하류에서는 경사가 완만해 망상(網狀)의 유로를 이룬다.



괴정천의 유로(『우리 7람 길라잡이』 2009)

(1) 낙동강

낙동강은 영남문화의 바탕이 되는 물길로 하류 지역은 일찍부터 사하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 왔다. 낙동강 하구는 빙기때 해수면 하강과 함께 넓은 만입부를 이루었으며 후빙기에 들어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낙동강이 운반한 퇴적물로 깊이 약 60m의 삼각주 평야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은 대저(大渚) 수문에서 분류(分流)가 시작되어 동쪽의 양산 단층선을 따

라 흐르는 본류와 서쪽 수로를 따라 흐르는 서낙동강에 의해 하안에 넓은 범람원을 만들었다.

사하가 위치한 낙동강 하류의 유역 곳곳에는 포구가 발달하였다. 그 중 하단(下端)은 구포·삼랑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나루터 취락으로 발달하였다. 이곳은 남쪽 바다를 끼고 있어 내륙과 해상 교통이 만나는 곳이었고, 또한 비옥한 충적평야가 있어 농경이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여건에 힘입어 낙동강 연안을 중심으로 가야와 신라문화가 발달하였다. 가야 연맹 중 금관가야의 건국과 관련된 유적이 김해시에 있고, 수로왕비인 허왕후(許王后)가 아유타국에서 처음 상륙하였다는 곳이 강서구 녹산동에 있다.

낙동강은 삶의 터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무대를 제공하였다. 문학·예술에서 낙동강은 인간이 발을 붙이고 사는 생활의 터전 혹은 어머니와 사랑 등으로 추구되고 있다. 특히 소설 속에서 낙동강은 그 강을 이웃하여 살아온 강변 사람들의 사연들이 자주 다루어져 왔다. 그 중 김정한(金廷漢)의 소설『모래톱이야기』는 낙동강 하류의 어느 외진 모래톱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로, 소수의 세력가와 선량한 다수 민중 사이의 관계를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작가는 문학을 통하여 낙동강의 역사 속에 흐르는 민중의 소리를 인간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로 승화시킴으로써 민중 문학의 기반을 수립하였다.

【 낙동강의 특색 】

낙동강의 연평균 유출량은 약 110억㎥로 추산되나 해에 따른 변동폭이 크다. 다우년(多雨年)에는 200억㎥를 상회하지만, 과우년(寡雨年)에는 40억~50억㎥에 불과하다. 연간 유출량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물이 6~9월 사이의 4개월 동안에 집중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8개월 동안에 흐른다. 이러한 현상은 연 강수량의 66%가 6~9월의 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상과 강우형태, 그리고 주변 산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낙동강 유역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총 토사량은 연간 약 1천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토사량은 풍화 및 분쇄된 기저암층의 심도가 커서 침식작용이 쉽게 일어나는 본류의 서쪽 지역에서 유출된다.

낙동강 유역의 염해 피해와 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된 하구둑은 198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87년에 완공되었다.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지동을 잇는 총 연장 2.4km의 이 둑은 6개의 부수문과 4개의 조절부문으로 되어 있고, 어선의 통행을 위한 파나마식 갑문 1개와 어도(魚道) 2개 소가 설치되어 있다.

(2) 낙동강 삼각주

삼각주는 하천이 바다로 유입하면서 유속이 줄어 운반해 온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충적지이다. 하구에 삼각주가 형성되는 것은 하천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삼각주가 형성된다.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유입하는 한강, 금강 하류에 삼각주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해로 유입하는 낙동강 하류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삼각주의 발달이 가능하였다.

낙동강 삼각주는 전체적으로 동서 16㎞, 남북 18㎞의 대충적지로 상부와 하부의 삼각주로 구분된다. 상부 삼각주는 낙동강이 본류와 서낙동강의 물줄기로 갈라지면서 곳곳에 하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섬이나 모래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가 넓은 범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지면 고도가 높은 자연 제방은 일찍부터 주거지와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다. 하부 삼각주는 지금도 '등'이라고 부르는 사주가 여러개 발달하면서 면적이 확장되고 있다. 이들 사주의 방향을 보면 하천 운반물질이 직접적으로 퇴적된 것이 아니라 바다에 공급된 토사가 바닷물에 의해 재이동, 퇴적되어 생겨난 것임을 보여준다.



옛 지도의 낙동강 삼각주
(출처 : 『동여도』 19세기 중반, 규장각)



1904년 낙동강 삼각주
(출처 :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경상·전라도, 221쪽)

삼각주의 말단부에는 간석지와 연안사주가 성장하고 있다. 을숙도, 명호도, 신호도, 장자도를 중심으로 남쪽에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고 명호도 인근에 대마등이 있다. 최근에는 삼각주 전면에 새등, 홍티등, 나무싯등, 철새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연안사주 지형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 연안 사주는 1904년 이후 해수면 아래에서 대기 중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새로운 지형이다.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에서

> '남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호수와 일면을 이루듯 평탄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수와 인접한 저습지는 노초의 재식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어, 구한말 당시 이곳 노전(蘆田)의 수익은 논에 못지 않은 정도였다. 이 곳의 취락은 고도 4-5m에 위치하고 가옥 주변에 논밭이 분포하며 그보다 낮은 곳은 비습지(卑濕地)로서 버려져 있다. 사덕(沙德)에는 남쪽으로 20정보가, 덕두촌(德頭村)에는 서쪽으로 14-15정보가 미간지로 버려져 있다'
>
>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1904)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 지역이 조선 말기까지만 해도 저지대의 상당 부분이 갈대밭이 자생하던 곳이었음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취락 지명에서 '덕(德)' 자가 많이 이용된다. 지명에서 모래가 쌓여 자연제방이 되어 배가 댈 수 있는 곳을 '덕달'이라 하는데 덕두(德頭) 지명은 이 「덕달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는 모래 언덕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적 고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강서 지역의 사덕, 소덕, 덕두 등의 마을들은 초기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낙동강 삼각주의 모래톱

낙동강 삼각주는 일제강점기에 들어 홍수 방지와 농경지 개발을 위해 인공제방을 축조하면서 원래의 모습이 상실되었다. 1934년에 대저 수문과 낙동강 제방을 축조한 뒤 본격적으로 농경지로 개발되었고 경지 정리도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염해 방지와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낙동강하구둑이 건설되었다. 하구둑이 건설된 이후 새로운 연안 사주들이 여러 곳에 발달하면서 새로운 사주의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다대포 해수욕장 전면에 있는 간석지의 고도가 높아졌으며 진우도와 새등 일대에도 퇴적물이 증가하여 주변의 토지 이용이 변하였다.

(3) 낙동강 하중도 – 을숙도와 일웅도

낙동강 하류에서는 상류에서 토사가 운반·퇴적되어 삼각주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낙동강의 말단은 크게 하중도군과 사주군으로 구분되어 상류 쪽은 하중도군이, 말단부는 주로 사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이에는 갯벌이 분포한다. 이중 대표적인 하중도(河中島)는 일웅도와 을숙도이다. 두 섬은 낙동강 하구에 있었던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하중도로 주변은 수심이 얕고 담수와 해수의 교류가 왕성하다. 갯벌이 발달하여 각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소형어류·갑각류와 물에 사는 곤충 등 새의 먹이가 풍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다.

을숙도(乙淑島)는 새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 섬이라는 뜻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면적은 약 0.08㎢로, 낙동강 하구로 향하여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지닌다. 북단에는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일웅도(日雄島)가 있으며 남단에는 크고 작은 모래톱인 사주가 형성되어 있다.

토양은 미세한 토사로 이루어졌으며, 해발 1m 이하의 평지로 수로가 미로처럼 뻗어 있다. 이 수로를 따라 높이 2~3m의 갈대가 생육한다. 동양 제1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일대는 천연기념물(제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찾아 드는 철새는 총 138종에 10여 만 마리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새, 저어새, 재두루미 등의 희귀종도 있으며, 오리과에 속하는 것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갈매기과, 농병아리과, 아비과, 매과, 수리과, 멧과 등도 개체수가 많은 편이다. 철새의 대부분은 겨울새이나 여름철에 찾아드는 여름새와 봄, 가을철 잠시 쉬다가 떠나는 나그네새도 있다.

원래 이곳에는 파를 비롯한 각종 채소와 땅콩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하구둑이 완공되면서 육지로 이주하였고, 섬 자체도 하구둑 건설로 일부 수몰 또는 육지화되면서 옛 모습이 사라졌다. 2005년에 을숙도 일원의 낙동강 하구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생태공원 조성 후 갈대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육지화를 초래하여 습지 생태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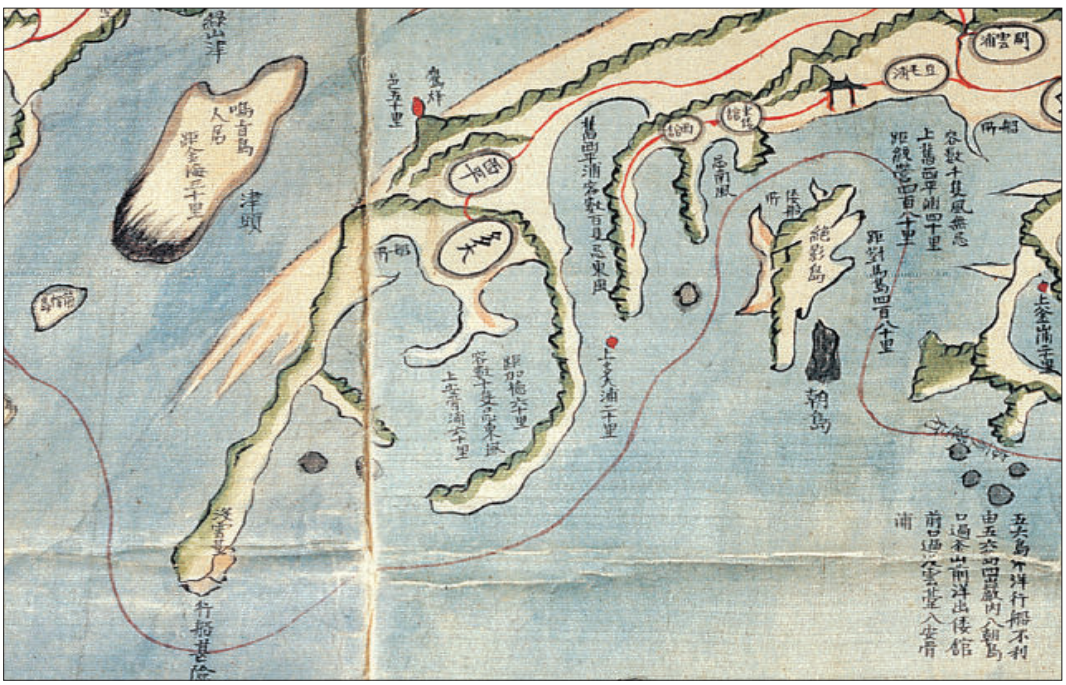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을숙도의 남단에는 철새 탐방을 위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남단의 경우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원래의 습지환경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일웅도(日雄島)는 낙동강 하구에 자리잡고 있었던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하중도로 을숙도 바로 윗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면적은 0.01㎢이며 1987년 낙동강하구둑이 준공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 이곳에는 을숙도와 함께 철새가 많이 찾고 있다.

3) 바다

사하의 남쪽에는 낙동정맥의 말단부인 다대반도와 몰운대가 해안으로 돌출되어 있다. 동쪽에 두송반도가 있으며 그 사이에 다대만이 있다. 또한 두송반도와 서구의 암남반도 사이에는 감천만이 있다. 해안 지역은 대부분 급경사의 암석해안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말단부에는 사주 발달로 육계도가 된 몰운대에 사빈해안이 있다. 섬으로는 고래섬[鯨島]·쥐섬·솔섬 등이 있다.

(1) 두각지와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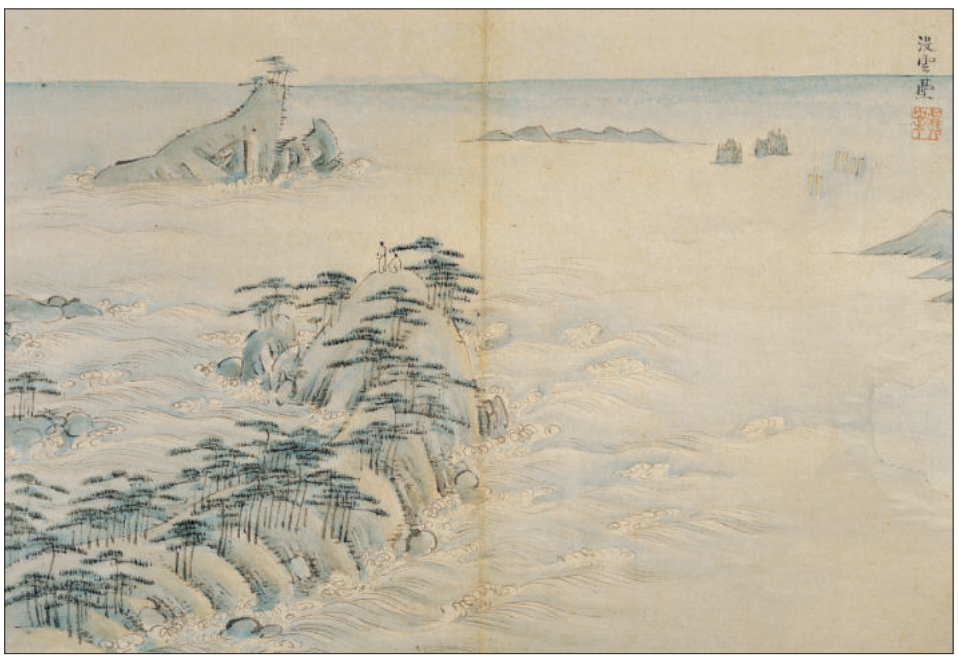


영남연해형편도의 사하 일대

사하에는 두각지 사이에 만이 발달해 있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다대만은 두송반도와 몰운섬 사이에 반월형의 포구로, 내만이 모래 또는 자갈해안으로 되어 있었다. 일찍부터 멸치가 많이 잡히는 어장으로서 내만의 갯마을은 옛부터 어로 활동의 중심이었다. 낙동강이 운반한 토사가 다대포 서쪽 바다 일대에서 퇴적되어 몰운대 북쪽에 사빈해안이 형성되었다. 이곳에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다.

감천동에 소재한 감천만은 과거에 감내포, 대포만이라고도 불렸다. 동쪽의 암남반도와 서쪽의 두송반도 사이의 좁고 긴 만으로 폭은 만의 입구가 1.3㎞이고, 내만은 1.5㎞에 이른다. 본래 이 만은 청어·고등어·멸치 등이 많이 잡히는 어장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되면서 방파제와 안벽 및 물양장이 건설되어 현대적인 항만으로 변모하였다. 두각지의 말단부에는 풍광이 뛰어난 명승이 적지 않다.

① 몰운대



몰운대(18세기 초, 김윤겸 작, 동아대학교 박물관)

몰운대는 부산의 등줄산맥인 금정산지의 끝자락이 대한해협으로 유입하면서 형성된 섬이다. 16세기까지만 해도 몰운도라 불리는 섬이었으나, 낙동강에서 운반된 퇴적물로 다대포 육지와 연결되어 육계도가 되었다.

이곳은 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에는 그 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하여 지명이 비롯되었다. 남단에는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식애와 해식동이 발달되어 있고 배후인 육지 쪽에는 수려한 모래 해안이 펼쳐져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의 수목 주종은 해송이지만 그 이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자생하고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몰운대에는 정운공 순의비(부산시 문화재 기념물 제20호)와 다대포첨사영의 다대포객사(부산시 문화재 기념물 제3호)가 옮겨져 있다.

예로부터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 출렁거리는 창파와 모래밭 등이 어우러진 뛰어난 경승지였다. 이곳에서 바라 보이는 앞바다는 다대 8경 중의 하나인 '몰운관해(沒雲觀海)'를 이루며 화가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그린 그림과 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 몰운대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져 역시 바다를 향한 두각지로 화손대가 있다. 이 화손대는 바다를 낀 몰운산 동쪽 맨 끝자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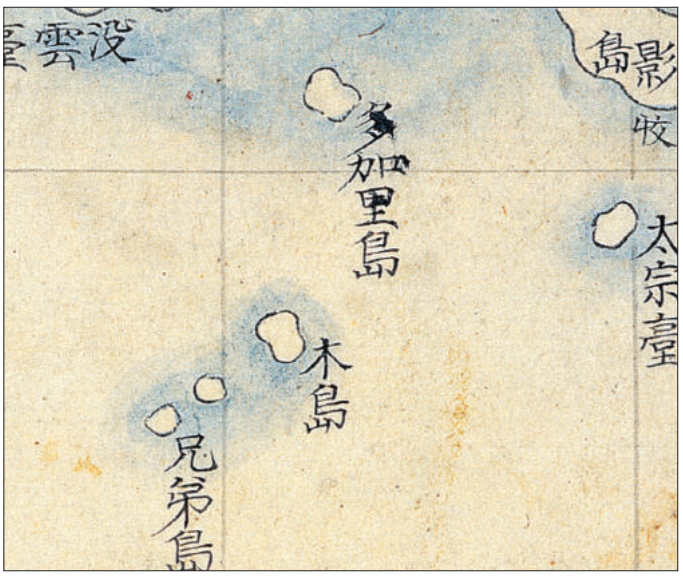
②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은 낙동강 하구에서 동쪽에 있는 길이 약 400m의 해안 백사장이다. 사장의 모래는 낙동강 상류에서 운반된 양질의 사질이 몰운대를 육지로 이어지게 하였다. 완만한 반월형으로 휘어진 사장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였다. 낙동강 하구둑이 강물의 흐름을 막아 해수욕장의 기능이 이전만큼은 못하다. 그러나 인근의 몰운대와 다대포객사·윤공단·정운공 순의비 등의 문화유적과 어우러진 곳으로 부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수욕장 중의 하나이다.

(2) 섬



옛 지도에 표현된 사하의 섬
(출처 : 동국지도3, 국립중앙도서관)

사하의 연근해에는 많은 섬들이 있다. 과거에 육지와 가까운 해안가에도 많은 섬들이 있었으나 도시화로 연육되거나 매립되어 없어지기도 하였다. 나무섬[木島]은 몰운대에서 남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갯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높은 곳은 섬의 북쪽으로 해발 61m에 이른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3개의 작은 섬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섬의 주위는 해식애가 발달되어있다. 다대포 멀리 남쪽에 있다 하여 남도로 부르기도 한다. 다대동에 있는 고리섬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대 8경의 하나인 쥐섬, 솔섬과 함께 삼도 중의 하나로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갯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낚시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해안가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섬으로 감천동의 용두섬이 있다. 감천만 동북쪽에 조그마한 섬으로 1962년 부산화력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바다 매립을 위한 착평으로 없어졌다. 용두섬이 있을 때 감천만 동북쪽에는 자갈 해안이 발달하고 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었다.

감천동에는 죽도가 있었다. 두송반도의 기반암 나출암인 용두암의 앞에 자리잡고 있었던 작은 갯바위섬이었다. 1979년 감천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취는 없어졌다.

4) 기후와 동식물

(1) 기후

사하의 기후는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난류의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온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면서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비교적 적다.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좋은 날씨를 보일 때가 많으나 양자강 부근에서 발생한 저기압의 잦은 통과로 비도 자주 내린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해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그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를 나타낸다. 가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많이 보이며 겨울철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랭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북서 계절풍이 불지만,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온화한 날씨를 보인다.

사하는 매년 6월부터 태풍 이동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1959년에 태풍 '사라호'에 이어 2003년도에는 이와 비슷한 규모로 최대풍속 26.1㎧을 보인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낙동강 하구에 건설된 하구둑으로 인해 지역성이 강한 안개 및 연무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다. 이곳의 연평균 안개 발생 일수는 1999년 7월이 26.5일로 가장 많으며, 1월이 8.3일로 가장 적다.

(2) 서식 동식물

① 식물

낙동강 하구에는 상류로부터 운반되어 온 토사가 퇴적되어 삼각주와 연안 사주에 해안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 사주와 사주 그리고 사주와 삼각주 말단 사이에는 넓은 갯벌이 분포한다. 갯벌의 주변은 갈대와 염생 식물이 밀생하는 자연습지로 되어 있다. 이처럼 풍부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조간대 갯벌과 광활한 갈대밭 및 염습지는 조류의 번식장소로서, 각종 철새들의 기착지, 월동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을숙도에는 갈대군락과 경작지, 방치된 지역이 있다. 경작지의 대부분은 밭으로 파밭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 식물군락으로는 갈대, 바랭이, 띠, 참억새, 애기부들, 쑥, 매듭풀, 벌노랑, 토끼풀, 가시상치, 개수양버들이 있다. 남단의 갯벌은 조간대 지역으로

물이 빠지면 세모고랭이 밀생지가 드러나고 여기에 천일사초, 갯잔디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배후로 갈대 군락이 자리잡고 있다.

② 조류과 어류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에서 사자도·십리 등과의 사이에 펼쳐진 갈대밭과 모래톱은 수심이 얕고 해수와 담수가 교차하기 때문에 각종 동·식물성 플랑크톤, 연체동물, 갑각류, 소형 어류, 그 밖에 여러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어 조류의 먹이가 풍부한 곳이다. 또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고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 기후에 속하므로 겨울 철새의 월동지, 여름 철새의 번식지로 매우 적합하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조류는 약 120종으로 이 가운데 사철을 두고 머무는 텃새가 10여 종이고 나머지 110여 종은 철새들이다. 텃새로는 참새, 꿩, 때까치, 매비둘기, 딱새, 노란턱 뫼새, 붉은머리 오목눈이 등이 손꼽힌다. 이들 텃새 중 겨울에는 주변의 갈대밭에서 머물다가 여름에는 산에서 서식하는 종류도 있다. 겨울철에 오는 새는 10월 상순부터 3월 중순까지 머무는데 백조와 오리 종류로 청둥오리, 흑부리오리, 쇠오리, 고방오리, 흰쭉지, 쇠기러기, 큰기러기, 두루미, 저어새, 느시, 아비, 농병아리 등이 있다.

여름 철새는 대체로 4월부터 9월 사이에 볼 수 있는 새들로, 백로, 황새, 왜가리, 듬불해오라기, 게게비, 흰물떼새, 뜸부기, 쇠제비갈매기, 물총새 등이다. 이 밖에 우리 나라를 통과하면서 봄, 가을 동안 잠깐씩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새로 마도요, 뒷부리도요, 노랑발도요, 좀도요 등의 도요새 무리와 왕눈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게꿩 등이 있다.

부산 다대포의 형제섬과 외섬 등의 연해는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감성돔과 벵에돔, 볼락 같은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한편 연해의 남형제섬 수중에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랭놀래기, 자리돔, 뱅에돔 같은 아열대성 어류 외에 아열대성 산호류 10여 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리돔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후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지리와 삶의 공간

1) 인문지리

큰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사하는 옛부터 배가 드나드는 포구가 있어 물류의 중심지였다. 하단포, 장림포, 홍티포, 보덕포가 지명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사람과 물자를 나르던 하단 도선장은 하구둑 건설로 지금은 자취가 없어졌지만 당시 일상 생활의 애환을 담고 있던 곳이었다. 지금도 열리는 하단장은 과거 물류 중심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사라진 하단 재첩, 장림의 김과 소금은 전국에서도 유명하였다.



옛 지도에서의 사하 일대
(동래부산고지도, 19세기, 국립중앙도서관)

낙동강과 함께 다대포항과 감천항이 있는 오늘날의 사하는 생태도시와 산업도시의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다대포 해수욕장과 몰운대, 승학산 등의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어 훌륭한 자연 생태 자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을숙도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하류의 철새도래지는 동양 최대의 철새 낙원으로 이름나 있고, 이곳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 낙동강변을 따라 조성된 신평·장림공단은 약 2,000여 개의 기업들이 뿌리를 내려 부산 지역의 산업 공간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평동 일대는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하면서 어업과 농업이 중심이었던 낙동강 강가는 공업의 중심지인

공단으로 바뀌었다.

감천항은 원래 청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장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되면서 방파제와 안벽 및 물양장이 건설되어 현대적인 항만으로 되었고, 무역 수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다대포항은 국가 어항으로 어업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며, 고등어, 삼치, 방어 등의 연안 어획물이 잡히고 있다.

사하의 교통은 낙동로를 통해 구의 북쪽인 사상구와 연결된다. 동서로는 대티터널을 거쳐 낙동강하구둑과 연결되는 2번 국도가 부산 서구와 강서구로 연결된다. 장림공단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을숙도대교를 거쳐 녹산 국가 공단과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감천로를 거쳐 서구와 영도구와 연결된다. 낙동강변을 따라서는 남북으로 다대항 배후도로가 이어지고 있다.

구의 내부에서는 중심부인 하단으로부터 다대포항을 연결하는 다대로, 감천항을 연결하는 감천로가 구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 철도역과 부산항, 김해 공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부산 신항만으로 연결되는 을숙도대교, 거제도와 연결되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사하는 부산 중심부와 서부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국가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사하는 1983년 구로 승격된 이후 여러 차례 행정 구역의 개편을 거쳐 오늘날에는 면적 40.97㎢로 부산광역시의 5.4%에 해당되며, 전체 구·군 중 5번째에 해당된다. 16개 동을 아우르고 있으며, 인구수 130,832세대 356,359명(남자 178,520명, 여자 177,839명, 2010년 9월 30일 현재)이다.

2) 삶의 공간

조선시대의 사하에는 하단 나루터가 있어 김해 등의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내륙으로 이어지는 물길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옛부터 물산의 집산지가 되어 왔다. 일제강점기 중 낙동강 연안에 인공제방을 축조하면서 과거 자연제방에 있었던 가옥들은 제방 안쪽으로 이전되었다. 다음의 표는 사하에 있던 마을들이다. 『동래부지』에는 신초량리, 구초량리, 대치리, 목장이, 감천리, 독지리, 장림리, 서평리, 다대리 등 9개 리만 수록되어 있으나, 『동래부가호안』에는 다대, 장림, 서평, 신평, 평림 등의 15개 리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행정 동리는 1914년 9개 동리로 통폐합되었으며, 이후 암남동은 서구로 편입되어 현재 8개 동을 관할하고 있다.

조선시대 사하구 일대의 마을

시 기	마을수	호 수	평균호수	마을 이름(괄호 안은 호수)
1740년*	9	786호	87.3	신초량리, 구초량리, 대치리, 목장리, 감천리, 독지리, 장림리, 서평리, 다대리
1904년**	14	730호	52.1	다대(108), 장림(20), 서평(29), 신평(29), 평림(65), 하단(17), 부평(138), 부촌(64), 부민(81), 석남(35), 감천(45), 대치(42), 괴정(55), 당리(18)
1914년***	9			암남동, 감천동,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구평동, 당리동, 괴정동

* 『동래부지』(1740, 사천면 하단) ** 『경상남도동래부가호안』(1904)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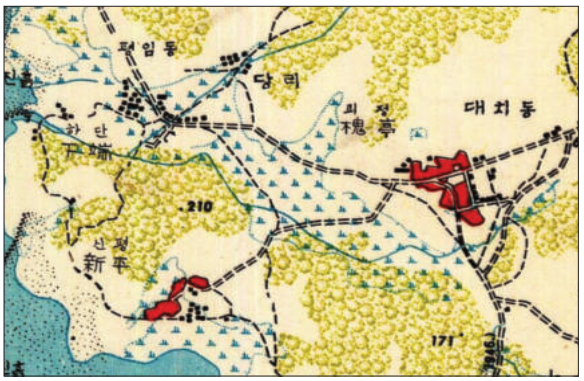
196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에 부산이 수출 거점이 되면서 사하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70년대에 부산 도심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를 개발해 공단을 조성하였다. 1975년 사상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사하도 동시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지가 아니라 일반 시가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업 지역과 주거, 상업 지역이 뒤섞이게 되어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서쪽의 녹산공업단지와 함께 남쪽에 신평·장림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유로가 직선화되거나 복개되고, 도로가 건설되면서 사하의 생활 공간은 크게 바뀌었다.

사하의 생활 공간은 관내의 북부에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괴정천 유역과 중심부의 장림천 및 인근 산지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산록의 소계류천 유역에 형성되어 있다. 괴정천 유역에는 상류에 괴정동, 하류에 하단동과 함께 승학산 남쪽 사면의 완사면 말단부에 당리동이 있다. 장림천 유역에는 신평동과 장림동이 있다. 다대동 일대는 다대항과 낙동강 하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감천항의 배후 생활 공간인 감천동과 구평동의 생활 공간은 대부분 산지에서 발원한 계류천 유역 및 해안가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하의 생활 공간은 크게 하단 일대와 괴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역, 신평·장림 산업단지 일대의 공단지역, 다대포항과 낙동강 하구의 다대동 일대, 감천항 배후인 감천동 일대 등 4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하단 괴정 일대

하단과 괴정 일대는 대부분 괴정천 유역에 속한다. 시약산의 서쪽 산록에서 발원한 괴정천은 서쪽으로 흐르면서 산지에서 발원한 여러 계류천들을 합류한 후 하단 일대에서 낙동강으로



괴정 · 하단동 일대(1956)



괴정 · 하단동 일대(2010)

유입한다. 괴정천을 따라 낙동강 하구둑과 연결되는 2번 국도가 낙동로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이곳에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난다.

1950년대의 지형도를 보면 괴정천 주변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시가지는 괴정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지금의 하단역 일대를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자연 마을로는 괴정동에 괴정, 고분들, 대티, 신촌, 양지, 희망촌, 하단동에 본동, 시천, 신내, 당리동에 당리 마을이 있었다. 괴정동 중심 마을인 괴정은 팔정자나무에서 지명이 유래한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괴목인 회화나무[홰나무]를 베었더니 그 곳에서 8개의 가지가 나와서 자랐다고 한다. 그리고 다대진첨사의 폭정이 심하여 마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주민들이 팔정자나무 밑에 모여 이를 성토하고 항거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도 전해진다. 이 나무의 뿌리 밑 부분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였다. 경로당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동제를 지낸다.

지도에 대티동으로 표현된 대티마을은 지금의 괴정2동에 해당되는 마을로 대치마을이라고도 한다. 괴정동에서 서대신동으로 넘어가는 대티(대치)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1678년 두모포 왜관을 용두산 주변의 초량왜관으로 옮길 때 초량왜관 주변에는 조선인 촌락을 대티고개가 있는 산골로 이주시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대티고개는 소나무가 많아서 솔티라고도 불렀다.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하단장에서 곡식을 매매하고 넘어오는 장꾼들이 도적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도 많았으며, 낙동강의 명물인 하단재첩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던 애환이 많은 고개이기도 하였다. 부산 시내와 사하 지역을 왕래하는 길목이었으며,

대티고개를 넘어 시내를 갈 때에 '부산 간다'라고 하여 생활권의 경계를 이루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괴정1동의 본동마을에는 고분들 마을이 있었다. 고분도리라고도 하며 고리짝과 관련하여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삼밭골 마을은 배고개로 올라가는 골짜기로서 삼을 많이 재배한 데서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신촌 마을은 괴정3동 일대에 있던 마을로 이 일대의 들을 '중맥들'이라고 불렀다. 한국전쟁 때 용두산 대화재, 부산 역전 대화재 등이 있어 이재민이 이곳으로 이주,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부근에 있는 양지 마을은 신촌 건너편의 북쪽 산기슭에 간이 주택촌이 들어서면서 형성된 것이다. 괴정4동 일대는 희망촌이라 불렀던 마을이 있었다. 이 일대는 원래 말골, 말꼴, 마하골, 마하곡, 소태미 등으로 불리었다. 『다대진지』에 보면 괴정동에 목장이 있어 괴정동을 목장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괴정 마을. 마을나무와 우물

하단동의 지명은 낙동강의 끝이란 의미가 담겨 있으며, '아래치', '끝치'라고도 부른다. 낙동강 제일 아래 쪽이라는 뜻인 아래치 또는 끝치라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이곳은 낙동강 하구에서 가장 번성하였던 포구로 일찍부터 농산물과 수산물의 거래로 큰 마을을 이루었으며, 5일장인 하단장(5·10일)이 열렸다. 하단에서 장림 일대에 이르는 강변은 김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주민들은 낙동강과 남해안 연안을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선창가에는 횟집도 많았다. 그러나 낙동강의 모래가 퇴적되어 포구 기능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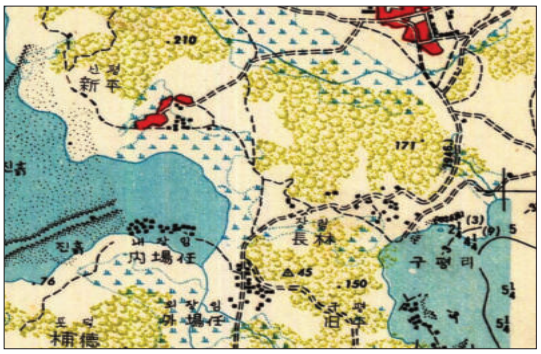
실하였고, 특히 낙동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은 크게 변모되었다.

당리동의 당리 마을은 구덕산과 승학산 남쪽 산록의 완산면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은 인근의 제석골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류천과 괴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되었다. 제석골은 기우제를 지낸 제석단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하며, 사당을 짓고 여신을 모신데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이곳에 제석사가 있다. '제석'는 불교 용어로 이 지명이 붙은 장소에는 대부분 기우 제단이 있다. 제석사에는 '제석곡신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서낭당 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리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매년 3월 3일 당제를 지낸다.

이 마을 뒷산까지 괴정의 목마성이 뻗어 있는데 이 부근에는 석축 성이 잘 보존되고 있다. 이 성은 대티고개에서 시작하여 당리 뒷산까지 약 3km의 길이로 이어진다. 두께 8척, 높이 8~12척 규모의 성이며, 상단의 높이만 맞추어 쌓은 성이므로 지형에 따라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 성지에서 신라 토기편이 많이 발견되어 이전부터 있던 성을 나중에 목장성으로 수축하였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다.

(2) 신평·장림 일대

신평·장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곳은 남북으로 동매산 등의 산지가 둘러싸여 있고 장림천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간척지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원래 모래등이 많아 어패류가 많이 잡힌 곳이나 1939년 이곳에서 장림까지 제방을 쌓아 만입부가 농지로 변했다. 신평은 '새로운 평지'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새마을, 신촌,새벌,새마 등과 통하는 지명으로 파악된다. 신평이란 지명은 『동래부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리 오래된 지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04년의 자료에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호수가 29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평 · 장림동 일대(1950)



신평 · 장림 · 구평동 일대(2010)

이곳의 마을로는 신평동에 신평, 동매, 망후, 모래구찌, 배고개, 새마을, 장림동에 바깥장림, 안장림, 보덕포, 새마을, 성화원 등의 마을이 있다. 신평동의 신평 마을은 본동이라고도 부른다. 『다대진지』에 '원호 35호, 인구 105명(남자 47명, 여자 5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매 마을은 동매산(210m) 부근에 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된 것이다. 동매산은 독뫼, 동뫼라고도 부른다. 망후 마을 지명은 임경업 장군의 조카가 이곳으로 피신해와서 살았다는 구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임경업 장군이 김자점 등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 9촌까지 몰살당하였을 때 조카 임중생이 의주에서 신평으로 피난와서 살았는데,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 뒤를 돌아 보았다고 하여 망후촌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모래구찌 마을은 신평과 하단의 중간 지점인 강가의 패총이 있었던 모래구찌 부근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은 산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산지가 병풍처럼 두르고 앞면이 강을 향해 열려 있다. 이곳은 동매 마을로 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배고개 마을은 신평에서 괴정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배고개 일대에 있던 마을이다. 배골, 배곡, 배옥곡, 이곡이라고도 불렀다. 고개 지명은 배나무가 많아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개가 동쪽에 있으므로, 원래는 밝고개였는데, 밝(박)이 배로 전음되었다는 설이 있다. 배오개, 이현, 이티, 적현, 신평고개라고도 부른다. 이 고개는 하단장과 부산장, 그리고 구평동의 독지장을 왕래하는 장꾼들이 넘나들던 고개이다. 골짜기에서는 삼을 많이 길렀으므로 삼밭골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장림동 장림어촌계

장림동에는 봉화산 서측 산록의 장림천 유역에 있는 안장림과 바깥 장림 및 낙동강 하류의 보덕포(부득포 또는 비득포) 마을이 있었다. 장림 지명은 숲에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지형적으로 산지에 둘러싸여 마을이 길이 늘어섰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래부지』의 기록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안장림이 옛날 장림이고, 바깥 장림은 부산과 다대포간의 도



보덕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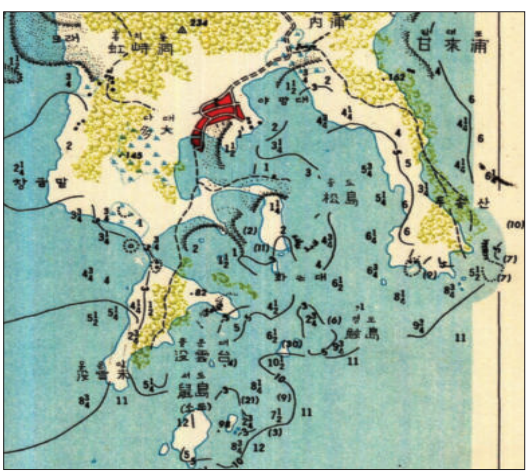
로가 개설된 이후 도로면에 새로 집들이 들어서면서 생긴 마을이다. 지금은 안장림과 바깥장림이 주택으로 이어져 있다. 이중 바깥장림은 농업을, 안장림은 어업을 주업으로 반농반어의 성격을 지닌 마을이었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 이곳에 염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장림동의 마을 중 보덕포는 보덕포 갯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보득포, 부득포, 버득포라고도 하였다. 원래는 영세한 농어촌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마을 앞이 매립되어 공업단지에 속하였다. 성화원 마을은 한국전쟁때 전쟁 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있던 곳이었다.

(3) 다대동 일대

다대동 일대의 생활 공간은 아미산(234m)의 산록에서 발원한 계류천들이 해안으로 유입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다. 다대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평지가 좁아 큰 규모의 마을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마을은 다대포항에 연한 곳에 열상(列狀)으로 발달되어 있었으나, 어항이 축도되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부분적으로 시가지



다대동 일대(1950)



다대동 일대(2010)

화가 이루어였다. 낙동강 하류의 연안에도 열상으로 취락이 형성되었다. 이곳의 주민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반농반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대동에는 자연마을로 낫개, 새모기, 홍티 마을이 있다. 본 마을인 '다대'의 지명이 『일본서기』 등에 자주 등장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한일 관계의 주요 요지였음을 보여준다. 아미산에는 응봉 봉수가 있다. 조선시대 다대포는 경상좌도 7진의 하나로 국방상의 요지였다. 『가호안』에는 108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이 있어 당시에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대1동의 새모기 마을은 현대 지형도에 새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새무기, 새목, 조항 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의 다대자유아파트 부근의 바닷가 쪽에 있다. 새모기란 새의 목으로 마을이나 들의 모양이 새의 목처럼 가늘고 긴 모양인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된다. 홍티 마을은 아미산의 서쪽 산록의 완사면 말단부에 형성된 포구 마을이다. 홍치 마을, 무지개 마을이라고도 한다. '무지개' 지명은 능선의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를 한자화하여 홍치(虹峙)라 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포구의 조그만 어촌으로 김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지금은 마을 앞이 매립되어 있으나 마을 일부는 아직 남아 있고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한다.



홍티 마을 포구

(4) 감천·구평 일대

감천동과 구평동은 감천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생활 공간이다. 구평동에는 감천만의 서안에 위치하여 조선 초기부터 만호영인 서평포가 설치되었던 군사상의 요충지였다. 뒤에 성포[성개]에 축성이 되고 이곳을 서평진이라 부르면서 원래의 서평은 구평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평진은 다대진과 더불어 해륙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동래부지』에 수록된 독지리가 이곳이며, 이곳에서 매 1·6일 개시되었던 독지장은 동래·부산·좌수영장과 함께 부산 일대의 유명한 장이었다. 그러나 장이 열렸던 구체적인 장소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보가 성포로 옮겨지기 전에는 구서평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토성지가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다. 토성의 상태나 출토되는 토기편으로 보아 신라시대부터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평동 마을나무와 당산

구평동에는 본동으로 구서평 마을이 있었다. 구시평, 구평 마을이라고도 하였다. 『동래부지』에 "서평포는 부의 남쪽 45리에 있었다. 옛날에는 수군권관이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져 진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다대포성 안으로 옮겼다가 1668년 다대포성이 좁다는 이유로 옛터 근처로 다시 옮겼다. 그러나 1677년 왜관에 너무 가깝고 권관의 품계가 낮다는

감사의 장계에 따라 만호로 승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대진지』에는 "구서평은 원호 30로, 인구 100명(남자 45명, 여자 55명)이었다. 큰 샘이 동쪽 성 안에 있는데 물이 달고 차가우며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다대진 아래와 서평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길어다 먹는다"는 기록이 있다. 서평진영 성지는 해안의 매립으로 거의 없어 졌으나 아직 마을 나무와 당집이 남아 있다.

감천동은 천마산(325m)의 서쪽과 남쪽의 산록에 위치한다. 서로는 대티고개에서 이어지는 낙동정맥의 산줄기가 이어져 있어 천마산과 옥녀봉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쪽으로는 감천만을 향해 열려 있다. 지명은 이곳 일대에 자주 나타나는 '감(甘)'의 해석과 같이 부족사회의 권력 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동래부지』의 기록으로 보아 마을 형성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감천항에는 1962년 부산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면서 1969년까지 4호기가 준공되었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부산시 일대와 경남 일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다. 초기에는 석탄을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지금은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발전소가 있는 감천항에는 이전에 멸치 등의 고기가 잡히던 곳으로 주민들은 멸치 지예망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되면서 어장은 폐쇄되었다.

감천동에는 자연 마을로 감천, 안골새 마을, 태극도 신앙촌이 있다. 중심 마을인 감천 마을은 감내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천마산과 서평진 사이에 깊이 들어간 감천만에 소재한 요지이다. 감천만의 동쪽에 작은 어촌이 있었는데 이곳이 감천의 원래 마을이었다고 전한다. 옛마을 이름을 불미꼴이라고도 한다. 이는 천마산의 석성산 봉수대 밑에 있는 골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골새 마을은 감천 마을의 안쪽에 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감천2동에는 태극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촌이 형성되어 있다. 태극도는 1918년 조철제가 증산사상에 기초하여 세운 종교이다. 일제강점기 중 유사 종교 해산령으로 교세가 줄었으나 광복 이후 다시 포교활동을 하여 1948년에 부산 보수동에 본부를 정하고 태극도로 교명을 바꾸었다. 1955년에 감천동으로 옮겨 약 3,000세대 1만여 명의 신도를 모아 신앙촌을 형성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이 마을의 가옥은 1970년대에 판자촌이 슬레이트 집으로 개량되고, 1980년대에 일부 가옥이 슬라브 형태로 증축되었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생활 모습과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산비탈면을 계단식으로 활용하여 조망권을 살린 규칙적인

형태의 남향식 가옥구조와 횡적 구조의 골목길을 형성하면서 도심 속에서도 특징 있는 경관이 보존되어 있다.



태극 마을 전경

가옥들은 상부상조하는 정서와 따뜻한 인정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파랑, 하늘, 분홍, 민트, 노랑 형형색색의 페인트가 벽마다 칠해져 있는 직사각형 집들로 되어 있다. 최근 이곳에는 마을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비탈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이국적인 '하늘[공중]도시' 마추픽추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제3장
행정

1. 행정 조직
2. 동의 유래와 역사
3. 사회복지와 문화의 현황

제3장 행정

1. 행정 조직

1) 행정 연혁

(1) 선사~고려시대의 행정

사하 지역은 부산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었다. 먼저 몰운대 입구 낙동강 쪽에 있었던 패총 등으로 보아 신석기인들이 살다가 떠난 후 철기시대[김해문화]인이 들어와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의 유적으로 감천동의 고인돌군(6기), 괴정동의 무문토기, 대티고개 밑의 돌널무덤인 듯한 유적, 다대동 응봉의 간석기 등이 있다.

사하 지역은 삼한시대에는 변한에 속했으며, 삼국시대에는 거칠산군, 통일신라시대 때는 동래군, 후삼국시대는 후백제에 속했다. 고려시대에는 983년(성종 2년) 상주목 동래군, 995년(성종 14년) 영동도 동래군에 속해 있었으나, 1018년(현종 9년) 동래군이 동래현으로 격하되어 울주군의 속현(屬縣)이 되었다. 이때 사하구가 속해 있던 동래현의 속현인 동평현은 양산군의 속현이 되었다.

(2) 조선시대의 행정

조선 초기까지 사하 지역은 경상도 양산군 동평현에 속해 있었으며, 1405년(태종 5) 양산군의 속현인 동평현이 동래군의 속현으로 변경되었고, 1547년(명종 2) 동래현이 동래도호부로 승격되자 사하 지역은 동래도호부 동평현에 속했다.

1420년에는 부산포에 좌도수군도안무처의 본영이 설치되었으며, 다대포에 만호영이 설치되었다. 1530년에는 응봉봉수대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사하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조선 후기에는 동래부 사천면이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었다. 1740년(영조 16)에 조사된 동래도호부 관할에 속하는 면 이하의 행정구역은 읍내면, 동면, 남촌면, 동평면, 사천

면, 남면, 북면의 총 7개 면 21동 76리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사하 지역은 사천면에 속해 있었다. 사천면의 하단은 신초량, 구초량, 대치, 목장, 감천, 수지, 장림, 서평, 다대리의 9개 리로서 지금의 중·서구와 사하구에 해당된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현재의 사하구 행정구역 명칭이 등장했다.

한편 조선 후기의 동래부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1740년 쓰여진『동래부지』가 대표적이다. 조선 후기 행정조직은 실제 기능상으로는 상하 구조로 되어 있었다. 먼저 상부 행정조직으로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이어준 것은 수령제도로 군현제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상부 조직은 1754년 일체화된 도제로서 전국이 8도로 구획되었으며, 아래에 주·부·군·현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동래부는 경상도에 속하였다. 다음은 하부 행정조직으로 중앙권력이 민에 대한 지배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재지사족 등의 준자치적 조직을 중앙행정조직과 연결하는 것이다. 동래부의 하부 행정조직은 7면 22동 79리였다. 이처럼 사천면이 독립된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 후기 동래의 인구는 남자 9,616명(승려 230명 포함), 여자 9,483명 합계 19,099명, 호수는 5,639호였다. 한편『동래부지』에 하단에는 786호가 있었다.

조선 후기 동래부 각 면 소속의 리동

면		리동
읍내면 동부		호현리 충렬사리 안락리 염창동 구향교동 신향교동 합지동 역동 임산동 지동 수문동 남문동변동 당하동
읍내면 서부		남문서변리 서문노상리 서문노하리 북문노상리 북문노하리 당동 옥미정동 대정동 서문외동 범어동 야정동 객달동
남 촌 면		숭정리 동부리 서부리 북문외리 남문외리 축산리 감포동 칠포리 포이포리 남천리 대연리 석포리 분포리 용당리 감만리 우암리
사천면	상단	주례리 모라리 괘내리 덕포리 장문리 엄광리
	하단	신초량리 구초량리 대치리 목장리 감천리 독지리 장림리 서평리 다대리
동 평 면		부현리 감물리 당리 고대리 가야리 부산성내리 범천일리 범천이리 좌자천일리 좌자천이리 두모포리 해정리 와요리
동 면		명장리 반여리 재송리 해운대리 우동리 중동 좌동 지경리 석대리 신천리 서동리 오륜대리
서 면		산저리 여고리 석사리 대조리 초읍리 양정리 연지리 범전리 전포리 만덕리 거벌리
북 면		부곡리 선동 두구리 작장리 소산리 남산리 구세리 장전리 산성리

조선 후기에 동래부 각 면의 리동과 호구수는 읍내면이 동부가 10동 3리, 서부가 7동 5리로 모두 17동 8리였으며, 동면은 2동 10리, 남촌면은 상단 2동 6리, 하단 8리로 모두 2동 14리였으며, 동평면 13리, 사천면이 상단 6리, 하단 9리로 모두 15리, 서면 11리, 북면 1동 8리였다. 조선 후기의 단순한 방위면 체제가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확대 분화되면서 각 리동은 지역 고유의 명칭을 갖고 있었다. 이때 현재의 사하구는 대치리, 목장리, 감천리, 독지리, 장림리, 서평리, 다대리가 속한 사천면 하단에 해당하였다.

한편 각 면마다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면, 읍내면은 부의 치소(治所)로서 휴산동 등은 성내라 하여 읍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남촌면의 동부리 등에는 경상좌수영이 있었으며, 축산리 등에는 각각 수군만호영이 있어 수군의 중심지였다. 동평면의 부산성내리에 부산첨사영, 두모포리에는 수군만호영이 있었으며, 1607년부터 1678년까지 왜관이 설치되었다. 사천면의 신초량리에 1678년 이후부터 왜관이 설치되었고, 서평리에는 수군만호영, 다대리에는 다대첨사영이 있었다. 그리고 목마장이 괴정리에 있었다. 이처럼 현재의 사하구는 조선 후기에 첨사영과 만호영이 있는 수군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3) 한말의 행정

1868년(고종 5)에 편찬된『동래부사례(東萊府事例)』에 따르면 사천면이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분리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분리된 연대는 분명치 않다. 이때에 부산면이 신설되면서 동래부에는 9개 면이 있었다. 1895년 5월 26일 지방제도 개편으로 경상도는 대구부, 안동부, 진주부, 동래부의 4부로 나누어졌다. 1895년 8월 4일 제2차 지방관제 개편 때 경상도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로 나누어져 동래부는 경상남도에 속했다. 1903년에는 동래부 사하면이 되었다.

(4) 일제강점기의 행정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령 제7호에 의한 지방관제 시행으로 동래부가 구역 변동 없이 부산부로 변경되어 지금의 괴정, 하단, 장림, 신평, 다대, 구평, 감천 등의 낙동강 하구 지역이 부산부 관할이 되었다. 이후 이 지역을 사하면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개편 때 부·군을 통폐합 함과 동시에 부산부의 일부가 기장군과 합하여 동래군이 신설되었다. 이에 지금의 사하 지역이던 사하면은 다시 동래군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부에 있던 대티는 대티고개를 경계로 일부는 부산부에 남고, 일부는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3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호로 동래군 사하면의 일부인 암남리가 부산부로 편입하게 되었으며, 사하는 대티고개를 경계로 하여 부산과 완전히 격리되었다. 1942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42호로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다. 이에 사하면은 부산부에 편입되었고, 부산부 사하출장소가 설치되어 종전 동래군 사하면의 사무를 부산부의 이름으로 계속 시행하게 되었다.

(5) 해방 이후의 행정



사하구 전경. 사하구의 진산 승학산 정상에서 바라본 사하구의 당리, 장림, 신평동의 모습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1949년 부제가 폐지되고, 시제가 실시되면서 부산시 사하출장소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5일 부산시 사하출장소로 개칭되면서 부제가 폐지되고, 시제가 실시되었다. 1951년 9월 1일 부산시 서부출장소 사하지소로 개칭되면서 구제의 실시가 전제되었다. 1957년 1월 구제가 실시되자 사하 지역은 서구에 포함되어 부산시 서구 사하출장소가 되었다. 1963년 부산시가 정부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1975년 시조례 제870호로 시 직할 사하출장소로 독립하였다.

1983년 12월 15일 대통령령 제11248호에 따라 북구 관할에 있던 을숙도, 일웅도를 편입함과 동시에 출장소에서 구로 승격하였다. 사하출장소 관할 13개 동 및 북구 대저2동 일부(을숙도, 일웅도)를 관할하였다.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8년 5월 1일 자치구제가 실시되었다. 1995년 7월 1일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하였고, 1998년 7월 제2대 민선구청장 취임하였고, 2002년 7월 제3대 민선구청장 취임하였다. 2006년 7월 제4대 민선구청장 취임하였다. 2010년 7월 1일 민선 제5대 구청장이 취임하였다.

2) 동의 편제

사하구의 동은 구가 성장하면서 분화를 거듭하였다. 먼저 1959년 1월 감천동이 감천1동과 감천2동으로 분동하였다. 1966년 1월 괴정1동이 괴정1동과 괴정3동으로 분동하였다. 1979년 8월 괴정1동이 괴정1동과 괴정4동으로 분동하였다. 1983년 10월 장림동이 장림1동과 장림2동으로 분동하였다. 1992년 9월 1일 하단동이 하단1동과 하단2동으로 분동하였으며, 신평동이 신평1동과 신평2동으로 분동하였으며, 다대동이 다대1동과 다대2동으로 분동하였다.

사하구의 행정구역은 2011년 현재 16개 동이며, 면적은 40.94㎢로 부산광역시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괴정동은 괴정 제1~4동으로 분동, 하단동은 하단 제1~2동으로 분동, 신평동은 신평 제1~2동으로 분동, 장림동은 장림 제1~2동으로 분동, 다대동은 다대 제1~2동으로 분동, 감천동은 감천 제1~2동으로 분동되었다. 다만 당리동과 구평동은 분동되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되고 있다.

3) 행정 조직과 업무

사하구의 행정조직과 업무는 사하구의 성장을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되어 왔다. 우선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1998년 9월 제1차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종전의 1실 3국 3담당관 16과 1보건소 16개 동을, 3담당관 2과를 감축한 3국 1실 14과 1보건소 16개 동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1999년 8월 정부의 제2차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다시 1과를 축소한 3국 1실 13과 1보건소 16개 동으로 축소 개편하였다. 제2차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축소 개편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업무가 유사한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환경청소과로 통합하였으며, 환경위생과의 위생 관련 업무는 보건소로, 도시국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로, 민원봉사과 전산정보담당을 기획감사실 전산정보담당으로 조정하였다. 또 IMF체제하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무과에 실업대책반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2000년 10월 허가 전담부서 및 한시기구를 설치하였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 건축과를 일부 인·허가 기능을 통합한 허가민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허가 전담부서로 개편하였다. 또 일반 허가 담당을 신설하고, 식품위생담당을 보건소에서 이관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주민 자치와 복지를 반영하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먼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신설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담당을 신설하였고, 실업대책담당은 총무과에서 이관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산림담당을 확대 신설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사협력담당은 의료노정담당으로, 보건소의 공중위생담당은 위생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지방조직을 구축하였다. 병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2년 7월 민원봉사과의 병무담당을 폐지하고 총무과에서 민방위담당을 이관하였으며, 위임 및 이양 사무의 증가로 교통행정과에 자동차관리담당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을숙도문화회관이 2002년 8월 설치되면서 관리담당과 공연담당이 신설되었다. 2003년 5월 9일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6급의 정원 책정 비율 증가로 조직이 비대해진 분야를 분리·신설하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신규 행정 수요 증가 분야 등에 담당을 신설하였다. 2003년 7월 신설된 담당은 기획감사실의 조직통계담당, 총무과의 청사관리담당, 문화공보과의 문화재담당, 민원봉사과의 문서관리담당, 보건소의 전염병관리담당이 있다. 건설과의 토목담당은 토목 1·2담당으로, 문화회관의 관리담당은 서무담당과 시설관리담당으로 분리되었다. 세무과는 담당 기능을 원점에서 재조정하여 5개 담당에서 7개 담당인 세무관리담당, 세무 1·2담당, 주민세담당, 자동차세담당, 징수관리담당, 체납정리담당으로 분리하였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담당과 여성회관담당이 신설되었으며, 의료노정담당이 생활보장담당, 청소년보호담당이 아동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이 여성복지담당에서 다시 여성청소년담당으로 변경되었다.

2004년 7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2과 10개 팀 규모의 사회복지사무소(존속기한 2년)를 설치하였다. 이때 사회복지과를 복지사무소 내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분리하고, 복지지원과에는 복지행정, 복지상담,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보육지원팀을, 복지사업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자활의료지원, 여성아동, 노인복지, 장애인복지팀을 각각 두었다. 기획감사실 내에 200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이 설치되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시설인 사하FR센터의 본격가동으로 재활용분야의 역할 증대에 따라 환경청소과 내의 재활용담당을 재활용담당과 음식물처리담당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적과 내의 지적담당을 지적담당과 지적정보담당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의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담당과 보건민원담당으로 각각 분리·확대 설치하였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을숙도문화회관의 서무담당을 관리담당으로, 시설관리담당을 시설담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다.

2005년 4월 1일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때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기구정원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청소과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되었다.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명칭변경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폐지되어 구 본청의 16개 실·과가 17개 실·과로 확대되었다. 담당급의 조정사항으로는 총무과 내에 직원복지담당, 세무과 내에 과표담당, 환경위생과 내에 생활환경담당, 재난안전과 내에 재난관리담당, 건축과 내에 재개발담당을 신설하였다. 청사관리담당이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실업대책담당이 주민자치과에서 총무과로, 민원봉사과의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의 방재담당이 복구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어 각각 재난안전과로, 위생허가담당이 허가민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위생관리담당이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었다. 주민자치담당과 일반허가담당은 폐지되어 구 본청 내 84담당이 87담당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한편 2003년 말 기준 사하구의 공무원 정원은 총 683명이었으나, 2004년 2·3차 표준(보정)정원으로 정원 8명이 증원되어 총 691명이 되었다. 2005년 4월 1일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 9명, 주택가격평가전담기구설치 4명, 담당신설 3명으로 정원 16명 증원되어 691명에서 707명으로 증원되었다. 2005년 7월 1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인력보강으로 1명 증원되어 2005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708명이 되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전체의 68.1%인 482명이며, 보건소가 44명(6.3%), 을숙도문화회관이 20명(2.8%), 동이 147명

(20.7%), 구의회 사무국이 15명(2.1%)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종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60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104명이다.

4) 구의회

사하구의원은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1년 4월 15일 사하구 초대 의회가 개원하였다. 사하구의회는 1990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선거에서 관내 13개 동에서 인구 비례에 의하여 동별 1~2인씩 총 24명의 초대 사하구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초대 구의원의 임기는 1991년 4월 15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였다. 1991년 12월 제10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 정기회 집회 일이 당초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되었다. 1992년 3월 27일에는 구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의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1992년 9월에는 구의회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개편하여 의정활동 지원 기능를 강화하였다. 이제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행정이 지방분권적인 방향으로 개편되기 시작하면서 행정의 일방적 집행이 줄어들게 되었다.

제2대 사하구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시·도지사, 시장·구청장·군수,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선거)로 16개 동에서 인구 비례에 의하여 1~2명씩 모두 30명의 구의원이 선출되었다.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 선출과 함께 출범한 제2대 의회가 1995년 7월 10일 새롭게 개원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 민주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제2대 구의원 구성은 재선된 의원이 6명, 초선의원이 24명이었다. 인구 기준에 따라 1개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1인 동은 장림1동과 구평동이었으며, 나머지 14개 동은 선거구별로 의원정수가 2인이었다. 제2대 의회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었다. 이때부터 구청장과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제3대 사하구의회는 1998년 5월 7일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원정수가 16명으로 조정되었으며,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로 16개 동에서 1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대 구의원의 임기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였다.

제4대 사하구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선거로 16개 동에서 1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구의원의 임기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였다.

제5대 사하구의회는 2006년 1월 부산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었다. 의원유급제도, 중선거구제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개정 선거법에 의거하여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가 선거구(괴정1·2·3·4동)에 3명, 나 선거구(당리, 하단1·2동)에 3명, 다 선거구(신평1·2, 구평, 감천1·2동)에 3명, 라 선거구(장림1·2동)에 2명, 마 선거구(다대1·2동)에 2명을 선출하여 지역구 총 13명과 비례대표 2명을 선출하였다. 제5대 구의원의 임기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였다.

제6대 구의회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 결과 가 선거구(괴정1·2·3·4동) 에 3명, 나 선거구(당리, 하단1·2동)에 3명, 다 선거구(신평1·2, 구평, 감천1·2동)에 3명, 라 선거구(장림1·2동)에 2명, 마 선거구(다대1·2동)에 2명을 선출하여 총 5개 선거구에서 15명(지역구 13명, 비례대표 2명)이 선출되었다. 2011년 6월에 1명이 당선무효되어 지금 구의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대 구의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다.

사하구 의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은 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소견을 듣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결책을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 또는 구두질문으로 한다.

5) 기구와 단체

(1)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은 사하구 낙동남로 154에 있다. 1983년 4월 24일 낙동강하구둑 기공식이 있었고, 1987년 11월 16 낙동강하구둑 준공식이 있었다. 1990년 7월 낙동강하구둑 건설사업의 준공허가가 있었다. 1991년 7월 20일 낙동강하구둑 건설사업 및 매립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공시설물을 부산광역시에 인수 인계하였다. 1995년 7월 낙동강하구둑관리사무소를 낙동강하구둑사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7년 1월 낙동강하

구둑사무소에서 부산사무소로, 1997년 12월 부산사무소를 부산지사로 바꾸었으며, 1999년 3월 부산지사를 낙동강하구둑부산권관리단으로 바꾸었다. 주요 시설물은 하구둑, 수문, 갑문, 우안, 배수문, 어도, 공도교, 수문부, 토언, 주수문 6문, 조절수문 4문 등이 있다.

(2) 낙동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에 있다. 1983년 12월 29일 낙동강홍수예보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1986년 2월 홍수예경보 시설공사를 착공하였다. 1987년 2월 낙동강홍수통제소 임시운영반을 설치하였다. 1987년 3월 낙동강홍수통제소를 개소하였다. 1987년 4월 낙동강홍수예경보 시설을 준공하였다.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임무는 낙동강·형산강 및 태화강 수계 하천 홍수의 통제 및 관리, 홍수시 다목적댐(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댐) 방류량 조절 수문조사 및 관측, 홍수예경보 및 전달, 홍수예경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전기통신시설의 운용관리, 유수사용 허가 및 골재채취 협의이다.



낙동강하구둑과 주변의 야경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하구 승학로 108번길 6에 있다. 사하구 선거관

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하급기관으로서 구·군의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설치된 16개의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하나이다. 사하구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현재는 2인)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추천받아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현재는 8인)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사무국 아래에 관리계, 지도담당관, 지도관리계로 구성되어 있다.

(4) 사하경찰서

사하경찰서는 사하구 공간대로 151에 있다. 사하경찰서는 1989년 경찰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2650호)으로 1989년 8월 1일에 문을 열고, 14개 파출소를 관할하였다. 1989년 8월 20일 청사가 준공되었다. 1991년 10월 신평2파출소가 신설되어 15개 파출소가 되었다. 1998년 4월 다대2파출소가 신설되어 16개 파출소가 되었다. 1999년 6월 직제개편으로 교통과·경비과를 통합하여, 경비교통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청문감사관실을 신설하였다. 2003년 8월 1일 5개 순찰지구대를 신설하였다. 사하경찰서의 기구는 7개과 1실, 5개 지구대, 11개 치안센타, 1개 초소로 되어 있다. 인력은 총 551명인데, 경찰서 268명, 파출소 283명이다.

(5)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891-6번지에 있다. 급수 현황으로 생활용수는 직송으로 덕산정수장에서는 신평, 다대, 장림, 하단 일부이며, 사상양수장에서는 당리, 괴정, 감천, 구평, 하단 일부이다. 공업용수는 전용관 직송으로 신평·장림공단 및 인근 업체에 공급한다. 급수시설로는 배수지가 4곳인데, 괴정배수지 외 3곳이다. 가압시설은 14개 소인데, 괴정1가압장 외 13곳이다. 비상급수시설은 2개 소인데, 하단초등학교 앞 외 1곳이 있다.

(6)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사하구 하단동 870-298에 있다. 사하등기소의 관할 구역은 사하구 전역이며, 업무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민법등기), 기타 등기이다.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 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

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인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법원이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다.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이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 지원 내의 등기과(계)는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않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등기소장은 법원서기관(대도시 등기소)이나 법원 사무관(중소도시 등기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등기소의 업무는 등기신청사건 처리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업무가 주를 이루며, 그 밖에 법인의 인감증명 및 사문서의 확정일자도 부여하고 있다. 사하등기소는 부산지방법원의 관할 아래에 있다.

(7) 서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은 1973년 2월 1일 서부교육구청으로 개청하였다. 1983년 12월 9일 서구 토성동 2가 24번지에서 서구 서대신동 3가 163번지로 이전하였다. 1991년 9월 2국 6과로 개편하였으며, 1995년 1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1996년 2월 관할구역을 서구, 사하구, 영도구로 조정하였다. 서부교육청의 관할에는 전체 152개의 각종 학교가 있다. 유치원 71개, 초등학교 50개, 중학교 31개이다. 현재 사하구 관할의 초·중학교는 서부교육청의 관할 아래에 있다.

(8) 사하소방서

사하소방서는 1984년 11월 28일 부산직할시 조례 제 201호로 설치가 승인되었으며, 1984년 12월 20일 문을 열었다. 장림, 괴정, 하단, 다대파출소를 관할하였다. 1988년 4월 감천파출소를 개소하였다. 1989년 관할구역이 변경되어 강서구 녹산동 및 천가동이 편입되었다. 1996년 1월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강서구 명지동을 편입하였다. 1996년 1월 119특별구조대가 발대하였다. 1997년 4월 소방파출소의 명칭 변경이 있어서 장림파출소를 신평파출소로 바꾸었다. 2001년 2월 신호소방파출소를 개소하였으며, 8월 천가파견소를 개소하였다. 2002년 8월 강서소방서 개서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으로 신호파출소를 강서소방서로 편입하였다. 2005년 10월 구조구급과를 신설하였다. 사하소방서의 기구는 3과 7계 5파출소 1구조대 5구급대이다. 3과는 소방과(소방, 장비계), 방호과(방호, 예방, 안전계), 구조구급과(구조, 구급계)이다. 파출소(구조대)는 신평·괴정·하단·다대·감천파출소이며, 119구조대가 각각 있다. 인력은 175명인데, 행정 40명, 진압 48명, 운전 45명, 구조 12명, 구급 28명, 통신 2명이다.

(9) 사하우체국

사하우체국은 사하구 낙동대로 346에 있다. 1968년 11월 30일 부산 괴정동우체국(6급 관서)으로 개국하였다. 1980년 11월 5급 관서(부산 괴정우체국)로 승격하였다. 1984년 12월 31일 부산 사하우체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신축 이전하였다. 1989년 12월 4급 관서로 승격하였다. 사하우체국의 기구는 3과 1실, 관내 우체국 10국, 취급소 5개 소이다. 인력은 정원 163인데, 현재 인원 160명이며, 상시 집배원 9명으로 되어 있다.

(10) 부산복합화력발전소

부산복합화력발전소는 사하구 감천동에 있다. 1996년 7월 12일 부산복합화력건설처가 발족하였다. 1997년 10월 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 1997년 12월 5일 부산화력발전소 제1호기와 제2호기를 철거하였다. 2002년 5월 17일 부산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2003년 5월 18일 부산복합화력발전소를 발족하였다. 2003년 7월 1단계 900MW 발전설비를 준공하였다. 2003년 11월 부산화력발전소 제3호와 제4호기를 철거하였다. 2004년 3월 30일 부산복합화력발전소를 종합 준공하였다.



감천화력발전소. 감천항 중심부에 자리하며, 우리나라의 초기 전력 생산에 많은 기여를 했다.

2. 동의 유래와 역사

1) 괴정동(槐亭洞)

괴정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작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괴정동은 승학산의 서쪽 능선이 마을 뒤를 병풍처럼 둘러쳐서 세찬 북풍과 낙동강의 강바람을 막아 준다. 동쪽으로 시약산(蒔藥山)이 솟아 있고, 남쪽에는 금티산(金峙山)이 솟아 있는데, 그 줄기가 서쪽으로 나지막한 구릉을 이루어 해풍을 막아 주는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새리골[세리골]에서 흘러내린 물이 괴정천(槐亭川)을 이루며, 괴정촌을 반월형으로 흘러내려 하단 포구로 흘러 들어간다.

괴정(槐亭)의 지명은 팔정자에 얽힌 사연이 있는 회화나무[槐木]에서 유래한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이 나무는 가렴주구에 혈안이었던 포악한 다대포첨사의 이야기와 동래부사의 벌목령 등에 관련된 많은 전설을 안고 있다. 아울러 회화나무의 또 다른 이름인 괴목(槐木)에서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괴정동은 여러 동으로 분동되어 있다. 각 마을 명칭의 유래를 종합하면, 괴정동에는 예부터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괴정1동을 고분들·본동이라 불렀고, 희망촌(괴정4동)을 말골·마하곡·소태미라 하였다. 6·25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던 보수천변 판자촌과 동광동 판자촌의 화재 이재민들이 이사하여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 괴정3동에 있는 신촌(新村)이다. 또 신촌 건너편 북쪽 산기슭에 간이 주택촌이 들어서서 양지(陽地) 마을을 형성하였다. 서대신동



괴정동패총. 일제강점기에 처음 발굴되었다가 1978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도로확장공사를 계기로 조사했던 괴정동패총이 있었던 자리.

으로 넘어가는 괴정동 대티(大峙)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대티동이라 불렀다.

괴정동의 역사는 지리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일구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도 괴정분지에서 농경에 종사하고, 동쪽 구릉을 넘어 감천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아랫머리 산줄기를 돌면 조개와 물고기가 수없이 많은 낙동강 포구에 이르고, 배고개를 넘으면 신평 너른 들과 강가에 다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먹거리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평동으로 넘어가는 삼밭골에서 삼농사를 지어 옷을 만들어 입었고, 하단 갈밭에서 거두어 들이는 갈꽃은 솜의 역할을 하여서 추위를 막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괴정동패총(貝塚)에서 실을 괴는데 사용한 방추자(紡錘車) 두 점이 나왔다. 역자학자들은 갈꽃이 면 재배 이전에는 솜의 역할을 대신했고, 명주가 나온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은 갈꽃을 삼베옷 사이에 넣어 겨울을 지냈다고 하였다.

그런데 괴정동에서 선사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곳은 장평중학교 교문 옆 길가와 대티로 올라가는 옛길 입구, 즉 신동교역회사 공장 뒤편의 주택가, 괴정초등학교 남쪽 길건너 냇가 일대이다. 여기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無文土器)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예가 별로 없는 무문토기에 붉은 색을 칠한 완형토기(完形土器)가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일본의 야요이식[彌生式] 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의미 있는 토기이다. 이런 무문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은 대부분 도로확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주택이 들어서기 전부터 발굴하고 보존하였다면, 더 많은 유물을 발굴하여 우리 사하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괴정동에 남아 있는 큰 나무[槐木] 두 그루 중 산록에 있는 고목(古木)을 중심한 주변 일대에 패총(貝塚)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사실 이 패총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9년 11월 일본인 좌산우좌길(佐山右佐吉)이 발견하여 대곡미태랑(大曲美太郎)과 함께 조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뒤 기록이 분명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잘 모르다가 1978년 도로를 크게 넓히는 공사를 하다가 패총이 있는 곳을 찾아 내어 부산대학교 박물관 팀이 다시 전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미 집들이 꽉 들어차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이 패총을 부산시 지정문화재에서 해제해 버렸다. 사하구의 문화재를 정식으로 조사하기도 전에 상실해 버린 조처였다.

이곳에서 나온 유물은 김해식토기편(金海式土器片)과 흙으로 만든 방추차(紡錘車) 등 여

러 가지이다. 적갈색의 흙으로 만든 방추차 2개가 나온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베를 짜서 입고 살았음을 알려 준다. 패총이 있는 곳은 마을이 있었음을 말해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장소가 여기였다고 볼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살기 좋은 명당(名堂)은 지금도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괴정동패총에서 나온 토기편은 김해식 토기편과 비슷하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수렵 어로 생활을 하면서 강 건너 김해 지역 사람들과 교류가 빈번했을 것으로 보인다.

괴정동패총과 이어져 옛 오성고등공민학교 일대에 밀집된 괴정동고분군에서는 특이한 석곽옹관묘(石槨甕棺墓)와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가 발굴됨으로써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옹관묘나 석곽묘는 기원후 2~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곽묘는 연대가 내려가면서도 계속되었다. 석곽묘에서는 금지환(金指環)이 여러 개 나왔다. 이것은 일찍부터 이곳에 금지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마을의 규모가 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았음을 말해준다. 이 고분군 속에는 가야 후기인 삼국시대의 고분도 있다. 이곳에서 나온 여러 유물들은 경성대학교와 성지공고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부산의 역사에서 고려시대의 자료가 많이 없는데, 괴정동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시대의 고분은 승학산에서, 조선시대의 고분은 금티산록(金峙山麓)에서 발견된다. 특히 조선시대의 무덤 앞에서는 상평통보(常平通寶) 등 엽전(葉錢)을 놓고 사발로 덮어놓은 유적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괴정동은 조선시대에 목마장(牧馬場)으로 기록 되어 있다. 『동래부지(東萊府誌)』에 표시된 목장리(牧場里)가 바로 괴정리(槐亭里)이다. 당시 부산의 목장은 영도가 가장 컸으며, 다음이 괴정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장리는 괴정만이 아니라 당리와 하단까지도 포함한다.

이곳에서 언제부터 말을 길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목마장의 시설은 일제강점기까지 목책(木柵)이 남아 있었다고 하며, 확실한 것으로는 목마성(牧馬城)이 남아 있다. 이 목마성은 국마성(國馬城)이라고도 부르는데, 축성 연대는 알 수가 없다. 돌로 쌓은 성은 대티고개에서 당리 뒷산까지 약 3㎞로 이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희망촌(希望村) 동쪽 산골에 있는 것이다. 폭이 8척(尺)이고, 높이는 8~12척의 단단한 성이다. 상단의 높이만 맞추어 쌓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 성지(城地)에서 신라 토기편(土器片)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전부터 쌓여져 있던 성을 후에 목장성(牧場城)으로 고쳐 쌓았는지도 모른다. 괴정동의 목장은 다대첨사(多大僉使)가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하였다. 지금의 희망촌을 마꼴[馬谷], 마하곡이라 불렀다.

통샘·단물샘은 괴정동패총 바로 밑에 있는 물 좋은 샘이다. 아마도 괴정동패총 사람들이



괴정 통샘. 괴정 범일병원 뒷편에 있으며, 도심 속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살던 변한(弁韓)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통샘 바로 밑에는 큰 새미골이 있다. 이곳은 괴정동에 있는 빨래터이다. 도시개발과 수도시설이 마련된 지금도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감을 이고 와서 옷가지들을 빨고 있는 도심 속의 빨래터로서 훈훈한 마을의 인정이 오가는 곳이다.

신촌(新村)에는 집은 별로 없고 대부분 밭이었는데, 그래서 중맥들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대티고개를 넘으면 대신동인데, 이 고갯길은 소나무가 많아서 솔티[松峙]라고 불렀다. 길이 험하고, 산짐승도 나오고, 도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하단재첩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괴정사거리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넘어갔다고 해서 재첩고개가 대티고개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대티고개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는 장승이 있었는데, 6·25전쟁 때 없어져 버렸다. 지금은 서대신동으로 넘어가는 길이지만, 당시에는 괴정에서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였다. 이 길은 하단, 독지(禿旨 : 구평동), 구포, 강 건너 김해 지역에서 부산까지 왕래하는 보부상(褓負商)과 일반 행인들이 다니던 길목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지금의 대티고개에 큰 길이 닦이고, 괴정사거리를 거쳐 엄궁이나 사상으로 가는 길과 다대포로 가는 길을 닦았지만, 좁고 거친 시골길 그대로였다. 거기에다 대티마을에 분뇨투기장이 생기고, 하단에 분뇨처리장이 생겨 매일 똥차가 오가자 마을 사람들이 사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945년 해방될 때에 대티(괴정2동)와 큰샘거리(괴정1동)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었고, 과수원이 띄엄띄엄 있었는데 대부분은 논밭이었다. 괴정동은 일제강점기에 사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며 중심지였으므로 경찰관 주재


괴정천. 사하구의 유일한 준용하천인 괴정천의 복개 전 하단 부근의 모습

소가 세워졌다. 해방 후에 미처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 사람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세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수용소가 괴정천변 신촌 남쪽에 있었다. 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본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하나 둘씩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평화선을 넘어와 우리 영해(領海)에서 물고기를 마구 잡던 일본 어부들을 잡아다 수용하는 시설로 바뀌었다.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갇혀 있던 어부들 중에는 도망을 가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었다.

괴정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은 1970년대다. 분뇨투기장이 사상구 엄궁동으로 옮겨가고, 대티터널이 뚫리고, 시가지 조성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복잡한 시내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티고개를 넘어서 몰려와 많은 집들이 세워졌다. 동아대학교 농과대학이 있던 곳에는 높은 아파트들이 세워져 아파트단지를 이루었다. 많은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거나 이전해 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 괴정사거리에는 옛날 시장(괴정 구시장)과 사설시장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사하의 상업 중심지도 되었다.

괴정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이었는데,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티동 일부를 병합하여 괴정동이라 하고,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따라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고,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사하에 편입되었다. 1959년 1월 동제 개편에 따라서 부산시 조례에 의해 괴정동이 괴정 제1동과 제2동으로 나뉘었고, 1966년 1월 부산시 조례에 의해 괴정1동을 괴정 제1동과 제3동으로 나누었다. 1979년 8월 부산시 조례로 괴정1동이 제1동과 제4동으로 나뉘어져 현재는 괴정1동에서 괴정4동까지 있다. 괴정동에

서 유래가 있는 마을로는 괴정리, 고분들 마을, 대티 마을, 신촌 마을, 목마장 마을, 양지 마을, 희망촌이 있다.

2) 당리동(堂里洞)

당리동은 동쪽으로 괴정동, 서쪽으로 하단동과 접하고 있다. 북쪽에는 승학산(乘鶴山)이 우뚝 솟아 있고, 동쪽은 산불량(山不良), 남쪽은 호복구(虎伏口 : 獨山)를 바라보며, 맑은 계류(溪流)를 따라 좁은 골에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고장이다.

당리동은 원래 마을의 한 가운데에 연중 맑은 물이 흐르는 제석골거렁[堂里川] 사이로 초가집이 옹기종기 서고, 밥 짓는 연기가 산골짜기를 따라 하늘로 흘러가는 시적(詩的)인 마을이었다. 지금은 괴정동에서 옮겨 온 사하구청이 들어선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사하의 중심지가 된 동네다.



승학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 당리천 상류의 옛 모습

승학산은 해발 450m인데, 마치 학이 웅비하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불량



승학산 일몰 풍경. 승학산의 억새는 부산 최대의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에 찾는 곳이다.



승학산의 억새 모습

은 태백산맥의 줄기가 이곳까지 뻗어와 아깝게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못쓸 산이라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풍수도참설(圖讖說)에서 유래되어 구전된 것으로 보인다. 당리(堂里)라는 동네 이름은 제석곡(帝釋谷)이라고 부르는 승학산과 산불량의 사이에 있는 계곡에 제석단(帝釋壇)을 쌓고 기우제를 드린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설에는 제석곡에 사당을 짓고 여신을 모신 데서 나온 것이라는 속설도 전한다. 현재 이곳에 제석사(帝釋寺)가 있으며,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절 부근에서는 고려시대의 목엽문와편(木葉文瓦

片)이 발견되었다. 제석(帝釋)이란 불교용어로 제석곡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곳에는 대개 기우제단이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아치섬을 제석곶(帝釋串)이라고 하며, 역시 기우소가 있었다.

당리동에서는 매년 3월 3일 당제(堂祭)를 지낸다. 거리에 떠돌아 다니는 잡귀를 막고 마을을 수호하는 거릿대가 있는 성역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큰 소나무와 포구나무 중 하나를 택하여 신목(神木)으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돌들을 쌓아 탑을 만드는 것이다. 신목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리동은 석탑을 만들어 당제를 지낸다. 이 석탑은 당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제석골에 있으며, 동신(洞神)을 제사 지내는 서낭당이 있다.



목장성지. 조선시대에 말을 기르는 목마장이 사하구에 있었음을 알려 주는 유적이다.

당리동 뒷산까지 괴정 목장리(牧場里)의 목마성(牧馬城)이 뻗어 있으며, 부근에는 괴정의 어느 곳보다 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택과 공장이 들어서자, 이 골짜기의 아름다운 암석들은 채석되어 토목공사에 사용되었으므로 볼품없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당리천에 흐르는 맑은 물을 막아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수청명(山水淸明)한 전설적인 고장의 맛을 잃었지만,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이므로 주택지로서 발전하고 있다. 당리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이었는데,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리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따라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고, 1957년 구제 실시에 따라 사하구에 편입되었다. 당리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당리마을을 들 수 있다.

3) 하단동(下端洞)

하단동은 당리, 신평, 사상구 엄궁동과 인접해 있다.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강 건너 강서구 명지동과 마주 보고 있다. 하단이라는 지명 유래는 낙동강 끝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래치·끝치라고 풀이된다. 『동래부지』 편찬 때에 사천면(沙川面)의 상단(上端)·하단(下端)이 있었는데, 하단에는 786호가 있었다. 이것은 동래 읍내의 1,165호 다음으로 큰 마을이었다. 그리고 『경남여지집성(慶南輿誌集成)』에 수록된 『동래읍지』에 보면 "구초량리(舊草梁里)는 관문(官門)에서 30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는데, 구초량이 하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단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4세기경의 철기시대 무렵이었다. 하단진(下端津)에서 신평과 장림 쪽으로 산모퉁이를 조금 돌면 하단동패총이 있다. 가야시대의 패총으로 모래구찌라고 불리는 산곡에 있다. 옛날에는 강물이 산골짜기까지 들어갔으므로 토층에 사역층(沙礫層)이 형성되어 있다. 산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3면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서 앞 면만 강을 향해 열려 있다.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패총 밑의 갈밭이 있는 늪지대에서도 김해 시기의 토기편이 출토된다.

하단 동편의 산 모양이 범과 비슷하다 하여 호복구(虎伏口)라 부른다. 그 산기슭 낙동강가에 신선암(神仙岩)이라 부르는 큰 암석이 하나 우뚝 솟아 있다. 이 바위에 신선이 와서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신선암은 바위 밑에 작은 굴을 형성하고 있는데, 선사시대의 주거지일 가능성이 있다. 1934년 낙동강 호안공사를 맡은 일본인이 신선 바위를 깨어서 돌을 이용하려고 석공 몇 명을 불렀는데, 한 석공이 돌을 깨뜨리려는 순간 즉사했다고 한다. 그 뒤부터 원인 불명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으며, 감히 이 바위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고 전한다.

에덴공원은 다대포 몰운대와 함께 부산의 팔선대(八仙臺) 중의 하나로 강선대(降仙臺)라고 불렀다. 강선대 동쪽 맞은 편은 승학산(乘鶴山)이다. 고려 말 무학(舞鶴) 대사가 전국을 두루 다니며 산세를 살피다 이곳에 이르렀다. 산을 보니, 마치 학이 웅비하는 듯하다고 하여 승학산이라고 불렀으며, 이 산에서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왔다고 하여 강선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단에서는 갈밭이 많아서 갈대나 갈꽃으로 일용 수공품을 만들었으며, 지붕과 울타리도 갈대를 사용하였고, 땔감으로도 이용하였다. 이처럼 갈대와 주민 생활은 밀접한 관계

에 있었다. 그러나 1973년 당리·하단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많은 농경지가 주택지로 바뀜에 따라 갈밭이 무성했던 옛날의 낭만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단포(下端浦)는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부산으로 들어오는 물자가 모였으며, 이곳에서 다시 낙동강을 이용하여 내륙지방으로 운반하던 상업의 요지였다. 당시 상인들은 인근 명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싣고 삼랑진, 왜관, 상주로 드나들며 벼와 교환했다. 하단포에는 벼를 사들여 도정(搗精)하는 객주업(客主業)이 발달하였으며, 소금 노적가리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1892년 7월 처음으로 기계 시설에 의한 부산정미소(釜山精米所)가 생기면서 하단포에 닿은 낙동강 유역과 김해평야의 벼가 이곳으로 운반되어 정미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하단은 미곡 거래 시장으로 번창하여 부산에서 대티(大峙)만 넘으면, 모두 하단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에 하단은 상품이나 농산물의 교역지로 흥청댔고, 구포(龜浦)와 함께 큰 시장이 섰던 곳이다. 당시 부산에서 부산장, 하단장, 동래장은 이름난 장이었다. 지금도 하단 제방 옆에 5일장인 하단장이 서는데, 인근 김해와 명지 등에서 장꾼들이 몰려든다.



하단선착장의 모습. 낙동강을 드나드는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다.

한편 『조선철도사(朝鮮鐵道史)』에 보면, 일본이 대륙 경영을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해야 했으므로 1898년 9월 대한제국과 경부철도합동조관(京釜鐵道合同條款)을 맺고 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190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인 1896년에 일본 영사가 기술진을 보내 철길을 놓기에 알맞은 곳을 찾기 위해서 한반도를 둘러보게 했었다. 네 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을 오르내린 그들은 삼랑진에서 낙동강 서쪽 강가를 건너 하단동과 괴정동

을 거쳐 지금의 대티터널쯤에서 터널을 뚫고, 대신동을 거쳐 동광동에 종착역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한다. 만일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오늘의 하단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당시 하단동의 주민들과 객주들은 "쇠말이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하여 이곳에 철도가 부설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여 철길이 북부산으로 깔렸다고 한다. 1897년 8월 부산이 낳은 선각자 박기종(朴琪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과 하단동 사이에 길이 6㎞인 철길을 놓기 위해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설립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얻어 일부 착공까지 했으나, 하단 주민들과 객주들의 맹렬한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경부선 철도가 사상(沙上)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하단의 번창은 철도 부설 뒤 쇠퇴하기 시작했다. 열차 편을 이용한 물자의 운송으로 정미업이나 그 밖의 교역물의 교역지는 자연히 하단에서 구포로 옮겨지게 되었다. 현재 화륜선(火輪船)과 각종 상선이 오가던 낙동강엔 동산유지(東山油脂) 옆에서 명지로 오가는 도선만이 옛 영화를 반추할 수 있을 뿐 적막에 젖어 있다.더욱이 구한말까지 큰 포구로 번성했던 하단은 낙동강의 홍수로 매년 하상이 높아져 좋은 포구가 될 수 없었다. 더군다나 1930년 부산부(釜山府)가 9만 석을 수용하는 분뇨탱크를 하단에 만들자, 대티고개의 투기장에서 버린 분뇨가 지하구를 통하여 이곳에 저장되었다. 여기에 저장된 분뇨는 낙동강으로 뻗어나간 분뇨관을 통해서 분뇨선에 실려 김해평야로 나가기도 하고, 낙동강에 버리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 없어지자, 하단은 빈촌이 되었다.

쇠락한 하단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어민들이 이주해 와서 낙동강의 수질이 해태(海苔 : 김) 양식에 최적지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야꼬란 일본인이 양식용 대[竹]를 일본에서 구입해 왔다. 이후 하단을 중심으로 신평, 다대, 장림 등지는 해방 전까지 해태 생산을 기업화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교역지로 번성했던 하단포에는 1909년 하단리 우편소(郵便所 : 하단우체국)가 생겼으며, 1908년 지금의 사하초등학교의 전신인 사립 양정학교가 설립되었다.

해방 후의 하단은 쓸쓸한 한촌(寒村)이었다. 명지로 건너가는 나루터로서의 명맥을 겨우 유지했고, 부산 시내로 들어오는 학생과 명지 등에서 반출되는 야채를 받아들이는 조그마한 선착장에 불과했다. 낙동강에 펼쳐진 갈대밭, 하단의 명물인 재첩과 고시라기 회를 찾아나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가끔씩 보이는 정도의 조용하면서도 낭만적인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하단오거리. 낙동강하구둑 방향을 확장할 때의 모습(위)과 확장 이후 밤의 모습(아래)

그러나 도시개발과 근대화의 물결은 하단에도 밀려 왔다. 1966년 5월 22일 7년 계획으로 길이 2,030m, 폭 18.74m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대교가 이곳에 착공되자, 하단은 다시 교통의 중심지가 될 뻔했다. 하지만 남해고속도로의 낙동교를 북구 구포동에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뒤로는, 기둥 받침대만 몇 개 세워놓은 채로 공사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비록 낙동대교의 꿈은 좌절됐으나, 하단 분뇨처리장의 폐쇄와 구획정리사업으로 빠르게 도시화되었다. 하단 주위에는 도로가 신설 포장되었고, 구포까지 강변도로가 사상공단 조성과 함께 신설되었고, 신평·장림 공단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하단은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하구언(河口堰) 공사가 진행되어 명지와 진해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하단동의 모습은 더욱 새롭게 바뀌었다.

옛날 하단동 하면 갈대, 고시라기, 재첩, 철새를 연상하는 곳이었다. 요즘 하단포구에는 옛 영화는 간 곳 없고, 오직 재첩을 파는 식당이 몇 곳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낙동강의 낙조와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 보호된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의 철새 떼의 비상하는 장관을 보호하고, 에덴공원도 잘 가꾸어 도시인의 휴식 공간과 함께 관광명소로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단동은 교육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1975년 5월 서구 서대신동에 있던 부산 여성교육의 명문인 부산여자고등학교가 하단에 새 교사를 짓고 이전하였다. 이후 건국중학교와 건국상업고등학교의 이전, 사하여자중학교의 신설, 부산고등교육의 요람인 동아대학교 제2하단캠퍼스의 건립 이전이 있었다.

하단동은 조선시대에 동래군 사하면 지역으로 하단(평림동)이라 하였다. 1896년(고종

33)에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하단동이라 하여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따라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다. 1957년 구제 실시에 따라서 서구 사하출장소에 속하였으며, 1975년 부산시 직할 출장소에 속하였다. 1983년 사하구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단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하단 마을, 시천 마을, 신내 마을을 들 수 있다.

4) 신평동(新平洞)

신평동은 망끼, 망후, 동메 등의 옛 이름이 있었으며, 신평동(新坪洞)이라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망후촌(望後村)의 유래는 조선시대의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조카가 이곳으로 피신해 와서 살았다는 구전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임경업 장군이 영의정이던 안동 김씨 김자점(金自點) 일파에 의해 역적으로 몰려서 9촌까지 몰살을 당하였을 때, 임 장군의 조카 절충장군(折衝將軍) 임중생(林重生)이 의주(義州)에서 신평으로 피난을 와서 살게 되었는데,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뒤를 돌아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망후촌이란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는 신평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망후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해석하는 향토연구가도 있다. 즉 다대진(多大鎭)의 후망소(侯望所)가 설치되었을 것이므로, 망후촌이란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원래 다대진은 신평동 마을 앞 장림동(長林洞)에 있었으며, 옛날에는 이 마을도 다대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어쨌든 후자의 견해는 요즈음에 어울리는 흥미 있는 이야기이다.

신평동 뒷산에 고석암(孤石岩)이라 부르는 바위가 있다. 임경업 장군의 호가 고송(孤松)이기 때문에 임경업 장군의 집안과 관계 있는 전설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신평동과 임경업 장군 집안은 여러 측면에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평동 뒤에는 북산, 즉 호복구(虎伏口)라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북쪽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낙동강의 만입으로 간척지가 전개되어 있다. 마을 앞에 독뫼[獨山]라고 불리는 외딴 동산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깎여서 원형을 잃었지만, 이 독뫼로 건너가는 입구에 예부터 조개모래라고 부르는 땅이 있다. 많은 비가 내려도 쉽게 마르는, 배수가 잘 되는 땅이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넓은 마당을 닦아놓고 타작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사용했다.



승학산 정상에서 바라본 신평 배고개

이곳이 바로 기원 1세기경의 가야 문화기의 패총이다. 패총 주변에는 조개껍질이 쌓여 패각층(貝殼層)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석회 공장에서 일대를 파헤쳐 패각 수십 트럭을 운반해 나갔고, 토목공사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신평동에는 이 패총을 남긴 사람들이 살았던 기원 1세기경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39년 신평동에서 장림동까지 직선으로 제방을 쌓아 강의 만입부가 농사지대로 변했지만, 그 전에는 이곳이 간사지(干瀉地)로서 많은 어패류가 잡힌 곳이었다. 이후부터 신평동에서 장림동까지 넓은 농토가 생겨서 어업보다는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신평에서 괴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배고개, 배오개, 이티라고 부르며, 이현(梨峴)으로 쓰고 있다. 이 고개에 배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지만, 실제 배(배나무) 하고는 상관없는 말이 아닌가 한다. 이보다는 동쪽에 있는 고개이므로 범(帆)고개의 범(帆)에서 배로 음이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이 고개는 선사시대의 신평동 패총인과 괴정동 패총인이 왕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단장, 부산장, 구평동의 독지장을 보러 다니는 장꾼들이 넘어 다녔던 유서 깊은 고개다. 또 배고개 골짜기를 삼밭골이라 부르며, 옛날부터 삼을 많이 갈았다고 전한다.

신평동 산기슭에서는 신라시대의 토기 조각과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곳에는 삼한시대부터 계속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다른 마을보다 전설도 많이 전해 오고 있다. 이 마을 아래쪽 낙동강변에 초복고라 부르는 곳에 나루터가 있었다. 김해 명지로 왕래하는 도선장(渡船場)이었다.



신평동 천막촌. 낙동강하구둑 공사로 발생한 이재민이 생활했던 곳이다.

1960년 5월에 550세대의 3,000명 정도가 신평동으로 옮겨 왔다. 1959년 9월 17일에 부산을 휩쓴 태풍 사라호로 28명이 죽고, 5,000명쯤이 다쳤고, 3,600채가 넘는 집이 완전히 부숴졌다. 특히 서구 남부민동, 영도구 남항동은 바람과 해일이 겹쳐 피해가 컸다. 그때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듬해 5월에 신평동으로 옮겨와 한 세대마다 7평 남짓한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조용하던 토착민의 마을에 변화가 왔다. 그리고 1968년 3월에 서구 충무동의 바닷가 둑을 고쳐 쌓을 때에 집을 뜯긴 사람들 1,630세대도 이사를 와서 15평 남짓의 집을 짓고 살았다.



신평동 모래구찌 마을의 한가로운 모습

이때부터 신평동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1967년 10월 신평국민학교가 세워졌으며, 길도 포장되어 큰 동네로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1년 5월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평·장림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공장이 이전해 왔으며, 사람들도

따라와 살게 되면서 신평동은 새로운 공업단지 주변의 마을로 번창하였다.

신평동은 원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이었는데, 198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서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평동이라 하여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따라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으며, 1957년 구제 실시에 따라 사하구에 편입되었다. 신평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신평 마을, 망후 마을, 동매 마을, 모래구찌 마을, 배고개 마을 등이 있다.

5) 장림동(長林洞)

장림동은 신평동과 마주보고 있으며, 안장림[內長林], 바깥장림[外長林], 보덕포(補德浦 : 보득포, 부득포, 버득포) 등의 3개 지역이 합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원래 외장림은 농업, 안장림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반농반어의 취락 형태를 이룬 마을이었다. 지금은 안장림과 외장림이 주택으로 이어져 있다. 원래는 안장림이 본래의 장림이었고, 외장림은 부산과 다대포 사이의 도로 개설 이후 도로변에 집들이 들어서서 생긴 마을이다. 보득포는 안장림에서 두송산(頭松山) 줄기가 북쪽에서 끝나는 능선을 넘어 낙동강 강가로 가면 응봉봉수대의 북쪽 기슭에 있다. 영세 농어민의 마을로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득포에서 강안(江岸)을 끼고 작은 능선을 넘어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면 장대한 암벽이 있고, 그 밑에 강을 향하여 입구가 있는 천연동굴이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채석작업으로 파괴되었으나, 선사시대 이래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굴은 석회암층이 강류의 침식으로 용해되어 생긴 공동(空洞)으로 넓은 암반이 내려앉아 형성된 곳이다. 50여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하고, 약 20° 정도의 경사진 암반이 바닥을 이루고 있다.

보득포와 안장림 사이의 강변 구릉 위에 개간된 밭이 있고, 이곳에서 기원 1세기경의 김해 문화기의 토기편이 나오는 패총이 있었다. 패총의 규모는 작았으며, 조사 없이 없어졌지만, 시기는 건너편의 신평동패총과 같은 때였다. 고목이 서 있는 안장림 일대는 대부분 사빈(沙濱)지대로 모래와 자갈이 쌓여 만들어진 땅이다. 땅 속에서 패각(貝殼)도 많이 나오며, 신라의 토기편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아미산에서 보득포에 이르는 강 안의 능선을 응봉(鷹峰)이라고 부르며, 봉수대가 있었다. 이곳은 독수리의 서식처로 알려져 있으며, 낙동강 하구의 철새들을 먹이로 하였다고 전해진다.

한편 다대진(多大鎭)이 원래 장림동에 있다가 다대포로 옮겼다는 것은『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동래부지(東萊府誌)』,『문헌비고(文獻備考)』등에 기록이 있다. 그러나 언제 지금의 다대포로 옮겼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진이 다대로 옮기기 이전에 장림리의 어느 곳에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리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장림동과 신평동 사이의 제방이 쌓인 곳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물의 깊이가 얕아서 군항(軍港)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다. 장림의 옛 이름 중에 고다대(古多大)라고 전하는 말이 있는데, 신평동을 망후촌(望後村)으로 최근까지 불렀던 것을 보면 장림포의 위치와 규모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응봉봉수대. 조선시대 전국의 5개 봉수 노선 가운데 제2로 직봉의 기점이다. 임진왜란 발발을 제일 먼저 알린 곳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 장림포에 염분(鹽盆)이 있었다고 한다.『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와『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를 보면, 장림포에서는 조선 초부터 이미 제염(製鹽)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바닷물을 졸여 소금을 만드는 가마가 있었으며, 염세는 조선 후기에 두지(斗地)마다 1양씩으로 정해져 해마다 4월까지 중앙의 균역청에 바쳤다.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 있었으며, 조선 수군이 장림포 앞 바다에서 왜선 6척을 발견하여 5척은 불살랐고, 1척은 불태운 뒤 낙오병의 목을 이몽구(李夢龜)가 베었다는 기록

이 보인다. 숙종 때에는 명지만(鳴旨灣)에 표류하여 장림포에 들어온 왜선 1척을 서평만호장(西平萬戶將) 이연정(李淵廷)이 사문(査問)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장림포는 조선시대 군사상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림동은 이후 한동안 낙동강 하구의 초라한 한촌(寒村)에 불과하였으며, 영세 농어민들이 한가로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개항 후 김[해태 : 海苔] 생산지로서 명성을 날렸다. 해방 전까지 이곳에는 일본 사람들이 건너 와서 김양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올렸는데, 이때부터 이곳 주민들의 생활수단이 되었다. 장림과 홍티(虹峙)에서 생산된 김을 '장림김'이라 하였는데, 알아주는 특산물로 각광을 받았다.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장림동에는 몇 채의 초가집이 있었다. 집집마다 마루, 마당, 지붕 위, 논밭 할 것 없이 새까맣게 김을 말리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가을이면 김을 팔러 나가거나, 받아 나가는 아주머니들이 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줄지어 걷는 모습은 어촌의 낭만적인 정경이었다. 특히 '장림김'은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맛이 독특하여 부산 지방 김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장림동에도 이주민이 많았다. 1971년 초에 부산시는 서구 남부민동과 중구 대청동을 잇는 산복도로를 뚫었다. 그때에 집을 뜯긴 주민 가운데 1,400세대가 장림동으로 옮겨 왔으며, 대티터널 공사 때 대티고개에 있던 불량 주택이 뜯겨 그곳에 살던 360세대도 이사왔다. 집의 크기는 10평 안팎이었고,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된 집들이었다. 또한 1971년 장림공단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도시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1983년 무렵에는 면적 4.26㎢의 광대한 면적에 6,341세대, 인구 3만여 명을 수용하는 큰 동으로 발전하였다. 연평균 8.2%의 인구증가로 당시의 인력과 장비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자, 부산직할시 조례로 장림동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아미산의 능선과 장림 진입로 및 장림삼거리의 장림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장림·신평공단 도로와 신평 경계지점을 동서로 분할했다. 서쪽을 장림 제1동, 동쪽은 장림 제2동으로 1983년 10월



장림고개. 장림동과 구평동의 경계 지점인데, 확장 공사를 한 후의 모습이다.



장림신평공단. 2003년 신평동 군부대에서 바라본 공단의 모습이다.

1일 분동하였다.

한편 장림동과 구평동에는 1953년 경상남도에서 옮겨 온 음성 나환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었다. 장림농장에는 20세대의 80여 명이 돼지, 닭, 개를 기르며 살았고, 구평동에는 68세대의 270여 명이 가축을 기르면서 밝은 미래를 그리며 살았었다.

문제는 1966년 3월 장림동에 장림초등학교가 설립되어 문을 열었을 때에 생겼다. 부랑아 수용기관의 아동과 음성 나환자의 아동이 문을 연 장림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과 대립이 있었다. 결국 당국에서는 일반 동민의 아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수용기관의 아동은 수용기관(영아숙) 안에서 공부를 시키기로 하고, 음성 나환자촌에는 따로 분교를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일단락되었다.

장림동이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 것은 1972년 장림·신평의 넓은 땅이 준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구획정리가 되고, 많은 공장들이 이전해 오고, 정책 이주민들도 좁은 땅이지만 새로 집을 짓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면서 새로운 주택과 공업지대로 탈바꿈되었다. 이후 길도 넓혀 포장을 하고, 장림에서 공업단지를 끼고 낙동강을 따라 하단까지 새로운 길도 뚫려 편리해진 장림동은 낙동강 강 안의 아름다운 시가로 변모해 가고 있다.

장림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 지역으로 장림포라 하였는데, 1896년(고종 33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내장동과 외장동을 병합하여 장림동이라 하여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

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는데,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사하구에 편입되었다. 장림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안장림 마을, 바깥장림 마을, 보덕포 마을 등이 있다.

6) 다대동(多大洞)

다대동은 낙동강 하구에 자리잡고 있어 옛날부터 국방의 요새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자비왕조(慈悲王條)의 기록을 보면, "5년 여름 5월 왜인이 활개성을 쳐서 사람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 갔다. 6년 봄 2월 왜인이 삽량성[梁山]에 침입했으나 패하여 달아났다. 17년 일모(一牟)·사호(沙戶)·광석(廣石)·답달(畓達)·구례(仇禮)·좌라(坐羅) 등에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기록된 답달은 다대(多大)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답달의 답(畓)은 인마잡답(人馬雜沓)으로 거듭[重]을 의미하고, 달(達)은 달[到] 또는 현(顯)이나 저(著)를 의미하는데, 오늘의 다대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다다라진[韜鞴津]·다다라(多多羅)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이란 일본 고서에서 다다라(多多良)를 보면, 다대라는 이름은 답달(畓達)·다다라(多多羅)·다다랑(多多良)에서 변하여 생긴 이름인데, 부산의 지명 중에서 유래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다대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5000~6000년 전부터라고 여겨진다. 몰운대(沒雲台) 북쪽에 있는 다대포패총(貝塚)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대포패총의 아랫 문화층에서 기하문계(幾何文系) 토기와 무문토기(無文土器)가 발견되고, 윗 문화층에서 회색(灰色) 경질토기계통(硬質土器系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두 문화는 성격이 달라 신석기시대 말기에 아래층 문화의 사람이 살다가 간 뒤에 윗층 문화의 주민이 와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유물로는 흑요석(黑曜石), 골각기(骨角器) 등이 있으며, 사슴뿔로 만든 칼자루도 발견되었다. 당시는 어로 중심의 경제생활이었다.

신석기시대에 이어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마제석기(磨製石器)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 시대에도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다대포 북쪽 응봉(鷹峰)산의 옛 봉수대에서 여러 점의 마제석부(磨製石斧)와 석검(石劍)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반도목재주식회사 공장을 건설할 때도 마제석검(磨製石劍) 한 점이 출토되었는데,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茂溪里)와 괴정동(傀亭洞)에서 나온 석검과 동일하였다.

다대포는 일본의 쓰시마[대마도]와 마주 보고 있는 곳이며, 3세기경부터 일본과의 교섭

이 있었던 지역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일본 문헌에는 나타나고 있다. 다라진(韜灑津)은 지금의 다대동 또는 다대포 지역으로 추정된다. 어떤 경우는 다라진에 강서구 대저(大渚)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다라진이 장림이라는 장림포설(長林浦說)도 있다. 그러나 왜국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한일 통교상의 요지였기에 일본 사서에 자주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대포 객사. 한말에 사립 실용학교로 사용될 때의 모습

고려 말기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고, 본격적인 약탈이 시작되면서 다대포는 왜구의 침략을 더욱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 다대포는 국방의 요새로서 경상좌도의 7진(鎭) 가운데 가장 중요시 되어 다른 진보다 2배의 병선을 배치하였다. 또 전국에서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와 중국과의 국경이었던 만포진첨사(滿浦鎭僉使)만은 무장(武將)으로 정3품 당상관을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수사(水使 : 수군절도사)와 동격이었다.

이러한 수군의 명장들이 근무한 다대포에는 선인들의 무공을 알려 주는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임진왜란 때 윤흥신(尹興信) 첨사를 비롯한 다대포 주민의 항전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부산진성(釜山鎭城)을 함락한 일본군은 서평포진(西平浦鎭 : 舊平洞)을 함락하고, 이어서 다대포진(多大浦鎭)으로 침공하여 왔다. 이에 윤흥신 다대첨사가 지휘하는 아군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그러나 전해지는 기록은 빈약하지만, 조선 후기의 임진전란도 등에서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대포는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이 대결하던 제일선이며, 격전지였다. 특히 녹도만호 정운(鄭運)은 부산포를 총공격할 때,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아끼던 선봉장으로 일본군과 다대포 앞 바다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정공(鄭公)이 전사한 곳이 몰운대 앞 바다이며, 몰운대에는 정공의 순절을 기리는 비석이 건립되어 있다.

다대성(多大城)은 석축 둘레 6,960m이고, 성내 면적은 26,162㎡인데, 남아 있는 옛 건물은 몰운대로 이전된 첨사영(僉使營)의 객사(客舍)뿐이다. 다대포첨사가 우리나라 수군을 통솔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던 곳에는 다대초등학교가 세워져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첨사영 건물로 몰운대에 이전된 객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객사 건물의 관리가 소홀하여 1904년 4월 구한말에 세워진 다대실용학교의 교실로 사용하다가 그 뒤에 다대초등학교로 개편된 뒤에도 60여 년간 교실로 사용되다가 몰운대로 이전, 복원된 것이다.



윤흥신 순절비. 임진왜란 때 다대진성을 지키다 순국한 다대첨사 윤흥신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윤공단(尹公壇)은 다대초등학교의 구석진 곳에 비석만 우뚝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1970년 현재의 주산(主山) 산정으로 옮겨 세우고, 1976년 비석단(碑石壇)을 개축하고 홍살문을 세워 정비하였다. 윤공단은 현재 부산시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 9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가 몰운대 정상에 일본을 향하여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1798년(정조 22)에 세워졌는데, 이조판서(吏曹判書) 민종현(閔鍾顯)이 찬술하고, 훈련대장(訓練大將) 서유대(徐有大)가 쓴 것이다. 이 비석은 정운의 8대손인 정혁(鄭爀)이 다대첨사가 되어 세운 것이다.

첨사영(僉使營)이던 다대포 성지가 현재 다대동 일대에 일부 남아 있다. 윤흥신이 최후를 마쳤던 다대포진의 성벽은 지금 밀집한 주택들의 담이 되었다. 동문은 다대포 삼거리 옆이며, 서문은 옛 당산(堂山) 밑이며, 남문은 기로당(耆老堂) 앞에 있었다. 북문은 다대초등학교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길로 변해 흔적도 없다. 동네 안에 남은 야문(夜門) 주춧돌

과 주택으로 변한 선소(船所)가 다대포의 옛일을 증언하고 있다.

다대포 동회(洞會)에 전승되어 오던 무관복(武官服)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 현재는 충렬사에 진열되어 있다. 옷을 언제 누가 입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을에서 농악꾼들이 입고 춤추던 것을 부산시사(釜山市史) 편찬위원회에서 입수하여 보관하였다. 갑옷과 투구, 『다대선생안(多大先生案)』이란 책자가 함께 발견되었다. 다대포첨사 명부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소실되어 찾을 수 없고, 지금의 명단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몰운대는 안개가 잦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몰운대는 신석기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살았으며, 패총을 남기고 있다. 몰운대는 낙동강 하구에 길게 뻗어서 안개나 구름이 끼면, 그 속에 가려서 없어진 듯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몰운대라는 낭만적이고 시화적인 이름으로 옛부터 불러온 경승지이다. 여기에 서서 푸르른 창파와 날아다니는 해주를 바라보는 정경도 좋으며, 특히 강구의 낙조를 바라보는 흥취는 천하의 절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문인과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몰운대는 신라 이전에는 동백(冬栢)이 우거진 작은 섬이었다. 16세기 초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39년 2월 을사조(乙巳條)에 몰운도(沒雲島)라고 적혀 있고, 1763년 조선통신사 조엄(趙曮)의 『해사일기(海槎日記)』에 나전소도(羅前小島)였다는 말이 나온다. 이 기록들은 몰운대가 옛날에 섬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불러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몰운대는 적어도 16세기까지는 하나의 섬이었는데, 16~18세기에 낙동강에서 흘러 내려온 토사의



몰운대 전경. 빼어난 경치로 알려진 몰운대는 역사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퇴적으로 다대포와 연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몰운대가 언제 육지와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동강의 유사(流砂)가 파도에 밀려 강구에 자연적인 사구(砂丘)를 형성하면서부터 섬이 육지와 이어진 것으로 본다.



몰운대 자갈마당

산림이 울창한 몰운대에 있는 다대포객사(客舍)와 정운 장군의 순의비(殉義碑), 그리고 다대동 입구의 윤공단(尹公壇)이 임진왜란 당시의 처절한 격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 선인들의 충혼이 어린 몰운대 입구 바닷가에는 생선 횟집이 몰려 있고, 낙동강 하구에 접한 백사장은 해수욕장으로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정비공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는 명승지가 될 것이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위 다대성 8경(八景)은 지금도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8경은 아미완월(峨嵋[山]翫月, 峨嵋半月), 몰운관해(沒雲[臺]觀海), 야망어창(夜望[臺]漁唱), 화손낙조(花孫[臺]落照), 두송만취(頭松[山]晩翠), 남림숙하(南林宿霞), 팔봉반조(八峰[山]返照, 八峰奇岩), 삼도귀범(三島歸帆, 三島 : 쥐섬, 고리섬, 솔섬)이다.

옛 첨사영 밑에 다대큰샘이 있다. 이 샘은 다대첨사 구정환(具鼎煥)이 수맥을 발견하여 조성하였다. 상수도가 설치된 이후에도 일부는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수량이 풍부하

여 종일 길어 내어도 한밤중에는 물이 철철 넘쳐서 물줄기가 끊어진 일이 없었으며, 샘에서 넘치는 물을 받아 아래쪽에 10평 남짓한 공동 세탁장을 만들어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빨래터였다. 옛날 상수도가 없었을 때는 700여 세대, 4,000여 인구가 이 샘 하나를 식수로 사용하였으며, 어업 용수까지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 가히 다대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다대포진은 세종 이후 만호영이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에 첨사영으로 승격되었다. 1652년(효종 3) 경상좌수영(慶尙左水營)이 지금의 수영(水營)에 다시 설치된 이후 7진 가운데 하나이던 다대포의 방비군(防備軍) 규모는 전선 2척, 수군 2,160명, 무학사부(武學射夫) 236명이었는데, 좌수영 상비군(常備軍) 편성함대에서 좌사파총(左司把摠)을 다대첨사가 맡았다.

좌사파총전선(左司把摠戰船)에는 사부(射夫) 18명, 교사(敎師) 5명, 포수(砲手) 24명, 능로군(能櫓軍) 120명이었다. 이처럼 오늘의 다대동은 군사상의 중요한 위치였다. 한편 다대영(多大營)에 배치되었던 예비병력은 전선(戰船) 2척, 사후선(伺侯船) 4척이었으며, 몰운산(沒雲山), 두송산(頭松山), 금티산(金峙山)에 3개의 병고(兵庫)가 있었다. 이러한 군제는 1894년 갑오경장으로 구군제(舊軍制)가 폐지될 때까지 240여 년간 계속되었다.

다대동 뒷산에 응봉봉수대가 있었다. 이곳에 봉수대가 생기기 전에는 석성(石城 : 天馬山頂) 봉수대에서 다대포 만호진(萬戶鎭)을 지키는 후망소(侯望所)로서의 임무를 맡았다. 응봉봉수대는 1425년(세종 7)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1530년(중종 25)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대포의 응봉봉수대가 첨가되고 있다. 이것이 다대포 응봉봉수대가 처음 기록된 자료이다. 또한 다대포 지역에는 염분이 있어서 소금을 생산하여 관아에 납품했는데,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誌)』에 기록된 다대포 군수염분일좌(軍須鹽盆一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정부 조직이 변하여 경무청 관제가 공포되자, 다대포진은 부산경무관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국 각 지방의 군사시설과 같이 군대가 해체 당한 뒤인 1895년 5월 다대진이 없어졌다. 박세혁(朴世赫) 첨사를 마지막으로 다대포는 어촌으로 전락해 버렸다.

다대포에는 1906년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어민들이 이주해 왔다. 지금의 대명(大明)목재 저목장이 있는 앞 바다에서 멸치가 많이 잡히자, 바다에 그물을 치고 육지에서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지예망 어업이 성행했다. 이곳에서 잡은 멸치를 마른 멸치로 만들어 남포동에 가지고 가서 객주에게 넘겼다.

임진왜란 때 격전장이었던 다대포 앞 바다는 일제강점기 말에 미군의 그라망함재기가 여객선 가모메마루를 격침시켜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을 예고했던 곳이다. 그리고 1953년 1월 부산에서 여수 사이를 운행하던 여객선 창경호(昌慶號)가 다대포 앞 가덕도에서 침몰하여 236명이 사망한 애환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다대항 전경. 영동 비치타워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한가로운 포구의 한때를 보여준다.

1939년 구한말의 정객으로 태극기를 처음 국기로 사용했던 박영효(朴泳孝)가 서울에서 죽자, 다대포의 가족 묘지에 매장했다. 당시 대규모의 장례 광경을 처음 보게 된 부산 사람들의 한동안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했다. 구한말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고, 개화독립당을 조직하여 김옥균(金玉均)과 같이 나라의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데 참여한 대표적 인물이 박영효이다. 그는 살아 있을 때에 풍수가를 동원하여 전국의 이름난 산을 찾아 자기가 묻힐 묘자리를 물색했는데, 명당이라는 다대포 본동을 묘지로 결정하였다. 그는 조선총독 제등(濟藤)을 움직여 광범한 국유림(國有林)을 불하 받아 묘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옹주(翁主)를 비롯한 백씨와 형수를 먼저 이곳에 묻었는데, 1939년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에 따라 여기에 묻히게 되었다.

박영효의 유해는 서울에서 특별차로 부산까지 운구되어 일본 사람인 경상남도 도지사의



홍티 마을의 김. 다대포 홍티 마을 어민들이 김을 말리고 있는 모습

지휘아래 부산역에서 다대포까지 길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화려한 장례를 치뤘다. 이같은 화려한 대규모 장례식을 부산 사람들은 처음 보았으며, 특히 다대포 노인들은 장례행렬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지금도 말한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한국 개화의 선구자 현현거사(玄玄居士)의 무덤 앞 석비(石碑)에 일본 황실에서 내린 작위가 새겨져 있었다. 해방 후 비문의 망신스러운 구절을 깨뜨려 버렸고, 비석도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졌다. 1958년 박영효의 장손 박찬범(朴贊範)은 가산을 완전 탕진하였고, 불하 받은 선조의 산소까지 팔아먹은 뒤에 남은 1,000여 평의 묘지도 팔아 버렸다. 그는 조부모의 유골을 파헤쳐서 이장하고, 명당으로 알려진 묘소를 사겠다고 나선 암남동의 요리집 주인에게 거금 500만 환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 묘지의 새 주인은 미리 자기의 묘비까지 세워 놓고 10여 년간 죽음을 기다리다가 이곳에 묻혔다. 초라한 어촌이 되어 버린 다대포는 해방 후 6·25전쟁 뒤까지 밀수배들의 밀수 근거지였으며, 일본으로의 밀항 근거지였기 때문에 당국에서 감시를 주력한 지역이었다. 1970년대에 다대동은 면모가 일신되었다. 몰운대가 공원으로 정비되었고,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개장하자 관광명소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반도목재(半島木材)를 비롯한 큰 공장들이 들어섰으며, 1981년부터 다대지구 택지조성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의 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대동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다. 다대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다대포라 하였는데,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홍티동을 병합하여 다대동이라 하고,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다.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서구 사하출장소, 1975년 부산시 시직할출장소, 1983년 사하구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대동은 어촌이어서 다른 동보다 신당 건물과 성역의 규모가 큰 다대포 성황당이 있다. 홍티 마을에서는 상조대신(上祖大神)과 당상조모(堂上祖母)의 위패를 모셔 놓고, 1월 초순에 당제를 지낸다. 다대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다대리, 낫개 마을, 홍티 마을을 들 수 있다.

7) 구평동(舊平洞)



구평동 봉화산. 좌측은 콘테이너 하역장이다.

구평동은 구서평(舊西平), 구시평, 구평이라 불렀다. 조선 초기부터 만호영(萬戶營)인 서평포(西平浦)가 설치되어 군사상의 요충지였으며, 독지장(禿旨場)이 섰던 교역의 중심지였다.

구평동은 동북으로 감내포(甘內浦 : 大浦灣)와 마주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금티산(金峙山)이 우뚝 솟아 괴정동·신평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두송반도(頭松半島)가 남쪽 바닷가로 돌출하여 다대동과 이웃하고 있는 해륙의 요충지이다. 구평동의 성개[城浦]는 구평동 동남쪽에 설치된 개로서 성이 있었으며, 최근까지 토성지(土城地)가 남아 있었다. 이 토성이 언제 쌓였고, 진성(鎭城)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토성의 축조 상태와 이곳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토기 조각으로 보아 아마도 신라 때부터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서평포진(西平浦鎭)은 조선시대의 세종 때까지만 해도 부산 첨사영(僉使營)에 속한 하나의 작은 보성(堡城)에 지나지 않았다. 이웃의 다대진(多大鎭)이 만호영에서 첨사영으로 승격되어 무관 정3품인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임명된 데 비하면, 무관 종9품의 권

관(權官)을 수장으로 한 작은 진보(鎭堡)였다.

서평포가 신설된 것은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에 이어 1519년(중종 19) 을묘왜변이 일어난 후 진관제가 개편되면서였다. 서평포는 이웃에 설치된 왜관과 가까웠으며, 왜선과 출입 인원의 점검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요지였다. 서평포 만호(萬戶)는 경상좌수영의 상비군 편성에서 좌사파총(左司把摠 : 다대진첨)사에 딸린 좌소관(左哨官)이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부산진성을 함락한 일본군의 일부가 서평포를 함락하였다. 서평포는 해륙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일본군과의 전투는 치열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서평포의 주민과 성의 군인들은 처절한 싸움으로 모두 전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임진왜란 때 부산포해전에 출병했던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서평포 앞 바다에서 일본 수군 대선 9척을 무찌른 전과가 『충무공전서』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이곳도 격전지의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 성이 피폐해져 진보(鎭堡)를 유지할 수 없자 다대진의 성 안으로 진을 옮겼는데, 1668년(현종 9) 다대포성이 좁아 다시 서평포로 진을 되돌렸다는 기록을 참고하면, 성을 못 쓰게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1677년(숙종 3) 서평포진은 왜관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수장의 관계(官階)가 낮아 체통이 서지 않는다고 하여 무관 종5품의 만호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으로 승격되었다. 만호 밑에 군관 8명, 진리(鎭吏) 6명, 지인(知印) 3명, 사령(使令) 2명을 두었다. 그리고 서평포의 병선으로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 있었으며, 수군 1,080명, 무학사부(武學射夫) 118명이 있었다. 이 밖에 서평포진에는 선재(船材) 조달을 위해 벌목을 금하는 한 곳의 봉산(封山)이 있었다.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에 17세기를 전후하여 독지장이 개시되었다고 한다. 장이 섰던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일과 6일에 개시되어 사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장림에서 생산된 소금, 그리고 수공업품 등이 물물교환이나 미포(米布) 또는 전화(錢貨)로 교역되었다. 독지장은 동래, 부산, 좌수영장과 함께 조선 중기에는 유명했지만, 당시의 독지리(禿旨里)의 범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동래읍지』에 사천면(沙川面) 하단(下端)이 신초량리(新草梁里), 구초량리(舊草梁里), 대티리(大峙里), 목장리(牧場里), 감천리(甘川里), 독지리(禿旨里), 장림리(長林里), 다대리(多大里) 등 9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는 서평포를 독지리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평동은 성개에서 해안선을 따라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두송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교통이 불편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조용한 어촌으로 있어 왔다. 마을까지 찻길이 닿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이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하면서 군사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구평동에는 극동철강이 들어서고, 여러 공장이 이전해 와 자리를 잡았다. 1977년에는 해안도로를 넓혀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살기가 편리해지자 구평동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구평동의 어항도 정비되었는데, 감천만이 부산의 제3 항구로 건설되자 발전이 촉진되었다.

구평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이었다. 198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평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따라서 다시 부산부(시)에 편입되었다. 1957년 구제 실시에 따라서 사하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 12월 사하구청 승격으로 사하구에 속하게 되었다.

구평동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당집이 있고, 산신도를 걸어둔 신당이 있다. 마을의 일년 동안의 안강을 축원하는 동시에 동구(洞口)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 마을에는 바닷가에 용굴이라고 불리는 굴이 있는데, 굴이 신평동 뒷산까지 이어져 있다는 전설이 있다. 이 굴을 용머리로 보고, 신평동 뒷산을 용의 꼬리로 보는 전설이 전한다. 구평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구서평 마을, 성화원 마을을 들 수 있다.

8) 감천동(甘川洞)

감천동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다. 감천은 부족사회(部族社會)의 권력자가 살았던 지역으로 추측되며, 지석묘(支石墓)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소도(蘇塗)와 같은 신역(神域 : 聖域)으로 추측된다.

감천(甘川)의 옛 이름은 감내(甘內)이다. 감(甘)은 ㄱㅁ,검에서 나온 것인데, 검은 신(神)이란 뜻이다. 천(川)은 내를 말한다. 이전에는 내(內)를 적어 감내천리(甘內來里)라고 하였으며, 감내 또는 감래(甘來)라고도 하였고, 다내리(多內里 : 다대 안쪽 마을)로도 불렀다. 감천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감천은 물이 좋아서 감천(甘泉) 또는 감천(甘川)이라고 했고, 많은 선박들이 옛날에 이곳에 들어와 급수를 받았다고 전하지만, 이것은 검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감천동 지석묘. 감천동에 청동기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려 주는 유적이다.

감천동은 천마산(天馬山), 아미산(峨嵋山), 금티산(金峙山)이 병풍처럼 우뚝 솟아 있고, 감천항을 두송반도(頭松半島)가 길게 뻗어 내려 감천만(甘川灣)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천연의 항구 마을이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지석묘 6기는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으며, 부족사회의 권력자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지석묘는 남방식(南方式) 지석묘가 2기, 변형된 지석묘가 3기, 표석식(標石式)으로 추측되는 것이 1기이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해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감천에 지석묘가 조성된 청동기시대가 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부터 3천년 전쯤부터 북쪽에서 들어 온 청동기문화는 신석기시대에 바다 가까운 곳에 살았던 주민들과는 달리, 산비탈에 살면서 땅 위에 집을 짓고 취락을 이루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이때 벼도 재배하였다.

청동기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농업의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부족국가가 곳곳에 생겼다. 감천동의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제1~3호는 부산화력발전소 사택촌 앞 도로를 따라 있었다. 제1호에서는 마제석검(磨製石劍) 1점이 출토되어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제2와 제3호는 도로공사를 하던 중기(重機)에 밀려 파괴되었고, 상석(上石)은 도로 밑에 묻혀 버렸는데, 출토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4호는 옛 도로 서쪽 밭 가운데 있었다. 옛날부터 마을에서 복(福)바위라고 불렀는데, 이 바위를 건드리면 복이 나간다는 전설 때문에 잘 보존되었다. 그러나 공장을 세우면서 발굴 조사했지만, 유물은 없었다. 제5호는 해변 서북쪽의 산기슭에 있었다. 산에서 흘러내린 흙에 묻혀 상석만 보였는데, 택지 조성으로 파괴되었다. 여기에서는 2단병식(二段柄式) 마제석검(磨製石劍) 1점이 채집되었는데,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제6호는 횟집 식당의 뜰에 있었는데, 현재는 지석묘의 상석만 남아 있다.

지석묘의 주변에서는 김해식토기편(金海式土器片)과 우각형(牛角形) 손잡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제1호 동남쪽 산기슭에서 석구(石臼)가 하나 출토되었고, 주변에서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그 밖에 마제(磨製) 유구석부(有溝石斧) 1점, 마석촉(磨石鏃) 1점, 석착(石鑿) 1점 등이 발견되었는데,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구석부는 농경문화와 연관된 석기로 한반도의 남쪽에서만 주로 나타난다. 이 유적 가까운 밭에서 가야초기의 옹관장 1기가 발견되었으며, 부산화력발전소 사택을 건축하기 위해 택지공사를 하던 중 가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석관묘(石棺墓) 10여 기가 파괴되기도 하였다.

삼성여자고등학교 동남쪽 일대에서 고려시대의 기와 조각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옆 남쪽에는 고려 청자편(靑磁片)이 많이 출토되는 요지(窯址)로 추측되는 곳이 있었다. 대부분 소문(素文)이지만, 시유(施釉)가 좋은 편이고, 색깔은 암촉색이다.

감천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자주 왜구의 침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포와 가깝고 다대포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왜구의 침입으로 몇 번이나 마을이 폐촌이 되다시피 했다. 감천은 조선시대에 천마산성(天馬山城)과 서평포진(西平浦鎭) 사이에 깊이 들어간 감천만에 위치한 요지였다. 바다에 출입하는 배와 사람들을 검문하는 수문(守門)과 공청(公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때는 괴정과 함께 목마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여 사용하였다. 그 건물은 해방 후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 : 국군의 전신)에서 사용하였는데, 6·25 전쟁 때에는 영국군 부대가 사용하였다.

감천만의 동쪽 해변에는 재래의 작은 어촌이 있어서 감천의 원래 마을을 이루고 있었고, 북쪽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쓰이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감천해수욕장은 규모가 작고 모래사장이 없지만, 큰 소나무들이 줄 서 있고, 깨끗한 자갈밭이 깔린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러나 1962년 이곳에 부산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해수욕장과 그 앞에 있는 용두섬이란 작은 섬이 없어지고 감천의 모습이 바뀌었다.

한편 감천2동은 태극을 받들며 도를 닦아 성인이 된다는 신흥 종교인 태극도를 믿는 사

람들이 약 사천여 명 모여 집단촌을 이루면서 1958년에 생기게 된 마을이다. 이 신자들이 이곳에 그들의 신앙촌을 만든 것은 부산으로 피난온 전국의 신자들이 교주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든 6·25전쟁 중의 일이다.

감천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는 하루에 33만kw의 전기를 일으켜 부산시 일대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보내주고 있다. 1964년에 한국전력에서 미국의 한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겨서 세운 이 발전소는 그을음을 엄청나게 내뿜어 사하와 서구의 인근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렸다. 이에 한전 측에서 1969년 7월 발전소 굴뚝에 그을음을 걸러내는 시설을 해 공해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부산화력발전소가 생긴 뒤에 감천의 바닷가에는 횟집을 비롯한 유흥업소가 들어서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으나,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감천항은 부산항의 보조항으로서 1979년부터 개발하고 있으며, 1991년까지 민자 83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75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150m, 안벽 및 물양장 5,573m 등을 축조하고 있다. 감천항 개발이 완공되면 감천동은 몰라보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천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 감내 또는 감천이라 하였다. 181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감천동이라 하여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다시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서구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 1월 21일 부산시 조례 제156호의 동제 개편에 따라서 감천동을 감천 1동과 제 2동으로 나누었다. 1983년 12월 사하구 승격과 함께 사하구에 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감천항의 현재 모습

3. 사회복지와 문화의 현황

1) 의료 시설

(1) 하나병원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에 있다. 하나병원은 한강 이남 유일한 화상전문병원이다. 2000년 6월 개원 이래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장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2005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화상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화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 베스티안병원과 부산 하나병원이 유일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기관들의 경쟁 속에서 전문병원으로 승부하는 하나병원의 차별화 전략과 한발 앞선 대응전략은 다른 의료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화상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맡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첨단화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화상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소아화상, 중화상 등 응급진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진료를 통해 높은 조기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 하나병원은 화상병동과 화상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 수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의료진의 해외 연수 및 학회 참석 등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부산은 물론 경상남북도에 이르기까지 화상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하나병원을 찾고 있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전국구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병원은 화상외과를 비롯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을 통해 지역민의 질병치료와 예방의학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수클리닉으로는 중화상클리닉을 비롯 내시경클리닉, 심장클리닉, 수부클리닉, 당뇨클리닉, 관절클리닉(관절경수술, 인공관절) 등이 있다. 또한 최신형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내원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2) 복지 시설

사하구의 복지 시설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한부모 시설, 부랑인 및 노숙자 시설, 아동시설, 정신보건 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시설은 사회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하였다. 사하구의 복지 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하구 복지 시설 현황

유형	시설종류	시 설 현 황			
		시설명	소 재 지	설치일자	운영법인명 (개인)
노인의료	노인의료 복지시설	평화노인요양원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065번지 1호	2008.05.27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평화노인 건강센터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065번지 1호	2008.05.27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인창해피빌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645번지 2호	2008.05.26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오늘
	노인의료 복지시설	인창실버웰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645번지 6호	2008.05.26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오늘
	노인의료 복지시설	환희소규모 요양시설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9번지 24호 4통 5반	2009.05.08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노인의료 복지시설	신평실버센터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432번지 3호	2008.09.22	사회복지법인 새샘복지재단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망복지센터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520번지 10호	2009.04.08	신현숙
	노인의료 복지시설	참편한노인 요양원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467번지 1호 우리빌딩 6층	2010.03.01	편한의료 소비자 협동조합
	노인의료 복지시설	에덴요양원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870번지 89호 영동빌딩	2010.03.01	김미순
	노인의료 복지시설	나눔천사 복지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번지 18호	2010.03.01	나눔천사복지센터
	노인의료 복지시설	늘푸른노인전문 요양센터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998번지 신화타워프라자 2층	2010.03.15	㈜에벌라이트
	노인의료 복지시설	남일실버홈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487번지 4호	2010.04.01	이승재
	재가노인 복지시설	다대노인 복지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13번지 12호	2002.08.19	사회복지법인 새샘복지재단
	재가노인 복지시설	사하중앙 노인복지센타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46번지 10호	2008.07.01	사회복지법인 밝은세상
	재가노인 복지시설	내원복지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번지 12호	2000.02.23	사회복지법인 내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두송주간 노인복지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96번지 1호	2009.09.27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가노인 복지시설	두송노인 복지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96번지 1호	2004.12.31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창노인 복지센타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645번지 6호	2007.03.30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오늘
	재가노인 복지시설	양경노인 복지센타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29-1	2006.10.11	사회복지법인 양경
	노인복지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284-1	2011.04.01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장애인시설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사하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3	2000.12.02	(사)사하구 장애인협회
	장애인지역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부설 주간보호센터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3	2003.04.23	(사)사하구 장애인협회

유형	시설종류	시설 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설치일자	운영법인명 (개인)
장애인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호산나제1그룹홈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512-1 에덴현대A 306	2002.09.25	사회복지법인 호산나복지재단
	장애인지역재활시설	호산나제2그룹홈	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521-1 동일연립 105	2008.10.31	사회복지법인 호산나복지재단
	장애인지역재활시설	푸른집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20-1 현대A 106-102	2002.09.25	임덕재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민들레집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53-4 삼광연립 B-103	2004.07.08	황미양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무지개홈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382-3 자유A 104-1003	2005.07.08	남진경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사랑의집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16 신세대지큐빌 101-903	2007.08.03	정순금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주보배홈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25 동원타워 102-202	2010.12.01	김상철
한부모시설	미혼모(자)시설	한나빌리지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	1953.10.25	사회복지법인 한나
부랑인 및 노숙인시설	부랑인시설	마리아구호소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86-3	2000.01.01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노숙인쉼터	다대중앙교회 노숙인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621-1	1998.07.01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대중앙교회
아동시설	아동양육시설	애아원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598	1970.12.29	사회복지법인 애아원
	공동생활가정	해바라기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47-5	2008.05.16	개인
	공동생활가정	하늘채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532 벽산마마아파트 1-206	2009.01.02	개인
	지역아동센터	장림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44-10	2005.08.23	개인
	지역아동센터	우리누리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6-776	2005.12.22	천주교부산교구 사회복지회
	지역아동센터	홀리트리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491-28	2005.12.30	개인
	지역아동센터	몰운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18	2006.04.17	개인
	지역아동센터	은항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241-1	2007.05.09	개인
	지역아동센터	다대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943-11	2007.05.09	개인
	지역아동센터	사하중앙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46-9	2007.05.11	사회복지법인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	엄마손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85-10	2007.05.28	개인
	지역아동센터	명성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1165-26	2007.10.31	개인
	지역아동센터	사랑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936-20 2층	2007.11.13	개인
	지역아동센터	동매사랑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84-9 한솔베스파트 1-203	2007.12.27	개인
	지역아동센터	하단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88-4 하단시티빌 101-103	2009.060.9	개인
	지역아동센터	신평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 592-12 2층	2009.12.31	개인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자매정신요양원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245	1982.03.23	사회복지법인 자매여숙

유형	시설종류	시 설 현 황			
		시설명	소 재 지	설치일자	운영법인명 (개인)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11	2001.07.01	사회복지법인 내원
	지역자활센터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82-4	2002.07.01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 12-278	1990.12.07	사회복지법인 온맘
	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12	1996.12.17	사회복지법인 내원
	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96-1	1995.08.24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종합사회복지관	다대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13-12	1992.08.11	사회복지법인 새샘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125-23	2004.05.19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기타	기타시설	사하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493-9	1999.12.30	(사)부산여성회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1990년 12월 7일 개관하였다. 1991년 4월 도서실을 개설하고, 1992년 2월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개설하였다. 1994년 6월 사하어린이집을 인가받았으며, 1995년 7월 노인 무료급식을 실시하였다. 1997년 5월 게이트볼장을 개설하였고, 1999년 11월 노인주산보호센터를 개설하였다. 2000년 4월부터 미성년 미혼모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지정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9년 11월 서부교육청과 희망의 사다리운동 협약식을 맺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사하장애인종합복지관

사하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발생 예방 및 지역장애인의 문제, 욕구조사와 연구 등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의 도모를 위해서 설립하였다. 2000년 12월 개관하였다. 2002년 2월 사하구청 자활근로사업 간병인 파견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03년 2월 사하구청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심부름센터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4월 사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였다. 2004년 1월 증축공사를 완공하였다. 2011년 1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소하였다.

3) 문화시설

(1) 사하도서관

1984년 7월 사하도서관을 설립하여 1984년 7월 27일 사하도서관을 준공하였다. 1984년 9월 25일 사하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89년 4월 1일 아동실을 개설하였으며, 1991년 4월 문학실을 개설하였고, 1998년 3월 취업정보 자료실을 개설하였다. 2002년 1월 별관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고, 2003년 1월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하였다. 시설은 본관 1층에 종합자료실, 취업정보자료실, 제2교양강좌실이 있다. 2층에는 열람실, 제1교양강좌실, 문학실, 디지털자료실이 있다. 장서현황은 자료수 107,259건이다.

(2) 다대포도서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4에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다. 자료현황은 도서 자료 34,908권, 비도서 자료 1,424(DVD)건이 있다.

(3) 동아대학교 도서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에 있다. 동아대학교 도서관은 1949년 12월 개관하였다. 1975년 11월 도서관을 증축 확장하였다. 1981년 9월 승학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제2도서관을 사하구 하단동 제2캠퍼스에 개관하였다. 1985년 8월 대학본부 이전에 따라 중앙도서관을 제2캠퍼스로 이전하였다. 2011년 2월 Book in 동아 홈페이지를 가동하였다. 자료현황은 단행본(책)이 국내외 총 1,185,491권, 비도서자료가 59,973권이 있다.

(4) 동주대학 도서관

1978년 4월 동주여자실업전문학교 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79년 동주여자전문대학 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5년 10월 현 도서관 건물 석파문화관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1998년 동주대학 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00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정보 검색실을 운영하고, 2003년 국가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100여 석의 국가고시 준비실을 운영하는 등 도서관 운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서관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도서관 전자정보시스템 도입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2004년 도서자료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후 대출 자료실 개가제를 실시하였다. 2007년 전자 자료실을 개실하여, 도서관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최신 사양 PC부스(LCD 모니터 19인치, 광랜, 헤드셋 구비), 위성방송 부스, DVD Room(홈시어터시설)부스를 완비하여 게임, 인터넷검색, 일본방송, 영어권방송, 독일방송, 중국방송, 최신영화 관람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2008년에는 오디오북 및 e-book, 도서관 내 무선인터넷 서비스, 각 자료실 마다 출력(print)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 대한 학습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5)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전경. 을숙도의 자연 경관 속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을숙도문화회관 야외의 조각공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25에 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연습실, 야외놀이마당, 조각공원 등이다. 1994년 4월 13일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1994년 12월 설계안을 공모하였다. 1995년 12월 22일 공사에 착공하여 2002년 9월 5일 을숙도문

화회관 대공연장 및 관리동을 준공하였다. 2002년 10월 5일 을숙도문화회관을 개관하였다. 2005년 12월 30일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을 준공하였다. 2006년 2월 16일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을 개관하였다. 회관이 위치한 을숙도문화회관 주변지역에는 갈대밭, 조각공원, 연못쉼터 등의 수려한 경관이 함께 있어서 을숙도 문화회관은 서부산 및 김해, 경남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6)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전경

감천동 702-1번지에 있다. 2004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 초에 개관을 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1층의 수영장과 유아용 수영장, 2층의 헬스장과 체력 측정관, 3층의 다목적 체육관과 에어로빅장, 예비실, 4층의 예비실과 체육관 관람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감천동 주민의 웰빙, 생활체육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체력 측정을 위한 운동 측정기를 도입하여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활동을 통한 과학화를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체육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사하구 향토지 최종_1장~8장 12. 2. 29. 오후 1:25 페이지 229

제4장

문화유산과 관광

1. 국가 지정 문화재
2. 시 지정 문화재
3. 유적지
4. 박물관
5. 금석문
6. 관광자원

제4장 문화유산과 관광

1. 국가 지정 문화재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종　　별 : 천연기념물 제179호
- 지정연월일 : 1966년 7월 13일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일원



철새도래지 기념비

낙동강 유역 일대는 옛날부터 유명한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 유역은 사하구 다대동에서 장림동, 하단동을 경유하여 북구 금곡동에 이르기까

지, 또 서쪽으로는 강서구 명지동과 천가동을 포함한 광활한 낙동강 하류 일대의 공유수면 일대까지 퍼져있다.

낙동강은 하구에 을숙도를 비롯하여 일웅도(日雄島), 백합등, 대마등(大馬嶝) 등 크고 작은 삼각주가 많다. 삼각주 주변은 수심이 얕고 강물과 바닷물의 교류가 왕성할 뿐 아니라, 양쪽 강변에는 갯벌이 잘 발달하여 있어 각종 플랑크톤과 패류, 소형어류 등 철새의 먹이가 풍부하며, 삼각주 곳곳의 갈대숲 등도 철새의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철새가 모여드는 곳이다.

낙동강 하류에 철새가 모여드는 또 다른 이유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바다를 건너 이동하는 철새들의 출입관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철새들의 월동 및 번식지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리과, 도요새과, 백로과, 황새과 등 140여 종 이상의 조류가 채집 또는 관찰되었다. 간혹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두루미, 저어새, 수리류와 매류 등이 소수나마 도래하여 월동하기도 하고, 알락꼬리마도요, 큰뒷부리도요, 민물도요, 좀도요, 제비물떼새, 넓적부리도요 등의 희귀한 새도 찾아와 학술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오리, 기러기 등 물이나 물가에서 사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수금류(水禽類)와 도요, 물떼새 등의 섭금류(涉禽類)를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성 맹금류(猛禽類)가 약간 있고, 또 갈대숲과 초원을 서식처로 하는 소형의 명금류(鳴禽類)도 상당히 있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일본-한국-러시아를 잇는 지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의 생물·지질 및 해양환경 등도 학술적·교육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시 지정 문화재

1) 다대포객사

- 종　　별 :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

- **지정년월일** : 1972년 6월 26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 144(몰운대 내)



다대포객사

객사란 조선시대 지방 관아(官衙) 건물의 하나로 수령(守令)이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망배(望拜)를 드리던 곳으로 근엄하게 지어져 사신(使臣)이 있을 때는 그 사신의 숙소가 된 곳이다.

조선시대에 부산에는 다대포첨사영 이외에도 부산진성 안에 공진관이란 이름의 객사와 지금의 수영인 옛 좌수영에 영파당(寧派堂)이란 이름의 객사가 있었고, 동래부에 봉래관(蓬萊館)이라 이름한 39칸(間)이나 되는 객사가 있었다. 그리고 초량왜관에 왜관으로 오가는 사람을 위해 대동관이란 객사에 조선왕조 건국 이래의 역대 국왕의 전패(殿牌)를 봉안하고 있었다. 그 때는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이 전패에 먼저 예를 올려야 했다. 위에 말한 객사들은 1910년 일본의 한국강점 이전 또는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부산에 모두 다 있었으나, 지금은 다대포진 객사만 남아 있다.

다대포진 객사가 남아 있다 해도 지붕과 기둥과 밑뿌리의 하방(下防)만 남아 있을 뿐 벽

체는 허물어진 뒤다. 그때 회원관이라 불린 이 객사도 본디의 다대포진이었던 지금의 다대초등학교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1970년 몰운대 현재의 자리에 원형그대로 이전 복원된 것이다.

그런데 다대포를 비롯한 남해안은 예부터 왜구의 노략질이 심했던 곳이다. 그 왜구를 막기 위해 수군의 절도사영을 두었는데 조선 초기의 다대포영은 부산포절제사영 휘하의 만호영(萬戶營)이었다. 그때는 장림포(長林浦)에 있었다. 그 뒤 다대포로 옮겨지고 명종이후 다대포 만호영은 부산포와 같은 진(鎭)으로 승격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포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른 진보다 2배의 병선을 가지게 되면서 다대포진의 첨사는 북경(北境)의 만포진첨사(滿浦鎭僉使)와 같이 정3품 당상관이 임명되었다.

이 다대포진 객사의 창건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1825년(순조25) 중수되었으며, 1970년 몰운대로 옮겨졌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벽체가 없이 기둥만 남아 마치 누각 건물처럼 보인다. 객사 건물에는 가운데 정당과 좌우에 익실(翼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남아있는 건물의 좌우에 익실(翼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화혜장(靴鞋匠)

- 종 별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 지정년월일 : 2010년 9월 20일
- 분 야 : 전통신발제작
- 소 재 지 : 부산 사하구 감천동 12-108번지


화혜장 보유자 안해표

우리 전통신발인 화혜(靴鞋)는 원래 화(靴)는 목이 있는 장화형태의 신발이고, 혜(鞋)는 목이 짧고 운두가 없는 신발을 일컫는 것이라 하여 별도의 장인으로 구분하였으나 현대에는 이 두 가지 기술을 통칭해 새롭게 붙여 화혜장(靴鞋匠)이라 한다.

화혜장 보유자 안해표는 조선 말기 조부 때부터 대대로 전통신인 화혜를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아온



당혜

전승계보가 뚜렷하다. 즉 조부는 1880년대에 사대부와 관리들의 신발인 흑혜를 제작하였으며, 부친 역시 가업을 이어받아 평생 전통 신을 만들었고, 안해표는 부친으로부터 12세 때인 1962년부터 전통신발 제작 기능을 전수받기 시작하여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업을 잇고 있는 등 전승계보 및 전통양식 계승 부분이 인정된다.

또한 조부와 부친이 사용하였던 1920년대의 전통 화자본, 신본, 밑창본, 사구단지, 작두망치, 신골, 송곳과 바늘, 창뚤이판, 자 등의 사용도구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고, 흑혜(黑鞋), 당혜(唐鞋), 어름혜, 목화(木靴), 태사혜(太史鞋), 아혜(兒鞋 : 여아용 돌잡이 신), 제혜(祭鞋) 등 대부분의 전통신을 제작하는 화혜 분야의 전승자임이 확인된다.

화혜장 보유자 안해표는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생을 오로지 화혜 제작을 생업으로 삼아 외길을 걸어온 투철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도 뛰어나다. 더구나 부인과 2명의 아들 등 전승자들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기능도 우수할 뿐 아니라 화혜 제작 기능의 전승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도 크게 평가할 만 하다.

화혜장은 전승계보가 뚜렷하고 화혜 제작의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우수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제작 방법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 신발 제작 기능의 전승·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전통 기능이다.

3) 다대포 후리소리

- 종 별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7월 2일
- 분 야 : 민속놀이(어로요)
- 소 재 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468-6(다대포후리소리보존회)



다대포 후리소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지만 지금까지 전승되는 민요의 대부분은 농요(農謠)로서 가사와 곡조가 완전한 어로요(漁撈謠)는 드문 실정이다.

다대포는 조선시대부터 국방의 요충지로 인식되어 수군의 다대포진이 설치되면서 수군의 조직을 모방하여 조직력과 규율 및 협동력을 토대로 어로활동이 성행하였다. 이때 노래를 곁들어 어로활동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잊고자 이를 놀이화하고 오랫동안 계승하여 온 것이 다대포 후리소리이다.

이 지역의 어로철은 음력 3월 초순부터 시작하여 4월 말까지 젓갈용인 봄멸치를 잡았고, 5~6월은 작은 멸치가 잡혔다. 추석을 전후하여 11월까지는 가을 멸치가 잡히는 철이었다.

다대포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함으로써 멸치의 먹이인 부유생물(浮游生物)이 많았고, 멸치 또한 어느 바다의 멸치보다 살쪄서 맛이 좋았다. 이 멸치는 떼를 지어 다녀서 큰 그물을 쓰는 집단어로가 유리했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도 마을의 온 사람이 달려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다대포에서는 어로철이 되면 경험이 많아 물때에 따른 고기떼를 잘 알아낼 줄 아는 전문가들이 해질 무렵 야망대(夜望臺)에 올라 멸치의 무리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멸치가 몰려드는 기미를 잡아 신호에 따라 몇 명이 작은 배를 타고 나가 멸치 떼를 몰며 징을 쳐서 동네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전체가 마을의 당산에 올라 당산제를 지내고,

바닷가에 모여 용왕제를 올린 후 비로소 멸치잡이에 나섰다.

이처럼 다대포 후리소리는 공동작업의 과정을 따라 형성되었는데, 후리소리란 후리그물이라는 큰 그물로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벼리의 두 끝을 끌어당기면서 부르는 소리(노래)다. 그 후리그물은 바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육지로 끌어올리는 지예망(地曳網)이었다.

이 후리소리는 풍어를 비는 당산제(堂山祭)부터 시작되어 풍어를 노래하는 끝소리까지 8과장으로 되어 있다. 이 후리소리는 1950년 후반에 바다의 치어(稚漁)까지 잡는다 하여 지예망어업을 금지하면서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때 사람들이 생존해 있어서 후리소리의 채록(採錄)은 비교적 쉬웠다. 이곳 노인들이 1981년부터 노인당에 모여 그날을 되살리며 가사와 가락을 채록한 것이다. 그렇게 채록 발굴한 것을 1986년 부산민속경연 대회에 출연하여 장려상, 1987년 부산대회에서 우수상, 전국민속경영대회에서 장려상에 입상함으로써 재연(再演)을 보게 되었다.

이 다대포 후리소리가 1987년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기까지는 나이 많은 다대포 거주의 남녀 70여 명과 동아대학교 강용권 교수의 학술적 고증에 힘입은 바 컸다. 현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이는 배동식, 엄공열, 백종근, 차태화 등 네 사람이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멸치잡이 후리질의 순서에 따라 부르는 어로 노동요를 작업의 동작을 곁들여 입체화하는 한편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 및 풍어를 자축하는 풍어소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개 3·4박자의 단조로운 가락으로 선창과 후창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그 순서는 후리그물을 어장(해변)으로 옮겨 배에 실으면서 부르는 그물을 배에 싣는 소리, 바다를 향하여 용왕고사를 지내며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 고깃배를 저어 바다로 가면서 또는 어장으로 돌아오며 부르는 노젓는 소리, 멸치 떼를 둘러싸고 그물을 치면 해변에서 수십 명의 남녀 어부들이 양쪽에서 벼릿줄을 당기면서 부르는 후리소리, 후리질을 하여 그물을 해변까지 끌어다놓고 걸린 멸치를 가운데로 모으기 위해 그물을 쪼으면서 부르는 그물 터는 소리, 멸치를 소쿠리에 가래로 퍼 담아 어장에 설치된 저장통에 운반하며 부르는 가래소리, 가래질을 마친 후 어장에서 어부와 마을사람들이 '쾌지나칭칭나아네'를 부르며 즐기는 풍어소리로 진행된다.

이 다대포 후리소리는 어로작업에 직접 종사했던 사람들에 의해 가사와 곡조와 동작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전승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다. 그 소리는 대부분 4박자로 돼 있어 이 지방 민요의 특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민속적인 면으로나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진 면으로도 옛것을 되살피는 가치가 있는 민속자료이다.

현재의 다대포 후리소리는 멸치잡이에 소요되는 어구와 작업의 방법을 재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대포나름의 특성을 간직한 채 보존·전승되고 있어 민속적·음악적 가치가 뛰어난 무형문화재라 할 것이다. 현재 (사)다대포후리소리보존회에서 전승·보급에 힘쓰고 있다.

4) 윤공단(尹公壇)

- 종　　별 :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9호
- 지정년월일 : 1972년 6월 26일
- 시　　대 : 1841년
- 소 재 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산 1234



윤공단

윤공단은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다대첨사 윤흥신(尹興信) 공과 민·관·군의 넋을 기리고 제향을 봉행하기 위하여 세운 단이다. 1841년(헌종 7) 동래부사 홍종응이 윤흥신 공이 순

절하신 곳이라고 전해지는 다대포객사(多大浦客舍)의 동쪽에 설치하였으나, 1970년 다대포객사를 몰운대로 옮길 때 지금 자리로 옮겼다.

1592년(선조 25)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일본의 대군이 14일 오전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후 다대진을 공격하자, 윤흥신은 동생 흥제(興悌)와 민·관·군을 이끌고 막강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성이 점령당한 후 성내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기에 성의 폐허와 함께 전투기록도 전부 폐허 속에 묻혀 잊혀진 역사가 됨으로써, 그 사적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래부사를 지낸 조엄(趙曮)이 1763년(영조 39) 조선통신사가 되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다대포성의 전투내용과 점령과정을 상세히 알아내고 1764년 귀국하여 조정에 다대포성 싸움을 처음으로 알렸으며, 임진왜란 당시 왕자를 의주로 피난시킨 이조참판 구사맹(具思孟)이 기록해둔 『조망록(弔亡錄)』과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이 그 증거가 되어 윤흥신 첨사가 순절한 후 171년 만에 다대포성 전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조엄은 다대포에 단을 만들어 윤흥신 첨사의 비석을 세우고자 노력하던 중 마침 그가 조선통신사로 갈 적에 종사관으로 같이 갔던 이해문(李海文)이 다대진 첨사로 가게 되자 그에게 비석을 세워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해문이 부임 후 수군통제사와의 마찰로 전직되고, 조엄마저 1777년 정조의 즉위 문제로 홍국영과의 세력다툼에서 밀려 김해로 귀양을 가면서 윤공단의 건립 문제는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조엄의 아들 조진관(趙鎭寬)은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윤공단 비석에 사용할 비문까지 지어놓았으나, 다대포 첨사들의 비협조로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이렇듯 지지부진하던 윤공단 건립 사업은 헌종 때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헌종 때 조진관의 아들 조인영(趙寅永)이 영의정에 오르자,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동래부사로 부임하는 홍종응에게 조진관이 작성해둔 비문을 주어 여기에 비석을 세우게 하였으니, 윤흥신 첨사의 순절 후 248년 만인 1841년(헌종 7)에 비석과 단을 세우게 되었다.

단의 중앙에 있는 비석은 높이가 약 180㎝, 넓이 60㎝ 정도이며, 전면에는 「첨사윤흥신순의비(僉使尹興信殉義碑)」라 쓰여져 있고, 뒷면에는 12행으로 윤흥신 공의 전적이 기재되어 있고, 중앙 단비의 양측에는 의사 윤흥제비(義士尹興悌碑)와 순란사민비(殉亂士民碑)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윤흥신 향사

5) 정운공 순의비(鄭運公殉義碑)

- 종　　별 :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20호
- 지정년월일 : 1972년 6월 26일
- 시　　대 : 1798년
- 소 재 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산 145(몰운대 내)

이 비의 주인공인 정운(鄭運)은 1543년(중종 38) 훈련원 참군(訓鍊院參軍) 응정(應禎)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하동(河東)이며 자는 창진(昌辰)으로 영암(靈巖)이 본 고향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거산도찰방(居山道察訪), 웅천현감(熊川縣監)을 거쳐 제주판관(濟州判官) 때 목사(牧使)와의 불화로 파직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는 전라좌도 녹도만호(鹿島萬戶)에 기용돼 있었다.

녹도만호로 있을 때인 1592년 9월 1일(음력)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해전에서 일본 병선 500여 척과 싸워서 100여 척을 격파할 때,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右部將)으로 앞장서서 분전하다가 적탄을 맞고 순절하였다.

1798년(정조 22)에 정운의 8대손 정혁(鄭爀)이 다대포 첨사로 부임하여 그 임지내의 명소인 몰운대를 택해 정운의 공덕을 추모하는 순의비를 세웠는데, 이조판서 민종현(閔鍾顯)이 비문을 짓고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가 글씨를 썼다. 비면에는 「충신 정운공 순의비(忠臣鄭運公殉義碑)」 8자가 적혀 있고, 비음(碑陰 ; 비신의 뒷면)에는 18행(行)으로 정운의 순절사적(殉節事蹟)을 소상하게 밝혔다. 비문에는 정운이 수군 선봉으로 몰운대 아래서 왜적을 만났을 때 몰운(沒雲)의 운(雲)자가 자기 이름자인 운(運)과 음이 같다하여 이곳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분전하다가 순절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충장공실기(忠壯公實記)』와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는 정운은 부산포 해전에서 순절하였다고 되어 있다.



정운공 순의비



정운 장군 향사

그동안 비석만 서 있었는데, 1974년 부산시가 비각(碑閣)을 세웠다. 이 비석은 높이 172㎝, 넓이 69㎝, 두께 22㎝ 규모이다.

6) 몰운대

- 종　　별 :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27호
- 지정년월일 : 1972년 6월 26일
- 소 재 지 : 부산 사하구 다대동 산 144 일원



몰운대

몰운대의 총 면적은 506천㎡로 태종대, 해운대와 함께 부산의 삼대(三臺)로 꼽힌다. 이 3대는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에 둘러싸인 가운데 '해천만리(海天萬里)'의 바다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승경의 곳이다. 한때 몰운대가 '몰운도(沒雲島)'란 섬이었다고 말하면 지금은 육지와 이어져 있으니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의 최남단으로 다대포 서남쪽 해발 78m의 몰운대는 아주 오래 전에는 몰운도란 섬이었다. 그것은 1763년 일본통신사 조엄(趙曮)이 『해사일기(海槎日記)』에 해운대와 몰운대의 경치를 비교한 뒤 "몰운대는 신라 이전에는 조그마한 섬으로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아름다워 아리따운 여자가 꽃 속에서 치장을 한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1544년 2월의 『중종실록』에서도 몰운도에 왜선의 후망처(지금의 감시소)로 봉수대를 설치할 것을 의논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지(西區誌)』에는 『중종실록』의 몰운

도(지금의 몰운대)란 기록은 예부터 불러오던 지명이기 때문에 그리 쓴 것이지 중종 때는 이미 육지와 이어져 있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편찬한『부산의 문화재』에서는 몰운대를 16세기까지는 섬으로 전해진다고 했다.『중종실록』을 따른 것 같다. 신라 이전과 16세기 이전은 적게 잡아도 6백년의 거리가 있다. 한데 신라 이전을 말한 조엄의『해사일기』도 함부로 그리 말했다고 보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엄이 1757년 동래부사를 지냈으며, 1758년에는 경상도관찰사가 되고 1763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으로 갔다가 대마도에 들러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싹 틔워 줄기를 뻗쳐서는 그 줄기를 심어 가꾸는 고구마 재배법과 저장법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귀국할 때 씨고구마를 가져와서 그의 연고지인 동래와 제주도에 그 재배법과 저장법을 퍼뜨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때(1764)의 동래부사는 강필리(姜必履)였는데, 자기보다 7년 전의 부사 조엄에게서 고구마 재배법을 익힌 강필리는『감저보(甘藷譜)』란 책까지 내어 고구마 재배를 지방민에게 지도 장려했다. 그러므로 동래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의 고구마재배지가 된다. 그러한 연고를 가진 조엄이 쓴『해사일기』를 보면 몰운대는 중종 이전까지 섬이었을지도 모른다.

몰운대의 이름은 낙동강 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이면 그 안개와 구름에 잠겨서 섬이 보이지 않는다고 구름 속에 빠진 섬이란 시화적(詩畵的)인 이름이 되었다.

이곳에는 신석기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다고 여겨지는 패총을 남기고 있다. 임진왜란 때 부산포 해전에서 중군장(中軍將)의 직책을 맡았다가 부산포에서 전사한 정운(鄭運)의 사적을 적은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가 이 몰운대에 있다. 다대포첨사영(多大浦僉使營)의 객사도 다대포(지금의 다대포초등학교 자리)에서 옮겨져 복원이 돼 있다.

낙동강 하구가 바다와 어우러지고 태백산맥의 마지막 끝자리가 되는 이 몰운대는 경관이 아주 뛰어나 시인 묵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노래한 동래부사 이춘원(李春元)의 시가『동래부지(東萊府誌)』에 전하는데, 이 시를 돌에 음각한 몰운대 시비(詩碑)를 1999년 6월 12일 사하지역발전협의회에서 건립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몰운대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으며,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浩蕩風濤千萬里　　호탕한 바람과 파도 천리요 만리로 이어졌는데
白雲天半沒孤臺　　하늘가 몰운대는 흰구름에 묻혔네
扶桑曉日車輪赤　　새벽바다 돋는 해는 붉은 수레바퀴
常見仙人賀鶴來　　언제나 학을 타고 신선이 온다.



몰운대 시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운도를 몰운대라 하지만, 몰운도에는 몰운대와 화손대(花孫臺)의 두 대(臺)가 있다. 화손대는 몰운도의 남쪽 끝 바다로 면한 동쪽 끝의 대를 말하고, 몰운대는 남쪽 끝 바다를 면한 한가운데의 대를 말한다. 또한 부산에서 섬이 많은 곳도 이 몰운대가 있는 다대포 주위다. 아득한 바다 저 멀리로 떨어져 부산의 연안을 지키는 남형제도와 북형제도, 그리고 목도, 금문도, 동섬, 동호섬, 팔봉섬, 솔섬, 오리섬, 쥐섬, 모자섬, 자섬 등 모두 몰운대(다대동 산 144번지)와 함께 다대동에 지번 지적이 올려져 있는 섬이다.

몰운대의 남단은 파도의 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각종 해식동(海蝕洞)이 발달되어 있고, 배후인 육지 쪽에는 수려한 모래 해안이 있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몰운대는 예로부터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 그리고 출렁거리는 파도와 수려한 모래밭 등으로 인해 진재 김윤겸의 영남기행화첩에도 등장하는 등 빼어난 경승지로 이름이 나 있을 뿐 아니라, 갖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무인도가 몰운대 주위에 산재해 있어 몰운대의 풍경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대표적인 수종은 해송이지만 그 사이에는 상록활엽수, 낙엽활엽수 등 약 90여 종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삼광조, 솔개, 굴뚝새, 갈매기, 바다쇠오리 등 많은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계절 따라 날아오는 철새들이 차지하고 있다.

7) 다대첨사영 갑주

- 종　　별 : 부산광역시 지정 민속자료 제2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5월 8일
- 시　　대 : 조선 후기
- 소 재 지 : 부산 동래구 안락동 838(충렬사기념관)



다대첨사영 갑주

이 갑옷과 투구는 윤공단에 보관하던 것으로 윤공단 제향 봉행 시 제복(祭服)으로 사용했던 것이라 한다. 1970년 다대포객사를 몰운대로 옮길 때 건물 내에서 발견되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해 오다가 1978년 충렬사 기념관으로 옮겨 보존하고 있다.

갑옷은 붉은색 모전(毛氈) 바탕에 두정(頭釘)을 장식한 갑옷으로 소매 배래와 옆선이 모두 트인 활개식의 갑옷이다.

길이 122cm, 품 53cm, 화장 65cm로 옷이 넓고 크다. 목둘레는 꽃잎 모양의 두정을 앞뒤 각 10개씩 장식하여 아름다움을 더했으며, 앞 뒤 몸판에는 지름 1cm의 두정을 가로 2cm, 세로 5.5cm 간격으로 박았고, 지름 2.4cm의 큰 두정을 그 사이 사이에 배치하였다.

안에는 4.5cm×6.5cm 가량의 장방형 철판을 비늘 모양으로 나란히 두었는데, 겉의 두정과 연결되어 있다. 철판의 가장 자리는 0.5cm 정도의 가죽을 두르고 옻칠을 하였다.

앞쪽에 첨(챙)이 부착되어 있는 투구는 쇠가죽을 두 겹으로 하여 틀에 넣어 정형한 다음 그 위에 검정 옻칠을 하고 겉은 여러 가지 놋쇠로 무늬를 넣어 장식하였으며, 안은 흰색 가죽 조각을 이어 붙였다. 표면에는 넓이 1㎝ 가량의 놋쇠 띠를 테두리에 두르고 앞이마 부분에는 낮게 봉황문으로 장식했다. 투구의 곡면 보강을 위해 폭 1cm 정도의 놋쇠 띠를 전후좌우에 세워 정수리에서 합치고 용봉문(龍鳳紋)을 새긴 반구형의 놋쇠 장구(裝具)로 마무리하였는데, 정수리 장식은 소실되고 없다.

각띠에는 만(卍)자 무늬와 ◇형 무늬가 투각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띠를 따라 작은 구름들을 장식하였고 후면 좌우의 넓은 공간에는 쌍봉문(雙鳳紋)을 크게 장식하였다.

이와 같은 두정 갑옷은 조선시대 후기에 발달한 방호복으로 현재 몇 벌의 유물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갑옷과 투구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우다가 순국한 윤흥신 공을 위한 제향에 착용한 제복(祭服)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갑옷 내부에 철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전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선열의 호국충절 정신이 담긴 유물일 뿐 아니라 조선 후기 갑옷과 투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우리나라 무관복(武官服)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문화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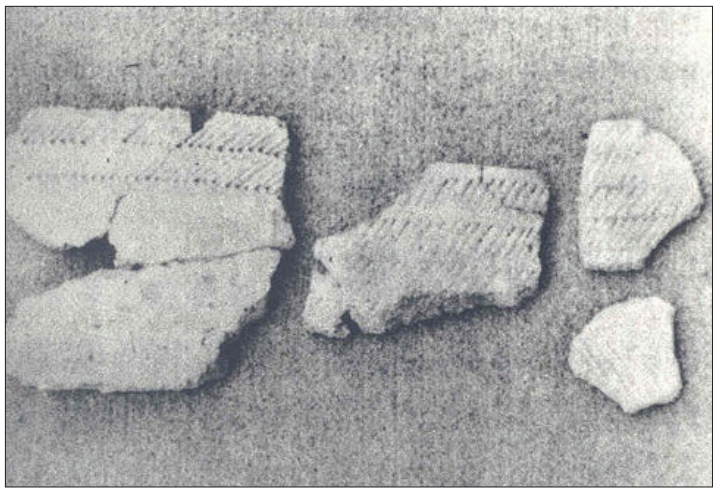
3. 유적지

1) 다대포 패총

- 시　　대 : 신석기~철기시대
- 소 재 지 : 몰운대 입구 주변

낙동강 하구(河口)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되는 동안(東岸)에 위치하여 다대포 해수욕장과 연결되어 있는 몰운대 입구에 있었던 패총이다. 이 패총은 1934년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유적의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1925년 태풍과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대부분 파괴 소멸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위치만 짐작할 뿐이다. 1966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일부 남아 있던 유물들을 발굴 조사한 바 있으며, 일제시대 때 채집된 유물들은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다대포 패총은 모두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유물이 출토되는 층은 제2층과 제3층이다. 제2층에서는 철기시대 유물이 제3층에서는 신석기시대 유물이 각각 출토되고 있어, 영선동 패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대가 다른 2개의 패총이 한 곳에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대포 패총 출토 토기편

유물은 토기류가 가장 많고 가락바퀴, 흑요석제 석기, 돌망치 등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때 말안장모양의 갈돌도 여러 점 채집되었다고 한다. 토기류는 빗살무늬토기가 주류이고 그 외에 붉은간토기, 융기문토기, 적갈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등이 약간 나왔다. 빗살무늬토기는 동삼동 패총의 제3, 제4층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하며, 그 외에 덧무늬토기도 상당수 있다.

그릇의 모양은 밑이 둥글거나 뾰족하고 아가리가 V자나 U자 모양이며, 무늬는 아가리에서 몸통까지만 새겨졌다. 대부분이 아가리 무늬와 몸통무늬가 구분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무늬는 동삼동 패총과 마찬가지로 짧은 사선무늬와 고기뼈 무늬가 복합된 것이 주종이

다. 이 무늬는 선이 굵은 전형적인 남해안의 침선계 무늬이다.

한편 제3층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다양하여 학계에서는 이 유적지를 신석기시대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 신석기 중기와 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 신석기시대 말기의 것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시기를 달리하는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신석기 전 시기에 걸쳐 인간이 거주하던 살기 좋은 지역이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다대동 봉화산 유적

- 시　　대 : 신석기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현재, 두송반도)

이 유적은 1976년 산 정상부에 위치한 조선시대 봉수대 복원 공사시에 우연히 석기류가 발견됨으로써 알려진 유적으로 유적의 구체적인 성격은 불투명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 채집된 마제석기류와 주변에서 토기편들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신석기시대 분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 유물은 편평양인석부 2점, 편인석부 4점, 선착 1점, 숫돌 2점 등이 있다.

이 유적은 공사 중에 우연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적의 정확한 성격은 불투명하지만, 차후 이 일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발굴조사가 요망된다.

3) 하단동 패총

- 시　　대 : 철기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모래구찌 일대

하단과 신평의 중간지점인 바로 강가에 위치한 하단동 패총은 김해문화기의 것으로 현재 거의 유실, 파괴되어 버렸다. 패총이 자리 잡은 곳은 속칭 '모래구찌'라고 불리는 U자형의 아늑한 산곡으로 산이 평화스런 경사를 이루며, 3면을 병풍처럼 두르고 앞면만 강을

향해 열려 있다. 이 패총은 철기시대의 유적지로 추정되는 상당히 큰 패총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남겨진 패총의 규모는 길이 18m, 폭 6m, 깊이 약 30m 정도였다. 패총 주위에는 조개껍질이 쌓여 패각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석회공장에서 이 일대를 파헤쳐 수십 트럭을 운반해 가버리고, 신평공단 조성 때 토목공사로 인하여 삭평된 탓에 유적 자체는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하단동 패총에서 출토된 몇 개의 적갈색 연질토기편들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패총 밑의 갈밭이 있는 늪지대에서도 김해 문화기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한편 출토되는 조개껍질 속에 담수패가 없는 것을 보면 철기시대만 하더라도 이 일대는 바닷가였음을 알 수 있다.

4) 괴정동 패총

- 시　　대 : 철기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244-1 일대



괴정동 패총

괴정동에 남아 있는 큰 괴목 두 그루 중 산록에 있는 고목을 중심한 주변 일대가 괴정동

패총이 위치하였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주택이 들어서서 없어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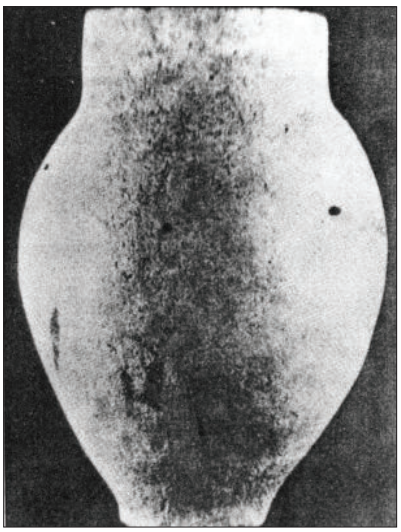
이 패총은 1929년 11월 24일 일본인 좌산우좌길(佐山右佐吉)이 발견하여 대곡미태랑(大曲美太郎)과 함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에 채집된 유물인 토기편들은 일본인의 손에서 해방 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입수하여 현재까지 보관되어 오고 있다.

그 뒤 기록이 분명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잘 모르다가 1978년 길을 크게 넓히는 공사를 하다가 패총이 있는 곳을 찾아 부산대학교 박물관 팀이 처음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밀집된 주택사이에 남아 있는 공지를 조사하였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다만 도로확장공사 중 민무늬 토기를 비롯한 몇 점의 유물만 발견되었다.

출토 유물은 김해식 토기편과 회청색 토기편, 적갈색 토제방추차 2개, 완형접시 1점, 마제석부, 무문토기편 등이 있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이 괴정동 패총 사람들은 일찍부터 낙동강을 건너 김해의 금관가야와 긴밀한 교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권으로 보면 부산보다는 김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괴정동 무문토기 유적

- 시　　대 : 청동기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감천동 일대



괴정동 무문토기

괴정동 무문토기 유적은 지금 장평중학교 교문 옆의 큰 길가와 대티로 올라가는 옛길입구인 현 M마트 뒤편과 현재 괴정초교 남쪽 길 건너 괴정천(현재는 복개) 일대가 청동기시대인 무문토기의 유적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가 청동기시대이지만 실제 청동기유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 시대에 함께 사용된 무문토기류와 단도마연토기,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등의 마제석기들이 발견되어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무문토기는 지금 감천동으로 넘어가는 괴정과 감천

삼거리 경계지점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같이 나온 유물은 없었다. 이 유물들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는 국립 경주박물관에 진열하고 있다.

그리고 대티고개 밑에서 나온 석관묘로 보이는 유적에서는 무문토기에 붉은 칠을 하고, 광택을 낸 단도마연토기 1점과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3점, 미완성 석촉 2점이 출토되어 무문토기와 함께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무문토기에 붉은 칠을 한 완형토기가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예는 별로 없었으며, 이 토기는 이른바 일본의 야요이식 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선사시대 일본과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6) 괴정동 고분군

- 시　　대 : 신라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026-32번지 일대



괴정동 고분 출토 토기

구덕산의 남쪽에 있는 완경사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여 오성고등공민학교를 지을 때 발견된 고분으로 지금은 화신아파트가 들어서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일대는 옛날부터 알려진 대규모 고분지대였다. 일제강점기에 이 일대에서 관련 유물들이 채집되기도 하였고, 1966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때 채집된 유물들은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후 이 고분은 1975년 경성대학교 박물관에서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하여 20×40m 범위의 발굴지역 내에서 3~4m 간격으로 39기의 무덤을 발견했다.

무덤은 돌덧널무덤[석관묘] 29기와 독무덤[옹관묘] 10기의 두 종류였다. 돌덧널무덤은 깬 돌과 판석으로 네 벽을 쌓고 뚜껑을 덮었다. 돌을 쌓은 상태는 조잡하고 돌덧널은 길이에 비해 폭이 아주 좁았다. 뚜껑은 돌로 된 것과 나무로 된 것이 있었다. 무덤 바닥에는 자갈을 깐 1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생토바닥이었다. 피장자 배치는 동서

향으로 머리는 동쪽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독무덤은 전부 깬 돌을 쌓아 만든 돌덧널 속에 설치하여 돌뚜껑을 덮은 것으로 보아 어린애의 무덤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가 드문 묘제(墓制)였다.

출토 유물은 토기가 270점, 철기가 300점, 장신구가 30여 점이었다. 토기는 대부분 신라계 토기였으며 이 지역의 재래요소는 극히 적었다.

철기는 고리손잡이 큰칼, 재갈, 낫, 창, 살촉들이었으며 장신구는 금제 또는 금동제 귀걸이와 곡옥(曲玉) 유리구슬들이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곽 안 또는 곽 밖으로 묻혀져 있다.

이 고분은 출토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고분 형성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연대는 오륜대고분이나 복천동고분이 가진 일부의 시기 가운데도 늦은 쪽인 기원후 5세기 후반대로 보인다. 특이한 구조를 가진 돌덧널무덤과 곽외부장(槨外副葬)은 이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7) 감천동 지석묘

- 시　　대 : 청동기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62번지 일대



감천동 지석묘

이 유적지의 일대에는 모두 6기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발전소 건설 및 도로공사 등으로 소멸되었다. 고인돌이라고 불리는 지석묘는 일종의 거석기념물(巨石記念物)로서 청동기시대 부족장을 비롯한 지배층의 매장지로 세계 여러 곳에 남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그 축조형식에 따라 탁자형인 북방식 지석묘와 바둑판 모양인 남방식 지석묘, 그리고 지석이 없는 변형적 지석묘로 구분된다. 남방식 지석묘는 기반식이라고도 하는데, 석관을 매장하고 그 위에 5~6개의 괴상석 또는 작은 판석으로써 부정형의 괴석, 혹은 판석으로 된 개석을 괴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괴어 놓은 측석으로 묘실을 만든 것도 있다. 남방식 지석묘의 특징은 묘실이 지하에 묻

혀 있는 점이다. 1966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바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 채집된 유물들은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감천동에는 변형적 지석묘와 남방식 지석묘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동기시대인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유적 주변에서 돌절구, 돌도끼, 돌대패날, 돌끌, 땅을 파는데 사용하는 흠이 팬 돌도끼 등의 마제석기와 무문토기편과 함께 나오는 쇠뿔모양의 우각형 손잡이가 출토되었는데 이런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농경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티고개 밑에서 나온 석관묘로 보이는 유적에서는 무문토기에 붉은 칠을 한 광택을 낸 단도마연토기 1점과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3점, 미완성 석촉 2점이 출토되어 무문토기와 함께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8) 응봉 봉수대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정상



응봉 봉수대

응봉 봉수대는 다대포진성이 있는 다대포동 북쪽의 해발 233.7m 아미산 정상 응봉에 있는 봉수대이다. 이곳에서는 낙동강 하구 일대와 몰운대 앞바다를 한눈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가덕도 연대산 봉수대와 녹산동 성화례산 봉수대, 구봉 봉수대가 관망된다. 쾌청한 날이면 거제도 연안 쪽과 대마도까지 관망되는 요처이다. 1976년 복원공사를 하여 석축의 흔적을 따라 동서 직경 20m, 남북 직경 20m의 석축이, 중앙에는 직경 1.5m, 깊이 40cm의 화덕이 복원되어 있다. 연대로 오르는 서쪽 입구 쪽 아래에 높이 2~3m의 높이 차를 보이는 단이 져 있고, 그 안쪽으로 약간의 평지가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서 기와가 수습되고 있어 봉군과 관련된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은 최근에도 경작이 이루어진 듯한데, 여러 개의 단이 져 있고 약간의 평지를 이루고 있어 당시에 봉군의 경작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쪽으로 100여m 떨어진 곳에 해발 234m의 산정은 낙동강 하구와 가덕동 쪽을 관망하기 좋은 위치로서 봉수대와 관련하여 망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황령산, 계명산, 간비오산, 오해야항 등 4개의 봉수대만 보이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응봉 봉수대의 기록이 보이고 있어, 1481년(성종 12)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1530년(중종 25) 사이에 다대포 두송산정에 신설되어 직봉(直烽) 제2로의 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烽燧臺)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던 통신시설로 봉수는 변경지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정황을 중앙 또는 인근의 군사기지에 알리는 군사상의 목적으로 설치 사용된 것이다. 대략 2~30리의 거리를 두고 후망(侯望)의 요지가 되는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두어 밤에는 횃불을 밝히고, 낮에는 연기를 내어 인근의 봉수대에 연락했다.

평시에는 일거(一炬), 적이 나타나면 2거(二煙), 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거(三煙), 경계를 침범하면 4거(四煙), 적과 접전(接戰)하면 5거(五煙)로 차례로 서울까지 연락하였다.

영남은 다대포가 출발점이 되어 동래 황령산(荒嶺山)을 거쳐 영천, 안동, 충주를 경유 광주(廣州)를 통하여 최종점인 서울 남산까지 이 신호는 전해졌다. 봉수대는 국가의 중대한 업무의 하나이므로 수령(守令)이 봉수군(烽燧軍) 후망(侯望)의 실태를 감독하고 이와 연대책임을 졌다.

다대포 응봉 봉수대에는 도별장(都別將) 1인과 그 밑에 별장(別將) 6명을 두었고, 감고(監考)는 1명, 봉군(烽軍)은 10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봉수대를 관할하는 기관은 다대진(多大鎭)이었다.

다대포 응봉 봉수대를 비롯 황령산(荒嶺山), 계명산(鷄鳴山), 간비오산(干飛烏山), 구봉

(龜烽), 오해야(吾海也), 석성(石城) 등 7개의 봉수대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침입 시에 그 기능을 발휘했는데, 이 유지(遺址)는 국방의식의 앙양이란 점에서 중요시되는 문화유산이다.

9) 다대포 성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857-2번지 일대



다대포 성지. 다대1동 857-2번지 일대에는 다대진 성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대포성은 조선시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에 예속되었던 다대포 진영의 성을 말한다.

고려 말부터 등장하는 왜구의 침입과 약탈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연해안에는 수많은 진들이 설치되는데, 다대진의 경우는 조선시대 경상좌도 7진(鎭)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 다대진은 다른 진보다 두 배에 가까운 병선을 배치한 것으로 볼 때 국방상 매우 중요한 요새였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동래부지(東萊府志)』 등에 의하면 다대진은 원래 장림포에 있다가 다대포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옮겨진 시점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성종 대에 다대포진성이 축성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1484년(성종 15)에 전국 각 포영(浦營)에 성을 쌓게 하였는데, 다대포진도 1490년(성종 21) 11월에 성을 축조하였다. 이 성은 둘레 1,806척, 높이 13척의 석성으로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어 동문을 패인루(沛仁樓), 서문을 영상루(迎爽樓), 남문을 장관루(壯觀樓), 북문을 숙위루(肅威樓)라 했다. 성종 때 축성한 성은 임진왜란 때 파괴되고 그 후에 다시 축성하였는데, 1895년 다대진이 폐진된 이후 성곽은 상당부분 허물어지고 현재는 그 흔적이 일부만 남아 있다.

다대포성의 위치는 지금의 부산유아교육진흥원(옛 다대초등학교)를 중심한 지역으로 성내에는 동헌(東軒)인 수호각, 군기소(軍器所)인 청상루, 금산소, 목소, 공방소, 도훈도소 등의 관아건물과 대동고, 유포고, 진창 등의 창고가 있었다. 또 객사인 회원관이 있었는데, 그 객사는 지금 몰운대에 옮겨져 있다.

10) 제석곡 성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제석곡 일대

사하구의 당리동 북동쪽에 있는 승학산 아래 제석곡(帝釋谷) 가까이에 아치섬이 있는데, 이곳을 제석곶이라고 부른다. 제석이란 지명과 이름은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곳에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기우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원래 제석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범왕(梵王)과 더불어 불법을 지키는 신인 제석천(帝釋天)을 말하는데, 민간신앙에서는 무당들이 받드는 신이기도 하였다. 실제 이곳에는 마을의 신주를 모신 제석곡 신당이 있었다. 제석단을 쌓고 기우제를 올렸다. 속설에는 이곳에 사당을 짓고 여신을 모셨다고 한다.

현재 행정명인 당리(堂里)라는 이름은 신당이 있었던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온 것이다. 현재 제석신당은 마을의 신인 동신(洞神)으로 모셔지고 해마다 3월 3일에 당제(堂祭)가 지내지고 있다.

한편 아치섬 즉 제석곶의 주변 일대에는 석성이 있었다. 이 석성이 언제 쌓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래부지』 성곽조에 제석곶 성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 성곽은 삼포왜란 뒤 동래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1) 서평포진 성지(西平浦鎭城址)

- 시　　대 : 조선시대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성포 일대

현재 개간으로 인하여 흔적만 남아 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서남 49리로 기록되어 있다. 소형의 석축성으로 둘레 1,689척, 높이 13척인데 1592년에 축성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구평동인 구 서평동에 토성지가 1966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신라 토기가 출토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서평포진은 세종 때까지만 하여도 부산진첨사영에 속한 작은 보성(堡城)으로 종9품의 권관(權官)을 수장(守將)으로 한 초라한 방어시설이었다. 다대포진과 더불어 동서 양익의 수군진영으로 설정된 것은 삼포왜란(1510) 뒤의 1522년(중종 17) 진관제(鎭管制)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서였다. 서평포는 이웃에 설치된 왜관(倭館)과 가깝고 왜선과 인원의 출입점검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요지였다.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의 일부가 서평포를 함락시켰다. 서평포는 해륙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란 후 성(城)이 잔폐하여 진보(鎭堡)를 유지할 수 없어서 다대진으로 옮겼다가 다대포진이 좁아서 1668년(현종 9) 서평포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보면, 이곳이 임진왜란 당시 대단한 격전지였음을 알 수 있다. 1966년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 성벽은 이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목장성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이 유적지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시설물이 아니라 목장의 말이 울타리 밖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성으로 목장성(牧場城), 목마성(牧馬城), 또는 국마성(國馬城)으로 불리웠다. 원래 괴정동 일대를 목장리(牧場里)라 부른 것이나 괴정동의 희망

촌 일대를 말골(馬谷)으로 부른 것은 이 지역에 목마장이 있었던 지난날의 흔적이다.

『동래부지』에 이 목장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목장성은 세 곳이 있다. 그 하나는 엄광산 산기슭 강변에서 석성산 산기슭까지의 길이 10리의 성이다. 또 하나는 황령산 산기슭에서 남천강변까지의 길이 15리 정도의 성이다. 지금은 모두 허물어 졌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오래전의 지난날은 부산의 산에 많은 목마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목마장이 있었던 지역을 짐작할 수 있다.

석축으로 된 목마성은 지금의 대티고개에서 시작하여 당리 뒷산까지 약 3㎞의 길이로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1980년대 중반까지 남아 있었던 곳이 지금의 괴정동 뒷산의 희망촌 동쪽 산골에 있는 것이었다. 두께 8척에 높이 8~12척의 단단한 성으로 성의 윗부분의 높이만 맞추어 쌓았음으로 지형에 따라 높이가 일정치 않았다고 한다.

이 성지에서도 역시 신라 토기편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 전부터 쌓여진 성을 후에 목장성으로 수축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목장성은 말들을 가둬 놓는 용도로 사용했고, 후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했을 것이다.



목장성지

4. 박물관

1) 낙동강하구둑 물 문화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0-2번지



낙동강하구둑 물 문화관

부산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하구둑에 위치한 '물 문화관'은 물에 대한 이해와 낙동강에 살고 있는 생물과 서식환경, 하구둑의 역할과 기능을 알려주는 장소다.

물 문화관에서는 모형으로 제작된 낙동강 '1천 300리 물길'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3차원 영상으로 펼쳐지는 '디지털 수조'를 통해 낙동강에 살고 있는 어종과 생태환경을 흥미롭게 관찰할 수도 있다.

과거 낙동강 하구에 있었던 포구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액자와 축소 모형도 발길을 사로잡는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2)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2번지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생태복원지인 을숙도철새공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고 생태에 대한 전시와 교육, 체험학습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낙동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약 1,233평, 지상 3층의 건물로 2007년 6월 개관하였다. 2층 전시실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역사와 생성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며,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고 있는 실제 철새들을 전시해 놓았다.

또한 벽의 한 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이용해 낙동강 하구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3층에는 3층에는 영상실이 있어 낙동강 하구에 대한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서는 단순히 전시뿐만 아니라 직접 탐조용 갈대 움집을 만들어 보는 갈대 체험, 하구 답사, 식물 관찰 체험과 같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5. 금석문

1) 첨사(僉使) 윤흥신(尹興信) 순절비(殉節碑)

앞면 : 僉使尹公興信殉節碑

비음 : 昔在龍蛇之變 東萊首嬰其鋒 環東萊鎭守之臣十數 其殉節寂著者 地主宋象賢 釜山鄭撥 多大浦則 尹公興信 是爲東萊殉節臣 府人立忠烈祠 祀宋鄭两公 公則旋于家 始倭陷釜山 分兵圍多大 公力却之 軍吏進曰 賊必悉至 莫如避 公叱曰 有死而已 明日賊大集 軍遂潰 公獨終日射賊 城陷死之 其後八谷具公思孟 為吊从錄紀其事 甚備云 公贊成公任之子 兄弟六人 其三人者與

於乙巳之禍 其赴鎭也 有庶弟興悌從焉 及賊逼公 白刃亂下 興悌抱公同死 握固終不釋 遂同棺而窆 何其奇且烈也 後百有餘年 我先大夫守萊府 繼泛東槎 知公事甚熟 愍其闕於宋鄭之祠 白于朝从之事竟施 李侯海文槎上客也 及莅此鎭 先大夫記公蹟與之 旣揭壁 又將竪碑 會海文去官 其後守鎭者皆俗吏 不足語此事 不佞嘗訪李侯之石 而鎭人無知者 懼斯役之不成 作此文 竢夫慕義如李侯者云

輔國崇祿大夫判敦寧府事



윤흥신 순절비

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趙鎭寬撰

鍾應出守萇山 今相國雲石趙公 贈之以言曰 萊府有忠烈祠 舊享宋鄭两臣 其竝腏尹公 自吾先大父始 先君子實紀其事 惜貞珉之刻 尙此闕焉 子其為我圖之 及莅是地 感念遺蹟 亟伐石以竪 噫 修墜典補軼事 盖雲石所以克齊先志闡忠表節 亦守臣責 遂樂與之成

崇禎紀元後四辛丑四月 日知府洪鍾應書

앞면 : 첨사(僉使) 윤공 흥신(尹公興信) 순절비(殉節碑)

비음 : 옛날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있었을 때에 동래(東萊)가 가장 먼저 그 칼날을 받았으므로 동래를 둘러싼 진(鎭)의 수신(守臣) 십여 명이 순절(殉節)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동래부사(東萊府使)였던 송상현(宋象賢)과 부산(釜山)의 정발(鄭撥)이었고, 다대포(多大浦)에는 윤흥신(尹興信) 공이 있었는데 모두가 동래를 위해 순절(殉節)한 신하들이었다.

동래부(東萊府)의 사람들이 충렬사(忠烈祠)를 세워 송상현과 정발 두 분을 배향(配享)하였으나 공은 그 집안에만 정려(旌閭)하였다. 처음에 왜적(倭賊)이 부산을 함락하고서 군대를 나누어 다대포를 포위하였다. 그때 공이 힘써 왜적을 물리쳤는데, 군리(軍吏 ; 군대에 딸린 문관)가 나와서 아뢰기를, "왜적이 반드시 다시 쳐들어 올 것이니 피하는 것보다 나은 계책(計策)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왜적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자 군병(軍兵)을 소집하였으나 마침내 대열(隊列)을 무너뜨리고 흩어져버렸다. 공은 홀로 종일토록 왜적을 향해 화살을 쏘았지만 성(城)이 함락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뒤에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 공이 '조망록(弔亡錄)'을 지어서 그때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때의 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공은 찬성(贊成)을 지낸 윤임(尹任)의 아들이다. 형제가 여섯인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을사년(인종 1, 1545)에 화(禍)를 당했다. 공이 다대포진(多大浦鎭)에 부임할 때에 서제(庶弟)인 윤흥제(尹興悌)가 함께 따라갔는데, 왜적이 공을 위협하여 시퍼런 칼날을 마구 휘두르자 윤흥제가 공을 끌어안고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끌어안은 것이 어찌나 견고하던지 끝내 풀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함께 관(棺)에 넣어서 하관(下棺)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기이하고 장렬(壯烈)한가.

백여 년이 지난 뒤에 나의 선대부(先大夫;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동래부사가 되고, 계속해서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가게 되면서 공의 일을 매우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런

데] 공이 송상현과 정발의 사당에서 빠져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조정(朝廷)에 보고함으로써 오래 지난 일이 마침내 시행되게 되었다. 이해문(李海文)은 통신사의 상객(上客)이었는데, 이 다대포진의 첨사(僉使)로 부임하게 되자 선대부께서 공의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그에게 주었다. [이해문이] 그것을 벽에 게시하고 또 비석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해문이 벼슬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뒤에 다대포진을 지키는 자들은 속된 관리였으므로 이 일을 말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재주 없는 내가 일찍이 이후(李侯)가 세우고자 했던 비석을 찾아내었지만, 무지한 다대진의 사람들이 이 역사(役事)를 이루지 못할까 두렵기에 이 비문(碑文)을 지어서 이후와 같은 충의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다릴 따름이다.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판돈녕부사 겸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사(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 조진관(趙鎭寬)은 비문을 짓다.

종응(鍾應)이 장산(萇山)의 수령(守令)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지금의 상국(相國)인 운석(雲石) 조인영(趙寅永) 공이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동래부에는 충렬사가 있다. 옛날에는 송상현과 정발 두 신하만을 배향하다가 윤공(尹公)을 아울러 배향하게 된 것은 나의 선대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선군자(先君子)께서 그 일을 사실대로 기록해 두셨는데 돌에 새기는 일이 아직도 이처럼 빠져있음이 애석하다. 그대는 그 일을 나를 위해 도모해 달라." 라고 하였다. [내가] 이 땅에 부임하게 되어 남은 자취를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속히 돌을 깎아서 비석을 세웠다.

아! 쇠퇴해진 의식(儀式)을 고치고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보충한 것은 대개 운석공이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충절(忠節)을 드러내어 표창(表彰)하는 것 또한 수신(守臣)의 책무(責務)인 것이니, 마침내 기쁘게 그와 함께 이 일을 완성하였다.

숭정 기원후 네 번째 신축년(헌종 7, 1841) 4월 일에 동래부사 홍종응(洪鍾應)은 쓰다.

2) 순란사민비(殉亂士民碑)


순란사민비

이 비는 현재 윤흥신 순정비의 왼편에 세워져 있다.

앞면 : 殉亂士民碑

비음 : 崇禎紀元後四甲午 八月 日 七□

앞면 : 전란에 순국하신 선비와 백성들의 비

비음 : 숭정 기원후 네 번째 갑오년(1834) 8월 일 칠□


의사 윤흥제 비

3) 의사(義士) 윤흥제(尹興悌) 비(碑)

이 비는 윤흥신 순정비의 오른쪽에 세워져 있다.

윤흥제는 윤흥신의 서제(庶弟)로써, 임진왜란 때 윤흥신과 함께 순정하였다.

앞면 : 義士尹興悌碑



충신 정운 순의비

4) 충신 정운(鄭運) 순의비(殉義碑)

앞면 : 忠臣鄭公運殉義碑

비음 : 東萊之沒雲臺者 故鹿島萬戶贈兵曹判書鄭公運殉義之地也 公始任鹿島 倭賊傾國來寇 先陷嶺南路 上聞警急 西幸龍灣以避之 時李忠武公舜臣 爲湖南左道水使

會屬鎭及將佐 與計事 衆各異見 公獨奮然請于李公曰 今賊陷嶺南 而坐視不救 是行自及也 賊未至吾境 而急引兵擊之 士氣可壯 亦所以固吾守也 況今君父蒙塵 此正主辱臣死之秋 我當以一死爲諸將先 李公壯其言 而從其策 卽日下令諸軍 乘船向嶺南 遇倭船於玉浦 我師初見賊 莫敢先試其鋒 公促櫓鳴鼓 出諸將前 擊劍勵士 士無不殊死戰 遂破其五十餘艘而焚之 進至泗川 破賊船 前後近百艘 戰必先登爲之倡 又出遇賊於固城巨濟之間 氛甚盛 公請於李公 誘賊至閑山大洋 麾旗回櫓 以與賊薄 枹鼓震海 矢石彌空 賊氣奪 不敢戰 遂奮擊大破之 盡燒其船 蓋自寇亂以後 剋捷之盛 未之有也 報聞行朝 上超授折衝將軍 將大用之 公則不有其功 益勵志滅賊 進趍釜山 未至遇賊于沒雲臺下 公忽心動 覺沒雲之雲 方音與公名相似 因自畫必死處置軍事曰 我死勿令賊知而生氣 會日暮風急 將領欲退 公不肯曰 吾已與賊誓不俱生矣 遂進力戰 中流丸以歿 此爲公立功殉身之大略也 嗚呼 公之在平時 不自表見 官最卑 及其臨亂奮發 辭壯而烈 義嚴而正 決計倡勇 至死不悔 用能摧賊鋒而捍國難 以基中興之偉績 雖其身先殞 而功莫與爲倫 昔唐之張巡許遠 以一睢陽而藩蔽江淮 卒以身死之 議者 以天下之不亡 爲二人之力 後之視李公及公者 必不在張與許之下 若公之微而能首事 尤可謂奇偉特絕非常之士矣 今上二十年 下敎褒公忠勇凡數百言 昭揭若日星 仍訪公之八世孫嫺 超授多大鎭僉使 鎭在萊府地 臺爲其所管 旣至 懼無以發揮舊蹟以揚朝家顯忠之殊典 於是 將竪碑臺上 特書當時事 俾觀瞻咸聳 馳書至京師 徵余爲文 噫 公烈丈夫也 意其英靈毅魄 不隨死以亡 蟠結於海山之間 驅駕風霆 斬截鯨鯢 常若有蹴馬島搗江戶之氣 臺卽海上之一小阜爾 然於息兵二百年之後 過是地而想其人之偉烈 則惟此一片石 爲南極之銅柱 使蠻夷自 讐海陲永鞏 豈但爲殉義之地而已哉 遂書以記之岩

崇禎紀元後三戊午三月八日也

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閔種顯 撰

訓鍊大將嘉義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練院都正 徐有大 書

앞면 : 충신 정공운 순의비

비음 : 동래의 몰운대는 고(故) 녹도만호로서 병조판서를 증직 받은 정운 공께서 순절한 곳이다. 공이 처음 녹도에 부임하였을 때 왜적이 나라의 힘을 모두 쏟아 침략해 와서 먼저 영남지방을 함락시켰다. 임금께서 급보를 듣고 놀래 서쪽으로 의주 지방으로 피신하셨다. 그때 충무공 이순신이 호남좌도의 수사(水使)로 있었는데, 소속 진영의 장수 및 보좌관들을 모아 일을 의논하였다. 대중들의 의견이 각기 달랐는데, 공이 홀로 분연히 이공에게 청하기를 "지금 적들이 영남을 함락했는데도 앉아서 보고 구하지 않으면 이는 적의 행군을

스스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적이 아직 우리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나 급히 군사를 인솔하여 공격하면 군사들의 사기는 등등해질 것이고, 또한 우리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일도 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임금께서 피난하셨으니 이는 바로 군주가 욕될 될 적에 신하가 목숨을 바칠 때입니다. 저는 마땅히 한 몸을 바침으로써 여러 장수들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이 공이 그 말을 장하게 여기고 그 계책을 따라서 그날로 모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배를 타고 영남으로 향하였다. 옥포에서 왜선을 만났는데 우리 군사들이 처음 적을 보자 감히 나서서 그 선봉을 자처하지 못하였다. 공이 북을 울려 노 젓기를 재촉하면서 여러 장수들의 앞에 나서서 칼을 치며 군사들을 독려하니 군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마침내 50여 척을 깨뜨려 불살랐다. 사천으로 진격하여 적선을 격파하기를 전후 거의 100여 척에 가까웠는데, 싸울 때는 반드시 공이 먼저 올라 선창이 되었다.

또 고성과 거제 사이에서 적을 만났는데 적의 사기가 매우 높았다. 공은 이 공에게 청하여 적을 한산도의 넓은 바다로 유인한 다음 깃발을 휘둘러 노를 돌린 뒤 적에게 육박하면서 온 바다에 북소리가 퍼지고 화살과 돌이 하늘에 가득하니 적들은 사기가 꺾여 감히 싸우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투어 공격하여 크게 깨뜨리고 그 배들을 모두 불살랐다. 대개 왜구들이 난리를 친 이래 크게 이긴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 첩보가 행재소에 알려지자 임금께서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올려 임명하고 장차 크게 쓰려고 하였으나, 공은 그 공을 차지하지 않고 더욱 뜻을 가다듬어 적을 섬멸하였다.

부산으로 진격하여 갔는데, 도달하기 전에 몰운대 아래에서 적을 만났다. 공이 홀연히 마음이 움직였는데, 몰운의 '운(雲)'자의 발음이 공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인하여 스스로 반드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군사 일을 부탁하며 이르기를 "내가 죽더라도 적들이 알아서 사기가 일어나게 하지 말라." 하였다. 마침 해가 지고 바람이 급해지자 장수들이 퇴각하려고 하였으나, 공은 따르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적들과 더불어 함께 죽기로 맹세하였다."하였다. 드디어 나가서 힘껏 싸우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것이 공이 공을 세우고 순절한 사실의 대략이다.

오호라! 공은 평소에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 벼슬이 가장 낮았으나, 난리를 당해서는 분발하여 말은 장렬하고 의리는 엄정하였으며, 계책을 결정하고 용맹을 선창하여 죽음에 이르러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쓰임에 능히 적의 예봉을 꺾고 국난을 막아냄으로써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공적은 비록 그 몸은 먼저 운명했다 할지라도 그 공로는 짝할 바가 없다.

옛날 당나라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은 수양성(睢陽城) 하나를 강회(江淮) 지방의 울타

리라 하여 마침내 죽음으로 지켜냈는데, 사람들은 천하가 망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의 힘이라고 하였다. 뒷날 이 공과 공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장순과 허원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공과 같이 낮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일에 앞장선 것은 더욱더 위대하고 빼어나며 비상한 선비라 할 것이다.

지금 임금께서 재위 20년에 교지를 내려 수백 마디의 말로 공의 충성과 용맹을 포상하시어 해와 별처럼 밝게 드러났다. 아울러 공의 8대손 혁(爀)을 찾아 관직을 뛰어넘어 다대진 첨사로 임명하였다. 다대진은 동래부에 있는 땅이고, 몰운대는 그곳 관할이다. 그가 부임하자 옛 사적을 발굴하여 충신을 현양하는 조정의 특별한 은전을 드러내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이에 몰운대 위에 비석을 세우고 당시의 사실을 특별히 기록함으로써 하여금 우러러보고 모두 따르게 되고자 하여 서울로 편지를 보내 나에게 비문을 요청하였다.

아! 공은 장렬한 장부이다. 그 영걸찬 혼령과 굳센 혼백을 생각하니 죽음을 따라 사라지지 않고 바다와 산 사이에 서려 바람과 천둥을 몰아 고래를 베어버리고 항상 대마도를 걷어차고 강호(江戶)를 짓부수는 기상이 있는 듯하다. 몰운대는 바다 위의 자그만 하나의 언덕이지만 전쟁이 끝난 200년 뒤에도 이곳을 지나가면 그 사람의 위대한 의열을 생각하게 하니, 오직 이 한 조각 비석이 남쪽 끝의 구리기둥이 되어 오랑캐로 하여금 스스로 두려워하여 바닷가를 길이 굳건하게 할 것이니, 어찌 다만 의열로 순절한 땅에 그치고 말겠는가. 드디어 글로서 기록하여 둔다.

숭정 기원후 세 번째 무오년(1798) 3월 8일

숭정대부 행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오위도총부도총관 민종현 (閔種顯) 지음.

훈련대장 가의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 서유대(徐有大) 씀.

5) 첨사 이승운 만고불망비

비의 형태는 몸돌과 받침돌로 구성되어 있고, 몸돌은 높이 92cm, 넓이 37cm, 폭 13cm의 유개관석형(有蓋冠石形)이다. 이승운은 1808년(순조 무진)에 도임하여 1811년(신미)에 부친상을 당하여 돌아갔다. 비의 앞면에는 이승운이 곡식 1,000석을 마련하여 군민(軍民)을 도우고 성 쌓는 역사를 없애준 것을 칭송하는 4언절구의 명(銘)이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비의 1818년(건립연대)와 비를 세우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

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 行僉使李公乘運萬古不忘碑
自備千石 濟活軍民 報蠲疊役 歌頌日新
비음 : 崇禎紀元後四戊寅五月 日 多西兩洞
尊位 金尙宜 / 都監 李和原 / 洞首 孫亮述 / 色
裵慶俊

앞면 : 스스로 천석의 곡식 마련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살리셨는데, 또 쌓인 부역 덜어주란 소식 듣게 되니 칭송하는 노랫소리 날마다 새롭다네.
비음 : 숭정 기원후 네 번째 무인년(1818) 5월 일 다대 서동 두 동네 존위 김상의 / 도감 이화원 / 동수 손양술 / 색 배경준


첨사 이승운 만고불망비

6) 첨사 이동식 영세불망비


첨사 이동식 영세불망비

비의 형태는 몸돌과 받침돌로 되어 있고, 몸돌은 높이 121cm, 넓이 42cm, 폭 10cm로, 기와지붕 모양의 덮개돌이 있다. 이동식은 1842년(헌종 9)에 첨사로 와서 1844년(헌종 11)에 과만으로 돌아갔는데, 이 비는 그가 돌아가기 전 해인 1843년(계묘) 3월에 세워졌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 行僉使李公東植永世不忘碑
千里路銀 始自官衙 煌煌片石 惟德之華
비음 : 崇禎紀元後四癸卯三月 日 使令等 立
都監役 李仁相 / 都使令 林得中 / 公員 崔尙祿 /
掌務 金國新

앞면 : 천리길 노잣돈을 비로소 관아에서 감당했네. 찬란한 한 조각의 돌은 아름다운 덕의 꽃이로다.

비음 : 숭정 기원 후 네 번째 계묘년(1843) 3월 일 사령 등이 세우다.
도감역 이인상 / 도사령 임득중 / 공원 최상록 / 장무 김국신

7) 첨사 이동식 영세불망비



첨사 이동식 영세불망비

비의 형태는 몸돌과 받침돌로 되어 있고, 몸돌은 높이 111cm, 넓이 42cm, 폭 15cm의 유개관석형(有蓋冠石形)이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 行僉使李公東植永世不忘碑
築艙修堞 蠲役繕廨 書之刻石 觀者興嘆

비음 : 崇禎紀元後四甲辰 七月 日 校吏舟卒等 立

앞면 : 선창을 축조하고 성벽을 수리하며, 부역을 덜어주고 관청 건물 수리했네. 그 공로 글로써 돌에 새기니, 이 비석 보는 이들 칭송하리라.

비음 : 숭정 기원 후 네 번째 갑진년(1844) 7월 일에 교리와 주졸 등이 세우다.

8) 관찰사 이경재 영세불망비

이 비는 몸돌과 받침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돌은 유개관석형(有蓋冠石形)으로 높이 115cm, 넓이 42cm, 폭 11cm이다. 이경재(1800~1873)의 자는 계행(季行), 호는 송서(松西)·소은(紹隱),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그는 1842년(헌종 9) 2월 26일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1843년(헌종 10) 10월 22일에 호군(護軍)으로 전출되어 갔다. 철종대에 우의정이 되고 고종 때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 觀察使李公景在永世不忘碑
艙新繫鷁 廳始修雉 棠陰蔽芾 承宣有自
뒷면 : 崇禎紀元後四癸卯十一月 日 校吏舟卒等 立

앞면 : 선창에는 새로이 익조배 매어두고 관청에는 비로소 담장을 수리했네. 산앵도 나무그늘 가지도 무성하니 왕명을 이음은 저절로 되겠네.
비음 : 숭정 기원후 네 번째 계묘년(1843) 11월 어느 날에 교리·주졸 등이 세우다.


관찰사 이경재 영세불망비

9) 관찰사 홍종영 영세불망비

이 비는 몸돌과 받침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돌은 높이 122cm, 넓이 45cm, 폭 17cm인데, 기와지붕 모양의 덮개돌이 있다. 홍종영은 헌종 10년(1843) 계묘 10월 22일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을사(1845) 10월 4일에 부호군이 되어 갔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찰사 홍종영 영세불망비

앞면 : 巡相國洪公鍾英永世不忘碑
艙完艦成 鎭支民保 伊誰之力 吾伯之德
비음 : 乙巳七月 日 西平鎭校吏舟卒等 立
監役 吏房 朴枝成 兵校 李錫寅 色 李根宅

앞면 : 선창이 완성되고 전함을 만든 것, 이것은 누구의 공로인가. 진영이 지탱하고 민생이 보호되니 우리 감사 덕이로다.
비음 : 을사년 7월 서평진 교리·주졸 등이 세우다.
감역은 이방 박지성, 교리 이석인이고, 색(色)은 이근택이다.

10)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

비의 형태는 덮개돌이 없이 몸돌의 윗부분만을 아치형으로 다듬었다. 비의 규모는 높이 96cm, 넓이 34cm, 폭 13cm이다. 비의 앞면에는 제액(題額)만 쓰여 있고, 비의 뒷면에 비를 세우게 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비의 음기(陰記)에 따르면 비를 세운 것은 1861년 가을이었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 鎭吏韓光國捄弊不忘碑

비음 : 三不朽 立功立德 居其二 疇有功德而不酬 茲州之有藿田 固非連□□珠之往復 而實是涪 武芽之瘡痏數些浦戶 以此幾無 公病之 呈營呈京司 累濱死境 始蒙朝家允旨 乃乾隆二十八年 秋八月也 至今受賜 爲如何哉 本鎭關防 古有候望之弊 并此俱革 然則公之功德 在山在水間 殆壽於峴漢之碑也夫

崇禎紀元後四辛酉 八月 日 浦民 立

李元福 王先雄 李漢東 / 金正之 金時天 金一元 / 權允 金作沙 金東完

化主 崔尙運 金正元 田仁福

앞면 :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

비음 : 세 가지 썩지 않는 것 가운데 공을 세우는 것과 덕을 쌓는 것이 그 두 가지인데, 때로는 공덕이 있음에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 고을에는 미역밭이 있는데, 진실로 □□의 오고 감이 없었으니, 참으로 부주(涪州)의 여지(荔枝)이자 무아(武芽)와 같은 병폐가 있어서 포구의 몇몇 민가들이 이것으로 인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공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수영과 서울의 관청에 상소하였는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마침내 조정의 허가를 받게 되었으니, 이때는 1763년(건륭 28) 가을 8월이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되었던가. 본진은 관방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경비를 서면서 살피는 폐단이 있었는데, 아울러 이것도 모두 혁파되었다. 그러한 즉 공의 공덕이 산과 바다에 두루 하니 아마도 현한(峴漢)의 비와 같은 수명이 있을 것이다.

숭정 기원 후 네 번째 신유년(1861) 8월 일, 포구 주민들이 세우다.

이원복, 왕선웅, 이한동 / 김정지, 김시천, 김일원 /
권윤, 김작사, 김동완
화주 최상운, 김정원, 전인복


관찰사 서헌순 만고불망비

11) 관찰사 서헌순 만고불망비

이 비는 몸돌과 받침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돌은 높이 115cm, 넓이 46cm, 폭 15.5cm로 기와지붕 모양의 덮개돌이 덮여 있다. 서헌순은 1829년(순조 29) 정시문과(庭試文科)를 거쳐 전라, 경상관찰사를 지내고 1868년(고종 5) 이조판서에 이른 사람이다. 고종 계해년(1863) 2월 8일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을축년(1865)에 과만으로 바뀌어 갔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 巡相國徐公憲淳萬古不忘碑
流來還弊 損廩蕩逋 鎭旣成樣 民亦安堵 恩山德海 何以褒揚 煒煌片石 惟伯之光
비음 : 同治十一年壬申五月 日 西平校吏還民等 立
責應 朴淙寬 / 首校 黃俊淸 / 監役 兵校 安裕錫 / 吏房 金澥純

앞면 : 전부터 내려오던 환곡의 폐단 祿米를 내어놓아 포흠을 탕감했네. 다대진도 이제야 제모습 갖추니 백성들도 또한 안도하였다네. 산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공덕을 어떻게 선양할까. 빛나는 한조각의 돌로 우리 감사의 빛남을 생각한다네.
비음 : 동치 11년 임신년(1872) 5월 어느 날 서평진의 교리·환민 등이 세우다.
책응은 박종관이고, 수교는 황준청이며, 감역은 병교 안유석이고, 이방은 김희순이다.

12) 병조판서 민응식 만세송덕비

이 비는 몸돌과 받침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돌은 높이 136cm, 넓이 50.5cm, 폭 21cm

로 덮개돌은 없다. 이 비의 뒷면은 마멸되어 건립연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앞면의 명문을 통해서 1886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응식(1844~?)은 자는 성문(性文)이고 호는 우당(藕堂)이며 본관은 여흥(驪興)인데, 1882년(고종 19)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이듬해 대사성으로 발탁되고, 1884년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部事)를 거쳐 1886년 이후 이조와 병조판서를 지내면서 수구파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고금도로 유배당하였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조판서 민응식 만세송덕비

앞면 : 兵曹判書閔公應植萬世頌德碑

推爲國誠 復已革鎭 軍民再蘇 關防重振 勳如山屹 德同海流 咸頌記石 丙戌仲秋

앞면 : 나라 위해 충성을 다하더니 다시금 진영을 혁신하였네. 군사와 주민들 다시 살아나고 나라의 관문도 거듭 위용 떨쳤네. 그 공훈은 산과 같이 우뚝하고 그 은덕은 바다처럼 출렁이네. 모두들 칭송하여 비석에 새겨두니 때는 병술년(1886) 중추로다.

13) 첨사 정제빈 송덕불망비

이 비는 을미년(1895) 3월에 건립되었는데, 받침돌은 없다. 몸돌은 높이 111cm, 넓이 39cm, 폭 16.5cm로 유개관석형(有蓋冠石形)이다. 정제빈은 오천(烏川) 사람으로 1890년(고종 경인년) 10월 25일에 도임하여 신묘년(1891) 7월 12에 돌아갔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사 정제빈 송덕불망비

앞면 : 僉使鄭公濟斌頌德不忘碑

百弊除根 一心從規 來何暮也 去益惠之

비음 : 歲在乙未三月 日 校吏舟卒等 立

앞면 : 수많은 폐단의 뿌리를 없애시고 한마음으로 법도만을 따르셨네. 오시는 길 어찌 그리 늦으셨나. 가시고 나니 더욱더 그립다네.
비음 : 을미년(1895) 3월 교리·주졸 등이 세우다.

14) 첨사 김정근 영세불망비

이 비는 몸돌과 받침돌로 되어 있고, 몸돌은 높이 123cm, 넓이 38.5cm, 폭 30cm로 덮개돌은 없이 몸돌의 윗부분을 둥글게 다듬었는데, 앞면의 상단에서 중간까지 오른쪽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비는 1886년 중추(仲秋)에 세워졌다. 첨사 김정근은 안동사람으로 자는 성국(聖國)이다. 절영도의 첨사를 거쳐 본진을 복설하도록 주장하여 1886년(고종 병술) 정월에 도임하여 정해년(1887)에 내직(內職)으로 옮겨갔다. 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사 김정근 영세불망비

앞면 : 僉使金公楨根永世不忘碑
鎭牧合復 繕四十廨 敬新萊戍 軍民頌祝
비음 : 丙戌仲秋 校吏軍民等 立
兵校 韓佑壽 / 吏房 李璇弘

앞면 : 진영과 목장이 모두 다시금 세워지고 마흔 곳 관청건물 수리하였네. 공경하게 동래성 방비 새롭게 하니 군사와 주민들 칭송하며 축하하네.
비음 : 병술년(1886) 중추에 교리·군민들이 세우다. 병교는 한우수이고 이방은 이선홍이다.

15) 겸목관 이득형 애민선정비

이 비는 몸돌과 받침돌로 되어 있는데, 유개관석형(有蓋冠石形)의 덮개돌이 있다. 비음은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앞면 : 兼牧官李公得馨愛民善政碑

앞면 : 겸목관 이공득형 애민선정비



겸목관 이득형 애민선정비

16) □□□ 청덕 선진비

이 비는 몸돌과 받침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돌의 경우 비의 윗부분이 파손되어 전체 높이는 알 수 없고, 넓이 34cm, 폭 9cm만이 남아 있다. 비의 파손으로 인해 전체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비의 건립연대는 뒷면의 기록을 통해 1714년 9월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명문은 다음과 같다.

앞면 : …… 淸德善賑碑
□□□□□□□□ 焦思救命 千秋不忘
비음 : 八十七年 甲午 九月 日

앞면 : …… 목숨을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으니
천추토록 잊지 않으리.
뒷면 : 87년 갑오 9월 일



□□□ 청덕 선진비

17) 겸감목관 고도성 비


겸감목관 고도성 비

이 비의 몸돌은 높이 91cm, 넓이 43cm, 폭 14cm로, 비의 왼편이 부서져 유실되고 없으며, 비의 뒷면도 내용이 없다. 고도성에 대해서는『정유 식년 문무과 전시방(丁酉式年文武科殿試榜)』에는 그 이름과 가계가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도성은 자는 성수(聖叟)이고, 아버지는 고부현(高傅賢)으로 1699년 기묘년에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는 19세가 되는 1717년(숙종 43)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에 병과(丙科) 148위로 급제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그는 1734년(영조 10) 2월 9일에 다대포첨사로 임명되고, 1736년(영조 12) 12월 12일에 이성현감(利城縣監)으로 부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비에 보이는 정사년은 1737년(영조 13)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상의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고도성은 다대포첨사로서 감목관의 직을 겸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면 : 兼監牧官高公道成壬癸 ……
丁巳七月 日 七場屯民 立

앞면 : 겸감목관 고도성 임계(壬癸) ……
정사년(1737) 7월 어느 날에 칠장의 둔민들이 세우다.

6. 관광자원

1)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482-3번지(다대포해수욕장 진입로)

2009년 6월에 개장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웅장한 규모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최초로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음악분수로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총면적 2,519㎡의 공간에 최대 물높이 55m, 둘레 180m, 노즐수 1,046개, 소분수 27종, 조명 1,148개로 가히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분수쇼에서는 200여 곡 이상의 연출음악과 춤을 추는 분수에 맞춰 불꽃쇼가 펼쳐진다. 분수쇼가 열리지 않을 때는 수조와 노즐이 노출되지 않아 문화행사, 공연, 놀이시설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꿈의 낙조분수대(낮)



꿈의 낙조분수대(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를 시작으로 다대포해수욕장은 2014년 생태탐방로, 해수천, 방사림 등을 갖춘 해

변관광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몰운대 낙조공원, 아미산 전망대, 강변대로 선셋로드(Sunset Road), 을숙도 생태공원 등 다양한 친환경 관광시설들로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될 것이다.

2) 다대포 해수욕장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 해수욕장

다대포의 명소인 다대포 해수욕장은 낙동강에서 흘러내려 온 토사가 퇴적되어 생긴 해수욕장이다. 길이 900m, 폭 100m의 넓은 백사장에 평균 수온은 21.6℃, 수심은 1.5m로 따뜻한 수온과 얕은 수심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모래도 매우 부드러워 산책하기에도 좋으며, 특히 백사장 바닥 곳곳에 숭숭 뚫린 구멍사이로 자그마한 게들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1970년대에 해수욕장으로 개장한 이래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하였는데, 2011년부터 개장일은 6월 1일부터 한 달 앞당겨졌다. 1987년 낙동강 하구둑이 준공되어

강물의 자연스런 유입이 막힘에 따라 해수욕장의 기능은 예전만 못해졌지만 주변에는 절경을 자랑하는 몰운대와 화손대가 있다. 또 몰운대 안에는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3호인 다대포 객사와 시지정 기념물 제20호인 정운공순의비가 있어 관광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8월이면 부산 국제 락페스티발, 청소년 해변한마당 등이 펼쳐져 여름 바다가 축제의 열기로 가득하다. 또한 12월에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다대포 해넘이축제와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특히 이곳에는 세계 어딜 비교해도 손색없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가 만들어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가족과 함께 몰운대를 한 바퀴 돌아 해수욕장에서 모래 속에 묻혀 있는 조개와 게를 잡고 주변횟집에서 먹는 싱싱한 생선회 맛이 일품이며, 몰운대 주변에 있는 쥐섬, 모자섬, 나무섬 등 낚시터로 갈 수 있는 낚싯배를 이곳에서 탈 수 있다.

3) 통일 아시아드 공원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다대항 주변

통일 아시아드 공원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의 응원단을 태우고 온 만경봉호가 닻을 내려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다대2동 국제여객 부두 앞에 당시의 감동을 되새기고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조성된 기념공원이다. 9,928㎡ 규모의 부지에 휴게광장, 만남의 광장, 평화의 광장, 바닥분수, 부산아시안게임 성화를 형상화한 높이 10m의 빛 기념물과 강화유리에 한반도기와 핸드프린팅을 새겨 넣은 만남의 벽 등 다양한 조형물과 시설물이 있고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아시아 44개의 나라를 표시하는 열주 등이 있어서 부산아시안게임의 의의와 내막을 소상히 알 수 있고 아시아 국가들의 지리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 그 외 벤치, 운동기구, 화장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도심 속 시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원의 일부 시설물이 관리 부주의로 훼손되거나 망가지고 있어 공원이 조성된 원래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길 없다. 통일 아시아드 공원이 역사적인 부산아시안게임을 기념하고 주민 휴식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되기를 바란다.

4) 승학산 억새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승학산 억새풀

승학산(乘鶴山)은 해발 496m로서 부산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산으로, 구덕산과 시약산의 서쪽이며 엄광산의 남쪽으로 사하구 당리동의 뒷산이다. 현재 승학산은 동아대학교 하단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어 동아대 뒷산으로 불린다.

승학산은 고려 말 무학대사가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산세를 살폈는데 이곳을 보니, 산세가 준엄하고 기세가 높아 마치 학이 나는 듯하다 하여 승학산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산 정상에 올라서면 낙동강 너머 너른 김해평야와 바다가 보이고 탁 트인 시원한 조망이 일품이다.

특히 이곳은 억새가 아름답기로 이름이 나 있다. 억새군락은 승학산 동쪽 제석골의 안부(鞍部)에 있다. 수만 평에 이르는 부산 제1의 억새밭으로 바람 따라 일렁이는 대장관은 전국의 어느 억새명산 못지않다. 억새능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4군데 정도인데, 다소

가파르지만 엄궁에서 올라가거나 당리, 괴정에서 사하구청 뒤편 제석골로 통하는 코스, 대신동 꽃동네에서 기상청 레이더관측소 도로를 따라 올라가 임도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통상 종주로인 동아대~잔등이~정상코스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뒤로 올라 승학산 정상을 거쳐 서대신동 꽃마을~구덕산~구봉산~수정산으로 이르는 등산코스는 부산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등산코스이기도 하다.

5) 에덴공원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산 786번지



에덴공원

승학산 서쪽 낙동강변에 위치한 에덴공원의 원래 이름은 강선대(降仙臺)였다. 전설에 따르면 승학산에서 신선이 학을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강선대라 불렀다고 한다. 이 강선대가 에덴공원으로 이름한 것은 에덴공원의 소유주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성서에 나오는 에덴동산을 기리어 이곳을 에덴공원이라 이름 짓고 공원을

개발하여 도시인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에덴공원은 1970년대만 해도 강변에 야외음악당과 공연장, 그리고 토속적인 술집들이 있어서 을숙도, 하단나루터와 더불어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주위에 주택가가 들어서서 지난날보다 지역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공원 내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곳에는 시민헌장비, 유치환 시비(詩碑) 등도 있다.

6) 감천동 문화 마을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산복마을



눈덮인 감천동 문화 마을

감천2동 산복마을은 파랑, 하늘, 분홍, 민트 노랑 형형색색의 페인트가 벽마다 곱게 칠해져 있는 직사각형 집들이 비탈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이국적인 '하늘(공중)도

시' 마추픽추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여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한적한 산골마을이었던 이곳은 1950년대에 신흥종교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이 집단촌을 이루면서 태극도 마을로 불리웠는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 마을예술 프로젝트 공모'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라는 문화예술 단체가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프로젝트로 당선되면서 이 마을의 모습은 일신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작가들에게는 다양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문화 소외계층이 일상 생활공간 속에서 미술을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이곳을 아름다운 미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무지개 꿈으로 그려낸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감천고개를 조각가들의 미술품으로 꾸미고, 흉물처럼 남아있는 300여 채의 빈집들을 창작스튜디오 같은 예술인촌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 주민들과 함께 이곳을 꾸며나가고 있다.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는 산동네를 단순 재개발이 아닌 지역성을 살리는 보존과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부산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경관의 특이성으로 인해 문화마을은 여러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여 2011년에 '영화의 집'으로 선정됨으로써 영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슬로시티 관계자 방문,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작품소재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의 사이사이로 난 골목길을 걷다보면 지금은 사라져버린 지난날 마을 골목의 풍경을 떠오르게 함으로써 현대인들의 향수를 자아내기도 한다.

7) 강변대로

사상구 엄궁동에서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까지(약 12㎞) 낙동강변에 건설된 산책로로 낙동강변을 자동차로 시원하게 달리면 차창에 스치는 낙동강 풍경과 을숙도, 그리고 낙동강하구의 석양, 강변에 늘어선 아파트 숲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자동차 드라이브 코스로서 뿐만 아니라 자전거 하이킹코스, 도보 길로도 좋은 이곳은 강변대로변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가족과 연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코스로도 더욱 좋다. 특히 강변대로변에는 대규모 벚꽃 꽃길(2㎞)이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노을 나루길

8) 을숙도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낙동강하구에 삼각주로 이루어진 섬으로 갈대밭과 수초가 무성하고 어패류가 풍부하여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한 이곳은 낙동강 하구둑 다리 건설로 교통이 편리하여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을숙도 상단부에는 넓은 주차장, 문화회관, 자동차 전용극장, 야외공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간이축구장, 잔디광장, 휴게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가족단위의 산책 장소 및 단체모임의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중년이나 노년층은 한 번쯤 찾아와 그 옛날 하단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갈대밭에서 연인과 사랑의 밀어를 나누었던 낭만어린 추억을 떠올려 볼 만하다. 특히, 붉게 타들어 가는 늦가을 석양 무렵 바람결에 쓰러지는 하얀 갈꽃위에서 무리지어 날개 짓하는 철새들

의 군무(群舞)는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을숙도 철새들

9) 을숙도 조각공원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조각공원은 2004년 부산비엔날레 부산조각프로젝트 출품작 20점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을숙도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어우러진 조각공원이다.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에서 인간에 의해 희생된 도심 속의 자연 생태를 주목하여 인간과 자연의 '틈'을 건너 뛰어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된 2004 부산조각프로젝트는 공간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조형어법에서 탈피하여 일상공간과 예술공간을 건너뛰어 다양한 양식과 형태를 공간에 연출하여 넓어진 공간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을숙도 조각공원은 조각 작품들과 더불어 돌고래 연못공원,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과 연인들이 산책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그리고 주변에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자동차 전용극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간이축구장, 물 문회관, 전망대, 야외광장 등도 있어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을숙도 조각공원

10) 아미산 전망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부지 10,254㎡, 연면적 1,309㎡의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낙동강하구 아미산전망대는 낙동강하구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삼각주 지형,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하구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망대이다. 매년 지형을 바꾸는 낙동강하구 모래톱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하구의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 찾아오는 철새를 사시사철 관찰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낙동강하구의 다양한 생물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을 관람하고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낙동강하구의 모래톱, 철새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장소로도 좋다. 또

한 야외 전망대에서 보는 아름다운 일몰은 일품이다.

아미산 전망대는 부산지역 여성 건축가인 손숙희 건축사의 작품인데, 최근 부산시는 '2011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작품으로 아미산 전망대를 선정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관, 전망대와 수공간이 빚어내는 풍경, 전망대와 낙동강 하구가 함께 그려내는 풍경 등이 환경적 생태와 관련된 경험적 기억의 흔적들을 일깨워 준다는 평을 받았다. 즉 아미산 전망대는 자연을 바라보는 장소적 성질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 풍경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주변관광지로는 세계최대규모의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다대포 해수욕장'과 경관이 뛰어난 '몰운대'가 있다.



아미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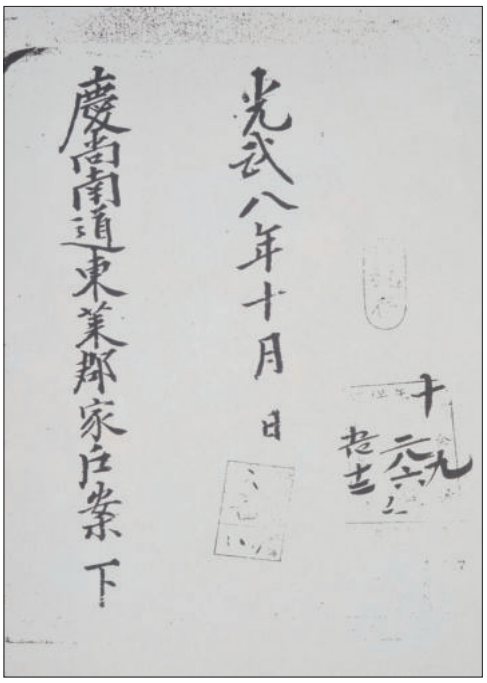
제5장
성씨와 인물

1. 성씨
2. 인물

제5장 성씨와 인물

1. 성씨

1) 부산 성씨 개관



『경상남도동래부가호안』(1904) 표지

조선후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보다 다수의 동성(同姓)으로 이루어진 자연마을이 훨씬 많았다. 그러한 자연마을은 성씨(姓氏)의 분포 양상에 따라 마을의 특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이 거의 같은 모습과 구조로 만들어진 것과는 분명 다른 모양새였다. 전통사회의 성씨 분포를 통해 사하 지역의 변화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부산과 사하 지역의 성씨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성씨 분포를 비교하여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여기서는 부산의 성씨 현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어서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에 조사되어 있는 호구(戶口) 실태를 기초로 하여 사하 지역의 각 동리별 성씨 분포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자료 출처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호수와 성씨를 언급한 것은 모두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은 1904년(광무 8) 10월에 탁지부 사세국(司稅局)에서 편찬한 자

료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동래 지역 각 면(面)의 가호(家戶)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 책에는 가주(家主)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동래군의 성씨 분포를 알 수 있다. 당시의 '동래'는 오늘날 '부산'을 지칭한다. 일제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구하면서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부산포를 확장하여 부산부(釜山府)로 만들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동래는 부산부 아래로 편재되었고, 그러한 구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904년 당시의 동래군은 사하면(沙下面)을 포함한 12면 154동으로 편재되어 있었다. 동래군의 전체 호수는 4,871호였다. 동래군 주민의 성씨는 대략 84성 정도였다. 김씨, 이씨, 박씨, 정(鄭)씨, 최씨, 문씨, 서씨, 송씨, 윤씨, 장씨의 순으로 호수가 많았다. 성이 같더라도 본관이 다르면 타성(他姓)이지만, 여기서는 본관을 구분할 수 없어 함께 묶어서 설명한다.

1961년 무렵에 부산이 포함된 경상남도의 성씨 수는 194개였다. 1963년에 편찬된 『경상남도지』에 기재된 부산시 주민의 성씨 종류는 모두 162종이었다. 1962년 10월 현재 성씨 수의 면에서 부산의 10대 성씨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강씨, 조씨, 윤씨, 서씨, 장씨 순이었다. 성씨 수의 변화를 1904년과 비교해 보면,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의 순서는 이전과 그대로였다. 다만 강씨와 조씨가 새롭게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고, 문씨와 송씨가 밖으로 밀려났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하 지역의 호수는 1904년 무렵에 대략 730호였다. 전체 동리(洞里) 수는 14개였다. 14개 동은 다대동, 장림동, 서평동(西坪洞), 신평동, 평림동(坪林洞), 하단동, 부평동, 부촌동(富村洞), 부민동, 암남동, 감천리, 대치리, 괴정동, 당리동이었다. 부평동의 호수가 138호로 가장 많았고, 다대동에도 108호가 거주하고 있었다. 14개 동 가운데 부평동, 부촌동, 부민동, 암남동의 4개 동은 오늘날 행정 구역으로는 서구에 속한다. 이 4개동을 제외하면 사하에 속하는 동리는 10개 동이다. 현재의 사하구 법정동은 8개로 괴정동,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구평동, 감천동이다. 옛 대치동은 오늘날 괴정동 일대이고, 평림동은 하단동 일대이다. 대치동과 평림동이 다른 동에 합쳐지고 행정 구역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8개 동으로 조정 재편되었다. 1904년 무렵의 동명(洞名)이 오늘날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04년 무렵 사하의 성씨(姓氏)는 모두 53성이었다. 김씨가 157호로 가장 많았고, 이씨 110호, 박씨 83호, 한씨 29호, 문씨 24호, 최씨 22호, 임(林)씨 21호의 순이었다. 호수가 5호 이하인 성씨가 53성 가운데 31성이나 되었다. 한편 사하지발간추진위원회가 1986년에 간행한 『사하지(沙下誌)』의 '제2장 사하의 약사'에는 일본인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사하의 일본인 수는 일제 강점 직전인 1910년 6월 20일 현재 괴정동 2명, 평림동

28명, 대치동 3명, 하단동 84명으로 총 117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제 사하의 각 동리별 호수와 성씨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서구의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4개(부평, 부촌, 부민, 암남) 동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사하의 옛 10개 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 1절의 끝 부분에 있는 1904년『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의 사하면 성씨 분포를 참고하면서 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하 각 동리의 성씨

(1) 다대동(多大洞)

1904년 무렵 다대동(多大洞)의 호수(戶數)는 108호였다. 이 중에서 김(金)씨 호가 22호로 가장 많았고, 이(李)씨 호가 21호로 그 뒤를 이었다. 10호가 넘는 성씨는 한(韓)씨와 박(朴)씨로 각각 14호와 13호였다. 최(崔)씨 5호, 정(鄭)씨와 강(姜)씨 각 4호, 황(黃)씨와 배(裵)씨가 각 3호였다. 윤(尹)씨, 장(張)씨, 허(許)씨, 안(安)씨, 손(孫)씨가 각각 2호씩이었고, 문(文)씨, 지(池)씨, 우(禹)씨, 양(梁)씨, 고(高)씨, 임(林)씨, 조(趙)씨, 방(房)씨가 각각 1호였다. 한씨 14호는 아마도 조선 영조 때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광국(韓光國)의 일가친척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 다대진 첨사의 성씨 ●

다대첨사영(多大僉使營)은 1544년(중종 39)에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때 윤흥신 다대진 첨사가 일본군을 맞아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런데 다대포에 첨사영이 설치될 때부터 윤흥신 첨사가 전사하기 전까지 첨사직에 재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후인 1600년 김정서(金廷瑞) 첨사가 부임한 이후부터 1895년(고종 32) 7월 15일 마지막 다대진 첨사 박세혁(朴世赫) 첨사까지 약 300여 년 동안 많은 인물들이 다대진을 다녀갔다.

300여 년간 다대포를 지킨 첨사들의 성씨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여기서는 첨사의 본관이나 출신지, 임명과 면직, 승진과 좌천 등의 세밀한 내역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성씨로만 구분하였다. 다대포 첨사 인명은 1986년에 발간된『사하지(沙下誌)』의 '역대 다대포 첨사 인명록'에 수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다대 첨사 중 가장 많은 성씨의 첨사는 49명이 재임한 이(李)씨였다. 김씨 첨사가 25명이었고, 정씨가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41개 성씨 가운데 이씨, 김씨, 정씨 3성이 전체 첨사 177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씨와 조(趙)씨 첨사는 각각 7명이었고, 윤씨와 최씨 첨사는 각각 5명이었다.

역대 다대포 첨사의 성씨

성씨	이	김	鄭	박,趙	윤,최	박,柳,申,오	민,辛,田,허,홍	강,고,곽,구,권,남,송, 심,任,장,한	문,변,손,서,성,안,양,어,원,林,曺,秦,하,황	41姓
수	49	25	12	7	5	4	3	2	1	
계 (비율)	49 (27.7)	25 (14.1)	12 (6.8)	14	10	16	15	22	14	177

(2) 장림동(長林洞)

장림동의 호수는 20호였다. 규모가 작은 동네였으나 임진왜란 이전부터 진(鎭)이 설치되어 수군이 주둔하였다. 1740년에 간행된 『동래부지(東萊府誌)』는 원래 다대진(多大鎭)이 이곳 장림에 있었다고 전한다. 장림에는 조(趙)씨가 5호로 가장 많이 살고 있었다. 김씨 4호, 이씨 2호, 윤씨, 안씨, 허씨, 정(鄭)씨, 문씨, 배씨가 1호씩이었다. 1895년의 『다대진지(多大鎭誌)』에는 호수가 41호, 인구가 118명(남자 51명, 여자 6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서평동(西坪洞)

서평동은 오늘날 구평동(舊坪洞)이다. 옛날의 서평동, 즉 구서평(舊西坪), 구시평에서 유래하였다. 1832년의 『동래부읍지』에는 서평동이 '독지리(禿旨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평동의 호수는 1904년 무렵 13호였다. 서평동은 사하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동네였다. 박씨와 최씨, 전(田)씨, 추씨가 각각 2호였고, 이씨, 김씨, 임(林)씨, 조씨, 손씨가 각각 1호였다. 1895년의 『다대진지』에는 서평동의 호수가 30호, 남자 45명, 여자 55명이라고 기록되었다. 1910년의 『한국수산지』 제2집에는 구서평포에 50호가 살고 있었다고 전한다.

(4) 신평동(新坪洞)

신평동의 호수는 29호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임(林)씨가 14호로 가장 많았다. 전체 호수의 절반 정도가 임씨였다. 김씨와 배씨 각각 3호와 서씨, 박씨, 최씨, 구씨 각각 2호, 그리고 정(丁)씨 1호가 거주하였다. 『다대진지』(1895)를 보면, 신평리의 호수는 35호이고 인구는 105명(남자 47명, 여자 58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어패류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신평동 내에 망후촌(望後村)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임경업(林慶業) 장군이 역적으로 몰려 9촌까지 몰살당하였을 때, 조카인 임중생이 의주에서 신평까지 피신해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임중생은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뒤를 자꾸 돌아 보았는데, '망후촌'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임씨 14호는 임중생의 후손들로 추측된다.

(5) 평림동(坪林洞)

『부산지명총람』 제4권 사하구 편의 '제8절 하단동'을 보면 평림동(平林洞)은 하단의 옛 이름으로 불린 일이 있다고 한다. 신평동과 하단동 사이 일대에 평림동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평림동의 호수는 65호로 많은 편에 속했다. 가장 많은 성씨의 호수는 김씨로 13호였다. 그 뒤를 이어 이씨 9호, 박씨 8호, 서씨 7호, 장씨 4호의 순이었다. 조(趙)씨와 윤씨가 각 3호, 강씨, 함씨, 전(田)씨가 각각 2호였고, 도씨, 최씨, 배씨, 송씨, 안씨, 조(曺)씨, 홍씨, 문씨, 손씨, 한씨, 구씨, 양씨가 1호씩 거주하였다. 1895년에 간행된 『다대진지(多大鎭誌)』에는 호수가 60호이고, 인구는 남자 76명, 여자 83명으로 되어 있다.

(6) 하단동(下端洞)

하단동의 호수는 17호로 규모가 작은 동리였다. 그러나 기원전 4~3세기경의 철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낙동강 물길을 이용한 내륙 상업도 발달하였다. 하단 5일장이 유명했다. 하단에는 김씨와 이씨가 각각 4호와 2호가 살았다. 그 외 박씨, 원씨, 백씨, 배씨, 한씨, 전씨, 구씨, 채씨, 손씨, 강씨, 윤씨가 1호씩 거주하였다. 앞에서 본 옛 평림동과 하단동을 오늘날의 하단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 하단동은 옛 평림동과 하단동 호수를 합친 82호가 거주한 큰 동리였다. 하단동은 진(鎭)이 설치되었던 다대동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이었다.

(7) 감천리(甘川里)

감천리의 호수는 45호였다. 이씨가 12호로 가장 많았다. 박씨와 김씨가 각각 8호였다. 문씨와 윤씨 각 4호, 황씨 3호, 정(鄭)씨, 추씨, 안씨, 옥씨, 장씨, 송씨가 각각 1호씩이었다. 1895년의 『다대진지』는 감천동(甘川洞)의 호수가 50호이고, 여기에 남자 71명과 여자 82명이 살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제2집(1910년)을 보면 감천포의 호수는 123호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1904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호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감천포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시가 편찬한 『부산의 자연마을』(제5권)에는 감천리에 가장 먼저 이주해 온 성씨가 인동(仁同) 장(張)씨라고 소개한다. 뒤이어 밀양 박씨와 경주 이씨가 이주해 왔다고 한다.

(8) 대치리(大峙里)

대치리는 대티 마을로 불리는 자연 마을로 대티 고개 아래에 있었다. 현재의 괴정2동 일

대였다. 대치리의 호수는 42호였다. 박씨가 15호로 가장 많았고, 김씨가 8호, 이씨가 6호로 그 뒤를 이었다. 윤씨가 3호였고, 나머지 성씨인 조씨, 최씨, 손씨, 백씨, 방씨, 고씨, 노씨, 구씨, 한씨, 전씨가 각각 1호씩이었다. 1895년의 『다대진지(多大鎭誌)』에는 대치리의 호수가 73호, 인구가 209명(남자 99명, 여자 11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9) 괴정동(槐亭洞)

괴정동의 호수는 55호였다. 괴정동의 옛 이름은 말을 기르는 곳, 즉 '목장리'였다. 문(文)씨와 김씨가 각각 11호로 가장 많았다. 사하의 다른 곳에는 문씨가 많지 않은데, 괴정동에 문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유씨 8호, 이씨와 송씨 각각 5호, 조씨 4호, 정씨 3호, 박씨와 배씨 각각 2호, 왕씨, 최씨, 강씨, 한씨가 각각 1호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 당리동(堂里洞)

당리동의 호수는 18호였다. 옛날부터 당리동은 다른 동네에 비해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좁았다. 하지만 하늘과 소통하는 공간 '제석(帝釋)골'과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우소(祈雨所)가 있어 그 기능만큼은 작지 않았다. 당리동은 전체 호수가 적은 편이라서 그런지 다수를 차지하는 성씨가 없었다. 김씨가 3호, 이씨와 최씨가 각각 2호였고, 양씨, 홍씨, 임씨, 배씨, 차씨, 박씨, 강씨, 백씨, 전씨, 장씨, 정씨는 모두 1호씩 거주하고 있었다.

(11) 부평동·부촌동·부민동·암남동

부평동·부촌동·부민동·암남동은 오늘날 서구 부평동, 부민동, 암남동 지역이다. 1904년 당시에는 동래군 사하면에 속했다. 이 곳의 총 호수는 318호이다. 김씨가 83호로 가장 많고, 이씨가 52호, 박씨 32호, 정씨 13호, 장씨 11호, 최씨 10호, 손씨와 한씨 각 8호, 강씨, 추씨, 황씨 각 7호, 문씨 6호 순이었다. 그 외에도 조(趙)씨, 송씨, 안씨, 윤씨, 임씨, 옥씨 등이 5호씩이었고, 도씨, 배씨가 각 4호, 신(辛)씨와 권씨, 전씨 등이 3호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曺)씨와 민씨, 목씨, 천씨를 비롯하여 갈, 남, 노, 백, 변, 서, 성, 양, 오, 우, 유, 차, 채, 탁, 태, 하, 허, 홍씨 등의 소수 성씨도 있었다.

1895년의 『다대진지』에는 암남의 호수는 56호, 인구 162명(남자 77명, 여자 85명), 부평리는 호수 15호, 인구 55명(남자 20명, 여자 35명), 구초량(1904년 당시 부촌동, 부민동)의 호수는 84호, 인구 215명(남자 95명, 여자 12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4년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의 사하면 성씨 분포

성씨		다대	장림	서평	신평	평림	하단	감천	대치	괴정	당리	소계	부평	부촌	부민	암남	합계
1	葛											–					1
2	姜	4				2	1			1	1	9	1	3	2	1	16
3	高	1							1			2					2
4	具				2	1	1		1			5					5
5	權											–	1		2		3
6	金	22	4	1	3	13	4	8	8			77	24	29	14	16	160
7	南											–	1				1
8	盧								1			1		1			2
9	都					1						1			4		5
10	睦											–	2				2
11	文	1	1			1		4		11		18	1	2		3	24
12	閔											–	1		1		2
13	朴	13		2	2	8	1	8	15	2	1	52	13	6	13		64
14	房	1							1			2					2
15	裵	3	1		3	1	1			2	1	12	1	2	1		16
16	白	1					1		1		1	4	1				5
17	卞											–	1				1
18	徐				2	7						9	2				11
19	成											–			1		1
20	孫	2		1		1	1		1			6	6	1	1		14
21	宋					1		1				7	3	1		1	12
22	辛											–	3				3
23	安	2	1			1		1				5	3	2			10
24	梁	1				1					1	3	1				4
25	吳											–			1		1
26	玉							1				1	1		4		6
27	王									1		1					1
28	禹	1										1	1				2
29	元											1					1
30	柳									8		8	1				9
31	尹	2	1			3	1	4	3			14	2		3		19
32	李	21	2	1		9	2	12	6	5	2	60	28	6	17	1	112
33	林	1		1	14						1	17	3		2		22
34	張	2				4		1			1	8	4	3	2	2	19
35	田					2	1		1		1	7			2	1	10
36	鄭	4	1					1		3	1	10	7	3	3		23
37	丁				1							1					1
38	趙	1	5	1		3			1	4		15	1	1	3		20
39	曺					1						1	1			1	3
40	池	1										1					1
41	車										1	1	1				2
42	蔡						1					1	1				2
43	千											–	1		1		2
44	崔	5		2	2	1			1	1	2	14	7	2		1	24
45	秋			2				1				3	1			6	10
46	卓											–	1				1
47	太											–		1			1
48	河											–			1		1
49	韓	14	3			1	1		1	1		21	4		2	2	29
50	咸					2						2					2
51	許	2	1									3	1				4
52	洪					1					1	2	1				3
53	黃	3						3				6	5	1	1		13
계		108	20	13	29	65	17	45	42	55	18	412	138	64	81	35	730

2. 인물

1) 다대포와 함께 한 사람들

(1) 윤흥신(尹興信)

윤흥신은 다대진 첨사였다. 1592년 4월 대군의 왜적에 맞서 끝까지 다대포를 지키다 순절한 진정한 다대포 사람이었다. 윤흥신은 1545년 을사사화의 주역 대윤의 수장 윤임(尹任)의 아들로서 1540년에 태어났다. 그는 고려의 윤관 장군 후손으로 공양왕 때 판서를 지낸 판도 윤승례 공을 중시조로 하는 파평 윤씨 판도공파이다. 을사사화로 부친이 숙청될 때 관노가 되었다가 1577년에 윤임이 신원 복관되면서 32년간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

윤흥신은 1578년 공신의 후손이라는 자격과 아버지 윤임의 무과 경력을 인정받아 무과별시에 응시하여 출사하였다. 1580년(선조 13)에 벼슬이 진천현감에 이르렀으나, 문자를 모른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외직으로 전출되었다가 서애 류성룡(柳成龍)의 천거를 받아 1591년에 다대진 첨사로 부임하였다. 다대진 첨사로서 임무를 무난하게 수행한 지 1년여 세월이 흐른 뒤인 1592년(선조 25)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조선 후기 군현지도에 그려진 다대진 모습

1592년 4월 13일 왜군은 부산포에 들이닥쳤다. 왜군은 14일 부산

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군사를 나누어 다대포진(多大浦鎭)과 동래부(東萊府)를 공격하였다. 4월 15일 다대진 첨사 윤흥신은 동생 흥제(興悌)와 함께 끝까지 맞서 싸웠다. 그러나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병사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흥신은 끝까지 성을 떠나지 않고 대항하다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이에 성도 함락되고 말았다.



다대진성 전투 임진전란도에서 다대진성 부분을 확대하였다.

윤흥신은 선조 때 공포된『선무공신록권(宣武功臣錄券)』에 원종(原從) 1등 공신으로 올랐으나 그의 순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선조실록(宣祖實錄)』과 류성룡(柳成龍)의『징비록(懲毖錄)』, 선조 때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구사맹(具思孟)의『조망록(弔亡錄)』, 인조 때의 학자 신경(申炅)이 쓴『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등에도 윤흥신의 순절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래부사를 지낸 강필리(姜必履)가 1766년(영조 42)에 지은『윤공사절기(尹公死節記)』에도 이전의 윤흥신 관련 기록을 인용하면서 그의 전공을 적고 있다. 이러한 여러 기록에도 불구하고 윤흥신의 죽음은 조엄(趙曮)이 1757년(영조 33)에 동래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윤흥신의 전공은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이나 부산진 첨사 정발(鄭撥)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절 사실은 덜 알려졌던 것이다. 이에 조엄은 윤흥신의 사적(史蹟)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엄은 1763년(영조 39) 통신사로 일본에 갈 때 수행원으로 함께 간 이해문(李海文)에게 윤흥신의 사적을 전해 주었다.

이해문은 1766년에 다대진 첨사로 부임하였다. 이해문(李海文)은 윤흥신과 다대포 군민들의 영령을 모시기 위해 다대포성 내(지금의 다대초등학교)에 윤공단(尹公壇)을 세우고 해마다 음력 4월 15일에 제사를 올렸다. 이후 이해문은 순절비(殉節碑)를 세우지 못한 채 다대포를 떠났다. 한편, 조엄의 아들 조진관(趙鎭寬)은 윤흥신 첨사 순절비에 관한 뜻을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 전해 들었다. 조진관은 벼슬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지만, 부친의 유지를 실천하지 못하였다. 조진관의 아들 조인영은 헌종 때 영의정이 되었고, 조부 조엄과 부친 조진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조진관이 지은 순절비 비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동래부사 홍종응(洪鐘應)에게 부탁하여 1841년(헌종 7)에 비로소 윤공단에 순절비를 세웠다.



윤공단

윤공단은 1972년 6월 26일 지방문화재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다대동 1234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공사중) 입구에 있다. 원래 다대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것을 1970년 12월 5일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비석 앞면에는 '첨사 윤공 흥신순절비'가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는 윤흥신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제향은 음력 4월 14일에 거행된다.

(2) 한광국(韓光國)

한광국은 영조 때 활동한 다대포 사람이다. 현재 사하구 다대동에는 한광국의 공덕을 기리는 2개의 불망비(不忘碑)가 있다. 하나는 1861년(철종 12)에 다대포 사람들이 세운 '진리 한광국구폐불망비(鎭吏韓光國捄弊不忘碑)'이고, 다른 하나는 1908년(순종 2)에 전국 갯마을 사람들이 모금하여 세운 '절충한광국구폐불망비(折衝韓光國捄弊不忘碑)'이다. 다대문화연구회 한건 회장의 저서『다대포 역사 이야기』(다대문화연구회, 2011)에는 이 두 비석이 세워진 연유와 비석의 주인공 한광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광국은 청주 한씨 24대 문열공파 집안에서 태어났다. 족보에 기록된 이름은 인범(仁範)이었다. 그의 기일(忌日)은 족보에 음력 3월 3일로 되어 있지만, 태어나고 죽은 연대에 대한 기록은 알 수 없다. 그의 부인은 1748년(영조 24)생이고, 큰 아들 창록은 1766년(영조 42)생이다. 두 불망비에 기록된 그의 사회 활동 시기가 영조 39년인 점으로 본다면 그는 1735년(영조 10)에서 1745년(영조 20)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절충 한광국 구폐불망비


진리 한광국 구폐불망비

한광국은 과거를 보지 않은 백운거사로 특히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중앙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지방 관리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로 재직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그가 죽은 지 60여 년이 지난후 다대포 주민들이 세운 불망비에 '진리(鎭吏)한광국'으로 되

어 있는 것에서 지방 관리였음을 알 수 있다.

한광국의 다대포 주변 일가 친척들은 대부분 어부로서 물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어부들은 수영의 수군과 함께 일곱 가지의 천한 직업[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신분이었다. 일곱 가지 천한 직업은 '관청에서 허드레 일을 하는 하급노비, 형을 집행하는 하급병사, 지방관청에서 잔일을 하는 하급노비, 봉수대에서 불을 지키는 병사, 각 역에서 말을 관리하는 하인, 정부 수송선의 선원, 그리고 수군과 물 일하는 사람'이었다.

물 일에 종사하는 어부들은 새해가 되면 새벽에 고을 사또에게 망배(望拜)하러 가기 위해 섣달그믐에 조상들에게 제사지내는 신정다례를 행하였다. 이에 한광국은 수차례 한양에 올라가 섣달그믐 신정다례와 정초 새벽에 고을 사또에게 망배하는 폐단을 혁파해 달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마침내 1763년(영조 39) 8월에 다대진에서부터 폐습을 혁파하고 물 일하는 사람을 면천시킨다는 윤허를 받아냈다. 또한 섣달그믐 신정다례도 전국적으로 모두 혁파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감격한 물 일하는 사람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는 불망비를 사후 100년에 걸쳐 두 차례나 세웠던 것이다.

'진리한광국구폐불망비'는 다대포 윤공단 입구 근처 옛 제실 자리에 모아놓은 송덕비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는 지금의 다대 현대아파트 입구 맞은편 산언덕 사태골에 자리한 한광국의 묘 앞 언덕에 세워져 있었다. '절충한광국구폐불망비'는 한광국의 묘 앞 다대포 도로 옆에 비각과 함께 만들어 세운 것이다. 지금은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자리를 옮겨 다대포 윤공단 입구 길 건너 원불교 다대교당 뒤 공터에 세워져 있다.

이와 같이 100여 년에 걸쳐 두 차례나 구폐불망비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의 공덕이 얼마나 큰 지 잘 보여준다. 조선시대는 반상(班常)의 법도가 하늘과 땅처럼 구분된 신분제 사회였다. 이러한 신분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문제에 대해 목숨을 걸고 반기를 든 사람이 한광국이었다. 어민을 상민으로 복권시키고 섣달그믐 신정다례를 폐지하도록 한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권운동가로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부산시와 사하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이름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 그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박기종(朴琪琮)

박기종은 1839년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이다. 그는 개항 전인 1869년부터 1871년까지 당시 동래부 소통사(小通事)로 활동하였다. 1869년에 거제도

옥포를 담당하는 옥포통사의 임무를 맡았다. 소통사는 일본어 역관인 훈도·별차를 보조하면서, 왜관의 각종 실무에 종사한 동래부의 하급 통역관이었다. 그는 개항 후에도 대외사절단 통역으로 활동하였다. 1876년 5월 김기수 수신사 일행이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통사 4명에 포함되어 처음 일본을 방문하였다. 1880년 6월 김홍집 수신사 때도 통사로 따라 갔다.



외부참서관 시절의 박기종

1880년 이후에 관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1880년 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과 1883년 용양위호군 경희궁위장(慶熙宮衛將) 등 주로 무관직의 벼슬에 올랐다. 1886년 10월 부산항 경찰관(警察官)으로 재직하였다. 부산항 경찰관으로 재직할 때인 1889년 기선(汽船)회사를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운항을 개시하였다. 소형 기선 1척과 여러 척의 판선(板船)으로 구포, 삼랑진 등을 왕래하면서 영업하였다. 그러나 1891년 11월 낙동강 하구에서 배가 침몰하여 선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는 1893년 일본인 회사와 협동계약을 맺고 영업권을 넘기면서 기선회사에서 손을 떼었다.

박기종은 1893년 4월에 다대포진 첨사 겸 동래감목관(監牧官)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894년 2월까지 다대포진 첨사로 근무하였다. 다대포진 첨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부산항의 어세(漁稅)를 책임지는 부산항 사검관(査檢官)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1894년 부산항 경무관, 절영도 첨사로 재임하였다. 부산항 경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객주를 비롯한 토착상인의 조직화와 영업세를 거둘 목적으로 부산상무소(釜山商務所)를 설치했다. 박기종은 절영도진이 폐진(廢鎭)됨으로써 절영도진에서 근무한 마지막 첨사로 남았다. 그는 1886년부터 1898년까지 약 13년 동안 출생지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개항장의 치안과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박기종은 1895년 5월 이내옥, 배문화, 변한경, 이명서와 함께 부산 최초의 신식학교 개

성학교(開成學校)를 설립하였다. 1896년 3월 영주동 교사에서 100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시작하여 1898년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였다. 그의 넷째 사위로서 근대 부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청운 윤상은(尹相殷)도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현재 개성학교의 맥은 개성고등학교(옛 부상상업고등학교)와 개성중학교, 봉래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후 박기종은 1898년 외부참서관(外部參書官)에 임명되었고, 1900년 중추원의관을 거쳐 1905년 판리공사(辦理公使)에 이르렀다. 외부참서관 시절부터 철도건설에 주력하였다. 박기종은 1897년에 부산항과 사하의 하단포를 연결하는 약 6km의 경편(輕便)철도 부설사업을 신청하였다. 하단포는 구포와 함께 낙동강 수운을 이용한 화물의 집합지였으나 하단포 부근은 매년 많은 배가 침몰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부산항에서 하단포까지 연결하는 철도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었다.

박기종은 1898년 6월에 부하(釜下)철도회사 설립을 인가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철도회사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선의 중간에 위치한 대티고개는 공사의 큰 난관이었다. 여러 번 측량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부족과 경부선 부설계획 결정 등의 이유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 외에도 박기종은 1899년 3월 경에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를 설립하여 경성-원산-경흥을 연결하는 경원선과 함경선 부설권을 획득하였고, 7월에는 경의철도부설권도 획득하였다. 1902년 6월에는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삼마철도 부설을 계획하고 영남지선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철도부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일본의 철도부설권 탈취 책동 등에 가로 막혀 그의 철도부설의 꿈은 내달리지 못하고 말았다. 박기종은 190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외부참서관에 임명되기 직전부터 재임중 한말 외교관계의 중요 사항을 일기체로 기록한『상경일기(上京日記)』와『도총(都總)』을 남겼다. 부산항 경찰관과 다대포진 첨사 및 절영도진 첨사직 수행과 관련된 유물로「행경찰관박공기종영세불망비(行警察官朴公琪淙永世不忘碑)」와「행첨사박공기종영세송덕비(行僉使朴公琪淙永世頌德碑)」가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 현재 부산박물관 경내에 세워져 있다.

동구 좌천동의 정공단에 남아 있다. 1906년에 대일 외교 업무에 종사했던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중심이 되어 동구 초량의 산기슭에 세운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가 현재 부산박물관 뜰에 옮겨져 있다.

2) 사하를 빛낸 정치 · 사회 인물

(1) 양한나(梁漢拿)

양한나는 1892년 부산 동구에서 양덕유(梁德有)와 한영신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본래 이름은 귀념(貴念)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부산에서는 비교적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인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연합회장과 경남여전도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여성 지도자였다. 이러한 집안 환경에서 자란 양한나는 근대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사회활동에도 적극 나서게 되었다. 미군정기 초대 한국인 부산시장을 지낸 양성봉이 양한나의 동생이다. 제8대와 9대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회장을 지낸 양봉옥 역시 양한나의 친동생이다.



노년의 양한나

양한나는 1913년 3월에 좌천동에 있던 부산진일신여학교(현재 동래여고)를 제1회로 졸업하였다. 졸업후 마산 의신(義信)학교 교사로 1917년까지 재직하였다. 의신학교는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설립한 근대적인 여성 교육기관으로 반일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학교였다. 이후 일본 요코하마[橫濱] 신학교에 진학하였다. 유학을 마친 후 1919년 3·1운동 즈음 중국으로 건너갔다.

양한나는 중국에서 초기 임시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던 도산 안창호와 만나게 된다. 여성의 자각과 독립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하였던 안창호와의 만남은 양한나를 곧은 길로 가도록 이끈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 안창호는 한라산 같은 굳

은 의지를 지닌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다. 양한나는 안창호의 강한 영향 아래 수년 동안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1922년 임시정부의 연통제가 와해된 후 임시정부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YWCA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운동에 몰두하면서 유아교육에도 관심을 두었다. 부산여자청년회를 설립하여 야학을 운영하고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데 앞장섰다. 1923년에는 모교인 동래 일신여학교의 기독교청년회 총무 일과 서울의 YWCA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유치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약 2년여 동안 이화여전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26년에 호주 유학을 떠났는데, 조선 여자로서는 처음이라고 당시 언론은 소개하였다. 귀국 후 1928년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하기수양단을 조직하였다. 양한나는 줄곧 기독교 민족주의 계열에서 여성계몽사업에 주력하였다.



1960년대 초 자매여숙

양한나는 1928년 호주의 선교재단이 통영에 설립한 진명학교에 부설 진명유치원 설립하여 1935년까지 운영하였다. 부산 초량에 삼일유치원을 설립하였고 김해 진영에도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여러 곳에 설립한 유치원의 운영 경험은 고아와 불우한 여성을 돌보기 위해 노년에 설립한 자매여숙 운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양한나는 1936년 45세의 늦은 나이로 결혼하였다. 남편은 서양화가 나혜석의 전 남편 김우영(金雨英)이었다. 김우

영은 의열단의 폭탄 국내 반입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중추원 참의와 충남 산업부장을 지낸 친일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7년 만에 사별하였다.

양한나는 해방 후 여성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하였다. 1946년에 여자경찰서가 창설되었을 때 양한나는 초대 서울여자경찰서 서장에 취임하여 공창폐지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취조로 인한 인권 침해와 수도청장 장택상과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직위 해제되었다. 이후 부산으로 와서 정착하면서 1946년 7월 1일 부산 YWCA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맡았다. 부산애국부인회장을 역임하며 여성운동과 사회사업에 집중하였다. 1946년 무렵 서구 아미동 2가에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모아 돌보았다. 이것이 후일 부산 최초의 사회복지단체인 자매여숙(姉妹女塾)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양한나는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시 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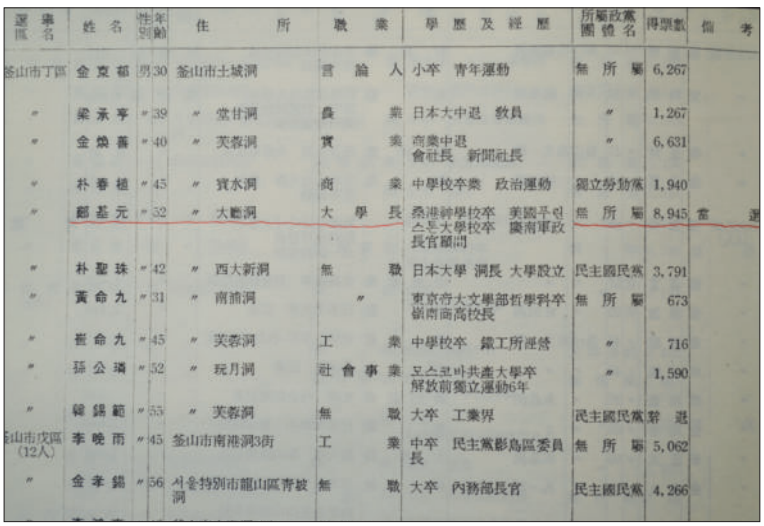
양한나는 해방 후 아미동에서 고아들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1952년에는 정식으로 최초의 사회복지단체인 자매여숙을 설립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사하구 괴정동 428번지로 이전하였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양안나는 늘 동분서주했다. 양한나의 헌신적 노력으로 자매여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아갔다. 자매여숙은 1960년대 초 사하구 괴정동 245번지 지금의 자매여숙 정신요양원 자리로 이전하였다. 양한나는 이후 고아원을 정리하고 정신 이상 여성들의 재활을 돕는 사업에 집중하였다.

양한나는 1976년에 작고하였다. 그의 유업은 사회복지법인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한나는 1963년에 대통령표창, 1964년 장한 어머니상, 1967년 9월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4회 용신봉사상(심훈의 소설 「상록수」 주인공 최용신의 이름을 딴 상)을 수상하였다. 1976년 5월에 병상(病床)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 언론에서 조명한 것처럼 양한나의 사회사업과 봉사 활동은 '항도 부산을 밝힌 사랑의 등불'로 끝없이 우리를 비춰 줄 것이다.

(2) 정기원(鄭基元)

정기원(鄭基元)은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산 사하구와 서구 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이다. 동아대학교의 전신인 남조선대학의 초대 학장을 지낸 교육가이자 사하를 대표한 정치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정기원은 1899년 3월 16일 황해도 은율군 남부면 석천리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이다. 평안북도 선천 신성중학교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選擧區名	姓名	性別	年齡	住所	職業	學歷及經歷	所屬政黨團體名	得票數	備考
釜山市丁區	金東都	男	30	釜山市土城洞	言論人	小卒 青年運動	無所屬	6,267	
〃	梁承亨	〃	39	〃 堂甘洞	農業	日本大中退 敎員	〃	1,267	
〃	金煥善	〃	40	〃 芙蓉洞	實業	商業中退 會社長 新聞社長	〃	6,631	
〃	朴春植	〃	45	〃 寶水洞	商業	中學校卒業 政治運動	獨立勞動黨	1,940	
〃	鄭基元	〃	52	〃 大廳洞	大學長	桑港神學校卒 美國프린스톤大學校卒 慶南軍政長官顧問	無所屬	8,945	當選
〃	朴聖珠	〃	42	〃 西大新洞	無職	日本大學 洞長 大學設立	民主國民黨	3,791	
〃	黃命九	〃	31	〃 南浦洞	〃	東京帝大文學部哲學科卒 嶺南商高校長	無所屬	673	
〃	崔命九	〃	45	〃 芙蓉洞	工業	中學校卒 鐵工所經營	〃	716	
〃	孫公瑞	〃	52	〃 玩月洞	社會事業	모스코바共產大學卒 解放前獨立運動6年	〃	1,590	
〃	韓錫範	〃	55	〃 芙蓉洞	無職	大卒 工業界	民主國民黨	新進	
釜山市戊區(12人)	李晩雨	〃	45	釜山市南港洞3街	工業	中卒 民主黨影島區委員長	無所屬	5,062	
〃	金孝錫	〃	56	서울特別市龍山區靑坡洞	無職	大卒 內務部長官	民主國民黨	4,266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기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였다. 이어 프린스턴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양도서관 부관장직을 수행하였다. 미국에 유학하며 공부할 때 유학생들의 친목과 권리 증진을 위해 결성된 재미학생회의 회장을 맡았다. 또한 미국방부 극동정보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일항전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1944년에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주미외교위원부 협찬부를 조직하였을 때 여기에 참여하여 외교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45년 8월 해방 후 11월에 귀국하여 부산에 정착하며 경남군정장관 고문을 지냈다. 그가 미군정에 몸을 담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미국에 거주하면서 익힌 유창한 영어 실력과 철학 박사학위, 그리고 미국무성 정보부에 근무하며 터득한 정세 통찰 능력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46년 9월 경남과 부산의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남조선대학이 설립되었다. 남조선대학은 지금의 동아대학교 전신으로, 전문부와 법문화부를 설치하고 개학하였다. 정기원은 이 학교의 초대 학장을 맡아 교육자로서 수완을 발휘하였다.

정기원은 정치에도 뜻을 두어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 사하구와 서구를 포함하는 부산시 병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것이다. 그는 부산 사하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1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수개월을 분과 위원회에서 거듭 검토해오던 '부산특별시 승격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부산특별시 승격안'은 1952년 4월 국회에서 85대 39표로 반대표가 더 많아 보류되었다. 당시 그는 부산특별시 승격안이 '부산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산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좁은 지역구만이 아니라 더 넓고 큰 대한민국과 부산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내비치며 아쉬워하였다. 이 무렵 그는 큰 뜻을 품고 1952년에 직접 선거로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

부통령으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정기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1952년 4월에 다시 개원한 신문학원(新聞學院)의 원장을 맡는 등 언론계에도 몸담았다. 신문학원은 전란으로 휴교 상태에 있다가 영도구 남항동 2가 279번지 영도 종점 부산무선기술학교에서 야간 6개월 과정으로 개설되었다. 그는 이 신문학원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도 큰 힘을 보탰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포로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1953년에 국회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에게 '쌍방의 부상당한 포로 수의 차이, 납치 민간인의 송환여부, 정부의 조치'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그는 1954년 3월 부산 출신 국회의원 김지태(金智泰)와 함께 부산특별시 승격안을 다시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는 '국제무역항인 부산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직할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표결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정기원은 제2대 국회 때의 활발한 국회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1954년 5월 20일의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병구에 출마하였다. 이때는 당시 여당 역할을 하던 자유당의 경남도당위원장으로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는 국회 외교위원장을 맡아 특히 대미외교 관련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1955년 6월 28일 국회 제69차 본회의에서 '경제부흥 및 군사력 증강을 위한 원조요청 결의안'을 미국 정부에 보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정기원은 1955년 12월에 미군 물자 불하교섭을 둘러싸고 거액의 돈을 횡령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소당했다. 검찰에서 횡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기소되지 않았으나, 그의 정치 활동 경력에 남겨진 작은 오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1958년 자유당 서울 동대문구당위원장으로서 동대문 을구에 자유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 이어 4·19혁명 후 치러진 1960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으나 역시 낙선하였다.

정기원은 1963년 3월에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1964년 1월 15일에 발족한 국토통일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토통일협의회는 민족자주정신 함양과 초당적 민간외교 강화, 외래품 및 퇴폐 외국풍조 배격 등을 구호로 내건 순수 민간인단체였다.

이후 정기원은 정치와 사회 활동에서 벗어나 197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미국 뉴욕순복음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였다. 1986년 6월 17일 뉴욕의 병원에서 노환으로 운명하였다.

(3) 정재환(鄭在煥)


정재환의 동상.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에 세워져 있다.

정재환(鄭在煥)은 1906년 12월 16일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석당(石堂)이다. 정재환은 서울에서 경성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일본의 쿄토[京都]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영법과(英法科)를 졸업하고 동대학 연구과(研究科)를 수료하였다. 1940년에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일제시기에 부산지방법원검사를 지냈고, 미군정기에는 부산지방법원 검찰청 차장검사, 정부수립 후 전주와 대전, 대구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1952년 5월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정재환은 1947년 12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재단법인 동아학숙을 발족하고 동아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개교 당시 규모는 법학부의 법률학과와 문리학부의 문학과, 정치경제학과, 수학과, 물리학과의 2학부 5학과였다. 그는 대학 개교와 함께 동아학숙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53년에 동아대학 학장에 취임한 후 1954년 2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났다. 1954년의 한 언론은 그가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차관직을 사임한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는 언론에 남해 지역 출마 예상자로 보도되었으나 이 선거에 입후보 하지 않았다. 이후 1957년 7월에 정부가 위촉한 제9회 고등고시 행정과위원직을 맡긴 했으나, 그는 생활의 방편으로 부산기선주식회사 회장의 직위만 유지한 채 교육에 전력을 기울였다.

정재환은 교육에 몰두하며 동아대학의 본관과 기숙사, 제2관, 제3관, 제5관,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과학관, 박물관을 연이어 준공하며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드디어 1959년 2월에 동아대학이 4개 대학 16개 학과를 갖춘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자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으면서 쌓은 경력과 본인의 능력

을 발휘하여 동아대학교가 법학 분야의 명문으로 자리매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총장으로 재임할 시기에 동아대학교는 지방의 명문 사학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는 1975년 6월에 장남 정수봉(鄭樹鳳) 부총장에게 총장직을 물려주고 명예총장에 취임하였다.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석당도서관

정재환은 사립 대학 수장으로서 그가 지닌 교육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상남도 선거위원회 7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위촉되어 선거 진행을 관리 감독하였다. 1963년에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1958년 동래 온천동에 있던 후생원(厚生園)의 일부를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이은(李垠)의 약혼녀 민갑완(閔甲完)에게 기부하여 그녀가 육영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사회 활동이 인정받아서인지 정재환은 1962년 12월 사회교화(社會敎化) 분야에서 제1회 경남문화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 12월에는 국민교육헌장선포 제2주년을 기념하여 정부가 수여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이처럼 법조계와 교육계에 남긴 그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동아학숙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학교 경영과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당시 동아학숙 재단은 동아대학을 비롯하여 병설 초급실업대학, 동아고등학교, 동아실업고등학교, 동아중학교, 동아제2중학

교 등을 거느린 '매머드' 사학을 형성하고 있었다. 1968년 10월의 한 신문 언론은 동아학숙재단이 대학 졸업장을 남발하고, 학교 납입금을 교육시설에 재투자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로 거부가 된 사학재벌(私學財閥)의 상징이라고 지적하였다. 중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다양한 사학 운영 재원을 부동산투자로 얻어진 막대한 수익으로 뒷받침한다는 비판이었다.

정재환은 1976년 11월 30일에 다대포 자택에서 숙환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묘소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다. 동아대학교는 정재환의 업적을 기려 1977년 11월에 구덕캠퍼스 석당도서관 앞에 동상을 건립하였다. 석당도서관과 석당학술원, 석당홀 등도 그의 호를 딴 것으로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3) 사하가 품은 학자와 예술가

(1) 강용권(康龍權)

강용권은 일제시기인 1920년대 중반에 평양에서 태어났다. 호는 청천(靑泉)이다. 그는 6·25전쟁 때 월남하여 부산에 정착하였다. 1959년부터 동아대학교에서 40여 년 동안 후진을 가르쳤다. 그는 한 평생을 민속학 연구의 한 길로 걸어간 학자였다.

강용권은 1960년 부산의 첫 무형문화재인 수영들놀음을 발굴했다. 1971년 경남 사천의 가산오광대, 1972년 밀양백중놀이 등 부산 경남의 민속문화 발굴사에서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사천오광대는 경남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행해오던 민속 탈춤놀이였다. 그러나 그 명맥이 끊겼다가 1960년대 중반에 강용권 교수에 의해 재연되었고, 1971년에 재발굴되어 무형문화재 73호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가산오광대는 1977년에 제9회 경상남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민속문화 연구와 발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매향비(埋香碑) 발굴이다. 1971년 경남 사천군 곤양면 홍사리에서 매향비를 발굴해 보물 제614호로 지정케 했다. 경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92년에는 삼천포 매향비를 발굴해 세상에 그 가치를 부각시켰다. 매향이란 주로 사찰에서 향목(주로 참나무)을 강가나 바닷가에 묻는 신앙적 민속행사를 말한다. 매향비란 향을 묻은 자리에 기념으로 세운 비로 그 시대의 민속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천의 매향비에는 국운이 기운 고려 왕조를 걱정하는 민중들의 뜻이 담겨져 있어 당시의 풍습과 고려 말의 석각문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강용권은 이러한 현장 발굴을 토대로『한국 민속문화 연구』,『한국 민속극 연구』,『향토의

민속문화』 등 12권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채 정립되지 못했던 민속학에 대한 이론적 토양을 제공했다. 그는 1970년 11월 20일 유네스코 회관에서 개최된 문화인류학 대회에서 「꼭두각시 인형극본 고찰」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한국문화인류학의 조사 방법을 반성하고 전통문화 발굴의 새로운 자세 확립을 촉구하는 흐름에 동참하였다. 그는 1976년 한일공동민속조사단 8명 중 1명으로 참가하여 활동하였으며, 민속학 전국대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민속 조사의 새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그는 1982년에 향토축제를 계승 발전시켜 전통문화의 창달과 한국문화의 개성 확립을 목적으로 발족한 향토축제협의회에도 참여하였다. 향토축제협의회는 향토 축제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실행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였다. 그는 향토축제협의회의 경남지역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동아대 인문대학장으로 선출되어 인문학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가산오광대

강용권은 경상남도와 부산시 문화재 전문위원은 물론 문공부 문화재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1974년 부산향토문화상, 1983년 서울신문사 제정 향토문화 본상, 1987년 제30회 부산시 문화상 등을 받았다. 1987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다.

강용권은 2004년 10월 26일 오전 10시 노환으로 생을 마감했다. 김해공원묘원에 안장되었다. 부산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였던 증곡(曾谷) 천재동(千在東)은 강용권을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지 않을뿐더러 과장도 않는 위인'으로 회고하였다. 이처럼 그는 소박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주변 지인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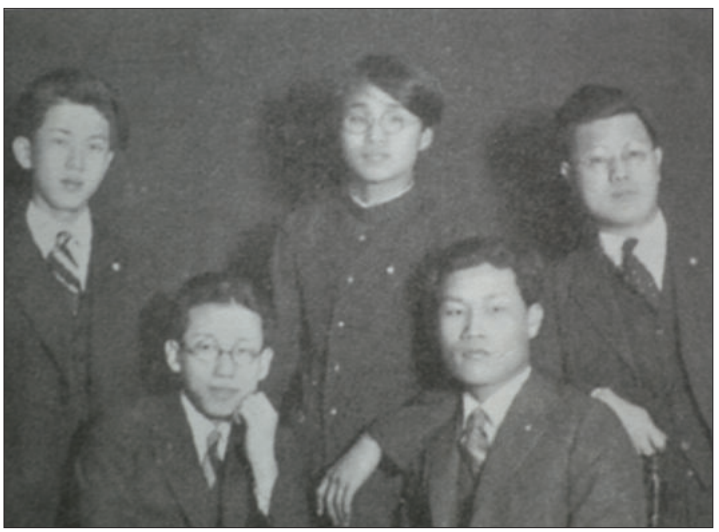
(2) 손진태(孫晋泰)

손진태는 한국 민속학의 개척자이자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 사관(史觀)을 제창한 역사학자이다. 그는 일제시기에 한국 민속학이라는 텃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도록 가꾼 사

람이다. 해방 후에는 신민족주의 사관을 제창하여 민족 내부의 균등과 단결, 그리고 그것에 토대를 둔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러한 역사인식과 활동을 배경으로 한국 민속학과 역사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손진태는 1900년 12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구 경남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에서 손수인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선대는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에서 줄곧 살았다. 그의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손진태는 사하구 하단에서 태어나 유아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다섯 살 때는 해일이 마을을 덮쳐 집이 유실되고 어머니마저 여의게 되었다. 고아가 되어 버린 손진태는 할머니를 따라 부산시 북구 구포로 옮겨가 살았다. 당시 구포는 행정구역으로는 양산군에 속했는데, 옛 이름은 남창(南倉)리로 불렸다. 남창이라는 이름은 낙동강 가에 세곡을 보관하는 창고인 남창(南倉)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구포 사람들은 남창(南倉)이라는 한자 대신에 남창(南滄)이라고 바꾸어 사용하였다. 손진태의 호인 남창(南滄)은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낸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손진태는 아홉 살 때 사립 구명학교(현 구포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신교육을 받고 열두 살에 졸업하였다. 사립 구명학교(龜明學校)는 1907년에 윤상은, 안희제, 장우석 등 부산을 대표하는 선각자들이 설립한 근대 교육기관이다. 손진태의 할머니는 구포 장터에서 영세 미곡상으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손자의 재주가 비상하다는 것을 알고 서울에 유학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 형편 탓으로 학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무렵 손진태는 불과 10여 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까지 가서 잡화상을 하는 등 학비 마련을 위해 여러 해를 허비하였다.



1926년 4월 '색동회' 회원들과 함께(뒷줄 오른쪽이 손진태)

손진태는 마침내 1912년 서울로 유학하여 중동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중학 2학년 때 한국사 편저를 계획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소

년 손진태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았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구포 장터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때 피검되어 징역 4개월을 언도받고,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중동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다. 1924년 3월 와세다[早稻田] 제1고등학원을 졸업하고, 그 해에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1927년 졸업하였다. 와세다대학 재학 시절 손진태는 인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지도교수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와 일본 문화사학의 주도자 쓰다 소우기치[津田左右吉]를 만나 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류학과 민속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25년부터 동양문고를 드나들던 그는 1930년 동양문고의 사서로 근무하였으며, 동양학의 대가이자 만선사관(滿鮮史觀)을 주장해 온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같은 학자를 만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그는 동경에서 방정환, 정인섭, 마해송 등과 함께 어린이 문화운동과 인권운동을 목적으로 '색동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손진태는 1932년 송석하(宋錫夏), 정인섭(鄭寅燮)과 더불어 조선민속학회(朝鮮民俗學會)를 창설하고, 193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회지인 『조선민속(朝鮮民俗)』을 창간하여 제2호(1934년)와 제3호(1940년)까지 발간하였다. 그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 수차례에 걸쳐 경남 해안 일대와 경북, 경기 강화, 서울, 황해도, 평안도 일대의 현지조사를 통해 설화와 무가(巫歌) 등 민속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1932년 연영화 여사와 결혼한 그는 1933년 장남을 보았다. 1934년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의 전신)에 출강하여 동양문화사를 강의하였다. 또한 1934년 9월 보성전문학교가 안암동으로 옮겨가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며 문명사를 강의하였다. 이때 그는 이병도, 조윤제 등과 함께 진단학회(震檀學會)를 창립하였다. 1937년에는 문명사를 강의하는 전임강사가 되었고, 도서관장을 맡았으며, 1939년에는 교수로 승진하였다. 당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이가 해방 후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게 되는 안호상 박사였으며, 조윤제와 이인영에게 연구실을 제공하며 동산학파를 형성하였다.

보성전문의 교수이자 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던 중 손진태는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듬해에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국사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국사교재를 활발하게 출판하였으며, 구상하고 있던 이른바 신민족주의 사관을 여러 저술을 통해 새롭게 제창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문교부 차관 겸 편수국장이 되어 교육 관료로 활동하였다. 한편 손진태는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낼 때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문리과대학장 재직중에 6·25가 발발하였고 삼각산에 은신하고 있던 중 납북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에서의 학문 활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26년 4월 보성전문학교 시절 학생들과 함께(뒷줄 오른쪽이 손진태)

손진태는 온돌, 민간설화, 원시신앙 등에 대한 민속학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였는데 그의 민속학적 주요 저작에는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1930),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1930), 『조선민족설화의 연구』(1947), 『조선민족문화의 연구』(1948)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신민족주의사관(新民族主義史觀)에 입각해서 저술한 『조선민족사개론(朝鮮民族史槪論)』과 『국사대요(國史大要)』를 남겼다.

(3) 오태균(吳泰均)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은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곳이었다. 클래식 전문 카페였던 '강변'에는 음악가 곽근수, 화가 김종식, 신창호, 문인 신진, 양왕용, 연극연출가 설령, 사진작가 허종배 등의 예술인들로 넘쳐났다. 음악가 오태균도 이 에덴공원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다. 1986년 음악 카페 '강변'은 야외음악당 '솔바람' 간판을 달고 에덴공원 꼭대기로 밀려났다. 이곳 에덴공원 '솔바람' 음악당 옆에 오태균의 음악비가 서 있다. 그가 작고한 뒤 부산음악협회가 주축이 되어 부산 음악계에 남긴 큰 업적



에덴공원의 오태균 음악비

을 기리기 위해 2001년 6월 30일에 제막한 추모비이다. 오태균은 부산 음악 1세대이며 부산 교향악 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는 휴머니즘으로 인간과 음악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오태균은 1922년 4월 27일 충청남도 조치원에서 오영세와 이신덕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특별한 음악적 환경을 갖추지 못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였고 노래를 잘하였다. 소학교 4학년 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듣고 서양음악에 심취하였다. 음악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무렵 용돈을 모아 바이올린을 구입하여 독학하였다. 이후 영어 선생님의 지도하에 바이올린의 기본을 익혔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옮겨왔다. 1935년에 부산제2상업학교에 진학하여 야구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졸업 후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귀국해야 했다. 1943년 8월 진주 사람 강찬숙과 혼인하여 대전에 거주하였다.

1947년 외가가 있는 서울로 이사하였다. 서울에서 당시 우리나라 바이올린계의 1인자였던 계정식 박사의 지도하에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웠다. 1년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국립서울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주자가 되었다. 1948년 11월 대전 공회당에서 첫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그는 해방 전에 이루지 못하여 간절히 바라왔던 동경 유학의 꿈을 1951년에 이루었다. 일본 동경국제음악학교에 입학하여 바로크, 고전, 낭만의 주요 레퍼토리를 습득하였다. 1954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부산에서 정착하였다. 이후 음악가로서 눈부신 음악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태균은 1953년 9월 관현악단인 '부산실내악단'으로 현악4중주단을 창단하였다. 1955년 5월에는 부산 공회당에서 제2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다. 1957년에는 부산대교향악단을 모체로 하여 2관 편성의 50여 명으로 출발한 순수한 민간단체 부산교향악단을 창단하였다. 부산 교향악 역사의 첫 출발이었다.

그가 지휘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창단, 초대 상임 지휘자에 취임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는 동호회로서 그치던 관현악단을 부산시의 부산시립교향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1962년 11월 정식 창단하는데 기여하였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시립으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이어 두 번째로 창단되었다. 1971년 상임지휘자에서 사임할 때까지 약 10년간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었다. 교향악단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자들의 연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졌다.

1973년에는 부산여대 관현악단을 창단하여 1992년까지 지휘하였다. 그의 지휘는 강직하면서 꼼꼼하고 견실한 연주로 세부까지 세심한 배려로 곱게 다듬어 가는 지휘자로 알려져 있다. 1989년 10월 부산시 직업음악인으로 구성된 '부산 까메라타 앙상블'을 창단하여 부산의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동아대, 부산여대 등에서 교편을 잡아 후진 교육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었다. 말년에는 민간교향악 창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오태균은 이후 오랜 활동으로 인한 과로 누적과 지병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했다. 1995년 4월 29일에 삶을 마감하였다. 그는 1958년에 경남도지사로부터 문화공로상을 수상하였고, 1962년에는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에 내무부장관의 문화공로상, 1982년 대한민국사회교육문화상, 1987년에 문교부장관의 문화공로상, 1990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상을 수상하였다.

오태균은 부산 교향악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 그는 음악의 불모지 부산에 음악의 씨를 뿌린 부산 음악의 개척자이다. 나아가서는 한국 음악 발전에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음악계의 큰 산'으로 기억될 것이다.

(4) 유치환(柳致環)

>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야 흔드는/영원(永遠)한 노스탈쟈의 손수건/순정(純情)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標) 대 끝에/애수(哀愁)는 백로(白鷺)처럼 날개를 펴다/아아 누구던가/이렇게 슬프고도 애닮은 마음을/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깃발」

사하구 하단동 에덴공원 '솔바람' 음악당 앞에는 '청마 유치환 시비'가 서 있다. 1967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를 기려 많은 문인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그의 7주기인 1974년 2월에 세운 것이다. 화강석으로 된 4단의 기단 위 오른쪽에 적석(積石) 기둥을 세우고, 왼쪽엔 높이 54cm, 너비 1m 45cm의 오석판을 끼웠다. 오른쪽 기둥에는 '청마 유치환 시비', 왼쪽 비면에는 향파(向破) 이주홍(李周洪) 선생의 글씨로 「깃발」 전

문을 새겼다.



에덴공원의 청마 유치환 시비

유치환은 1908년 7월 14일 경남 거제군 둔덕면 방하리에서 한의사였던 아버지 유준수와 어머니 박우수의 5남 3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진주이고, 호는 청마(靑馬)이다. 극작가 동랑(東朗) 유치진(柳致眞)이 그의 형이다. 11세까지 외가에서 한문을 배웠다. 1922년에 통영보통학교를 마치고 일본 도요야마[豊山]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4학년 때 귀국하였다. 1926년에 동래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퇴하였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청마는 별다른 활동 없이 사진 기술을 익혔다.

청마는 1929년에 귀국하여 경성 중앙보육학교 출신으로 그와 통영보통학교를 같이 다녔던 권재순과 결혼하였다. 청마는 2남 3녀를 두었다. 결혼 후 아버지가 경영하던 약국 2층에 사진관을 차렸으나 방탕한 생활이 이어졌다. 1932년 평양으로 거처를 옮겨 사진관을 경영했으나 여의치 않자 1934년 부산의 초량으로 이주하여 화신백화점 연쇄점 사진부에 취직하였다. 1년간 근무한 후 1937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가

되었다.

청마는 정지용(鄭芝溶)의 시에 감동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1931년 『문예월간』지에 시 「정적」을 발표함으로써 시단에 데뷔하였다. 1939년에 첫 시집 『청마시초』를 발간하였다. 여기에 초기의 대표작인 「깃발」, 「그리움」, 「일월」 등 55편이 수록되었다. 청마의 주변에는 아나키스트들이 많았다.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었다. 1940년 통영협성고등학교 교사를 사임하고 가족을 거느리고 형 유치진의 처가가 있던 만주 빈강성 연수현으로 이주하였다. 여기서 청마는 농장과 정미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청마는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 말에 귀국하였다. 1945년 10월에 통영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계속 시를 썼다. 여기서 청마는 윤이상, 김춘수 등과 같이 통영문화협회를 조직하여 공연과 예술 활동, 야간공민학교 개설과 같은 사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8년 경남 안의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했으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옮겨와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를 조직하고 종군작가단에 자원하였다.

1953년 휴전 후 안의중학교 교장을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전임강사, 경주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장 등 여러 학교를 거쳤다. 1963년 부산의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후 삶을 마감할 때까지 5년간을 부산에서 살았다. 이때 청마는 부산예총회장, 부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부산문단의 장래와 화합에 힘썼다.

1965년 부산 남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총 부산지부 회의를 마치고 수정동 집으로 가던 중 좌천동 봉생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운명하였다. 1967년 2월 13일, 향년 60세였다. 그는 사하구 하단의 승학산 산록에 묻혔다. 청마의 묘는 동아대학교가 대신동에서 하단동으로 이전할 때 기장군 정관면의 대정공원묘지로그림 5-19. 청마의 무덤 옮겨졌다. 1997년에 다시 고향으로 옮겨져 현재 거제군 둔덕면 방하리 산록에 잠들어 있다.

청마는 한국청년문학가협회 제1회 시인상(1947), 서울특별시 문화상(1950), 경상북도 제1회 문화상(1956), 아시아 재단 자유문학상(1958), 예술원상(1962), 부산시문화상(1964) 등을 수상하였다. 청마를 기리는 시비는 에덴공원 이외에도 「바위」 시비가 부산진역 앞 수정가로공원과 영도 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있고, 「그리움」 시비가 용두산 공원에 서 있으며, 경주 불국사와 통영 남망공원에도 세워졌다. 2000년에 청마의 시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마문학상'을 제정하여 매년 1월 통영에서 시상하고 있다.

4) 역대 다대포 첨사 인명록(歷代 多大浦 僉使 人名錄)

다대포 첨사 선생안(先生案)은 임진왜란 이후의 것만 남아 있다. 아래의 다대포 첨사 인명은 사하지발간추진위원회가 1986년에 펴낸 『사하지(沙下誌)』의 '제4장 사하의 유적 및 명소'에 실려 있는 '역대 다대포 첨사 인명록'을 새로 옮긴 것이다.

官 案

절충(折衝) 김정서(金廷瑞) 居東萊 1600년(萬曆二十八年:庚子) 9월 11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瓜滿遞歸).
어모(禦侮) 김윤룡(金閏龍) 居蔚山 1600년(庚子) 9월 11일 도임, 동년 11월 2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조옥건(趙玉乾) 居京 1601년(辛丑) 12월 28일 도임, 1602년(壬寅) 2월 3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정기남(鄭奇男) 居 鐵山 1602년(壬寅) 2월 3일 도임, 동년 2월 10일 나거(拿去:체포되어감).
절충(折衝) 송희립(宋希立) 居興陽 1602년 (壬寅)10월 22일도임, 1602년(甲辰) 12월 3일 임기가 참.
어모(禦侮) 정여인(鄭汝麟) 居羅州 1604년 11월 3일 도임, 만기 후 고성현령(固城縣令)으로 옮김.
어모(禦侮) 송경신(宋敬臣) 居泰仁 1607년(丁未) 2월 7일 도임, 1608년(戊申) 2월 2일 파직(罷職).
어모(禦侮) 손안국(孫安國) 居海州 1608년(戊申) 2월 2일 도임, 동년 4월 8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김엄(金淹) 居高敬 1608년(戊申) 6월 12일 도임, 1609년(乙酉) 1월25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어운급(魚雲汲) 居京 1609년(乙酉) 3월 21일 도임, 동년 8월 5일 나거(拿去 ; 체포되어감).
어모(禦侮) 정사서(鄭思恕) 居 陜川 1609년 (乙酉) 9월 11일 도임, 1612년(壬子) 3월 12일 당상관에 오름(陞堂上).
절충(折衝) 김대명(金大鳴) 居濟州 1612년 (壬子) 3월 12일 도임, 1613년 2월 1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민창윤(閔昌胤) 居羅州 1613년(癸丑) 2월 1일 도임, 1615년(乙卯) 9월 11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어모(禦侮) 김제필(金濟弼) 居全義 1615년(乙卯) 9월 12일 도임, 1618년(戊午) 2월 19일 당상관(堂上官)에 올라 돌아감.
절충(折衝) 박대길(朴大吉) 居襄陽 1618년(戊午) 2월 19일 도임, 1620년(庚申) 12월 6일 돌아감.
어모(禦侮) 김팽익(金彭益) 居靈岩 1620년 (庚申) 12월 6일 도임, 1621년(辛酉)4월 23일 파귀(罷歸).
절충(折衝) 신경빈(申景濱) 居淸州 1621년(辛酉) 4월 23일 도임, 1623년(癸亥) 4월 22일 파귀(罷歸).
소위(昭威) 박유기(朴有起) 居豊德 1623년(癸亥) 4월 23일 도임, 동년 11월 19일 체귀(遞歸).
어모(禦侮) 장상한(張相漢) 居安岳 1623년(癸亥) 11월 19일 도임, 1626년(丙寅) 5월27일 임기를 채우고 감(瓜萬遞).
가선(嘉善) 이기심(李起尋) 居京 1626년(丙寅) 5월 27일 도임, 1628년(戊辰) 체귀(遞歸).
절충(折衝) 홍봉일(洪奉一) 居京 1626년(戊辰)11월 10일 도임, 1629년(己巳) 8월 15일 직을 사양하고 돌아감(辭狀歸).
자헌(資憲) 성태수(成台壽) 居光陽 1629(己巳) 11월 6일 도임, 1630년(庚午) 10월 12일 체귀(遞歸).
어모(禦侮) 오세장(吳世章) 居稷山 1630년(庚午) 12월 3일 도임, 1632년(壬申) 8월 20일 체귀(遞歸).
정략(定略) 신경침(申景琛) 居京 1632년(壬申) 11월 1일 도임, 1633년(癸酉) 3월 16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김영복(金永福) 居京 1633년(癸酉) 4월 28일 도임, 1634년(甲戌) 윤 8월 4일 파귀(罷歸).
절충(折衝) 김여현(金汝鉉) 居康津 1634년(甲戌) 10월 11일 도임, 동년 11월 18일 파직되어 머무름.
어모(禦侮) 이인득(李仁得) 居尙州 1634년(甲戌) 12월 18일 도임, 1636년(丙子) 6월 파직.
어모(禦侮) 문흥민(文興民) 居通津 1636년(丙子) 8월초 2일 도임, 1637년(丁丑) 2월 상(喪)을 듣고 돌아감.
어모(禦侮) 신중욱(辛重勗) 居抱川, 1637년(丁丑) 8월 2일 도임, 1639(己卯) 7월 30일 체귀(遞歸).
어모(禦侮) 안경직(安慶直) 居白川 1639(己卯) 8월 2일 도임, 1642(壬午) 1월 24일 체귀(遞歸).
어모(禦侮) 김우인(金友仁) 居淸道 1660(丙子) 12월 2일 도임, 1661(辛丑) 6월 15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양우급(梁禹及) 居寶城 1661(辛丑) 7월 17일 도임, 1662(壬寅) 8월 1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최해(崔嶰) 居鐵原 1662년 10월 1일 도임, 1664(甲辰) 5월 23일 왜정 파귀(倭情罷歸).
어모(禦侮) 이항(李沆) 居咸安 1664(甲辰) 윤 6월 25일 도임, 1665(乙巳) 3월 17일 파귀(罷歸).
어모(禦侮) 하종한(河宗漢) 居江華 1665(乙巳) 3월 17일 도임, 동년 7월 29일 왜적에 잡혀감.
어모(禦侮) 곽재형(郭再亨) 居依德 1665(乙巳) 8월 26일 도임, 1668(戊申) 1월 10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어모(禦侮) 김주하(金柱夏) 居京 1668(戊申) 1월 25일 도임, 1670(庚戌) 7월 26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어모(禦侮) 이창혹(李昌或) 居通津 1670(庚戌) 7월 26일 도임, 1672(壬子) 1월 당상에 오르고 6월 3일 잡혀감(拿去).
어모(禦侮) 윤창원(尹昌元) 居京 1672(壬子) 7월 14일 도임, 1673(癸丑) 10월 27일 병으로 돌아감(病狀遞歸).
어모(禦侮) 남용빈(南勇賓) 居義城 1673(癸丑)10월 27일 도임, 1674(甲寅) 12월 돌아감.
어모(禦侮) 이시형(李時衡) 居京 1675(乙卯) 5월 1일 도임, 1677년(丁巳) 1월 1일 영일현감으로 옮김(移拜).
어모(禦侮) 최숙(崔橚) 居水原 1677(丁巳) 1월 1일 도임, 동년 2월 6일 당상관에 올라 상주영장으로 옮김(陞堂上尙州營將移拜).
어모(禦侮) 신경원(辛景轅) 居京 1677(丁巳) 2월 6일 도임, 1679(乙未) 8월 12일 임기를 채우고 왜정에 잡혀감.
어모(禦侮) 김시진(金是振) 居京 1679(乙未) 8월 11일 도임, 1682(壬戌) 2월 24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절충(折衝) 김효순(金孝純) 居京 1682(壬戌) 2월 25일 도임, 1683(癸亥)5월 18일 어사의 서계로 파귀(仍御使書啓罷歸).
어모(禦侮) 이정빈(李廷彬) 居京 1683(癸亥) 5월 18일 도임, 1685(乙丑) 7월 30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절충(折衝) 장만첨(張萬瞻) 居京 1685(乙丑) 7월 30일 도임, 1688(戊辰) 2월 7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어모(禦侮) 신대겸(辛大謙) 居靈山 1688(戊辰) 2월7일 도임, 1690(庚午) 7월 29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어모(禦侮) 황규(黃奎) 居楊州 1690(庚午) 8월 1일 도임, 1692(壬申) 당산관에 올라 돌아감.
어모(禦侮) 이귀제(李貴濟) 居安岳 1692(壬申) 8월 2일 도임, 1695(乙亥) 1월 30일 돌아감.
어모(禦侮) 전성유(全聖俞) 居鎭安 1695(乙亥) 2월 2일 도임, 1696(丙子)년 당상에 오르고, 1697(丁丑)8월 2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瓜滿遞歸).
어모(禦侮) 박시재(朴時梓) 居京 1697(丁丑) 8월 2일 도임, 1699(己卯)9월 24일 임기가 되어 돌아감.
어모(禦侮) 최상운(崔尙雲) 居洪州 1699(己卯) 9월24일 도임, 1700(庚辰) 10월 17일 파귀(罷歸).

가선(嘉善) 고준량(高浚良) 居京 1700(庚辰) 10월 17일 도임, 목도(木島) 패표인(敗標人)을 곧 토.
가선(嘉善) 이행창(李行昌) 居京 1701(辛巳) 3월 1일 도임, 동년 12월 7일 왜정체귀(倭情遞歸).
절충(折衝) 한이온(韓爾溫) 居京 1701(辛巳) 12월초 7일 도임, 1703(癸未) 퇴임.
절충(折衝) 이만웅(李晩雄) 居原州 1703(癸未) 6월초 5일 도임, 1705(乙酉) 10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어모(禦侮) 김석제(金錫悌) 居京 1706(丙戌) 5월 도임, 1707(乙亥)11월 상(喪)으로 귀임.
어모(禦侮) 정석도(鄭碩道) 居慶州 1708(戊子) 정월 22일 도임, 동년 6월 27일 환상불급(還上不給)으로 파귀(罷歸).
어모(禦侮) 류정익(柳挺翼) 居忠州 1708(戊子) 7월 2일 도임, 1710(庚寅) 8월 3일 체귀 동년 정월 당상(堂上)에 오름.
어모(禦侮) 윤매(尹勘) 居京 1710(庚寅) 8월 2일 도임, 1712(壬辰) 4월 파귀(罷歸).
가의(嘉義) 이시번(李時蕃) 居江華 1712(壬辰) 4월 8일 도임, 1714(甲午) 5월 16일 경주영장(慶州營將) 이배(移拜).
절충(折衝) 이천기(李天起) 居京 1714(甲午) 7월 27일 도임, 1716(丙申) 집으로 돌아감.
가선(嘉善) 이홍매(李弘邁) 거경(居京) 1716(丙申) 9월 10일 도임, 1719(己亥) 2월 12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장군(將軍) 정세흡(鄭世翕) 거경(居京) 1719(己亥) 2월 16일 도임, 1721(辛丑)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절충(折衝) 최창기(崔昌箕) 거경(居京) 1721(辛丑) 7월 도임, 1722(壬寅) 7월 상(喪)으로 귀가.
가의(嘉義) 곽서적(郭庶績) 거경(居京) 1722(壬寅) 8월 도임, 1724(甲辰) 6월 전최(殿最:관찰자의 수령실적조사)로 돌아감.
가선(嘉善) 이밀(李謐) 1724(甲辰) 9월 도임, 1726(丙午) 6月 어사(御使)의 파직으로 돌아감.
동중추(同中樞) 허원(許遠) 1726(丙午) 6월 20일 도임, 1728(戊申) 12월 19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어모(禦侮) 권순성(權順性) 거청풍(居淸風).
가선(嘉善) 홍치영(洪致榮) 거여주(居驪州).
동중추(同中樞) 고도성(高道成) 거경(居京) 1734(甲寅) 3월 도임, 1736(丙辰) 6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어모(禦侮) 강상선(姜尙先) 거경(居京) 1736(丙辰) 6월 도임, 1738(戊午) 9월 체귀(遞歸).
절충(折衝) 박도면(朴道勉) 거경(居京) 1738(戊午) 9월 도임, 1740(庚申) 6월 왜정체귀(倭情遞歸).
절충(折衝) 이세회(李世晦) 거경(居京).
어모(禦侮) 이보신(李輔臣) 거경(居京) 1742(壬戌) 10월 도임, 1744(甲子) 8월 병이 있어 사양하고 돌아감(有病辭遞歸).
절충(折衝) 최수기(崔壽基) 거경(居京) 1744(甲子) 9월 도임, 1746(丙寅) 3월 치적이 좋지 못한 문첩으로 파직되어 돌아감(貶下狀罷遞歸).
가선(嘉善) 심약회(沈若晦) 거경(居京) 1746(丙寅) 윤 3월 2일 도임, 1747(丁卯) 7월 졸서(卒逝:죽음).
어모(禦侮) 이해(李海) 거경(居京) 1747(丁卯) 10월 27일 도임, 1750(庚午) 3월 1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절충(折衝) 이천민(李天民) 거경(居京) 1750(庚午) 3월 2일 도임, 동년 7월 상을 만나서 돌아감(遭喪歸).
자헌(資憲) 진응회(秦應會) 거경(居京) 1750(庚午) 10월 19일 도임, 1751(辛未) 7월 자해조중고(自該曺中考).
절충(折衝) 구정환(具鼎煥) 1751(辛未) 9월 금위대정에서 부임(禁將來), 1754(甲戌) 4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瓜滿遞歸).

절충(折衝) 조연복(趙衍福) 1754(甲戌) 4월 도임, 동년 6월 졸서(卒逝).

절충(折衝) 이길유(李吉儒) 1754(甲戌) 8월 내승(內乘:內司僕寺)으로 돌아옴, 1755(乙亥) 8월 금군장으로 경관직(京官職)에 전임(禁軍將內遷).

절충(折衝) 이한태(李漢泰) 1755(乙亥) 8월 우림장(羽林將:禁軍廳)으로 옮, 동년 9월 어머니 상(喪)을 당함(遭內艱).

절충(折衝) 정여증(鄭與曾) 1755(乙亥) 12월 우림장(羽林將)으로 옴, 1756(丙子) 9월 아버지 상을 당함(遭外艱).

절충(折衝) 조광진(趙光鎭) 1757(丁丑) 정월 금군장(禁軍將)에서 옴, 1758(戊寅) 2월 금군장으로 경관진(京官職)에 전임(禁軍將內遷).

절충(折衝) 김광적(金光迪) 1758(戊寅) 4월 내직금위대장(內禁將)에서 옴, 6월 모함으로 직이 좌천되어 마침.

절충(折衝) 김좌국(金佐國) 1758(戊寅) 12월 금장으로써 옴(以禁將來), 1760(庚辰) 7월 목(牧)의 일을 맡음.

절충(折衝) 이적(李樀) 1760(庚辰) 6월25일 전 방어사로(以前防禦使)로써 7월 27일 도임, 1762(壬午) 12월 13일 어머니 상(喪)을 당함(遭內艱).

가선(嘉善) 전명좌(全命佐) 1762(壬午) 12월 도정(都政:都目政事)으로써 전부사에 복직외어(前府使復職) 1763(癸未) 정월 18일 도임, 1764(甲申) 10월 병으로 사양하고 직을 마침(以病辭遞).

절충(折衝) 이해문(李海文) 1764(甲申) 11월 11일 총융천총(摠戎千摠)을 제수(除授)받아 1765(乙酉) 정월 1일 도임, 윤 2월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통영(統營)의 장계로 파하고(以瞭自統營狀罷), 특지(特旨)로 동년 12월 22일 도정(都政)의 오위장(五衛將)으로 옮기고 1766(丙戌) 3월 4일 교체되어 돌아감.

절충(折衝) 이재형(李再馨) 1765(乙酉) 12월 평양 중군(中軍)을 제수(除授)받고, 1766(丙戌) 3월 4일 도임, 1767(丁亥) 5월 14일 오위장으로 옮겨 7월 8일 교체되어 돌아감.

절충(折衝) 심성(沈堉) 1767(丁亥) 6월 금군장(禁軍將) 제수, 1768(戊子) 5월 2일 부학(副學補)의 벼슬로 체귀.

절충(折衝) 윤시동(尹蓍東) 1768(戊子) 5월 2일 부제학으로 특보(特輔) 8일 배도부임(倍道赴任) 동년 6월 19일 병조서지 내직으로 옮기고(內移兵曺叅知) 7월 8일 교체되어 돌아감.

절충(折衝) 이은복(李殷福) 1768(戊子) 6월 도임, 1769(乙丑) 섣달(臘月) 금장(禁將) 내직으로 옮김.

절충(折衝) 신욱(申旭) 1769(乙丑) 12월 18일 영장(營將:鎭營將)을 제수받아 1770(庚寅) 1월 19일 도임, 1771(辛卯) 6월 22일 오위장(五衛將) 내직으로 옮기고 7월 22일 교체됨(交龜).

조학신(曹學臣) 1771(辛卯) 6월 제수, 1772(壬辰) 6월 내직으로 옮김(內移).

허근(許近) 1772(壬辰) 7월 조정에서 제수받아 1773(癸巳) 3월 내직으로 옮김(內移).

구재훈(具載勳) 1773(癸巳) 윤3월 정(政)을 제수받아 1775(乙未) 정월 내직으로 옮김.

가선(嘉善) 권한(權翰) 1774(甲午) 12월 낙안군(樂安郡) 이배(移拜), 1775(乙未) 이전군사나취(以田郡事拿取).

이윤희(李潤禧) 1775(乙未) 산정(散政) 제수로 동월 29일 도진(到鎭) 1776(丙申) 9월 10일 내직으로 옮김.

전문현(田文顯) 1776(丙申) 9월 상주영장이배(移拜) 1776(丁酉) 정월 이미준동승영사정사득체(以未準



祠陞靈事呈辭得遞).

이역(李燹(익)) 1777(丁酉) 2월 연검(年檢) 동년 9월 실상의 조치로 파면, 돌아감.

정우붕(鄭宇朋) 1777(丁酉) 9월 정(政) 제수, 10월 27일 도임, 1779(己亥) 사복사중고(司僕事中考)로 9월 1일 체귀.

오재중(吳載重) 1779(己亥) 6월 내직 금장(禁將) 제수, 1781(辛丑) 2월 친년체귀(親年遞歸).

이홍원(李弘遠) 1781(辛丑) 1월 내승(內乘:內司僕寺)으로 이배(移拜), 1782(壬寅) 12월 정사의 책망을 받아 강등됨(分望事貶下).

이문철(李文喆) 1782(壬寅) 섣달(臘) 금영손사행(禁營孫士行) 제수, 1783(癸卯) 1월 14일 도임, 동년 7월 어사의 병청체특(御史以病淸遞特)으로 특지를 받고, 1785(乙巳) 7월 임기를 채움.

김후(金煦) 1785(乙巳) 6월 영암현수(靈岩顯守) 이배, 7월 29일 도임, 1785(丙午) 3월 표인실료사나취(以漂人失瞭事拿就).

박진양(朴晋陽) 1786(丙午) 1월 산정(散政) 통진부화(通津府火) 이배, 3월 2일 부임, 전임의 일로써 나거되어(以前任事拿) 12월 10일 면직.

이윤겸(李潤謙) 1786(丙午) 섣달(臘月) 임지에 와(來莅), 1787(丁未) 섣달 송전(松田)의 일로 파직(以松田事坐罷).

서유룡(徐有龍) 1788(戊申) 정월 도임, 1789(乙酉) 4월 변정의 일로 파직(以邊情事坐罷).

이달관(李達觀) 1789(乙酉) 4월 4일 정(政) 제수, 동월 27일, 도임, 1790(庚戌) 7월 4일 내직으로 옮김.

임태원(林泰遠) 1790(庚戌) 7월 4일 도정(都政) 장영파총(壯營把摠)으로 제수, 동월 그믐(晦日) 도임, 1791(辛亥) 섣달(臘月) 내직으로 옮김.

김처승(金處升) 1791(辛亥) 12월 23일 도정(都政) 제수, 1792(壬子) 정월 24일 도임, 12월 29일 내직으로 옮김.

조의진(趙義鎭) 1792(壬子) 12월 19일 정(政) 제수 1794(甲寅) 12월 21일 도정내천(都政內遷).

윤수민(尹壽民) 1794(甲寅) 12월 22일 정(政) 제수, 1795(乙卯)일 도임, 1796(丙辰) 7월 부산으로 옮김.

정혁(鄭爀) 1796(丙辰) 7월 28일 정(政) 제수, 8월 17일 도임, 1789(戊午) 9일 폄체(貶遞).

조몽석(趙蒙錫) 1798(戊午) 10월 옴(來), 1801(辛酉) 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신광로(申光輅) 1801(辛酉) 정월 22일 옴. 1803(癸亥)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조은석(趙恩錫) 1803(癸亥) 7월 20일 옴, 1804(甲子) 2월 모친상을 만남(遭內艱).

원영인(元永麟) 1804(甲子) 2월 옴, 1806(丙寅)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민종혁(閔宗爀) 1806(丙寅) 6월 도정(都政) 충주주영장(忠州州營將) 제수, 7월 14일 도임, 1809(己巳) 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이승운(李乘運) 1808(戊辰) 12월 도정(都政) 제수, 1809(己巳) 정월 19일 도임, 1811(辛未) 7월 부친상을 만남(遭外艱).

이익(李榏) 1811(辛未) 8월 도정(都政) 여산부사(礪山府使) 이배(移拜) 동년 9월 계체(啓遞).

홍순(洪栒) 1811(辛未) 10월 산정(散政) 제수, 동년 11월 10일 도임, 1813(癸酉) 12월 도정(都政) 임기를 채움(都政瓜遞).

오치수(吳致壽) 1814(甲戌) 정월 도정제수, 동년 2월 2일 도임, 1816(丙子) 윤 6월 임기를 채움.

류기상(柳基常) 1816(丙子) 6월 도정제수, 동년 섣달(臘月) 파직되어 돌아감(罷歸).

남건중(南建中) 1816(丙子) 섣달 도정제수, 1817(丁丑) 정월 10일 도임, 1819(己卯) 임기를 채움.
김현필(金鉉弼) 1819(己卯) 6월 도정제수, 1822(壬午) 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김상우(金相宇) 1821(辛巳) 섣달(臘月) 도정제수, 1822(壬午) 정월 30일 도임, 1823(癸未) 9월 병이 들어나 돌아감(呈病遞歸).
구석붕(具錫朋) 1823(癸未) 9월 산정(散政) 제수, 동월 그믐(晦日) 도임, 1826(丙戌) 정월 임기를 채움.
임태순(任泰淳) 1825(乙酉) 섣달 도정제수, 1826(丙戌) 2월 3일 도임, 1827(丁亥) 3월 2일 친년체거(以親年遞去).
김인종(金麟鍾) 1827(丁亥) 3월 3일 도임, 1829(乙丑) 7월 27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김이관(金履寬) 1829(乙丑) 7월 27일 도임, 1831(辛卯) 12월 3일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이득형(李得馨) 1831(辛卯) 11월 산정(散政) 제수, 동년 12월 3일 도임.
이경순(李景純) 1834(甲午) 4월 산정(散政) 제수, 5월 도임, 1835(乙未) 8월 계체(啓遞).
류면검(柳勉儉) 1835(乙未) 7월 산정(散政) 제수, 1838(戊戌) 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윤수열(尹秀烈) 1837(丁酉) 12월 도정(都政) 제수, 1840(庚子)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오현우(吳顯佑) 1840(庚子) 6월 도정(散政) 제수, 1842(壬寅) 5월 친년서체(親年書遞).
이동식(李東植) 1842(壬寅) 2월 상사첨사(上士僉使)로 이배(移拜) 1844(甲辰) 7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이용준(李容駿) 1844(甲辰) 6월 도정 제수, 1847(丁未) 2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이용희(李容熙) 1846(丙午) 12월 도정 제수, 1848(戊申) 5월 수상응피체(以水相應避遞).
이형하(李亨夏) 여회(汝會) 신미(辛未) 완산인 1848(戊申) 5월 산정(散政) 제수, 동년 12월 도정(都政) 동부승지에 오름(陞拜同副承旨).
이원희(李元熙) 1849(己酉) 정월 자촉진래준고이귀수변세월지차지의(自矗鎭來準苽而歸水邊歲月遲且遲矣) 삼년소득빈변상설(三年所得鬢邊霜雪).
이치회(李致廻) 1851(辛亥) 5월 산정(散政) 제수, 동월 도임, 1853(癸丑) 10월 임기를 마치고 동짓날에 부신(符信)을 넘겨줌(苽遞至月日交龜).
이창오(李昌五) 1853(癸丑) 10월 산정(散政) 제수 익월(翌月) 도임, 1856(丙辰) 정월 임기를 채우고 돌아감.
이희평(李熙平) 1855(乙卯) 섣달(臘月) 도정(都政) 제수, 1856(丙辰) 2월 부임(赴任), 동년 11월 15일 졸서(卒逝).
임홍모(任弘模) 1856(丙辰) 섣달 정(政) 제수, 1857(丁巳) 정월 26일 도임, 1858(戊午) 정월 직을 사양하고 물러감.
이교헌(李敎獻) 군필 임진 전의인(君泌壬辰全義人) 1858(戊午) 2월 산정(散政) 제수 3월 도임, 1859(己未) 6월 직을 사양함.
조의직(趙義稷) 백형(伯亨) 신사(辛巳) 1859(己未) 5월 산정(散政) 제수, 6월 도임, 1860(庚申) 10월 직을 사양함.
정선용(鄭善容) 1860(庚申) 11월 정(政) 제수, 1861(辛酉) 정월 진에 도임(到鎭), 1863(癸亥) 3월 파직되어 돌아감(罷歸.) 외손(外孫) 정인태(鄭寅台) 1881(辛巳) 12월 공이 진의 장군이 되어 옮겨 옴(公鎭將移來).
김태욱(金泰郁) 치문(致文) 기축(己丑) 해풍인(海豐人) 1862(壬戌) 12월 도정(都政) 제수, 1863(癸亥)

3월 10일 도임, 1864(甲子) 12월 도목정사를 통하여 은대(銀臺:承政院)를 바라고(都政通銀臺望), 1865(乙丑) 정월 14일 앞에 바란대로 동부승지의 벼슬에 오름(以前望陞拜同副承旨).

허규(許奎) 단오(端五) 정묘(丁卯) 양천인(陽川人) 1865(乙丑) 정월 산정(散政) 제수, 2월 24일 도임, 1867(丁卯) 6월 임기를 마침.

김기혁(金箕赫) 성첨(聖瞻) 임진(壬辰) 광산인(光山人) 1867(丁卯) 6월 산정(散政) 제수, 7월 30일 도임, 1869(己巳) 정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류정로(柳鼎魯) 성구(聖九) 임진(壬辰) 진주인(晋州人) 1869(己巳) 정월 산정(散政) 제수, 2월 28일 도임. 1871(辛未) 6월 임기를 마침.

이용익(李容益) 우삼(友三) 신묘(辛卯) 광주인(廣州人) 1871(辛未) 5월 산정(散政) 제수 7월 20일 도임, 1873(癸酉) 11월 임기를 마침.

이종준(李鍾俊) 사영(士英) 병자(丙子) 완산인(完山人) 1873(癸酉) 11월 산정(散政) 제수, 1874(甲戌) 정월 19일 도임 6월 24일 마침.

이남즙(李南輯) 경안(景安) 계미(癸未) 완산인(完山人) 1874(甲戌) 6월 구전제수(口傳除授), 1876(丙子) 7월 정세체(情勢遞).

정기택(鄭騏澤) 사영(士榮) 을사(乙巳) 정일인(廷日人) 1876(丙子) 7월 도정(都政) 제수 1877(丁丑) 12월 도정으로써 어영천총 내직으로 옮김(都政以御營千摠內移).

한우섭(韓友燮) 사강(士强) 계유(癸酉) 청주인(淸州人) 1878(戊寅) 정월 제수, 1879(己卯) 8월 파직으로 돌아감(罷歸).

김기명(金沂明) 성오(聲五) 병술(丙戌) 김해인(金海人) 1879(己卯) 6월 도정(都政) 제수, 1881(辛巳) 11월 임기를 마침.

정인태(鄭寅台) 치정(致鼎) 병오(丙午) 초계인(草溪人) 1881(辛巳) 10월 15일 정(政) 제수, 공주 영장에서 옴(公州營將來) 1883(癸未) 정월 도정 내직으로 옮김(都政內移).

이규용(李圭鏞) 윤생(允笙) 임진(壬辰) 경주인(慶州人) 1883(癸未) 정월 도정(都政) 당상선전관으로 옴(都政以堂上宣傳官來) 동년 5월 허용이력(許用履歷).

김정근(金禎根) 성국(聖國) 임인(壬寅) 안동인(安東人) 이절영도변지이력 첨사인 복설본진사자(以絕影島邊地履歷僉使因復設本鎭事自) 1885(乙酉) 12월 도임. 자 정부초기구전단부본직감하영도지어(自 政府草記口傳單付本職減下影島之御) 1886(丙戌) 정월 도임. 합속절제복설수건재기공소빈첨상화(合屬節制復設修建材旣空疎鬢添霜花) 1887(丁亥) 6월 정 별영기사장 내직으로 옮김(政別營騎士將內移).

변기섭(邊基燮) 익화(益化) 신해(辛亥) 원주인(原州人) 1887(丁亥) 8월 19일 정(政) 제수 1888(戊子) 8월 임기를 마치고돌아감.

이상규(李庠珪) 덕로(德老) 기미(己未) 한산인(韓山人) 1888(戊子) 6월 도정(都政) 군산첨사로써 옮겨 옴(以群山僉使移來).

이장하(李莊夏) 완산인(完山人) 1889(乙丑) 정월 26일 정(政) 제배(除拜) 1890(庚寅) 윤 2월 26일 냉체(冷遞).

강운형(姜雲馨) 진주인(晋州人) 1890(庚寅) 정월 30일 정(政) 제수 8월 12일 졸서(卒逝).

정제빈(鄭濟斌) 조천인(鳥川人) 1890(庚寅) 10월 25일 정(政) 제수, 1891(辛卯) 7월 12일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민건호(閔建鎬) 성로(星老) 계묘(癸卯) 여흥인(驪興人) 1891(辛卯) 4월 18일 정 부항방변으로 옮(政釜港幫辯來) 1893(癸巳) 4월 24일 정 총어영기사장 내직으로 옮김(政摠禦營騎士將內移).

박기종(朴琪琮) 형진(亨珍) 기해(己亥) 밀성인(密城人) 1893(癸巳) 4월 25일 정(政) 부산항 경찰관으로 옴(釜港警察官來) 1894(甲午) 2월 임기를 마침.

이의정(李宜貞) 내진(乃珍) 신해(辛亥) 경주인(慶州人) 1893(癸巳) 12월 26일 정 이전 내금장(政以前內禁將) 제수, 1894(甲午) 2월 16일 도임.

박세혁(朴世赫) 상언(祥彦) 정미(丁未) 1894(甲午) 9월 11일 정고산리첨사(政高山里僉使)에서 옮겨옴(移拜) 10월 9일 도임. 1895(乙未) 윤 5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감.


MARKET

제6장

경제와 산업

1. 경제개발과 함께 한 부산의 산업기지
2. 개발의 시작 – 공유수면 매립
3. 기반시설 확충
4. 공업단지 조성
5. 산업의 전개

제6장

경제와 산업

1. 경제개발과 함께 한 부산의 산업기지

부산의 서남단 낙동강 하구에 자리 잡은 사하구는 김해공항, 감천항,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서부산의 관문이자 신평·장림산업단지를 축으로 하는 부산 산업경제의 중심지이다. 전통적으로 물자가 집산되었던 낙동강 하구 하단을 제외하면 소외된 지역으로 일제시기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피난민이 판자촌을 만들어 집단 거주했던 변두리 사하구가 부산 서쪽의 관문이자 산업기지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1960년대초 감천화력발전소(현재의 한국남부



초창기 감천 화력발전소 전경(1964년)

발전(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건설은 사하구의 산업기지로서의 발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1970년대에는 산업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이 전개되었다. 서대신동과 괴정동을 있는 대티터널이 뚫리고, 괴정동에서 북구 엄궁동을 거쳐 남해고속도로와 김해공항까지 연결되는 낙동로가 확장·포장되는 한편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다대로, 감천로가 확장되고 도시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분료처리장이 이전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공장이 들어섰다. 괴정과 하단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으로 많은 농경지가 주택지로 정비된 것은 사람들의 이주를 가속화시켰고,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공장의 설립, 이주를 보다 활성화시켰다. 사하구가 이웃 사상공업단지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의 위치로 부상했던 것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사하구는 지역 변두리에서 차츰 시가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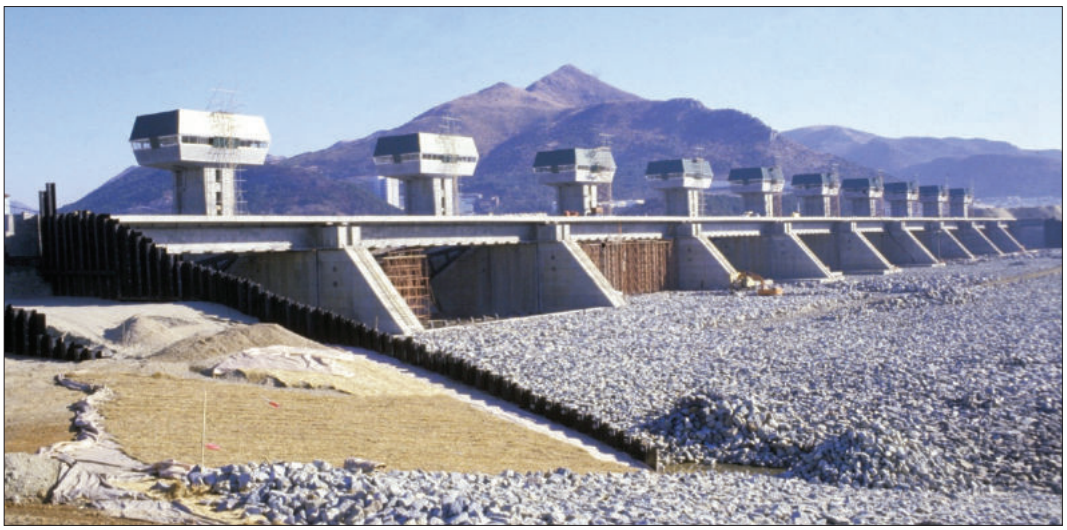
대티터널 옹벽 조형물

사하구의 산업기지로서의 개발은 1980년대에 들어서 보다 가속되었다. 1984년 신평·장



신평·장림공단 조성공사

림공업단지의 부지가 조성되고, 계속해서 낙동강 하구둑의 건설, 감천항 개발, 낙동강 하구 중소기업협업단지 조성이 19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짐으로서 사하구는 오늘날과 같은 부산의 산업기지이자 서부산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평·장림 공단의 조성으로 부산시 중심에 위치했던 공장들이 1990년대 초까지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감천항이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되어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 기능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83년 시작하여 1990년 완공된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은 길이 2.4km에 4차선 도로를 겸한 거대한 둑으로서, 낙동강 하류 지구의 생활·공업·농업용수는 물론 부산의 상수도원 및 공업용수를 충당해주고, 마산·울산·온산·창원 등 주변 산업도시와 김해평야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건설공사를 통해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토사를 이용하여 총 330만㎡의 매축이 실시되면서 신평·장림공단과 하구둑으로 연결되는 중소기업 협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를 통해 사상구는 신평·장림공단으로 대표되는 공업도시이자 감천항, 다대포항을 통한 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1977년 불과 196개에 불과하던 제조업 기업체수는 1991년 1,000개를 넘어서 10배 이상 증가했고, 종업원 수 역시 2만명대 수준에서 5만명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



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하단 지역 1992년 11월)

1990년대에는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1980년대까지 쉼 없이 이어진 지역개발사업과 이를 통한 급속한 구세 확장, 인구 유입에 따라 다시 부족해진 사회인프라 확충에 역점이 두어졌다. 아울러 급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파생한 환경문제의 해결 역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사회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특히 1990년대 사하구의 교통난이 가장 심각한 현안 문제로서 그 완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 7월부터는 지하철 1호선의 신평까지의 연장공사가 2,500억 원의 예산으로 부산교통공단을 공사주체로 하여 4년간의 공사기간으로 시행되었다.

아울러 상하수도 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다방면에 걸친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신평·장림공단 역시 공단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공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자율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으로 공단지역내 도로, 하수구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주변 녹화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신평·장림공단으로 대표되는 사하구의 산업기지로서의 이미지의 뒷 편에는 부산 도심내 공해유발업체의 배출지였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파생된 열악한 주거문제, 대기오염, 해양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등이 장기간에 걸친 사하구의 해결 현안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는 급속한 개발 사업이 발생시킨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숨고르기 기간이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1990년대는 의류, 신발, 수산물 등 경공업 제품 수출을 주력으로 하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주요 수출시장이던 선진국이 수입 장벽을 높이고, 중국,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추격이 맹렬해 지면서 기존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 수출이 심각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는 산업구조 재편을 보다 시급한 문제로 만들었다.



장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혐오시설과 판자촌이 즐비했던 사하구가 오늘날과 같은 부산의 산업기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해방 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어 낸 한국경제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산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이 표면화되는 한편으로 어려워진 국제경제환경으로 산업기지로서의 사하구의 위상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21세기에 들어서서 보다 심화되고 있다.

2005년 부산시는 21세기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고 고전하고 있는 부산지역경제를 부활시키고자 2020년까지 부산을 21세기 국제교류거점이자 해양수도로 탈바꿈시키는 부산도시기본계획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발맞춰 사하구도 2007년 2월 '사하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발전계획에서 사하구는 구의 산업경제를 '친환경 정보산업도시 건설'을 목표하여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정보인프라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기존 신평·장림공단의 산업을 재배치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새로운 도전은 2007년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의 경험을 살린다면 비관적인 것

도 아니다. 새로운 도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옥녀봉에서 내려다 본 감천항 야경(2007년)

2. 개발의 시작 – 공유수면 매립

주로 공업용지와 주택용지 확보,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실시된 공유수면 매립은 1960년대초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감천화력발전소 건설용 부지 확보를 위해 감천동 410번지 일대 2만 6천㎡를 매립한 것이 매립사업의 시초이다. 이어서 1964년부터 1970년까지 6년간에 걸쳐 장림동 662번지, 872번지 일대에서 공업 용지 확보를 위해 실시한 71만 평방미터의 매립사업은 1980년대 중반 낙동강 하구둑 공사에 의거한 매립사업이 있기까지 최대의 매립사업이었다. 매립의 주체는 초기의 경우 중앙정부, 부산시, 민간 등 다양했으나, 1980년대 이후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국토확장의 관점에서 도시 미관과 임항지구 확보를 염두에 둔 종합적인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시를 주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민간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의 산발적 매립은 가급

적 지양하고 관 주도의 매립사업 내에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매립사업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960년~1985년 매립사업 일람

매립기간	매립면적(㎡)	매립목적	매립장소
1964.2~1964.8	26,281	감천화력발전소 및 항만부지	감전동 410 번지
1964.3~1970.2	708,972	공장부지	장림동 662, 872 번지
1964.8~1965.7	1,168	대지 및 造船場	다대동 370 번지
1966.4~1970.8	112,454	대지 및 造船場	구평동 49 번지
1966.6~1974.1	66,660	공장부지	감천동 759 번지
1967.1~1985	66,370	공장부지	감천동 759 번지
1967.4~1968.5	842	택지조성	다대동 353 번지
1967.7~1971.7	12,751	공장부지	감천동 393 번지
1967.9~1971.3	184,566	공장부지	다대동 450 번지
1968.5~1970.7	14,215	공장부지	구평동 395 번지
1968.7~1970.7	6,739	도로	다대동 381 번지
1968.7~1971.11	104,432	공장부지	다대동 120 번지
1968.12~1970.12	11,405	야적장	구평동 36 번지
1968.12~1969.12	2,032	대지조성	다대동 329 번지
1976.4~1983.12	20,435	조선소 부지조성	구평동 388 번지
1978.11~1980.9	27,909	조선소 부지조성	다대동 120 번지
1981.4~1990.12	171,000	공장부지	구평동 108 번지
1981.4~1990.12	85,000	부두	구평동 108 번지
1981.4~1990.12	24,000	부두	감천동 380 번지
1981.4~1990.12	30,000	부두	감천동 380 번지
1981.5~1987.3	70,000	공장부지	구평동 427 번지
1981.7~1990.12	300,000	공업단지	다대동 1 번지
1981.9~1990.9	66,000	공업단지	구평동 90 번지
1982.2~1986.12	12,000	조선부지	구평동 38 번지
1982.2~1986.8	42,000	창고부지	구평동 357 번지
1982.4~1986.12	13,000	조선부지	구평동 402 번지
1982.7~1990.12	57,000	공장부지	구평동 108 번지
1984.4~1986.12	13,000	조선부지	구평동 407 번지
1984.9~1987.1	81,000	원목저장	다대동 120 번지
1984.2~1989.9	95,000	조선부지	구평동 365 번지
1985.7~1986.12	26,000	조선부지	구평동 178 번지

자료 : 사하지 발간추진위원회, 『沙下誌』 144~145쪽

위의 표를 통해서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대규모 매립은 주로 공장 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매립사업의 전개과정을 보면 1960년대 70만 평방미터의 장림동 공업부지 조성사업으로 본격화되었지만, 이후 1970년대는 대규모 매립공사가 없고, 다시 198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매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립지역은 1980년대 중반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낙동강 하구의 장림동을 비롯하여 다대포항과 감천항의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다대, 감천, 구평동 해안 공유수면 매립이 주축을 이루었다.



구평동 매립지 전경

1983년 시작되어 1990년 완공된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된 매립공사는 1980년대 최대의 매립공사였다. 하구둑 건설공사를 통해 발생하는 준설토 등의 토사를 이용하여 사상구 엄궁동부터 사하구의 하단, 신평에 이르는 지역 210만 평방미터를 1단계로 매립하고, 이어서 신평동 밑의 장림부터 다대에 이르는 지구 120만 평방미터를 2단계로 매립하여 총 330만 평방미터의 부지를 조성하였다. 매립은 1985년부터 시작되어 1987년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1985년 5월 1일자로 매립지 일원에 대해 전용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함으로써 전체 매립지가 공업용지로서의 기능이 주어졌다. 이어서 1987년 6월 10일자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아, 도로 34.4㎞, 교량 10개소, 상수관로 41.9㎞, 우·오수관로 93.9㎞, 어선 선착장 2개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1990년 6월 30일자로 준공되었다. 매립지의 도시기반건설공사는 현대건설 및 삼협개발이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에 의한 매립지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낙동강 하구둑 매립 현황

구 간	면 적(㎡)	표 고(EL. m)
엄궁 ~ 신평지구	2,141,000	2.20 ~ 3.40
장림 ~ 다대지구	1,236,000	2.60 ~ 3.70
명지이주단지	50,000	3.50
합 계	3,427,000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92 구정백서』 1992



낙동강하구둑 건설로 조성된 매립지(1986년)

1990년 대 에 도 1980년대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지속되었다. 주요한 매립사업은 감천항 일원 17만 3천m²의 임항창고 및 냉동 창고 부지조성사업과 한진해운(주), (주)모든, (주)CJ,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에서 구평동 일원에 약 70만 8천m²의 다목적야적장, 공장부지, 선박수리단지를 1992년부터 1997년도에 걸쳐 조성하였다. 또 같은 기간 삼미금속(주)은 다대동 일원에 14만 1천m²의 수산업관련시설 및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시설 부지를 매립하였다. 성창기업(주)도 1994부터 199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2만 9천m², 사하구청이 장림유수지 일원에 공영개발사업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약 11만 7천m²의 공업 용지를 조성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대동 홍티마을 일원에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5개년 사업으로 약 7만 8천m²의 공업 용지가 조성되었다.

1964년 감천화력발전소 부지의 매립으로 시작된 사하구 지역 내 매립사업은 2006년 홍티마을 매립사업까지 총 17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4.799㎢의 구세(면적)가 증가하였다.



삼미금속(주). 다대동 일원 매립지



홍티 마을 공유수면 매립지

3. 기반시설 확충

1) 감천화력발전소(현 한국남부발전(주)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감천화력발전소 건설은 부산의 변두리 오지였던 사하구가 산업기지로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이 수립한 '제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 국내 전력 공급 능력은 32만 2000㎾(총시설용량 36만 7000㎾)로서 당시 최대수요 30만 6000㎾에 대비해 예비전력이 절대 부족하여 제한송전이 불가피하였다. 아울러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통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으로 막대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전력난 해소라는 당시의 현실적 문제와 함께 예상되는 산업용 전력의 확보를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국가 공업진흥에 발판이 될 동력 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한국전력도 여기에 발맞추어 '제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

제1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은 1961년의 상정최대수요(想定最大需要) 43만 5,000㎾를 기준으로 1966년 까지 5년간의 연 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을 12%로 잡고 목표 연도인 1966년의 첨두수요(尖頭需要 : peak-time demand)를 84만 2,000㎾로 추정했다. 그러나 당시의 어려운 개발자금 조달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60만 7,000㎾의 공급 설비 확보를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과 1962년 6월

의 통화 개혁, 그리고 공정 환율의 변동 등으로 4차에 걸친 수정이 가해졌으며 외국용역기관의 건의에 따라 목표연도의 첨두수요도 70만5,000㎾로 축소되었다. 이렇듯 전력자원 개발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어쨌든 이 계획을 통해 감천화력발전소가 춘천수력발전소, 영월화력발전소와 함께 건설되게 되었다.

건설공사는 일괄도급방식에 의거하여 미국의 벡텔(Bechtel)사가 독점 수행하였고 한국전력주식회사는 부지조성 및 항만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만을 담당하였다. 1961년 3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여, 1964년 3월 1일 1호기가 전력생산을 개시하고, 1964년 8월 10일 발전소가 종합준공되었다.

감천화력발전소의 총건설비는 외국자본 2천251만 달러와 내국자본 9억9,800만 원이 투입되었다. 이 설비는 단위기 용량 6만㎾급 2기로 구성된 기력발전설비(1, 2호기)로서 국내 저급 무연탄(80%)과 중유(20%)를 혼합 연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 연료인 무연탄은 선박에 의하여 감천만(甘川灣)에 설치된 전용부두로 수송되었다. 총시설용량은 21만㎾(각 10만5000㎾급)였다. 발전설비의 본격가동과 함께 해방 후 계속된 제한송전이 1964년 4월 1일부터 완전히 해소되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감천화력발전소의 현재 모습

1967년에는 발전설비 3, 4호기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제2차 전원개발계획에 의하여 1970년 준공 예정이었던 서울화력발전소 4호기와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의 건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1960년대 말 전력수급상 차질이 예상되어 긴급히 설치하기로 결정된 발전설비였다. 3, 4호기는 저급무연탄과 중유를 혼합사용하는 1, 2호기와 달리 중유만을 사용하는 기력발전설비였다. 건설공사는 1969년 6월 완공되었으며 총공사비는 82억7,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3, 4호기의 증설로 감천화력발전소의 총발전시설 용량은 33만㎾로 증가했고, 부산 및 영남지역

전력공급원으로 경제개발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원자력으로의 에너지 대체와 함께 석유를 연료로 이용하는 화력발전이 가지는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감천화력발전소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년 발전설비 1, 2호기가 철거되었고, 2003년에는 3, 4호기의 철거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2004년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150MW급 발전설비 12기로의 교체가 완료되어 최첨단의 환경친화형 발전소로서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로 재출범하였다. 총설비용량은 1800MW로 부산지역 전력수요의 65% 이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는 대도시 내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철저한 환경관리와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 도심발전소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2) 낙동강 하구둑의 건설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주체로 하는 일대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는 총 연장 2,396m의 하구둑 건설과 수문과 갑문을 설치하여 수량을 저장·조절하는 것을 주요 공사로 하여 1983년 4월 착공하여 1990년 6월 준공하였다. 필요 경비는 하구둑 건설공사에 내·외자 2,006억원이 투입되었고, 이것과 별도로 하구둑 건설 공사를 통해 생성된 매립지의 분양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내자 348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당시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던 서부산 개발로 인해 급증하는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를 염해(鹽害)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부산, 마산, 울산, 온산, 창원, 진해 등 주변 산업도시와 김해평야 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함과 아울러 하구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촉진하는데 사업의 근본적 목적이 있었다.

낙동강 하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1960년대부터 이미 고려되고 있었다. 즉 국가차원의 하천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조사가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지원 하에 1966년부터 시작되어 1972년 완료되었다. 이 조사결과에서는 국내 유일의 중공업 임해공업벨트지역인 낙동강 동남부 연안지역 용수의 안정공급을 위한 염수 침입문제에 대한 조사를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FAO의 유엔개발계획 지원 하에 1974년 낙동강 하구조사가 착수되어 1977년 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낙동강 하구지역 염수 침입의 영구적인 방지대책으로 낙동강하구둑

건설사업을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포함시켰고, 1983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었다. 첫째, 부산시민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의 차질 없는 공급량 확보가 가능해진다. 부산시의 상수도원은 94%가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마다 갈수기와 대호기(大湖期)만 되면 해수 역류로 물금 취수장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 취수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제한 급수가 불가피하며 고지대는 물 곤란을 겪어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있었는데 하구둑은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 김해평야의 관개 개선으로 농토의 염해를 방지함으로써 토질향상, 식량증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해수 역류 방지를 위해 기존 안동댐에서 방류해야 하는 연간 12억톤의 소중한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하구둑의 4차선 도로를 진해까지 연결하여 이 지역 전체 교통흐름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하구둑 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이용한 매립지 조성으로 부산시의 용지부족을 완화하고 낙동강 하구 일대의 효과적 개발이 가능해 진다. 여섯째, 거대한 인공 호수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과 함께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 등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고용력 창출을 통한 유휴노동력 흡수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 등도 기대되었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1986년 3월)

그러나 하구둑 건설공사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최초의 계획은 1983년부터 시작하여 1987년에 완공할 예정이었고 총 공사비는 외자 1억2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1,896억 원이었다. 앞서 언급한 실제 공사기간과 투입경비와 비교하면 공사기간은 3년, 공사비도 1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를 끼고 있는 낙동강 하구에 대한 개발이 불러일으킬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구둑 건설은 생태변화, 기후변화 등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여기에 더하여 건설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로 매립 사업까지 하게 된다면 서부산은 오염에 찌들린 삭막한 도시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론자들은 정부에 대하여 낙동강 하구 개발공사를 보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보상요구와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하구둑 건설로 인한 생태변화로 피해를 보게 된 양식장 등 어업 관련 보상을 둘러싼 마찰, 그리고 하구둑 건설지역에 편입되어 이주가 필요한 대상 주민들과의 보상 및 이주 대책을 둘러싼 마찰 등이었다. 관련해서는 40여 차례에 걸쳐 200여 일 간의 집단 농성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업진행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결과 어업 관련 보상으로 1987년까지 총 83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하구둑 공사로 얻어지는 매립지 중 하단동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주 대상민에게 분양하는 것 등으로 해결을 보았다.



낙동강 하구둑 경관 조명

3) 장림하수종말처리장(현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건설

장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86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33만 톤의 오수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오수처리 대상구역은 낙동강 하류의 왼쪽 편에 위치한 구포, 사상공업단지, 신평·장림공업단지, 하단지역으로, 이를 지역에서 낙동강 하구로 유입되는 각종 공장폐수 및 가정 오수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사상, 사하 지역이 급속하게 공업단지로 조성되면서 발생한 환경적 문제에 있었다. 공업단지 개발로 인한 기존의 이 지역 어업에 대한 피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에 대한 악영향, 역류현상에 따른 낙동강 상류 물금 상수도 취수원에 대한 영향 등이 거론 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계기는 이 지역 하류부에 낙동강 하구둑을 1983년부터 건설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다. 즉 가뜩이나 공업 및 가정용 폐수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는 낙동강 하구가 하구둑 건설로 인해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보다 광범위한 오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폐수를 사전에 정제하여 낙동강 하구에 유입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오염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것도 이러한 적극적 대응을 필요하게 하였다. 공사는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은 1990년 완공되었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하수처리 능력을 2배로 증가하는 2단계 공사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는 2,961억 원으로 2001년 10월 완공되었다. 2단계 공사가 완공되면서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능력은 기존 하루 33만 톤에서 62만 톤으로 늘어났다.

건설된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오염 하수 처리 공정은 크게 오염수의 처리와 그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인 슬러지(sludge)의 처리로 진행되었다. 우선 오염수 처리 과정부터 보면 유입된 하수 중에 포함된 비닐, 각목, 헝겊 등 부유물을 유입펌프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걸러내는 공정부터 시작된다. 이후 유입펌프를 이용해 하수관거를 통해 들어온 하수를 다음 처리시설로 보내기 위해 스크류 펌프를 이용, 하수를 퍼 올려 최초 침전지로 이동시킨다. 침전지에서는 2시간 정도 하수를 체류시킴으로서 비중이 무거운 부유·고형물질을 침강시킨다. 침강된 부유·고형물질을 제거한 오염수는 다시 폭기조로 이동되어 7시간 정도 체류시킨다. 체류 동안에 미생물에 의해 응집, 흡착, 산화반응 등의 정화과정을 거쳐 기타 오염물질을 침전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오염수를 폭기조로 부터 다시 최종침전지로 이송되어 3시간 정도 체류시키면 플록(floc)이 형성되어 미생물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상부의 맑은 물은 낙동강 하류로 방류한다

다음으로 슬러지 처리과정은 우선 최초침전지와 최종침전지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농축조에 모아서 12시간 정도 다시 침강·농축시켜 침강 슬러지는 소화조로 이송하고 슬러지가 제거된 오염수는 다시 유입동으로 반송하여 위에 언급한 오염수 처리공정을 통해 처리한다. 소화조로 이송된 슬러지는 30℃ 에서 30일 정도 체류시키면서 유기물·무기물을 흡착하는 활성 슬러지 미생물에 의해 안정화·감량화 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발생된 메탄가스는 가스저장용 탱크로 보내져서 일시 저장되었다가 소화조의 가열용 보일러 연료로 재활용된다. 소화조의 처리가 끝난 슬러지는 응집제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는 탈수기를 거쳐 케이크(cake)화 한 상태로 장외로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두 차례의 시설공사를 통해 완성된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주요 시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주요 시설

구 분	시 설 명	1단계		2단계	
		용 량	수 량	용 량	수 량
오염수 처리 시설	유입펌프	5,400㎡/h	5대	6,000㎡/h	4대
	침사지	109㎥	4지	81.9㎥	4지
	최초침전지	630㎥	45지	1,607㎥	15지
	폭기조	2,880㎥	36지		21지
	전무산소조			541㎥	84지
	호기조			431㎥	42지
	후무산소조			383㎥	21지
	탈기조			349㎥	3대
	공기공급기	115Nm³/min	15대	430Nm³/min	15지
	최종침전지	3,405㎥	12지	2,381㎥	
슬러지 처리시설	농축조	705㎥	4지	기존시설사용	
	소화조	4,985㎥	8조	〃	2대
	탈수기	150kg · DS/h	8대	500kg.DS/H	
	가스탱크	5,500㎥	1기	기존시설사용	
	가스탈황설비	250㎥/h	1식	〃	
	보일러	1.9t/h	3대	〃	
전기설비	변압기	4,500KVA	2대	4,000KVA	2대
		600KVA	2대	3,000KVA	1대
		300KVA	2대	1,250KVA	2대
		200KVA	2대	750KVA	4대

자료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부산시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2010.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 모습

2단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시점인 2000 1월 1일부로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환경정화시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발족되었다. 이에 따라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은 동 공단의 강변사업소가 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부산환경공단으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은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감천항 종합개발

감천항 개발은 정부가 1978년 수립한 '감천항 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1979년부터 부산항의 보조항으로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출입 물동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선박의 대형화, 컨테이너화의 추세 속에서 이러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산항의 확장과 시설확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감천항의 개발은 부산항 북항, 다대포항과 함께 부산항의 기능을 분산하여 항만능력을 확장하는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항 개발을 통한 화물별 전용부두의 건설을 통해 물동량을 분산·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부산항의 보조항으로서 감천항에 할당된 기능은 고철, 양곡, 시멘트 전용부두와 종합조선단지, 그리고 원양어업기지로서의 역할이었다. 개발기간은 1979년부터 1991년까지 12년간의 사업으로 한진 등 16개 관련 민간기업체의 투자분 832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75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150m, 호안(護岸)과 안벽 축조, 물양장, 진입도로 건설 등 항만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방파제 및 진입도로 건설은 전액 정부 투자로 이루어지며, 민간투자는 주로 물양장 건설 및 안벽 공사에 집중되었다. 건설기간 중이던 1984년에는 외자 유치에도 성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차관 형식으로 미화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7,400리얄(riyal)의 차관을 4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들여왔다. 개발 공사가 완성되면 감천항은 연간 773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과 21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었다. 전체 사업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감천항 개발사업 개요

구 분		총규모	정부시행	민간투자
사업비(100만원)		177,518	94,313	83,205
시설규모	방파제(m)	1,150	1,150	—
	안벽, 물양장(m)	5,573	920	4,653
	호안(m)	1,448	563	885
	진입도로(m)	8,143(1,522)*	8,143	—

자료 : 사하지 발간추진위원회, 『沙下誌』

주 : * 1991년도 『구정백서』에는 1,522m로 기록되어 있음

원래 계획에서는 1979년부터 착공하는 것이었으나, 정부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착수가 연기되다가 198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감천항 개발은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보다 확대되었다. 전체 예산은 기존 1,775억 원에서 2,522억 원으로 확장되었으며 투자액 증가분은 주로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해서 민자의 규모가 기존 832억 원에서 1,536억 원으로 대폭 확장되었다. 정부추진공사 중에는 154만 m^3의 준설사업 및 임항도로 1,195m가 추가되었다. 민자 추진사업은 매립 35만평(114만 m^2), 안벽 축조 4,019m, 호안 1,159m, 임항도로 5,377m가 추가되었다

감천항 개발은 원래 계획보다 지연된 1992년 대체로 완공되었다. 계획이 지연된 이유는 정부예산부족, 추가 공사비의 부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참여한 민간기업체들 사이에 의견조정에 시간을 걸렸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1천톤급에서 5만톤급까지의 선박 2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하역능력은 연간 836만 톤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발사업을 통해 감천항은 부산항과 인천항에 이은 국내 3위의 항만시설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부산항의 체선(滯船), 체화(滯貨)현상을 해소하는 보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의 장기 개발을 통해 감천항이 주로 항만시설과 하역기능의 확충을 통한 부산항의 보조항 역할이 강화되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다대항과 부산 남항과의 연결 선상에서 어항과 수산물 종합유통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개발이 민·관 양쪽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우선 1990년대 전반에는 어항기능의 확충을 통한 원양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가 계획되었다. 1991년 현재로 800여척의 원양 선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박할 전용부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감안되어 감천항에 원양어선들의 전용부두 건설이 추진되었다. 총사업비 314억 원을 투입하여 5

천톤급부터 2만톤급의 어선 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계획의 골자였는데, 전액 민자로 건설이 추진되었고, 1991년 11월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구평동 컨테이너 부두에서 본 감천항

1990년대 후반에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종합물류의 거점으로 감천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정부주도의 관민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물론 위에 언급한 원양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된 것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21세기 해양수산 비젼'이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되면서부터였다. 개발사업의 핵심은 감천항을 수산 물류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1997년까지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2000년까지 종합유통가공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원양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원양어선 전용부두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된 계획이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 부두 건설과 함께, 종합물류센터, 수산물가공단지 건설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변신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9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 가능한 원양어선 전용부두 건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대단위 물류센터의 건설과 수산물의 보관, 유통, 가공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유통가공단지 조성으로 정리되었다.

계획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1991년 이미 착공된 원양어선 전용부두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으로 2단계 사업 중 우선 냉동창고시설 건설이 1996년 착공되었다. 또 이와 별도로 1997

년에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해운이 대규모 물품보관시설을 준공했다. 4천평 규모의 야적장과 1천평 규모의 보세창고, 3만톤급 규모의 냉동냉장창고, 화물의 운송과 하역, 통관절차를 중앙통제실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물류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 같은 해 감천항에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선석(船席)의 배정 현황 등 터미널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항만운영체제가 구축되게 되어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9년 말 6만1천여 평의 감천항 원양어업전용부두 및 유통가공단지가 준공되었고, 이를 토대로 수산물유통가공단지를 포함한 감천항 동편일대 7만4천 평이 국내 최초로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서 감천항을 국제적인 수산물류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전용부두와 냉동창고, 가공설비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감천항이 곧바로 국제적인 수산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이 기반시설이 제대로 활용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는 수산물류가 감천항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이 필요했다. 이를 위한 사업들이 21세기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수산물류가 감천항에 집중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 수산물류가 감천항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계획한 것이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이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국비 1천294억 원, 부산시비 184억 원, 농안기금(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370억 원 등 총 사업비 1천848억 원을 들여서 2001년 착공하였으며 2004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총 12만 1,147㎡의 부지에 지상 4층 도매시장동, 지하 1층 지상 12층의 회관동, 지하 1층 지상 7층 냉동·냉장 보관동, 지상 2층 활어도매장 등 10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감천항은 원양어획물 전용 부두 접안시설을 보유하고 국제금융·유통, 국제수산물



감천국제물류센터 준공식(2005년 12월 15일)

거래 기능을 집결하는 초현대식 종합수산물류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다.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준공은 원래 계획보다 대폭 지연되었지만 2008년 마침내 전체 사업이 완성을 봄으로써 감천항은 종합수산물류의 국제적 거점으로 위치 짓게 되었다.

한편으로 감천항이 20년 가까이에 걸친 장기간의 개발을 지속한 결과 그 파급효과로 2000년대에 걸쳐 감천항 주변에 70여 곳의 민간냉동창고가 들어섰으며, 이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인 총 100만t의 냉장능력을 보유하고 각종 수산물 가공기업도 밀집하게 되었다. 또 2005년에는 일본 미쓰이물산[三井物産]과 ㈜국보의 합작회사인 한국MCC로지스틱스㈜가 감천항 물류단지에 국제종합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영업에 들어갔다. 17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시설은 2만평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6천 806평의 물류센터와 1만 2,100평의 야적장, 1,123평의 지원시설 건물을 갖추었다. 주로는 각종 수출입화물을 물류센터에 반입한 뒤 분류, 검수, 라벨링(labelling), 재포장 등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008년 가을 개장한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3년이 지난 현재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 등 국내외 악재 속에서도 연간 거래 금액 2,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남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동북아시아 국제 수산물의 물류기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개장 첫해 3개월 동안 7000t(금액 94억 원)의 거래 실적을 남긴 뒤 2009년 연간 5만 1000t(1,272억 원)의 수산물을 거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만 9000t(1,925억 원)을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전경(출처 : 국제신문 2009.10.15)

처리했다. 2010년에는 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위해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즉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하여 원료 공급과 제품 생산, 포장, 수출 선적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2010년대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현재 앞으로의 10년은 감천항이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최대의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5) 다대포항 개발

다대포항은 예부터 사하구 지역의 대표적 어항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어민들이 다대포항을 근거지로 조업과 생활을 영위하였고, 수백척의 어선이 다대포항을 이용하였다. 경제개발기인 1971년 12월 21일자로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항만이 정비되어, 어업과 수산업의 거점으로서의 지위가 보다 확고해졌다. 1985년 1월에는 수협 다대공판장이 개장하여 수산물 위탁판매, 보관 등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공판장의 면적은 2,872㎡이었고, 아울러 1,450D/M 급유시설을 갖추어 수산물을 싣고 들어온 어선의 급유를 실시하였다.

전통적인 어항이던 다대포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개발이 구상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1984년 정부는 부산시를 둘러싸고 있는 항구들의 기능별 개발을 계획하면서 감천항은 부산항의 보조항이자 원양어업 거점으로, 그리고 다대포항은 당시 부산의 대표적 수출 품목이었던 합판단지 지원항구로 개발할 것을 결정했다. 개발은 1986년부터 2년 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투자자금 문제, 몰운대 등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환경문제, 문화재 보호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대포항 개발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대두한 것은 1989년 12월 정부 주무부서인 해운항만청이 부산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부산항은 항만시설 부족으로 체선·체화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면모가 실추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해운항만청은 이에 대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수입 원목의 35%가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목 부두를 별도로 다대포항에 조성하여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대대포항을 개발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환경문제, 문화재 보호문제로 논쟁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해운항만청과 환경처,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시간이 걸렸고 개발 계획은 지연되었다. 개발이 가시화된 것

은 1994년으로, 다대포항 개발사업용으로 세계은행(IBRD) 차관 5,200만 달러 도입이 확정되고, 관련업무가 해운항만청에서 부산시로 위임되면서부터였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총 51만평을 매립하여 그 중 5천톤급에서 5만톤급의 원목 수송선박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33만평의 원목부두를 건설하고, 그 외 11만평의 수산물 가공단지, 운수장비제조업 기타 7만평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대포항을 중핵으로 하는 다대지방공단의 조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발 방법은 정부가 방파제와 호안, 항로준설 등 항만시설 확충을 담당하고, 전용부두 건설과 공단조성은 민간 개발에 위임하는 형태였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5개년사업으로 세계은행에서 조달하는 외자와 민자유치, 국비조달을 통해 총 3,4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다. 이후 사업은 다시 약간 조정되어 사업기간이 1년 늦춰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 변경되었고, 조성 면적 역시 42만평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다대포항 개발사업은 결국 좌절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전부터의 문제였던 생태계 파괴, 각종 공해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문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1990년대 사하구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하여 다대포항 개발사업의 주변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게 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인 반대가 이어졌다. 1995년 1월 구의회와 주민반대 결의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2월에는 개발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개발반대 건의서를 해운항만청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목재 단지 대신에 몰운대 일원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다대포항을 해상관광단지 내지 해양과학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부산시는 1996년 6월 공단지정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목부두 조성을 중심으로 한 다대포항 개발계획은 전면 철회되었다. 그리고 다대포항 개발사업용으로 도입이 결정되었던 세계은행(IBRD) 차관 5,200만 달러는 광양만 2단계 항만개발사업에 전용되었다.

1990년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좌절된 이후 현재까지 다대포항에 대한 별도의 개발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어항구역 면적 125,000㎡의 다대포항 주요 시설은 2만 5,000t급 선박 2척을 접안할 수 있는 총 390m 길이의 안벽과, 290m의 방파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1985년 개장한 수협 다대공판장을 비롯한 수산 관련 시설로 다음 표와 같은 시설이 있다.

다대포항 내 수산 관련 시설

공판장	급유시설	어업무선국	냉동공장	조선소
2,872㎡ (1개소)	1,450 D/M	1개소	동결 : 568 T/D 냉장 : 55,583 M/T(6개소)	4개소

1990년대 개발이 좌절되면서 공업항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구래의 어항의 성격을 유지하게 된 다대포항은 지역의 공업화와 맞물려 어업이 쇠퇴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1985년 개장한 다대공판장의 위판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장 후 1980년대 말까지 위판량은 연연 증가하여 1989년 6만5천 톤의 위판량을 기록하여 절정에 이르렀던 다대포 위판장의 호황은 1990년대 4만 톤 규모로 감소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만 톤으로 대폭 위축되었다. 2000년대 후반 기존 사매매를 하던 어촌계원들이 공판장으로 옮겨오고, 최근 몇 년새 활어·아귀 위판을 시작하면서 위판량이 3만 톤 정도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198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다대포항은 지역 주민이 개발을 좌절시키며 보전했던 환경을 무기로 새로운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부터 주민들이 희망했던 '해양관광 어항'으로의 개발이 그것이다. 주요한 계획은 기존의 낡은 물양장과 수리조선소를 정비·이전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개발 여지를 넓히기 위해 항계를 60% 정도 확대해 25만㎡까지 확대하고, 항내 준설·방파제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렇게 정비한 공간에는 관광 시설, 해양 레포츠 시설 등이 유치된다. 그리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천–다대포항–다대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배후도로도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측면뿐만 아니라 위판·수산물 유통 기능도 보강한다. 바다를 매립, 위판장과 물양장을 넓혀 부산시수협의 거점 어항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3대 국가어항인 천성항(의창수협), 다대포항(부산시수협), 대변항(부산동부수협)이 각각 수협 거점 공판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다대포항이 관광을 접목한 복합어항으로 거듭나면 주변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낙동강 하구, 크루즈터미널 등과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 다대지역 주민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유지한 다대포의 환경 자원이 21세기 해양관광 어항으로 재기에 성공하게 하는 주요한 토대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대포항 전경(출처 : 부산일보 2010. 5. 7)

4. 공업단지 조성

1) 신평·장림 공업단지

사상공업단지와 함께 부산의 2대 산업단지인 신평·장림 공업단지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3년간의 공사를 통해 부지가 조성되었다. 총 공사비 284억 원이 투자되어 93만4천 평방미터의 부지가 조성되었고 이중 도로, 공공용 부지를 제외한 68만 평방미터가 공장 부지(공공용지)였다. 조성목적은 부산시내 중심가에 있는 공장들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의 협약에 의거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신평 · 장림지구 토지이용계획(최종변경 승인사업안)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공공용지	683,435	73.17	
도 로	166,623	17.84	
유 수 지	52,618	5.63	
공공공지	29,000	3.10	추후 폐지
기 타	2,403	0.26	
합 계	934,079	100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93 구정백서』 1993

조성된 부지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총 128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조립금속 업종의 업체가 51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섬유, 화학관련 업종의 순이었다. 1985년말까지 조성된 용지 중 지원시설용지 일부를 제외하고 용지 분양이 거의 완료되었다. 1986년에는 부산 최초로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공단으로 지정되어 이곳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국세, 지방세 등 각 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다.

최초 110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서 1986년 2월 까지 45개 업체가 공장건설이 완료되어 입주를 마쳤고, 12개 업체가 공장 건설 중이며 나머지 53개 업체는 아직 공장 건설이 미착공인 상태였다. 계획된 128개 업체의 입주가 완료되어 완전 가동에 들어간 것은 1990년대 초이다. 입주계획과 실제 입주한 업체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신평 · 장림공단 입주 계획 및 입주 현황(1992.12. 31 현재)

구 분		입주 계획	입 주
공장 시설	식품	9업체	9업체
	섬유	19업체	19업체
	목재	4업체	4업체
	섬유화학	16업체	16업체
	조립금속(기계)	51업체	51업체
	제1차금속	2업체	1업체
	제지	1업체	1업체
	기타	3업체	3업체
지원시설		23업체	23업체
합계		128업체	128업체

자료 : 부산광역시사하구, 『93 구정백서』 1993

1990년대 초 128개 업체의 입주가 전부 완료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공단은 2000년대까지 IMF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국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11년 현재 157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5,500명의 종업원이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한 표들은 2011년 현재 공단의 실태를 정리한 것인데, 가동시작 후 현재까지 20년간 폐수처리시설, 종업원 복지시설 등의 확충을 제외하면 공단의 대규모 확장은 없었고, 입주 기업체의 업종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신평 · 장림공단 입주 계획 및 입주 현황(1992.12. 31 현재)

단지명	총면적	공장시설면적	지원시설면적	공용시설면적
신평공단	885,248 (267,787)	612,691 (185,339)	59,407 (17,970)	213,150 (64,478)

자료 : 신평 · 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jbu.com)

관리 및 분양 면적 실태(단위 : 천㎡)

구분	관리면적	분양대상면적 (조성면적 분양)	분양 합계
계	672	672	672
산업용지	613	613	613
지원용지	59	59	59

자료 : 신평 · 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jbu.com)

입주기업체 및 고용 인원 현황(2011. 2/4분기 현재)

업종별	입주기업체수(개)					고용인원(명)		
	계	가동	휴폐업	건설중	미착공	계	남	여
계	157	152				5,593	4,208	1,385
음식료	13	13				482	380	102
섬유 · 의복	18	18				1084	607	477
목재 · 종이	10	10				238	186	52
석유화학	16	16				599	479	120
비금속	2	2				28	24	4
철강	5	5				347	323	24
기계	50	48				1,455	1247	208
전기 · 전자	15	13	1			927	660	267
운송장비	3	3				214	127	87
기타	13	13				208	164	44
비제조	12	11	1			11	11	0

자료 : 신평 · 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jbu.com)

생산 및 수출실적

구분	생산(백만원)			수출(천불)		
	연간계획	당분기실적 (2/4분기)	실적누계	연간계획	당분기실적 (2/4분기)	실적누계
2011	2,671,120	686,844	1.325,038	2,138,568	288,090	546,445
2010	2,160,517	534,624	2,160,517	745,024	171,111	745,024
2009	1,622,633	507,845	1,622,633	643,893	236,631	643,893
2008	1,732,240	394,369	1,578,975 (91.15%)	890,389	207,357	899,401 (101.01%)
2007	1,474,080	414,651	1,470,342 (99.75%)	819,938	230,216	800,781 (97.66%)
2006	1,560,183	363,049	1,385,549 (88.81%)	921,358	182,084	782,342 (84.91%)
2005	1,448,707	334,524	1,313,752 (90.68%)	890,903	175,682	746,794 (83.82%)
2004	1,312,806	345,686	1,257,463 (95.78%)	698,977	128,187	627,963 (89.84%)
2003	1,313,209	295,207	1,181,367 (89.96%)	702,244	171.612	618,986
2002	1,293,747	1,148,084	88.7%	590,970	456,967	77.3%
2001	1,212,537	1,158,342	95.5%	465,741	455,345	97.7%
2000	1,226,519	1,076,774	87,79%	473,104	481,613	101.8%

자료 : 신평 · 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jbu.com)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복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근로자 APT		기숙사		탁아소 및 유치원	
처리용량	총사업비	세대수	수용인원(명)	세대수	수용인원(명)	세대수	수용인원
-- (㎥/일)	--(백만원)	74	141	55	179	-	-

자료 : 신평 · 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jbu.com)

지난 20년간 신평·장림공업단지는 1986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법정관리공단으로 지정된 이래 1990년대까지 부산의 핵심 산업집적화 단지로 명성을 날렸다. 현재 부산지역의 대표적 산업단지로 자리 매김한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지사과학산업단지 등에는 신평·장림공업단지에서 성장해 이전한 기업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렇듯 공단은 안정적 성장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당면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단 주변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돼 업체들과의 환경 관련 민원발생이 심화될 우려가 높은데다 장림매립지 인근 나대지 등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 지역 역시 주거지화 할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견된다. 또 20년 전 평당 5만원이던 땅값이 250만원을 넘나들더니 2000년대 말에는 300만원을 넘어서면서 신규 공장용지가 필요한 알짜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호황으로 인해 규모 확장을 위한 새로운 공장 부지가 필요한 업체들은 사하구를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듯 공단의 기업활동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미 중견기업들이 주변 녹산산업단지 등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단의 성장이 일정부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정체된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주 산업의 고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벤처 단지로 변화한 서울 구로공단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구로공단은 전형적인 굴뚝 산업 공단으로 시대 변화와 함께 몰락의 길을 걷다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공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구로공단(공식명칭은 한국수출산업단지)은 1964년 지정된 국내 최초의 공업단지이자, 한때 우리나라 수출액의 10%를 책임지는 '한강의 기적'의 첨병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쇠퇴하고 노사갈등에 따른 임금상승과 3D업종 기피현상으로 급속한 슬럼화가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가 몰아닥친 1990년대 말에는 ㈜대우, 진도, 세계물산 등 대표적 입주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이로 인해 공단의 활력은 급속히 힘을 잃었다. 수출은 42억 달러(1988년), 고용은 7만 3천 명(198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수출 15억 달러, 고용 3만 명의 그저 그런 공업단지로 주

저앉는 듯 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입주기업들이 다시 뭉쳤다. 이들은 첨단정보·지식산업·패션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공단 재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단의 명칭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꾸는 등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의 결과를 보면 노력은 훌륭하게 결실을 맺은 듯 하다. 1998년 이후 구로공단에 입주한 기업 수는 6천 700여 개로 무려 14배나 늘었고 취업자 수도 9만2천여명으로 3.7배나 뛰었다. 또 섬유·봉제 등 경공업 생산기지에서 6천여 개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IT업체들이 대거 유입된 중소벤처기업의 산실로 탈바꿈했다. 구로공단 내 벤처기업은 2007년 기준으로 859개 사로 일명 '테헤란밸리'라고 불리며 한국 IT산업의 중심으로 일컬어 졌던 강남구 삼성동, 선릉동, 역삼동 일대의 벤처기업 828개사를 추월했다. 서울 벤처산업의 무게 중심이 강남에서 구로공단으로 이동한 것이다. 구로 공단의 성공은 단지 내 입주 업종을 비제조업으로 확대하고 아파트형 공장공급을 늘려 벤처기업의 입지 난을 해소한데다 강남의 10~20%에 불과한 임대료로 비용부담을 줄여준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전통 제조업이 떠난 자리에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고, 정부도 비제조업 및 R&D업종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고도화, 세제 혜택으로 지원 사격을 했다. 또한 IT 및 지식산업 중심의 동



신평 · 장림 공업단지 전경 (출처 : 부산일보 2011. 9. 30)

종·유사업종이 집적되면서 기업간 커뮤니티 형성과 정보수집이 편리해졌다는 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로공단은 도심내 공단이라는 지리적인 여건 등에서 신평·장림공단과 닮아 있다. 현재 신평·장림공업단지는 서울 구로공단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경제개발기를 상징하는 굴뚝산업단지에서 21세기형 첨단산업단지로 변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2003년과 2007년의 두 차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 재정위기는 신평·장림공단의 구조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력의 성패가 확실해 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 중소기업 협업단지

중소기업 협업단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합리적 지배치를 목적으로 동일 업종별로 모아서 협업을 위한 공단을 구성한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신평, 장림, 다대 지구의 낙동강변 매립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하구둑에서 낙동강 하류 쪽으로 강변을 따라 길게 얻어진 공업용지에서 1986년 말부터 단지조성이 시작되었다. 협업단지에서는 공동으로 연구, 실험, 자재구입, 제품판매, 공해방지시설 설치, 종업원 후생복지사업 등 협동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 시작하며 전자는 신평·하단지구에, 후자는 장림·다대지구에 조성될 계획이었다.

1986년 말에 시작되어 1991년 완공할 것을 목표로 시작된 1단계 사업은 신평·하단지구 214만㎡의 매립지 중 일부인 35만㎡에 기계 및 부품, 염색가공, 플라스틱 단지를 건설하고 총 81개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1987년 시작되어 1991년 완공되는 2단계 사업은 장림·다대지역 총 123만㎡의 부지 중 86만㎡를 대상으로 하였다. 2단계 협업단지 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의 호응도가 좋았다.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주를 희망한 동업단체가 23개 단체, 558만㎡나 되어서 계획 면적 86만㎡를 6배 이상 초과하여 입주경쟁이 치열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 경제기여도, 지역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기계 및 부품, 자동차부품, 도금, 피혁, 도시가스 관련 업종 총 249개 입주업체가 1988년 9월에 잠정 결정되었다. 1, 2단계 중소기업 협업단지 계획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중소기업 협업단지 조성계획

단계별	위치	매립면적(㎡)	배치업종	조성면적(㎡)	입주예정업체	협동화사업 내용
1단계 (1986~1991)	신평지구	2,141,000	프라스틱	10,000	11	*폐수처리 *열·전력공급 *공동구매 * 공동판매 *공동시험검사 *종업원 복지시설 등
			염색가공	251,000	49	
			기계 및 부품	90,000	21	
			소계	351,000	81	
2단계 (1987~1991)	장림·다대지구	1,236,000	기계 및 부품	493,000	139	
			자동차부품	76,000	22	
			도금	90,000	39	
			피혁	156,000	48	
			도시가스	50,000	1	
			소계	865,000	249	
합계		3,377,000		1,216,000	330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91 구정백서』 1991

1단계 단지조성에서는 염색가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단계에서는 기계산업이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부품을 특화시킨 것도 특색이다. 1, 2단계를 합쳐서 총 121만㎡의 부지에 7개 업종, 33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입주는 199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체의 입주는 계획보다 지연되어서 입주가 완료된 것은 1994년에 이르러서였다. 실제 공단조성면적은 계획보다 약간 작은 115만㎡였고, 입주업체의 경우도 변동이 있었다. 입주계획이 최초 330업체에서 319업체로 축소되었지만, 입주 완료된 1994년 현재로 실제 입주업체는 343업체였다. 이것은 1단계 단지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던 프라스틱이 제외되었다가 다시 추가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입주업체가 계획보다 초과한 것은 도금업체가 계획보다 많이 들어온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그 외에 기계부품, 염색업도 계획 보다 많은 업체가 입주했다. 위치상으로 보면 낙동강 하구둑을 기준으로해서 남쪽 방향으로 염색단지, 피혁단지, 기계단지가 강변을 따라 조성되었다. 협업화단지의 전체 규모와 입주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협업단지 조성상황

구분		합계	염색	도금	피혁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비고
면적(천㎡)		1,154	242	90	156	590	76	프라스틱(10)
입주계획		319	49	39	49	160	22	
입주실태	1992년	250	40	19	37	134	20	
	1993년	314	49	39	46	158	22	10
	1994년	343	50	48	49	164	22	10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백서 각 연도판에서 작성

협업단지는 신평·장림공단과 인접해 있어서 현재는 그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지만 협업단지 중 가장 비중이 큰 다대동 기계공업협업화단지를 특화시켜 '다대동 협업화단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인근 지명이 '홍티'인 것에 유래하여 '무지개공단'으로도 부른다. 무지개라는 명칭은 '홍티'의 '홍'이 무지개를 의미하는 한자 '虹'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협업단지의 입주 기업체는 당초 계획된 입주가 완료되어 본격가동에 들어간 1994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84개 업체, 1만여 명이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협업단지 역시 신평·장림공단과 같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협업단지가 사실상 신평·장림공단의 일부인 관계로 급속히 높아지는 공장부지 가격 등 사하지역 공단 전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협업단지의 중심인 기계공업단지의 조선, 자동차 업체들의 역외 이전 현상이 가사회되고 있다. 신평·장림공단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 중이고, 부산시는 중소기업 협업화단지를 기존의 굴뚝산업에서 IT와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평·장림공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속단하기가 힘든 것이 또한 사실이다.



중소기업 협업 단지 전경(출처 : 부산일보 2009. 8. 8)

5. 산업의 전개

1)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 – 굴뚝 산업으로부터의 탈각

1980년대 후반 신평·장림공단, 1990년대 초 중소기업 협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사하구의 제조업 규모는 급격하게 팽창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300여 개 수준이었던 제조업 기업체는 1980년대말 2배 이상 늘었고, 1990년대에는 1,000개를 넘어섰다. 제조업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2만명 수준에서 5만명 수준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실적은 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1980년대 전반까지 2억 달러 수준이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는 일약 10억 달러를 넘어서서 약 5배 정도의 급성장을 이루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초기의 경우 와이셔츠, 합판 등의 대미수출, 수산물의 대일수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수출시장의 일등공신은 신발 수출이었다. 1990년 10억불 수출 중 신발이 3억4천만불로 34%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어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음도 확인된다. 기업체 수는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노동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인다. 아울러 수출 실적 역시 10억 달러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신발산업의 몰락은 부산지역 수출산업의 위축을 상징한다. 기업체 수와 노동자 수의 반비례 현상은 더 이상 기존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신발, 합판 등 경공업 수출시장 개척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에 따른 임금 상승, 선진국의 수입장벽 강화, 저임금에 기반한 중국과 동남아의 추격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하구의 제조업도 생존을 위해서 기존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한편으로 저임금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기계화, 자동화의 확충을 모색했다. 1980년대 후반 낙동강 하구둑 건설을 계기로 만들어진 매립지에 자동차, 기계, 금속공업 관련 중소기업 협업화단지의 조성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 구조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 제조업 체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원가절감, 수출품 고급화, 다품종 소량생산, 수출선 다각화 등을 모색했다.

1990년대 기계공업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협업단지가 본격 가동하면서 일정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공업의 수출이 대미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해

지고, 더욱이 조선 공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등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띠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체질개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97년 금융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7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생은 구조 전환을 모색하던 사하구의 제조업에 일대 타격이 되고 있음도 확인된다.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하구 제조업에 큰 타격을 가져왔고, 최근의 글로벌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그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신평·장림공단을 중심으로 최대 1,500여 개의 기업체와 5만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던 사하구의 제조업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700여 개의 기업체와 2만명대의 종업원 규모로 위축되었다. 경제개발기 부산 제조업의 메카였던 사하구 제조업의 위기는 부산 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하구 제조업의 위기가 비단 세계경제 위기의 파급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한 것만이 아닌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의거한 것이기도 하다는 데에 보다 심각성이 있다. 이미 20년 가까운 세월 속에서 협소하고 노후화된 공단의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사하구 내에서 공단을 확장을 부지를 구하기 힘들고, 한편으로 지가의 상승은 기존의 공장마저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신평 · 장림공단 생산현장(출처 : 국제신문 2009.11. 25)

현재 사하구 제조업은 지역 산업경제가 직면한 내외적 위기에 대응하여 정보인프라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기존 신평·장림공단의 산업을 재배치, 정보통신(IT), 해양바이오, 신

재생에너지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기지 구축에 도전하고 있다. 정부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로 재창조하기 위해 2012년까지 1조원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시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신평·장림의 중소기업 협업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굴뚝산업을 IT와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공해업종을 변두리 지역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첨단산업으로 채우는 방향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을 달성해 '생태산업단지'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세기 저임금에 의존한 굴뚝 산업에서 21세기 첨단기술의

사하구 제조업 동향(단위 : 1,000달러)

년도	업체수	종업원수	수출실적
1977	196	24,169	209,101
1978	208	24,486	219,506
1979	372	28,104	257,318
1980	375	24,375	316,887
1981	358	30,485	349,303
1982	358	23,865	264,941
1983	404	25,502	258,846
1984	326	24,108	283,216
1985	349	24,420	285,879
1986	425	30,356	461,195
1987	630	35,611	756,618
1988	670	38,702	1,061,257
1989	734	56,070	1,073,706
1990	801	55,010	1,011,722
1991	1,033	50,890	1,062,159
1993	1,079	53,892	1,020,641
1994	1,106	56,017	1,058,528
1995	1,163	56,589	1,040,855
1996	1,257	53,339	1,272,289
1997	1,237	49,760	
1997	1,237	49,760	
1998	1,238	42,775	
1999	1,458	36,776	
2000	1,500	38,427	
2001	1,513	35,997	
2002	1,446	34,434	
2003	1,458	32,992	
2004	1,467	32,185	
2005	1,479	31,293	
2006	1,468	32,121	
2007	785	27,580	
2008	743	26,564	
2009	718	25,367	

자료 : 사하구 통계연보 각 연도 판에서 작성

주 : 1. 1999년부터 업체수에 광업이 포함됨. 2. 1999년부터 종업원 수는 월평균 종사자 수임.

정보통신 산업기지로의 대전환이라는 이 새로운 도전은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이로 인해 사하지역 공업단지의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존의 구상들이 재원마련 계획 등 구체성이 결여된 장밋빛 청사진으로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유지도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사하구 신평·장림 공단의 공장부지 거래가는 2008년 기준으로 3.3㎡당 32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213%, 연간 30%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 기업들의 역외 이전을 가속화시키는 한편으로 희망하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갈수록 어렵게 할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다대동 기계공업협업화단지 일대의 조선기자재, 자동차, 철강 관련 제조업체들이 부산에서 추가 부지를 구할 방법이 없자 역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 후반 '한강의 기적'이 행해지던 시기 사하구는 부산의 제조업 단지로 그 일익을 담당했다. 2010년대의 시작점에 있는 현재 그 경험을 다시 살려야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때이다.

부산 지역 경제에서 사하구가 차지하는 비중(단위 : %)

연 도	인 구	제조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수출액
1990	8.5	12.2	13.5	16.6	12.9
1991	8.9	12.6	14.1	16.7	14.4
1992	9.5	16.9	9.5	—	16.6
1993	9.7	15.4	17.2	19.7	14.9
1994	9.8	14.5	12.2	12.2	15.6
1995	10.0	12.5	23.2	14.8	14.8
1996	10.1	16.5	11.6	12.2	18.8
1997	10.2	16.5	21.5		
1999	10.3	13.0	19.4		
2001	10.4	4.5	16.6		
2003	10.2	14.9	19.2		
2005	10.2	5.0	17.6		
2007	10.2	16.2	20.5		
2009	10.2	18.3	20.8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백서』 각 연도 판에서 작성

2) 수산업 - 개발의 그늘, 공존의 모색

사하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대포, 하단, 신평, 괴정을 끼고 도는 해안가에서 어로활동이 활발했다. 대한해협과 낙동강의 합류 해역으로 어족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대구, 연어, 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의 주요 산란서식 어장이 형성되어 각종 연안어업과 양식어업이 성행했다. 그러나 1980년대 불어 닥친 개발의 바람으로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1987년 완공된 낙동강 하구둑의 건설은 하류 해역의 생태계 변화를 가져왔고, 감천, 다대, 장림, 홍티 지선의 공업용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기존의 천해양식어업, 연안어업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상황은 보다 악화되었다. 인공섬, 명지·녹산산업단지 조성 등 대단위 공유수면 개발사업이 계속되었고,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수입 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지난 30년간의 사하구 어업 관련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공업단지의 건설과 낙동강 하구둑 건설공사가 시행된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어업의 정체·위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근해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산업의 전반적 위축이 보다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음도 알 수 있

사하구의 수산업 관련 지표의 동향

연 도	척수	톤수	20톤 이상	어촌계(구성원)
1979	434	10,876	264	
1980	625	14,750	368	
1981	820	18,601	283	
1982	841	24,643	290	
1983	1,127	33,524	455	
1984	1,441	40,574	543	
1985	1,565	63,212	586	5(993)
1986	1,724	74,582	610	5(1,177)
1987	743	24,894	183	5(959)
1988	886	2,813	4	5(899)
1989	754	2,827	13	5(1,972)
1990	846	3,237	19	5(815)
1991	991	3,476	22	5(870)
1992	897	3,698	27	5(849)
1993	893	3,731	28	5(893)
1994	926	3,821	36	5(893)
1995	900	3,850	43	5(829)

연 도	척수	톤수	20톤 이상	어촌계(구성원)
1996	897	3,884	48	5(899)
1997	919	3,711	44	5(886)
1998	898	3,561	42	5(893)
1999	888	3,312	39	5(1,050)
2000	931	3,451	40	5(792)
2001	885	2,808	25	5(792)
2002	980	17,255	25(128)	5(792)
2003	980	17,255	25(128)	5(792)
2004	959	14,833	21(104)	5(776)
2005	945	16,369	18(93)	5(670)
2006	915	17,054	20(90)	5(670)
2007	857	17,082	9(95)	5(647)
2008	820	15,118	14(87)	
2009	767	13,157	10(65)	

자료 : 사하구 『통계연보』 각 연도 판에서 작성

주 : 1.무동력선은 제외된 수치임. 2.1988~2001년 기간은 30톤 이상 대형선이 제외된 수치임 3. 20톤 이상 선박의 척수에서 2002년 이후의 ( )는 30톤 이상 대형선 포함 수치

사하구의 어항으로는 다대포, 홍티, 보덕, 장림, 하단 등이 있으나 국가지정 제1종 어항인 다대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이다. 어업의 근거지인 다대포항은 1971년 수산청 고시 44호로 국가 지정항구가 되었고, 1985년 수협 다대공판장이 520평의 규모로 개장하였다. 1990년대 다대포항은 원목 부두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항으로의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좌절되고 기존의 어항으로 남았다. 대신 기존 항만기능의 강화를 위해 수산청의 감독 하에 1990년부터 39억 원의 국가예산으로 물양장 신설, 기존 물양장 보수, 준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1990년과 1991년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물량장 보수를 실시했고, 1992년 이후에는 나머지 예산으로 물양장 신설 및 준설을 실시하였다.

사하구 수산업의 점진적 위축은 앞서 언급한 개발을 둘러싼 감천항과 다대항의 상반된 모습에서 보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급속한 산업단지 개발의 대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의 무시 못 할 비중이 여전히 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대책이 필요했다. 관련 노력들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특히 기존의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이 주축인 연안어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변경이 시도되었다.

구조변경의 핵심은 인공치어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등을 통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고 관리하는 어업'으로의 전환이었다. 일명 '바다 목장화 사업'으로 불리는 동 사업을 위해 우선 1992년 10월 약 2달간의 기간으로 '바다 목장화를 위한 해역조사'가 실시되었다. 국립수산진흥원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사하구 해역의 지질, 수온, 염분, PH, 저서생물 등 해양환경을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바다 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의 적격지를 부산시와 수산청에 건의했다. 인공어초 시설계획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총 5,400ha의 면적에 100억 여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로 조달될 계획이었다. 인공어초 시설계획의 전체적 규모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바다 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계획

		합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2002년	비고
사업량(ha)		5,400	200	400	400	500	3,900	
사업비 및 재원(백만원)	계	10,584	392	784	784	980	7,644	100%
	국비	8,467	314	627	627	784	6,115	80%
	시비	2,117	78	157	157	196	1,529	20%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93 구정백서』 1993

그러나 인공어초 사업은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까지 부산 지역 연안에 설치된 인공어초 시설은 1,735ha의 넓이에 사각어초 1만 350개와 반구형어초 1천 38개를 설치했을 뿐이었다.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계획되었으나 조달된 사업비는 57억원이었다. 이 액수도 1987년 이후 2001년까지 투입된 액수임으로 1993년 이후 10개년 계획사업에 투자된 돈은 이것 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금 조달 문제였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필요 자금의 80%는 국비로 조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 조달의 어려움과 사업 시행과정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인공어초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 목장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사하구의 경우 북형제도와 목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어초 설치가 추진되었고, 인공치어 방류사업도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부산의 연안 해역에는 60억 원이 투자되어 추가로 약 800ha의 면적에 인공 어초가 설치되어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1970~80년대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 훼손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도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1990년대 말까지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의 1, 2단계 공사가 완공되어 산업용 및 가정용 폐수의 방출에 의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시

스템이 구축되었다. 아울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로행위 지도단속, 고급 어종에 대한 차별적 어획 유도 등이 실시되었다. 제도적으로도 부산시는 2005년 3월 23일자로 사하구의 인공어초 설치 지점인 북형제도 인근 해역 80 헥타르를 기장군 두호 앞 해역 4 헥타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전국적으로도 2005년 말 통영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한 이후 2번째의 조치였다.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역으로 지정된 북형제도 인근에서는 조사 연구를 위한 어로행위 및 시설물 설치, 자원조성시설물의 설치 및 종묘 방류, 기존의 어업권 어업 및 허가받은 구획 어업 등만 허용되었다. 아울러 수자원 보호를 위해 남획성 어구 및 어법이 금지되고, 연안복합어업(연승·채낚이·외줄낚시)을 제외한 모든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도 제한되었다.

한편으로는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의 관점에서 노후어선에 대한 대체 사업, 어업인 후계자 지원 사업,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되었다. 특히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기존 노후어선을 국가보조에 의해 교체하여 어선의 동력선화, 대형화, 그리고 목선의 강화플라스틱선(FRP선)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 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에 따라, 그리고 시기 별로 일정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보조와 저리 융자를 통해 필요 자금의 70~80%를 충당하게끔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산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가졌다. 표에서 보듯이 1990년대 말까지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규모는 2~3억원대에 불과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기부담
1999년도 집행실적	노후어선 대체(톤)	1척 (22)	180,000	0	0	144,000	36,000
	어업인후계자 지원	2명	40,000	0	0	40,000	0
	어선용기계 공급	9대	18,000	5,400	3,600	5,400	3,600
2000년도 계획	노후어선 대체(톤)	2척 (8)	72,000	14,400	0	43,200	14,400
	어선용기계 공급	4대	8,000	2,400	1,600	2,400	1,600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 설비	116대	116,000	34,800	23,200	0	58,000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백서 2000』 2000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간 국비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성격은 1990년대와는 크게 달라졌다. 노후선 대체,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사업 등 기반 확충사업이 계속되는 것과 함께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2000년대 이후의 사업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속에는 기반확충사업과 함께 기름을 많이 쓰거나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척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였다. 이 경우 국비 지원은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의 감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감척 선박의 어업 허가권에 대한 보상과 소유 선박의 잔존가치 평가금의 보상을 합한 폐업보상비 지불이 그 내용이었다.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은 연안어업의 경쟁력을 재고시키는 한편으로 해양 자원의 보호를 꾀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하구의 수산 사업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008~2009년 수산사업 집행실적 및 2010년 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자기부담
2008년도 집행실적	연근해 구조조정	62척	3,437	80%	20%		
	수산종묘 매입, 방류	참돔, 참게, 말쥐치 444천미	100	70%	15%	15%	
2009년도 집행실적	연근해 구조조정	29척	1,979	80%	20%		
	수산종묘 매입, 방류	붉은쏨벵이, 참게, 넙치, 말쥐치 220천미	80	70%	15%	15%	
	자율관리어업 육성	전복, 해삼, 붉은쏨벵이, 142천미	100	50%	20%	20%	10%
2010년도 계획	연근해 구조조정	40척	2,000	80%	20%		
	수산종묘 매입, 방류	붉은쏨벵이, 말쥐치, 동남참게 등 150천미	60	70%	15%	15%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8~2009 구정백서』 2010

1990년대 이후 지역 수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바다목장화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1차 산업으로서 수산업의 양적성장은 한계에 다다른 감이 있다. 대규모 어선 감축사업이 국비를 토대로 진행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수산업은 이제 생산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유통과정에서 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제가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수산자원이 단순히 식량의 의미를 넘어 21세기 생명공학과 결합한 해양신물질 개발, 해양레저, 관광 등 첨단산업의 보고로 각광받으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수산업은 20세기 1차 산업에서 21세기 2,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수산종묘 방류(2006. 10 쥐섬 주변 바다)

새로운 도전과 관련하여 기본 조건도 유리한 위치이다. 부산지역은 북태평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황금어장벨트의 중심에 위치, 국제적인 수산물 교역과 유통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5개국은 연간 어업총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소비량도 전 세계 소비량의 5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감천항은 1999년 말 6만1,000여 평의 원양어업전용부두 및 유통가공단지가 준공되면서 국제적인 수산물류의 중심지로서의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수산물류의 거점이 되기 위한 개발이 보다 본격화되어 2008년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되면서 원양어획물 전용 부두접안시설을 보유하고 국제금융·유통 국제수산물거래 기능을 집결하는 초현대식 종합수산물류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지속적인 개발의 파급효과로 2000년대에 걸쳐 감천항 주변에 70여 곳의 냉동창고가 들어섰으며, 전국 최대 규모인 총 100만t의 냉장능력을 보유하고 각종 수산물 가공기업도 밀집하게 되었다.



인공어초 투하(2007.10 쥐섬 주변)

아울러 다대포항을 거점으로 한 기존 어업의 경우도 관광과 레저를 겸비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관광 어항'으로의 개발이 그것이다. 기존의 낡은 물양장과 수리조선소를 정비·이전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개발 여지를 넓히기 위해 항계를 확대하고, 항내 준설·방파제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렇게 정비한 공간에는 관광 시설, 해양 레포츠 시설 등이 유치된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천-다대포항-다대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배후도로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대포항이 관광을 접목한 복합어항으로 거듭나면 주변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낙동강 하구, 크루즈터미널 등과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류와 해양관광레저산업을 두 축으로 해양 질서 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형 수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

3) 상업 -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경쟁과 공존

1970년대 말 사하구에는 공설시장으로 1969년 3월 신평동에 개설된 신평시장이 있었고, 그 외에 사설시장으로 6개의 시장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감천 1, 장림 2, 괴정 2, 하단 1 이었다. 사설시장은 전부 197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되었다.

1970년대말 상설시장 현황

구분	시장명	위치	점포 수	상인 수	개설 시기
공설	신평시장	신평동 111-213	115	81	1969. 3. 20
사설	감천시장	감천동 466	72	46	1975. 9. 15
	부원시장	장림동 325	29	29	1976. 2. 13
	장림시장	장림동 792	50	50	1976. 2. 28
	괴정시장	괴정동 1016	300	300	1977. 5. 10
	사하시장	괴정동 553-14	150	150	1977. 8. 17
	하단시장	하단동 26-1	40	40	1978.10.23

자료 : 부산시 사하출장소, 『사하통계연보(제2회)』 1979

1980년대에는 사하구의 구세 팽창에 비례하여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상설시장은 11개, 점포 1,000개 정도의 규모였으나 1980년대 후반기 점포 수의 경우 60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1980년대에는 상설시장과는 별도로 한국형 소매점인 이른바 '슈퍼마켓'이 등장해서 빠르게 성장했음도 확인된다. 1984년 20개 소였던 슈퍼마켓은 1988년 45개 소로 단기간에 2배 이상 점포 수가 늘었다. 그러나 슈퍼마켓의 성장은 1980년대에 국한된 것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 쇠락하게 된다.

1990년대 전반기 세력을 다시 확장한 것은 상설시장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줄곧 11개였던 상설시장 수가 다시 확장되어서 1990년대 중반 18개 소로 늘었고 점포수도 1,600개를 넘어서 절정에 이르렀다. 아울러 1990년대 후반에는 괴정동에 신세화백화점이 들어오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소매 시장에서 기존 상설시장과 경쟁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상설시장으로서는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설개선은 물론 전면적 재건축을 통한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1996년 유통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외국대형유통업체의 진출 확대 역시 상설시장의 위기의식을 가중시켰다.

서민의 부엌이면서 삶의 터전이기도 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장 재개발, 시설보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 경비의 50% 정도를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하구 지역의 경우 1996년도 융자지원사업에서 괴정시장이 시장재개발 부문에 선정되어 40억 원을 지원받았고,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부문에서 2개 소가 선정되어 4,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 내용

구분	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자한도
시장재개발	연리 6.5% 이하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	건축, 기반공사비의 50%	40억원 이내
시장시설 개보수	연리 6.5%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개보수공사비 및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	5억원 이내
임시시장 설치	연리 6.5%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건축, 기반공사비의 50% 이내	5억원 이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연리 6.5%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시설공사비의 100%	5천만원 이내
공동창고 건립	연리 6.5% 이내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시설공사비의 50%	15억원 이내

자료 : 부산광역시사하구, 『구정백서 1997』 1997

정부 지원에 의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저리융자의 비율이 75%까지 높아지고 융자한도도 시장재개발의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09년 현재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역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시장재개발 · 재건축	최고 100억원 융자 (사업비의 75%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공동쿠폰 발행, 상인교육 등	민간부담 0~30%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정보화 교육,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시설현대화	주차장, 아케이드, 공동배송센터 등 시설환경개선	민간부담 10%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상업기반 시설	상업기반시설 민간부담 10%

자료 :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8~2009 구정백서』 2010
주 : 지원 내용은 국 · 시비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사하구 지역의 경우 2008년도 장림, 신평, 하단의 재래시장 4곳의 현대화 사업으로 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신평골목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에 8억 원 등 3곳에 도합 8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2010년에는 11억 원의 예산으로 5개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가락타운상가시장과 다대씨-파크시장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평 골목시장



하단시장

이렇듯 199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노후된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0년대에 들어서 재래시장의 위축과 그 자리를 대형유통업체들이 차지하는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의 영세성과 조직화·협업화의 부진, 점포시설의 낙후, 유통환경의 전근대성 등 기존의 문제점이 일정하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시장의 추이

	상설시장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개소	점포수	개소	점포수	개소	면적
1983	11	938				
1984	11	998			20	4,568
1985	11	1,031			28	5,584
1986	11	963			28	5,584
1987	10	923			28	5,584
1988	10	586			45	5,843
1989	11	667				
1990	11	667				
1991	11	667			21	
1992	16	1,386				
1993	17	1,614				
1994	18	1,609				
1995	13	1,304				

1980년대 이후 시장의 추이

	상설시장		대형유통업체		슈퍼마켓	
	개소	점포수	개소	점포수	개소	면적
1996	14	1,625	1	212		
1997	14	1,627	1	212		
1998	14	1,627	1	212		
1999	14		1			
2000	15		3			
2001	15		3			
2002	15		3			
2003	15		3			
2004	14		4			
2005	14		4			
2006	15		6			
2007	16		6			
2008	16		6			
2009	11		9			

자료 : 사하구 『통계연보』 각 연도 판에서 작성

주 : 『사하구지』와 통계연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통계연보의 수치에 따랐음



제7장
교육과 종교

1. 교육
2. 종교

제7장 교육과 종교

1. 교육

1) 개항 이전의 교육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로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372년(소수림왕 2)에 설립한 태학을 그 효시로 잡는다. 태학은 관학 교육기관으로서 수도에 있었고, 지방에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경당이 있어 평민층 자제에게 경전과 궁술을 교육하였다. 이 제도는 점차 백제 및 신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은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유교문화의 수용이 가장 늦었다. 고구려식의 관학이 체제를 갖춘 것은 통일신라 682년(신문왕 2)이었으며, 그 이후 경당과 같은 사학이 지방에 퍼져 나갔다.

고려시대에는 수도에는 국자감을 비롯하여 지방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학기관인 향교가 설립되었다. 각 마을에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서재가 발달하였다. 당시 동래현에는 향교가 없었으나, 서재는 곳곳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관학으로서는 한양에 성균관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개국 초부터 교육진흥책을 실시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선현을 봉안하고 양반자제를 교육시키는 서원과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된 향교는 모두 329개이며, 그 중에 경상도의 향교수는 67개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았다. 이 때에 동래부에도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안락서원이라는 서원도 설치되었다.

개항기 이전에는 지방에 관학교육보다는 서당 등 개인교습소가 많이 설립되었다. 개항기 이전의 부산의 교육은 동래향교와 안락서원, 그리고 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하구의 경우는 서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다대초등학교의 전신인 다대실용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이력을 보면 거의 서당 또는 야학에서 학습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당교육은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민중 자체교육기관이었던 경당(扃堂)

이 형태가 변화되어 내려왔을 것이다. 글방으로도 불러진 서당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민중의 자제를 위한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한 사설 기초교육기관이었다.

조선시대가 되면 문치주의적 국가 성격과 유교적인 교화에 의한 영향력이나, 과거를 지향하는 집념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쳐져서 웬만한 마을이면 서당이 있게 마련이었다. 서당교육의 목적은 사학이나 향교 혹은 서원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 기관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방 청소년에게 한문의 독해력을 기르고 유교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과 인생관을 이해시키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서당의 조직은 훈장(訓長), 접장(接長), 학도로서 구성되었다. 훈장은 그 학식이 일정하지 않아 교육수준도 차이가 심했다. 접장은 학도 중 연령이 높고 학력이 우수한 자를 골라 훈장을 보좌하여 학도를 가르치게 하였다. 서당학도는 대개 7~8세로부터 15~16세의 아동이 주가 되었고, 때로는 20세 이상의 학도도 있어 실력 정도의 격차가 심했다. 서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훈당자영서당** : 이는 훈장 자신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거나 자신의 교육취미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세운 서당이다.
2. **유지독영서당** : 이는 마을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한 이가 자기 자식 및 친척의 자제를 교육시키며, 훈장의 급료를 혼자 부담하고 때로는 이웃집 자제들에게도 무료로 공부하게 하는 이른바 동냥공부를 하게 하는 서당이다.
3. **유지조합서당** : 이는 동네의 유지 몇 사람이 뜻을 모아 훈장을 초빙하고 자신의 자제들만을 교육시키는 서당이다.
4. **형촌조합서당** : 이는 동네 전체가 의논하여 훈장을 모시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다. 그 중에는 훈장의 급식 정도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 밖에도 서당이 인근에 없는 곳에서는 사원에서 학동들에게 기초한문을 가르친 곳도 있었으며, 겨울 동안만 훈장을 모셔와 순번제로 숙식을 제공하고 인근 아동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순회교사제와 같은 형태가 화전민촌에 있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서당의 교육내용은 강독·제술·습자의 세 가지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독은 천자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몽선습, 통감, 소학, 사서, 삼경, 사기, 당송문, 춘추, 예기, 근사록을 읽힌 곳도 있었다.

둘째 제술은 일반적으로 오언절구, 칠언절구, 사율, 십팔구시, 작문 등을 가르쳤다.

셋째 습자는 처음에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한 자씩 가르쳤다. 다음 글자를 붙여 소리내어

읽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의 대의를 가르쳐서 마지막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풀이하여 읽도록 하였다.

특히 강독에는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종일 숙독시켰으며, 훈장과 학생은 그 읽은 수를 합계했다. 숙독시킨 것은 그 다음날 암송시켜 통한 후에야 그 다음을 공부하게 했다. 만일 암송을 못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이리하여 학생의 재질에 따라 우수한 자는 빨리 학업을 이루었고 둔한 자는 낙오되거나 늦게 도달했다. 그러므로 서당교육은 오늘날 학교교실에서 진행되는 획일적 기계적인 학습은 아니었다. 학습자의 개인차와 능력에 맞추어 주로 개별적인 지도방법에 의해 교수되었다. 그러므로 서당에 같이 입학했어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내용과 진도마저 달랐다. 서당교육은 오늘날의 교육용어로 말하면 무학년 능력별 교육제도를 활용하면서도 개개인의 교도에 철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

비록 조선시대의 서당이 자생적인 기초교육이었으나 국민대중의 문자교육과 그 마을의 도덕적 예교적 풍속을 이루고 순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바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 사회교화로서의 향약의 상휼 등을 비롯한 자체 교화의 습속 형성에서 서당이 차지했던 비중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부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당이 동래에 있었던 시술재(時述齋)이다. 1732년(영조 8)에 동래부사 정언섭이 읍성을 쌓은 기념으로 세운 것인데, 조선 후기에 향학심과 경제력의 신장 등으로 서당은 웬만한 마을이면 있게 되었다. 국권이 상실된 뒤에도 서당은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근대학교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일제식민지 하에서 1919년 19개의 서당에 585명이 수학하였고, 1929년에는 14개의 서당에 313명이 수학하였다. 1930년에는 8개로 크게 줄었고, 수학자도 139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학술강습소가 10개가 설치되었고 825명이 수강하였다. 1934년 학술강습소는 16개가 되고, 수학자는 2,132명이 되었다.

2) 개항기의 교육

(1) 부산의 교육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교육 분야에 소위 신학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일본에 이

어 청국, 러시아, 미국, 영국 및 독일 등과 수호조약을 맺으면서 서구의 신문화가 들어와서 개화기를 맞게 되었다. 외세의 영향 아래, 특히 일본의 침략야욕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신문화의 유입과 함께 발달한 신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저항운동의 일환으로 자주 자강을 강조하는 민간 사학이 설립되었다. 둘째, 서구 신문화와 함께 들어온 기독교가 선교사업의 하나로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였다. 셋째, 개항 이후 정부가 근대화를 위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이 변동함에 따라 그것이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정착시키는 전진기지로 변질되었다.

개화기의 신교육이 교육개혁으로 이어진 것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였다. 교육분야에 나타난 갑오개혁은 이전에 교육을 관장하던 예조와 과거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학교행정은 학무아문으로 이관시키면서 시작하였다. 홍범 14조에 의하면, 학무아문은 소학교 및 사범학교, 전문학교, 대학을 설립하며 반상의 구별 없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약속을 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1895년 고종은 '교육조서'를 선포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정세에 눈을 뜨게 하는 교육, 즉 새로운 교육에 주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의하면 교육의 기강으로 지(知)·덕(德)·체(體)를 내세워야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만 다른 나라가 업신여기지 않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실용을 취하도록 하는 교육적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그 이후 '소학교령',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등 13개의 법령을 제정하고 교육개혁에 따른 새로운 학교를 설립해 나갔다. 초등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로 분류하고, 증등교육 수준에 중학교, 사범학교, 상공학교, 의학교, 법관양성학교 등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어온 구 교육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우리나라 교육사에 가장 큰 개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민족적 각성을 저항운동과 자주자강운동이 드높아졌으며, 이러한 기운은 민족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사학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혹은 격렬한 정치론을 농하여 편협한 애국심을 창도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사학활동을 비방하였다. 그리고 1908년에는 사립학교에 법제적 제제를 가하고자 사립학교령과 기부금모집규칙과 지방비법을 발포하여 사립학교 재원을 봉쇄하였다.

이 시기에 부산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1895년에 설립된 사립 부산개성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부딪히자 학교를 학부에 헌납하였다. 학부는 교직원 및 학생 대부분을 인수하여 1909년 공립 부산실업학교 및 공립 부산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개성고등학교(전 부산상업고등학교), 개성중학교 및 봉래초등학교의 전신인 것이다.

1895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때 부산에 있었던 공립보통학교는 공립동래보통학교와 공립부산보통학교이다.

동래부에서는 1907년 동래 기영회가 삼락학교를 흡수하여 동명학교를 설립하였다. 동래부민 모임인 동래수면노소신사회의에서 기영회원, 동래부 마작청 관계자, 지방유지 및 학생들이 모여서 기영회의 공유재산을 청소년 교육에 희사한다는 의안을 결의함으로써 개교한 학교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의하면, "야만과 우매를 벗어나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새로운 학교교육에 달려 있으니 이 교육 문제가 우리 국민, 우리 가정의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고을에 보통학교인 개양학교가 있으나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고 소학교 졸업 후에 진학할 학교가 없으니 장차 학생들을 무엇으로 성취시킬 것인가? 선조 대대로 내려온 이 토지를 가지고 자손들의 교육터전을 만들어서 고을 안의 자제들을 진학시킨다면 자손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설립된 동명학교가 지금 동래고등학교의 전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자 민간인이 주도하는 사학설립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1907년 구포에서 1년제 사립 구명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의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인 것이다.

당시에 사립학교는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나 사립부산진육영보통학교만이 보통학교라고 불렸고, 나머지는 사립학교로 호칭하였다. 1910년 국권 상실 당시 부산 지방에는 사립학교로 다대포사립실용학교, 사립양정학교, 사립명정학교, 사립동명학교, 사립구명학교 등이 있었다.

(2) 사하구의 교육

사하구의 교육을 살펴 보기 전에 이 지역의 특색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것은 이 지역이 부산의 다른 곳에 비하여 일찍부터 학교가 설립되는 등 교육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① 사하구의 지역적 특색

사하구는 행정구역으로 괴정동,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구평동, 감천동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항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인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 하단동, 다대동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등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에 이곳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하단은 하단포구가 형성되어 있어 일찍부터 활성화된 곳이었다. 이곳은 부산항 개항(開港, 1876년) 당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모여서 다시 낙동강 물을 이용하여 내륙지방에 운반되던 상업의 요지였다. 당시 상인들은 인근 명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싣고 삼랑진(三浪津), 왜관(倭館), 상주(尙州)로 드나들며 벼와 교환했다. 사들인 벼는 낙동강 일대의 가장 큰 미곡시장인 하단장으로 옮겨졌다. 또 이곳에는 이를 도정하는 객주업(客主業)이 발달하였고, 소금, 벼, 노적거리가 곳곳에 쌓여 있어 물동량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 1872년 7월 처음으로 기계 시설에 의한 부산정미소(釜山精米所)가 하단포에 설립되면서 낙동강 유역과 김해평야의 벼가 이곳으로 운반되어 정미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하였다. 미곡 거래 시장으로 하단의 번창은 대단하여 부산에서 대티(大峙)만 넘으면 모두 하단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1893년에 하단포에 객주조합인 상회사가 설치되었다. 하단포의 객주업이 규모가 커지자 타 지역의 객주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대구, 청도, 밀양 세 읍의 객주들이 하단포와 엄궁의 객조조합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다시 밀양, 진주, 고성 세 읍의 객주가 하단포의 객주조합에 적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하단은 상품이나 농산물의 교역지로 흥청댔고, 구포(龜浦)와 함께 큰 장이 섰던 곳이다.

하단포의 객주들은 물품거래량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재를 털어서 1887년 경에 축부굴항(築埠掘港; 부두를 축조하고 항구를 파내는 공사)을 하였다. 1893년에는 축부굴항하는 비용을 거둘 때 하단포에 들어오는 곡물 구문(구문; 흥정을 붙여주고 받는 돈) 전액을 상납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1898년 9월 대한제국(大韓帝國)과 경부철도합동조관(京釜鐵道合同條款)을 맺는데 성공하여 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190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그 이전인 1896년부터 철길을 설치할 곳을 물색하였다. 그들은 삼랑진에서 낙동강 서쪽 강가를 건너 하단동과 괴정동을 거쳐 지금의 대티터널 쯤에서 굴을 뚫고 대신동을 거쳐 동광동에 종착역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하단동의 주민들과 객주들은 「쇠말(鐵馬)이 들어오면 동네가 망한다」고 하여 이곳에 철도가 부설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여 철길이 북부산(北釜山; 현재의 구포)으로 깔렸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1897년 8월 부산 출신 박기종(朴琪淙)

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철도를 부설할 것을 계획, 부산과 하단동 사이에 길이가 6㎞인 경편철도를 부설하려고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 일부 착공까지 했으나, 하단 주민들과 객주들의 맹렬한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경부선 철도는 사상(沙上)을 경유하게 되어 하단은 이전과 달리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열차편을 이용한 물자의 운반으로 정미업이나 그 밖의 교역지는 자연적으로 하단에서 구포로 옮겨지게 되었고, 자연 하단은 한적한 포구로 전락하였다. 또한 하단은 매년 낙동강의 홍수로 그 하상(河床)이 높아져 포구의 조건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32년 구포다리가 부설되어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하단에는 다른 산업이 발달하였다. 즉 하단에 위치한 을숙도에는 갈대가 지천에 깔려 있었다. 따라서 1950년~1960년대에 갈대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갈대는 종이가 발달되기 전에는 이것에 글을 써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갈대를 이리저리 엮어 각종 생활도구로 즐겨 사용하였다. 갈대로서 그늘을 짓는 발을 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깔자리를 엮고, 고기를 잡은 통발과 갈삿갓, 도시락 같은 것을 만들어 집에서도 쓰고 갈대밭과 갈삿갓과 삿자리는 시장상품이 되기도 하였다. 또 지붕을 올리는 재료에도 쓰이고 부엌의 땔감으로도 쓰였다. 목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은 마른 갈대꽃이 방한용 솜 대신으로도 쓰이고 갈대잎은 습기를 제거하는 유용한 자리방석 역할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갈대는 하단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강변 사람에게 소중한 생활재료로도 사용되었으며 각종 갈대제품의 생산 또한 겨울의 부업으로 각광받았다.

이 시기 포구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다대포도 마찬가지이다. 다대포는 일찍이 멸치가 많이 잡히는 어장이 발달되었다. 지금은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이것은 수십 세기를 걸쳐 이어졌다. 이곳에 사람의 흔적을 발견되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이다. 다대포지역에서 발견되는 조개무지와 유물 특히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에서 당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다대포는 또 교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해상과 육상을 아우를 수 있는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지리적 조건에서 바다에 나는 각종 물품을 육상으로 전달하고 육상의 제품을 바다로 이어지는 물류수송의 중심지였다. 또 이곳은 군사적인 거점지역으로서의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해양세력의 내륙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다. 이곳을 점령하면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의 입장에서는 물류수송이 유리하고 남해쪽까지 수중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해양세력을 막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적의 예봉을 꺾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조선시대 경상좌도 7진 중 하나로 다대진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다른 진보다 2배에 가까운 병선을 배치했다. 이는 국방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 외의 사하구 지역은 해방 이전까지는 거의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1950년대 이후에 용두산대화재나 역전대화재가 일어나 많은 이재민이 괴정으로 이주하여 이곳을 신촌(新村)으로 명명할 정도로 새로운 주거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신평·장림공단의 개발로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갔다.

② 학교의 설립

이 시기 조선의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인다. 먼저 고종대의 교육정책이다. 고종이 반포한 교육정책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외세 및 서구 문물가의 대응 속에서 실학사상을 접목한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 인권 국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화사상을 형성한다. 세 번째는 국가의 부강을 위한 신학문과 기술을 수용하여 교육을 통한 민족적 각성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한 민족의 자주와 자강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어교육, 교사양성, 실업교육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즉 이를 다시 요약하면, 실용교육을 통한 부국강병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외세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민족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사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점이다.

따라서 사하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지가나 민간단체에 의한 사학설립운동도 활발하였다. 이점은 앞서 언급한 사하구지역의 특색과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30년대 전후 다대초등학교 졸업생의 회고에 의하면, 이들이 입학하기 전 야학이나 서당에서 공부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서당 등 개인적인 학습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 사하구의 학교로 들 수 있는 것이 다대포사립실용학교와 사립양정학교이다. 먼저 다대포사립실용학교(多大浦私立實用學校)를 보도록 한다. 이 학교는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 1902년(고종 39)에 창립하여 1904년에 개교하게 되었는데, 다대사립실용학교의 설립자 한경호씨를 중심으로 학교설립에 노력을 기울여 당시 부산부에 신고를 하여 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1909년). 학교 이름인 '실용'은 '실지응용'이라는 뜻으로 이 시기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이 보인다.

학교 위치는 다대진 성터이며 교실은 다대첨사영 건물을 수리하여 사용하고 여기에 부

속되어 있는 관유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였다. 설립 당시 교원은 교장 윤필호, 교원인 한홍수, 일본어교사 야마다로 구성되었다.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기부금과 권학답의 매매대금, 그리고 이후 1910년에는 목장토지의 매매대금 200원도 포함되었다.

이 학교는 1943년에 다대포 공립국민학교가 개교되자 1945년 광복과 함께 학생들을 인계하고 폐교하였지만, (1943년 다대포국민학교가 설립되자 1945년 4월 1일 3학년 이상만 있던 3학급 학생을 인계하고 폐교하였다), 부산지방에서는 한말에 설립되어 국권상실하의 어려운 시기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여 온 사립학교가 된다.

한편, 1908년 10월 6일에 사립양정학교(私立養正學校)가 하단에서 개교하였는데, 당시 설립자는 서석주 외 9인이었으며 초대 교장인 이유진(李裕眞)은 그 중의 한 명이었다. 11년간 졸업생 37명을 배출하고 1919년 3월에 하단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이때 2학급 81명 규모의 학교이었고, 이어 11월에 사하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괴정동으로 이전하여 오늘의 사하초등학교가 되었다. 이는 사립학교는 대부분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의 온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당국이 교육장악정책의 일환으로 강행한 조치였다.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설립허가 기준을 강화하였고 교과서 검열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설립된 학교이므로 역사적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하겠다.

양정학교의 교과목편성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같은 시기에 설립된 부산공립보통학교의 여자부 교과목을 보면 당시 보통학교의 설립취지를 알 수 있다. 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이과, 창가체조, 재봉 및 수예이다. 주로 일본제국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단순한 기능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하구에 일찍 사립학교가 부설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신문화에 대한 열의와 애국정신,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에의 열정이 어떠했음을 증언하는 것이라하겠다.

또 이 시기 사하구의 또 다른 변화는 부산교육계에서 설립한 동래교육회의 대표적인 회의장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1909년에 설립된 동래교육회는 교육의 개선과 공·사립학교 교직원의 융화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 단체는 공립부산실업학교에서 발회식을 가졌고, 이때 참가한 회원은 100여 명으로, 회장에는 동래부윤 김창한을, 부회장에는 공립부산실업학교의 학감인 후쿠시(福士德平)을 추대하고 사무실은 실업학교에 두었다. 그리고 회의장소를 각 학교에 순차로 정하여 부산진, 동래, 구포, 범어사, 다대포에서 차례로 개최하였는데, 실제 수업의 비판, 교육상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권을 상실한 뒤에도 1년여 존속하다가 일본인이 1907년에 설립한 부산교육회가 있어 두 개의 교

육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하여 합의한 끝에 한국 측 교육회는 해산하였다.

다대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대실용학교가 1902년 설립되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매우 선진적인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인이 부회장으로 참석하는 관설적인 교육회 활동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이곳이 일찍부터 지리적으로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서당 등의 교육활동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학교설립 등이 등장하자 일제가 이를 정책적으로 저지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국권상실 초기에는 초등학교 입학 지원자가 얼마 되지 않아 부산공립보통학교의 경우 1910년 재교생이 203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차츰 희망자가 늘어나 1914년 3월에는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지원자 120명 중 1학년 64명, 2학년 5명, 3학년 7명을 합격시키고 나머지 44명을 탈락시켰다. 이 무렵 하단의 사립양정학교 학생 4명이 부산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학을 지망하였으나 불허한 일도 있었다.

3) 식민지 시대의 교육

(1) 부산의 교육과 사하구의 초등교육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1895년 소학교령을 공포로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1906년 보통교육령 공포로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11년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수업 연한 4년의 수준 낮은 교육제도가 되어 버렸다. 일본은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 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덕육을 베풀어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는 목적 아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지방사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세 이상인 자가 입학하도록 하였다.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이과, 창가, 체조, 도화, 농업초보, 상업초보와 남자에게만 과해진 수공, 여장에게만 과해진 재봉 및 수예의 12과목이었는데, 수신 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의 4과목은 필수이었고, 나머지는 지역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조선어 및 한문 과목이 있었으나 한문의 비중을 더 두게 하였는데, 이는 보통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어를 없애려고 한 수작이었다.

보통학교의 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을 썼으며, 초기에는 무상으로 대여했다. 이는 공립보통학교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업료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보통학교의 교원은 훈도와 부훈도라 했는데, 뒤에 촉탁교원, 대원교원도 있었다. 훈도와 부훈도는 판임관 대우로 통감부시대까지는 학교장이 대부분 한국인이었는데, 일본인의 교감이 파고 들어와 조선교육령 실시 후는 한국인 교장을 모두 몰아내고 일본인이 독점하는 동시에 교감제도도 폐지하였다. 일본인은 일본 본토에서 채용하여 1-3개월의 강습 후 임지에 배치되었으며, 한국인은 관립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사범과 출신과 경성고등보통학교의 임시 교원양성소 출신 및 교원 시험합격자를 채용하였다.

그리고 보통학교의 설립유지는 1911년 10월에 제정한 공립보통학교 비용령에 의하여, '임시 은사금 이자, 향교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변한다.'고 하면서 '전 항 외에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설립 구역 내의 한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지역 내 거주의 한국인으로부터 비용을 강제로 징수하여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으로, 한국민족에게서 한국민족의 혼을 빼앗는 식민지교육비용을 한국인의 영세한 생활비에서 빼앗아 썼던 것이다. 이것은 1920년 조선학교비령이 제정되면서 필요할 때는 부역 또는 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까지 발전되어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국권상실 당시는 부산 방에 공립의 보통학교는 공립동래보통학교와 공립부산보통학교의 두 학교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895년 소학교령을 공포하여 근대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는데, 1906년까지 서울에 관립 소학교를 9교 설립하고, 보통교육령을 공포하여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하고, 관찰부 소재지 13개 도시에 공립의 보통학교를 설립하였으며, 다음 해에 지방도시에 28개의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때 설립된 것이 공립동래보통학교로 부산 지방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공립의 보통학교이며 처음에는 남자만 수용하여 교육하였다. 1912년 따로 여자 교육을 위한 여자부를 설치하였다가 1925년에 독립시켜 동래제2공립보통학교라 하였다. 공립동래보통학교는 1911년 조선교육령 실시와 함께 동래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25년에 동래 제1공립보통학교로 학교 이름을 고쳤다. 1938년 모든 보통학교가 일본인 학교와 같이 심상소학교로 불리었다가 1941년 복정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해방 후 현재의 내성초등학교로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여타의 보통학교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당시에 사립학교는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나 사립부산진육영보통학교만이 보통학교라고 불렸고 나머지는 사립학교로 호칭하였다.

다시 요약하자면, 일본은 공립보통학교체제로서 한국인의 자주적 교육기관인 사립학교

와 서당을 없애고, 이것을 보통학교에 흡수통합하는 동시에 민족사상을 말살하는 데 주력하였고, 보통 교육을 완성된 교육으로 선전하여 한국인에게 고도한 교육을 시키지 않는 우민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조선교육령을 한국인에게만 적용시켜 교육제도나 교육내용을 일본인과 다르게 한 동시에 수준낮은 것으로 하여 철저한 차별정책을 썼던 것이다.

식민 초기 교육의 기본방침은 황국신민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의 천황제를 한국민족의 도덕적인 기본으로 하여 황민화를 달성하고 한국인에게 반드시 일본어를 가르치며 한국민족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래의 자주학교를 철저히 단속, 파괴하는 것 등이 교육의 기본 방침이었다.

3·1운동을 겪은 일제는 조선의 항일정서를 무마하기 위하여 1920년대에 문화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한일 동일 대우를 발표하고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이란 허울 좋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한국어의 민간신문 발행을 허용하며, 한국인의 관습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교육을 일본인의 교육제도에 준거하도록 하는 등의 개혁을 내세워, 교사들의 대검착용을 폐지하고 한국인의 교장임명과 경성사범학교의 설립, 보통학교 확장을 위한 3면 1교 계획의 4개년 단축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리하여 총독부는 먼저 1921년에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선교육령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1922년 2월 4일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임시교육조사위원회는 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원 20명과 간사 5명만 위촉하였는데, 한국인은 이완용 밖에 없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다음의 네 가지 특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래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구별하여 조선교육령으로 한국인 교육만을 규정한 것을 개정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였다. 둘째, 종래 초등보통 교육과 고등보통교육을 일본인보다 낮은 수준에 둔 것을 원칙적으로 같은 것으로 되게 하였다. 셋째, 종래 전문학교보다 높은 정도의 교육기관이 없던 것을 개정하여 새로이 대학을 두도록 하였다. 넷째, 정식의 교원양성기관으로서 독립의 사범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형식상 균등화가 도모된 이 교육령은 보통학교 수학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총 교육연한을 16~17년으로 연장하여 일본인과 같게 하였으나 여전히 교육의 중심은 공립보통학교에 두었다. 그리하여 1919년부터 3면 1교를 두도록 하는 한국인 초등학교 확충계획을 4개년 단축하여 1922년에 달성하도록 수정하였으며, 1930년부터 1936년까지는 1면 1

교의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산에서는 3·1운동 뒤, 민족적 자각이 크게 일어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녀들을 취학시키는데 전에 없이 열성이었다. 이 때 수업료가 30전이었으나 입학지원자는 계속 증가하여 각지에서 학교 설립의 요구가 높았다. 사하공립보통학교의 경우 교실 부족으로 1922년에 2부제 수업을 한 일도 있었다. 이때는 주민들이 학교설립비를 기부금으로 내어야만 학교를 설립해 주었기 때문에 각지의 주민들은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여 부산부청에 납부하였다. 이로써 부산지역에서는 1926년 부산, 부산진, 목도, 부민의 4개의 공립보통학교 외에 동래제1, 동래제2, 구포, 사하, 사상, 수영, 대저, 명지, 서면공립보통학교의 9개의 학교가 있어서 공립보통학교는 13개로 증가하였고, 사립학교는 부신진일신여학교와 사립다대포학교가 있을 정도였다. 이는 거의 대부분이 공립학교로 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총독부가 한국인의 민족사상을 말살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교육기관인 사립학교를 공립보통학교에 흡수 통합하려는 정책의 결과라고 하겠다.

일본인의 경우 학교조합을 만들어 학교 설립과 운영비용을 부담하였고, 한국인은 1910년의 학교비용령에 의해 부과세로서 학교비용을 부담하였고, 1920년에 학교비령이 제정되어, 한국인 학교는 한국인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1926년 부산부 거주 한국인은 64,928명이고, 일본인은 40,803명이었다. 한국인 보통학교는 4개 공립학교와 사립 1개교에 3,686명이 수학하고 있었고, 1921년에 설립된 사립일신유치원에 60명이 다니고 있는 정도였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유치원 2개원에 237명, 소학교 8개 학교에 5,392명이 수학하고 있어 인구에 대한 비율이 한국인 학생이 5.3%, 일본인 학생이 13.2%로 취학률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일 동일 대우를 내걸었지만, 취학률만 보아도 그것이 허울뿐인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일본의 공업은 피폐하였고, 그 여파는 한국의 농업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이때 일본은 토지조사의 명목으로 토지를 수탈하고 대륙 침공을 위한 군수산업 치중으로 한국의 농촌은 극도로 피폐하였다. 이에 부산에서도 농토를 통한 근로교육이 어려웠으므로, 보통학교에 직업과의 시설을 갖추어 직업교육과 아울러 근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매점·이발부·수선부 등을 두어 상급학생이 실습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1932년에 보통학교에 직업과를 특설하였다. 학교 내에 자활을 위한 근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나, 고도의 기술을 기피하고 생활의 실제에 적용되는 초보적인 기술만 익혀, 그들이 노리는 초급 근로자 양성에만 급급하였다.

1930년부터 소위 1면 1교의 공립보통학교의 확충계획이 추진되었으나, 부산에서는 학교

설립이 늦어져 학생 수용이 난관에 봉착하였다. 부산공립보통학교의 경우 입학희망자가 565명이나 되었으나, 입학허가자는 남자 140명, 여자 70명의 210명으로 355명이 입학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2부제 수업실시를 당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76명을 추가 입학시켜 2부제 수업을 실시했는데, 학부형의 건의로 교무실을 비워 교실로 충당하여 1개월 뒤에 1부제로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사하공립보통학교에서는 1928년에 6년제 강습과를 설치하여 1934년에 70명의 입학자 중 35명을 졸업시켰고, 제2기는 1940년에 53명을 졸업시켰다. 이와 같은 심각한 입학난 때문에 1932년 남부민공립보통학교, 1935년 수정공립보통학교를 신설하였다. 총독부는 이러한 취학난 해소와 한국인의 내부적 자생적 자주교육기관인 서당을 그들의 통제 속에 끌어넣기 위하여 간이학교 제도를 창안하여 193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도시부는 193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부산부에서는 간이학교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분교장만 설치하였다. 부 내에서는 동삼분교장이 있었고, 근교에서는 화명, 금사, 두구, 송정, 제도 등의 간이학교와 대저, 사두, 용연, 적기, 남천, 상덕 등의 분교장이 있었다.

1930년에 전국에 서당이 14,041개소, 사설학술강습소가 약 2,000개소 있었다. 부산에는 1926년 서당이 278개소 있었는데, 차츰 줄어들어 1936년에 19개소만 남았고, 금성동에 학술강습소가 1개소 있을 뿐이었다. 한국인 학교가 부산에서 많이 증설되지 못한 것은 학교의 유지를 수혜자 부담에 돌린 총독부의 정책 때문이었다.

1936년 부산부의 인구는 많이 증가하여 202,068명에 이르렀는데, 한국인이 143,605명이었고, 일본인은 58,463명이었다. 이때에 한국인은 유치원이 4개원에 596명, 보통학교가 부산, 부산진 등 7개교에 7,000여 명이 수학하고 있었으나, 일본인은 유치원이 8개원에 679명, 소학교가 8개교에 7,416명이 수학하고 있었다. 1935년 한국인의 취학률은 25%로 10년 전보다는 10%의 증가를 보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 일본은 한국인에게 신사참배, 국성요배,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한국어의 사용과 교수를 금지시켰으며, 교원과 학생을 불온 분자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감시하는 등 탄압하여, 소위 황국신민이란 의식을 갖게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한국어의 사용금지로 한국인의 모국어를 말살하는 술책을 썼고, 황국신민의 서사 낭독과 황국신민의 체조여행, 시국간담회 개최 등으로 한국인의 자주 자활 정신을 뺏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문과계를 실기·기술 부분으로 전환 개편하고, 학교 근로 동원을 단행하여 그들의 대륙침공에 이용하였다.

한편,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학교 교명을 일본인의 학교 교명과 같이 심상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개칭하게 하였다. 1941년에 이르러 모든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1943년 조선교육령을 다시 개정하여 군국주의적 교육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총독부는 제3차 한국인 초등교육 보급확충계획을 세워, 1937년부터 10년간에 전원 취학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1943년에는 의무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인이 이러한 계획을 한 것은 그때 확정된 징병령에 맞추어 그들이 필요한 군인 양성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1942년에 이르러 동래, 사하, 수영, 대연 지구가 부산부에 편입됨으로써 부산의 국민학교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때 편입된 학교는 내성, 유락, 수영, 사하, 다대(사립)국민학교였다. 1940년의 취학률은 60%에 이르렀는데, 시설 부족을 이유로 후부제(後部制)를 각 학교에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취학률도 높아진 것이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문부대신의 직무를 조선 총독이 대행하도록 하면서 황민화교육과 군사교육의 강화, 근로 보국대를 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전시체제로 바꾸어 나갔다. 각 학교의 교육회를 해체하고, 국민총력연맹 학교로 개편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하여 한국청년을 일본의 전력강화에 이용하였다. 더욱이 1년에 한 차례씩 군대를 동원한 교련사열을 실시하여 성적이 불량한 학교 및 학생에게는 상급학교 진학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도 총검술, 행군, 중량물 운반경기 등으로 대체하여 전력 증강경기로 변질시켰다.

1943년 3월 일본은 전세가 불리해짐에 따라 전시체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격은 ①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중등학교로 통합하여 수업 연한을 4년으로 단축하고 ② 교육의 목표를 국민 연성에 두고 교육 내용도 교과와 수련으로 분리하였으며 ③ 교과를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실업과 외국어과 등 6과로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수련이란 군사훈련과 근로 동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교육령이 공포된 같은 해 10월에는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 조치령을 공포하여 문과계 전문학교를 이과계로, 여자전문학교를 여자청년연성소로, 상업계 실업학교를 공업계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도 지원입대를 강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해지고 일본의 패퇴가 거듭되자, 부산에서도 공습의 위협이 커져서 1945년 6월에는 수업을 중지하고 연고지에 소개(疏槪)할 것을 권유하였다. 7월에 들어 집단 소개를 실시하여 1학년은 사상, 2학년은 구포, 3학년은 물금, 4학년은 청룡, 5학년은 양산, 6학년은 울주 삼남, 고등과는 언양에 소개되었다.

1~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에 근거한 식민체제 아래 1910년부터 1942년 사이에 부산 지역에서는 초량보통학교를 비롯하여 20개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1930년부터 1면 1교의 공립보통학교 확충계획이 추진되었으나, 부산에서는 학교 설립이 늦어져 학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총독부는 취학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자생적 교육기관인 서당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통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간이학교 또는 학술강습소를 세워서 초등 수준 교육을 대신하였다. 당시 사상 지역에는 화명 간이학교가 있었고, 그 외 금사, 두구, 송정, 제도 간이학교와 대저, 적기, 용연, 남천 상덕분교 등이 공존하였다.

1942년 동래, 사하, 수영지구가 부산부에 편입되자 대연국민학교(현 초량초등학교), 복정국민학교(현 내성초등학교), 사하국민학교 등이 부산부에 편입되어 국민학교는 18개 교로 증가되었다. 그 뒤 신설된 다대국민학교와 성북국민학교를 합쳐 광복 당시 20개의 국민학교가 있었다.

이러한 부산교육의 변화 속에서 사하구의 초등교육은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지역의 초등학교로는 다대포사립실용학교와 사립양정학교가 있었다. 다대포사립실용학교는 1939년 3월 28일 당시 교장인 한오동이 교명을 '다대포실용학교'로 바꾸고 학교를 재정비하였다. 1941년 국민학교령이 공포되자 1943년 4월 1일 다대포 공립국민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그 해 5월 22일에 개교하게 되면서 다대포실용학교와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다대포실용학교는 1945년 4월 1일 3학년 3학급을 다대포 공립국민학교에 인계하고 폐교하였다.



1934년 사립다대실용학교 가을운동회

사립양정학교는 1919년 3월 하단공립보통학교로, 동년 10월에는 사하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면서 동년 11월 교사를 괴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1919년 3면 1교를 두도록 하는 한국인 소학교 정책과 맞물려 일어난 일이었다. 1923년 3월에는 2부 수업까지 5학급을 편성하여 총 333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그 후 1925년에는 수업연한을 6년제로 연장하여 5학년이, 1926년에는 6학년이 설치되었다. 일제강점기 후기에 해당하는 1938년 4월 1일 학교명은 사하공립심상소학교로 다시 개명하였다. 이는 내선일체라는 일제식민정책을 북돋우기 위해 일본 본토와 같이 심상소학교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더불어 황국신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려고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한편 한국어 사용과 교수를 금하는 강력한 정책을 밀고 나갔다. 그리고 1941년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면서 사하공립심상소학교는 사하국민학교로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또 하나의 특색은 학교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한 점이다. 먼저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조합을 설립하고 있다. 사하구 지역에 일본인 중심의 학교조합으로, 현재 확인되는 것은 다대포학교조합과 하단학교조합이 있다. 다대포학교조합의 설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같은 교육단체로서 동래학교조합이 1920년대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조합도 이 시기에 창립 또는 활동한 단체로 보인다. 조합원으로는 목촌등길(木村藤吉), 속우길(束友吉) 등이 활동하였다.

하단학교조합은 1917년부터 1932년까지 그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의원과 관리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합의원은 광뢰손(光雷孫), 갑변전정길(甲辨田正吉) 등이며, 관리자는 갑변전정길, 길부묘일랑(吉富卯一郎) 등이다. 이 가운데 갑변전정길은 1929년부터 1932년까지 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선인들은 이러한 조합을 운영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학교마다 그 자금을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대포사립실용학교는 1913년 8월 서울에서 내려온 박영효가 우연히 본동 당산에 묘를 쓰고 학교에 기부금 1,200원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학교 소유의 산 3곳을 박영효에게 팔아 그 대금 3,300원을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였다. 이후 1919년에 첨사청 부속건물 6동을 교장명으로 불하받아 매각하고 잉여금 700원을 학교 수입으로 하였다. 특히 1926년에는 학교재정이 고갈되어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여러 차례 동민회의를 거쳐 학교설립 자본금 1,000여 원과 토지 및 산 매각대금 8,000원을 모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압박은 가중되어 1928년에는 교원급여를 6~7개월이나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선각자들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 중등교육

한일합방이 되기 이전에 부산에서는 공립부산실업학교(지금의 개성고등학교), 부산진일신여학교, 사립동래동명학교가 있었다.

일본은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10월에는 보통학교 규칙, 고등보통학교 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실업학교 규칙, 사립학교 규칙 등 교육령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규를 총독부령으로 제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조선교육령의 제1조에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고 하여, 한국인 교육을 위한 교육령임을 명시하고, 일본의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제2조),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교육을 베풀 것이며(제3조), 교육을 보통 실업 전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되(제4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며(제5조),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지식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제6조), 전문교육은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91조)고 되어 있다.

이 교육령의 학교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보통교육은 보통학교(3~4년), 고등보통학교(4년), 여자고등보통학교(3년), 실업학교는 농업학교(2~3년), 상업학교(2~3년), 공업학교(2~3년), 간이실업학교(제한 없음)이었다. 또 사범학교는 사범과는 1년이었고 전문교육의 전문학교는 3~4년이었다.

한편 일제는 1909년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1911년 사립학교 규칙, 1915년에 이를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된 사립학교 규칙은 사립학교를 고등보통학교에 준하도록 묶어두어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를 보면 "사립학교를 설치하려 할 때에는 사립학교 규칙에 의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요하며, 인가없이 학교를 설치하는 일은 절대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제3조는 "사립학교 설치가 인가된 후에 목적 위치 학칙 또는 설립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조선총독에게, 교장이나 교원을 바꾸려고 할 때는 도(道) 장관에게 각각 청원을 내어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지·교사의 소유자나 유지방법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 규칙(3조)에 따라 교명을 고등보통학교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 행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없고, 상급 학교인 전문학교에 졸업생이 진학할 수도 없게 규정해 놓았다.

1920년 사립학교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종전에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의 교과 과정에 준하고, 그 밖의 교과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사립학교 규칙 제6조의 2)을 철폐하였고, 교원의 자격 규정도 약간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같은 해에 학교비령(學校費令)이 공포되어 한국인의 교육은 한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지역의 주민에게 세금 또는 부역을 부과하도록 하고, 일본인의 교육은 일본인의 부담으로, 학교조합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재원을 구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인 학교는 빈약한 재원으로 운영이 어려웠으며, 일본인 학교는 재원이 풍부하여 학교시설이나 운영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1922년에 공포된 개정 조선교육령에 반영되었다. 1922년 2월에 제1차로 개정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한국인의 학제를 일본의 학제에 준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보통학교에는 2년제의 고등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의 학제를 추가하며, 한국인의 향학심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넓혔다는 명분으로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1910년 공포된 조선교육령에는 관립 고등보통학교와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두어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고, 전문학교 이외 고등교육기관은 학제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에는 사범학교의 설치, 대학교육의 학제 신설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25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선총독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어를 사용하는 자는 소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학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오히려 뒷날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학교에 대거 우선 입학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상의 무마책으로는 차별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었으며, 민족정신은 더욱 더 강해져서 1929년 11월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군벌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한 일본은 만주를 강점한 다음, 1937년 중국 본토에까지 전쟁을 도발하여 동양의 맹주를 꿈꾸면서 대륙침공을 가속화하였다. 침략전쟁이 광대한 대륙에 확대되어 가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대륙침략의 기지로 삼아 인적 자원, 지하자원, 식량 등 모든 자원을 전쟁에 충당하려 하였다. 1938년의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와 지원병제도는 이러한 의도에서 단행된 것이다.

새로 개정된 제3차의 조선교육령은 보통교육을 그들의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에 의하도록 하였고(제2조), 실업교육은 실업교육령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문부대신의 직무를 조선총독이 행하도록 하였다. 이 학교령의 시행에 따라 1938년 4월 1일부터 모든

학교의 교명이 바뀌고, 교육과정도 일본의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 교육령 시행으로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는 동래공립중학교(5년제 2학급씩 편제),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4년제 2학급씩 편제)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부산에 여러 개의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38년 동래공립농업전수학교(지금의 부산원예학교), 1939년 사립초량상업실수학교, 1940년에 부산공립공업학교, 1942년 한일인 공학의 부산공립제2중학교(지금의 경남고등학교와 토성중학교) 등이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일본은 초기에는 다소 기세를 올렸으나, 전쟁이 대륙과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츰 수세에 몰리고 마침내 패전의 길에 들어섰다. 이 무렵에는 이미 교육은 전쟁의 수단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전세의 불리함에 따라 그때 그때 전시임시조치 또는 전시비상조치 등이 잇달아 발표되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나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1941년 4월 교육령의 일부 개정으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편하여 전시교육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중학교와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단축되었다. 1942년 5월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상급생은 을종 간부후보생으로 자진 입대하도록 강권하였으며, 하급생은 소년병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권하였으므로 많은 학생이 괴로움을 당하였다.

일본은 전시체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943년 3월에 개정 공포한 제4차 조선교육령은 소위 전시교육령이라고도 하며, 중등학교 관계는 '중등학교령'을 그대로 '중학교 규정'으로 제정 공포한 것으로 중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중등학교로 묶어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하였다.
* 교육의 목표를 국민연성에 두고 교육내용도 교과와 수련으로 나누었다.
* 교과를 국민과 · 이수과 · 체련과 · 예능과 · 실업과 · 외국어과의 6교과로 통합하였다.

이후 1944년 8월 22일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을 발표하여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군사시설이나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종의 징용령이었다. 젊은 교사들은 거의 소집되어 전장에 나갔고, 학생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상급생들은 징병에 걸려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1944년 이후 각 학교 학생들의 중요 동원 상황은 다음과 같다. 동래중학교는 울산비행장 정비공사, 부산제2공립상업학교는 울산비행장 격납고 건축공사, 조선제망회사(영도 소재) 어망 제조에 동원되었다.

이상과 같은 부산의 학제에서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치열하였다. 대표적으로 3·1운동과 관련하여 동래고등보통학교, 일신여학교, 동래 범어사 학생운동 등이 있으며,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동래고등보통학교, 부산제2공립상업학교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운동의 정점을 이룬 것이 일명 노다이 사건이다.

사하구에 있는 대표적인 중등학교는 입정상업학교와 부산심상소학교였다. 이들 학교는 일본인을 위한 학교였다. 부산심상소학교 2년제 여자보습과를 발전시켜 1906년 부산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부산심상소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현 토성중학교 자리로 신축 이전하였다. 1931년 부산부에 이관되었고, 이것이 현재 하단2동에 있는 부산여자고등학교이다.



1937년 사하심상소학교

1937년에 대신동에 일본인 유지들이 입정상업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주간부는 남자를 수용하여 한국인 학생이 많았으며, 야간부는 일본인 여자들이 많았다. 이 학교는 뒤에 영도 영선동의 해동중학교 자리로 이전하였다. 이후 지금의 사하구에 있는 해동고등학교의 전신이다.

4) 해방 이후 부산의 교육과 사하구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부산에서도 새로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미군은 아직 진주하지 않았고 일본군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일본인들이 득실거리

는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환동포들이 대부분 부산에 주저앉는 바람에 부산은 매우 혼잡했다. 또한 건국준비위원회 등을 비롯한 사상적 대립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9월에 들어서 미군이 진주하고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반명령 제4호를 통하여, 9월 24일을 기해 공립의 국민학교가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당시 한국인이 다니던 학교 20개교를 9월 24일에 일제히 개교하여 광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교한 학교는 봉래, 부산진, 목도, 부민, 사하, 다대 등이었다. 물론 이들 학교는 새로운 학교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광복이 되자 이전의 학교들이 이때 다시 개교한 것이었다. 당시 광복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컸고, 열의도 점차 고조되어 사립학원과 사설 학원강습소의 대부분이 이웃 국민학교에 병합 편입되었다. 사하국민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나, 하단과 감천에 분교장을 설치하였다. 이후에도 많은 국민학교가 신설되었다.

다대국민학교는 1945년 9월 2일 학급수 7학급, 학생수 466명으로 다시 개교하였다. 동년 9월 22일에 군정청 학무당국에서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표가 발표되었는데, 교원이 크게 모자라서 2부제 수업을 할 형편이어서 교수시간이 3시간 정도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장도 한국인이 임명되었다.

사하국민학교는 광복으로 임시휴교하였다가 1945년 9월 28일에 다시 개교하였는데, 당시 10학급에 남학생 497명, 여학생 371명 합계 868명으로 학생수가 크게 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16학급을 편성함과 동시에 교실 부족으로 감천, 하단에 분실을 설치하였다. 그 후로도 계속 학생수는 증가하여 1948년 9월 1일에는 23학급까지 편성하였다. 남녀 학생 비율은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1948년 사하국민학교는 남자 96명, 여자 65명 합계 161명이 졸업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0일 후부터 부산 시내의 거의 모든 학교가 군에 징발되자, 노천수업이나 셋방수업을 하였다. 피난민이 날로 증가하여 부산 시내는 일대 혼란을 이루었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교직원과 학생들 가운데 징집이나 자진입대로 군복무를 하는 자가 많았으며, 생활난으로 전직, 취직, 부업종사자가 많이 생겨 학교교육은 일대 큰 시련에 부딪혔다.

이와 같은 시련 속에 학교 종사자들은 가건물을 지어 수업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 천막교실이며, 판자교실이다. 이들 가교사는 군부대나 외국 원조기관에서 제공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학부모의 찬조와 봉사활동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당시는 교육비가 빈약하여 가교사 건축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대부분을 학부모에게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다대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교를 육군병참학교에 내어주고, 지금의 다대포해수욕장에 천막을 쳐서 공부하기도 하고, 야망정의 소나무 밑에 칠판을 걸고 공부하기도 하는 등 노천수업 또는 셋방수업을 하였다. 사하국민학교도 역시 교사를 징발당하고 임시교사를 당시 대동어업조합 내에 설치하여 공부를 하였으며, 1951년에는 21학급으로 편성되었다. 1952년 3월에는 CAC 원조 교사 6교실과 가교사 7교실을 준공하여 13개 교실을 동시 낙성하였다. 동년 4월에는 감천분실이 독립교로 승격되면서 17학급으로 늘었다.

이렇게 징발된 교실은 1953년부터 환수되기 시작하여 1957년에 가서 완전히 환수가 끝났다. 이 무렵 교실부족이 큰 고민이었는데, 때때로 화재나 태풍피해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사하국민학교의 12교실을 비롯하여 많은 교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사하국민학교는 5학년까지 2부수업을 실시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이다. 1952년에 남천, 성동, 감천, 당감국민학교 등이 신설되었는데, 이들 학교는 대부분 분교장이 승격한 것이다.

다음은 부산의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사하구 지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부산의 중등교육은 매우 미약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한국인에게 고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초등교육에 중심을 둔 황민화교육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광복으로 부산은 중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중등교육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복 당시 한국인이 경영한 중등학교와 일본인이 경영한 중등학교는 다음과 같다. 부산제2공립상업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동래공립농업전수학교,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 동래공립중학교, 부산제2공립중학교, 부산제1공립상업학교, 부산공립고등여학교, 부산제1공립공업학교, 부산제2공립공업학교, 부산공립중학교, 부산공립직업학교, 부산상업실천학교, 미시마고등실업여학교, 부산입정상업실수학교, 부산초량상럽실수학교, 오오야가정실수학교, 경남이발학교 등이다.

광복이 되자 미군이 군정을 실시했고, 미군정 당국은 10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중등학교가 개교하여 수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부산제2공립상업학교(전 부산상업고등학교, 현 개성고등학교), 동래공립중학교(현 동래고등학교) 등이 일제히 개교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사하구의 경우 부산입정상업실수학교는 미군정의 방침으로 폐교되었으며, 재학생은 부산을 둘로 나누어 남부 방면 통학생은 부산제1공립상업학교에, 북부 방면 통학생은 부산제2공립상업학교에 편입하도록 하였는데, 사립학교 학생들을 명문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고 편입학생의 등교를 재학생이 막는 사태가 2개월이나 계속된 일도 있었다.

그 외 신설학교가 설립되었는데, 건국중학교와 낙동중학교 등이다. 1946년 4월에 불교계통에서 입정상업실수학교를 인수하여 불교경남교무학원이 설립되었고, 뒤에 해동초급중학교로 승격되었다. 1951년 9월 학제가 바뀌어 종전의 6년제 중학교가 3년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고 학교 이름도 바뀌었다. 당시 경남이란 이름이 붙어 있던 학교는 모두 부산제1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경남중학교가 부산제1고등학교로, 경남공업중학교가 부산제1공업고등학교로 바뀌었으나 1953년에 다시 환원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많은 학교의 신설이 있었다. 사하구의 경우 이때 해동고등학교(물론 이때는 영도에 있었음), 대동중학교가 신설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이 늘어나자, 피난학생도 증가하여 '전시하 교육특별조치요강'에 의하여 부산시내 각 학교는 피난학생의 등록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민학교는 피난학생이 많아지자 그들의 원교 단위로 피난학교를 병설하였고, 중등학교는 대부분 본교에 수용하여 교육하였는데, 이들 피난 학생 중에는 졸업까지 한 학생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사하구는 한국전쟁 이후의 피난민이 집단 이주를 하면서 많은 변화를 낳았다. 괴정동의 한 마을인 신촌은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이 마을은 용두산 대화재와 부산역전 대화재로 인해 생긴 마을로 괴정3동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 이곳은 집은 없고 밭만 있었다. 신촌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들을 '중맥들'이라고 불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부산에 많이 살았다. 한국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12월 10일 새벽, 피난민 판자촌 1천여 채가 빼곡이 들어선 용두산공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판자촌 전체를 불태우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는데, 이를 '용두산 대화재'라고 한다. 그 몇 달 전인 1953년 11월 27일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산역전에서 일어났다. 밤 8시 30분경 강한 바람을 타고 화마가 이 일대의 판자촌을 완전히 집어 삼켰다. 피난민들이 옹기종기 붙어 살았던 판자촌 3천 1백여 채가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었다. 사상자 29명, 6천여 세대의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른바 '부산역전 대화재'였다. 이 두 건의 화재로 이재민은 사하구 신촌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다.

한편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잔류했던 일본인을 수용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의 외국인 수용소가 이곳에 있었다.

신평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960년 5월에 550세대 삼천 명쯤이 신평동으로 옮겨 왔다. 1959년 9월 17일에 부산을 휩쓴 태풍 사라호로 28명이 죽고, 오천 명쯤이 다쳤고, 삼천 육백 채가 넘는 집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특히 서구 남부민동, 영도구 남항동 같은 곳이 피해가 컸는데, 그곳에는 바람과 해일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그때에 집을 잃은 이재민

들이 이듬해 5월에 이곳 신평동으로 옮겨와 한 세대마다 일곱 평 남짓한 집을 짓고 살게 되어 조용하던 토착민의 마을에 변화가 왔다.

또 1968년 3월에 서구 충무동의 바닷가 둑을 고쳐 쌓을 때에 집을 뜯긴 사람들의 1,630세대도 이사를 와 열다섯 평의 집을 짓고 살았다. 그때부터 신평동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고, 1967년 10월 2일 신평초등학교가 세워졌고, 길도 포장되어 큰 동네로 성장하였다.

장림동에도 이주민이 많았다. 1970년대 초에 부산시는 서구 남부민동과 중구 대청동을 잇는 산복도로를 뚫었는데, 그때에 집을 뜯긴 주민 가운데 1,400세대가 장림동으로 옮겨왔고, 대티터널 공사 때 대티고개에 있던 불량주택이 뜯겨 그곳에 살던 360세대도 이곳으로 이사왔다. 이 시기에 장림국민학교가 신설되었다. 그런데 장림동과 구평동에는 1953년에 경상남도 지방에서 온 음성나환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이에 장림동에 1966년 3월 1일 장림초등학교가 설립되어 학교가 문을 열자, 부랑아 수용기관의 아동과 음성 나환자의 아동들이 문을 연 장림초등학교에 다니도록 조치하자 기존 마을 사람들과 대립이 있었다. 결국 당국에서는 일반 동민의 아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수용기관의 아동은 수용기관(영아숙) 안에서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고, 음성 나환자촌에는 따로 분교장을 세워서 세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일단락 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4·19의거가 일어났으나 이후 5·16쿠데타에 의하여 군사정권이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4월 18일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시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해동고등학교이다. 해동고등학교는 이 시기 영도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하구에 위치한 학교이므로 이에 대해 간단히 보도록 한다.

부산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은 고등학생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지난 12년 동안 쌓인 적폐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은 이미 극에 달했는데, 특히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장은 더욱 높아졌다. 선거를 앞두고 관권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투표 등 각종 선거부정이 이미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연초부터 부산 지역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정부 데모와 관련한 논의가 자연스레 오가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대구의 2·28의거를 비롯한 각지의 데모 소식이 일부 선진적 학생들에게 전해지면서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학생들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3월 12일 드디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영도 해동고 학생 1백여 명은 1시경 호각소리를 신호로 시내 중심가인 광복동 일대에서 "학원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날 해동고의 시위는 사전에 학교 당국과 경찰에 정

보가 누설되면서 주모자가 체포되고 준비한 '삐라'도 소각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이에 가두시위는 얼마 후 진압되고 다수의 학생들이 연행되어 곤욕을 치렀지만, 해동고 시위가 미친 파장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3월 24일 부산고와 25일 동성고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부산고의 시위는 3·15 부정선거 직후인 17일 무렵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애초 이 시위는 부산고 단독이 아니라 해동고, 동성고, 부산상고, 부산공고, 경남공고, 남성여고, 동아고 등 부산 지역 10여개 학교의 연합시위로 구상되었다. 이 때문에 시위에 준비된 선언문은 '전 부산 학생 일동' 명의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비록 다른 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봉쇄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산고의 단독 시위에 그쳤지만, 1천여 명이 참여한 시위대가 초량에서 서면까지 벌인 이날의 가두시위는 3·15부정선거 이후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시위로서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시위는 동래 지역으로 번져 부산 4월혁명 최대의 고교생 데모로 기록되는 4월 18일 동래고 시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에는 대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학생들은 4월혁명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이러한 역사를 안고 출발한 현대의 사하구는 1980년대 신평·장림공단 조성사업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많은 교육시설의 증설을 보게 되었다.

5) 현대의 교육

1981년도 신평·장림공단 조성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하구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사하구의 교육이념은 알찬교육-창의 인성을 갖춘 서부인재교육, 깨끗한 교육-공정한 교육행정으로 서부 자긍심 계승, 따뜻한 교육-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서부교육의 실현이다. 그 중점사업으로는 8개를 들고 있다. ①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 인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서부 다독다독』다 함께 책 읽기 ③ 함께 만드는 좋은 수업,『서부 Top-Teacher』운동 ④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서부 학력신장 프로젝트』운영 ⑤ 따뜻한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교육복지 참사랑 봉사단』운영 ⑥ 학교급식『2無(식중독, 급식비리) 2高(만족도, 친절도)』운동 ⑦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⑧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생활체험교육 추진 등이다.

이러한 취지 아래 사하구는 교육행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다음은 사하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현황

학교이름	연 혁	주 소
감정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78년 개교하였다.	감천동 10-2번지
감천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52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 212번지
괴정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70년 개교하였다.	괴정2동 230번지
구평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2년 개교하였다.	구평동 24-5번지
낙동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66년 개교하였다.	당리동 313-6번지
다대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04년 4월 다대포사립실용학교로 개교하였다.	다대1동 270번지
다선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0년 개교하였다.	다대2동 3번지
다송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6년 개교하였다.	다대2동 93번지
당리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4년 개교하였다.	당리동 산97-3번지
몰운대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2008년 개교하였다.	다대동 1633번지
보림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2005년 개교하였다.	장림1동 1137번지
사남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4년 개교하였다	괴정4동 1206-9번지
사동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1년 개교하였다	당리동 467-6번지
사하초등학교	1908년 하단에서 사립양정학교로 개교. 하단공립보통학교를 거쳐 사하공립보통학교로 개교.	괴정1동 775번지
서천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5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 506-1번지
승학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1년 개교하였다.	괴정2동 354-111번지
신남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9년 개교하였다.	신평2동 산110-3번지
신촌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2년 개교하였다.	신평1동 39번지
신평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67년 개교하였다.	신평동 226번지
옥천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2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 824번지
을숙도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2004년 개교하였다.	하단2동 1217-2번지
응봉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7년 개교하였다.	다대1동 1549-4번지
장림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66년 개교하였다.	장림2동 182번지
중현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6년 개교하였다.	다대1동 1550-4번지
하남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93년 개교하였다.	하단1동 1183번지
하단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3년 개교하였다.	하단1동 590-3번지
효림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로 1984년 개교하였다.	장림2동 394번지



다대초등학교



사하초등학교

중학교 현황

학교명	연혁	주소
감천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83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 632-4번지
건국중학교	사립중학교로 1945년 개교하였다.	하단동산 40번지
다대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91년 개교하였다.	다대동 945번지
다선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97년 개교하였다.	다대1동 1549-3번지
다송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93년 개교하였다.	다대2동 95번지
당리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68년 개교하였다.	당리동 438-1번지
대동중학교	사립중학교로 1949년 개교하였다.	신평2동 산41-10번지
동주여자중학교	사립중학교로 1919년 개교하였다.	괴정2동 380-1번지
두송중학교	공립중학교로 2006년 개교하였다.	다대2동 1580번지
부경보건고등학교 병설부경중학교	사립중학교로 1977년 개교하였다.	장림2동 60-13번지
사하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70년 개교하였다.	괴정4동 1091-1번지
삼성중학교	사립중학교로 1955년 개교하였다.	감천동 산8-1번지
영남중학교	사립중학교로 1952년 개교하였다.	장림2동 3번지
장림여자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86년 개교하였다.	장림2동바깥장림4길
장평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82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 824-11번지
하남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93년 개교하였다.	하단1동 1181-2번지
하단중학교	공립중학교로 1981년 개교하였다.	하단동 502-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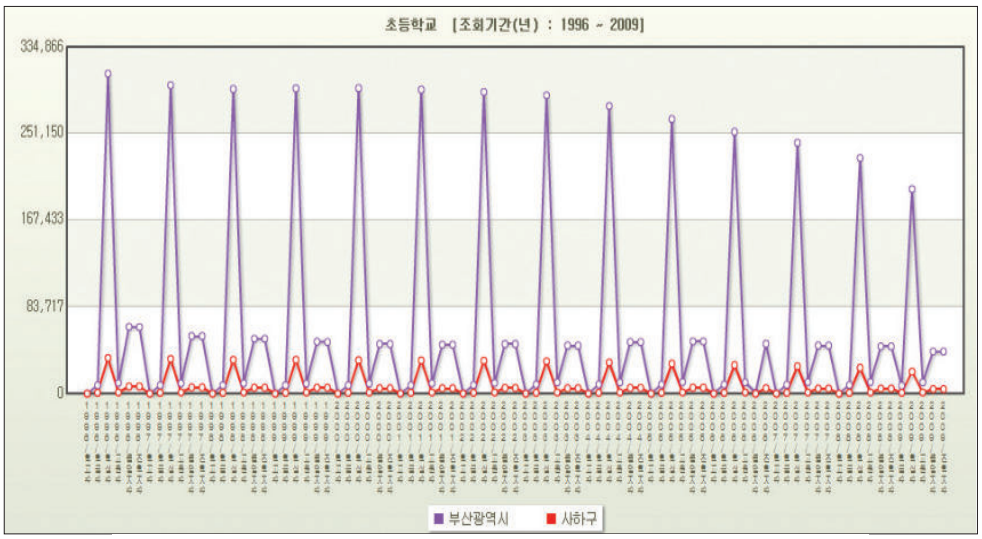
고등학교 현황

학교명	연혁	주소
건국고등학교	1949년 건국학원, 1955년 4월 건국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86년 10월 20일 인문고등학교로 학칙을 변경	하단동(건국중고길35) 산41번지
국제금융고등학교	부산에 있는 금융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장림1동 산173-4번지
다대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로, 1997년 개교하였다.	다대동(다대5지구길) 95번지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1972년 2월 하단 상록 재건 중학교로 개교한 후, 1992년 학교법인 상록학원에서 대광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2008년 발명특허 특성화고교로 개편, 2009년 지금의 교명으로 변경함.	당리동(당리남길) 128번지
대동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1965년에 개교하였다.	신평동(대동중고길) 13번지
동아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1951년 개교하였다.	괴정1동 619-41번지
동아공업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1963년 개교하였다	괴정1동(동아고2길) 95-1번지
부경보건고등학교	사립학교로 1977년에 개교하였다.	장림2동 60-13번지
부산여자고등학교	부산심상소학교 2년제 여자보습과를 발전시켜 1906년 부산공립고등여학교를 설립. 처음에는 부산심상소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현 토성중학교 자리로 신축 이전, 1931년 부산부에 이관	하단2동(부산여고길) 28번지
해동고등학교	1937년 개교한 3년제 상업학교인 입신실수학교의 후신이다.	괴정1동 613번지
부산자동차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로 1999년 개교하였다.	장림1동(요양원길) 87번지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1995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성방길) 104번지
부일전자디자인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1993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성방길) 104번지
삼성여자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1975년 개교하였다.	감천1동(삼성여고길) 57번지
성일여자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로 1988년 개교하였다.	신평동 60-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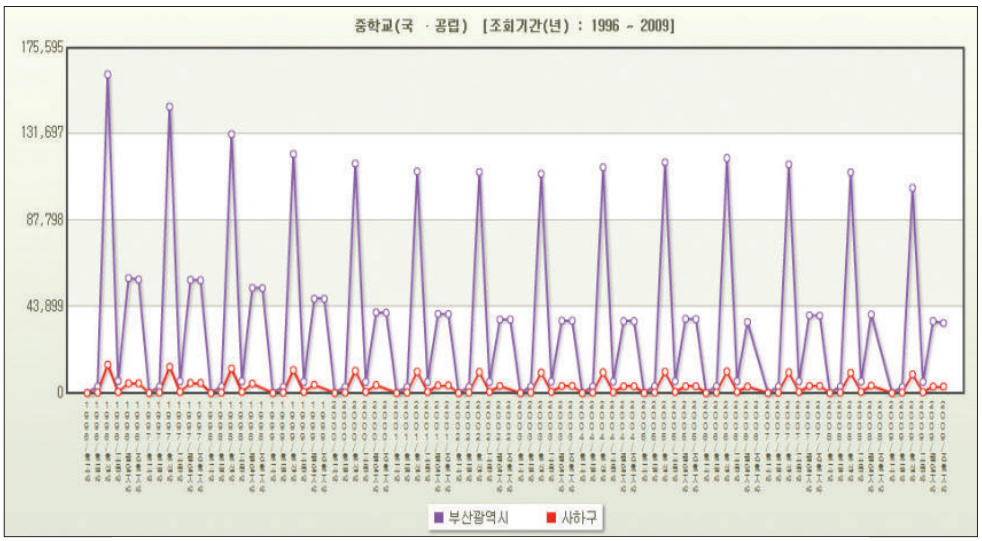
대학교 현황

학교명		위치 · 성격	시기	주소
동아대학교	東亞大學校	사하구 하단동과 서구 부민동에 있는사립종합대학교	현대	하단2동 840번지
동 주 대 학	東州大學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사회 · 실무계 사립 전문대학	현대	괴정동 산15-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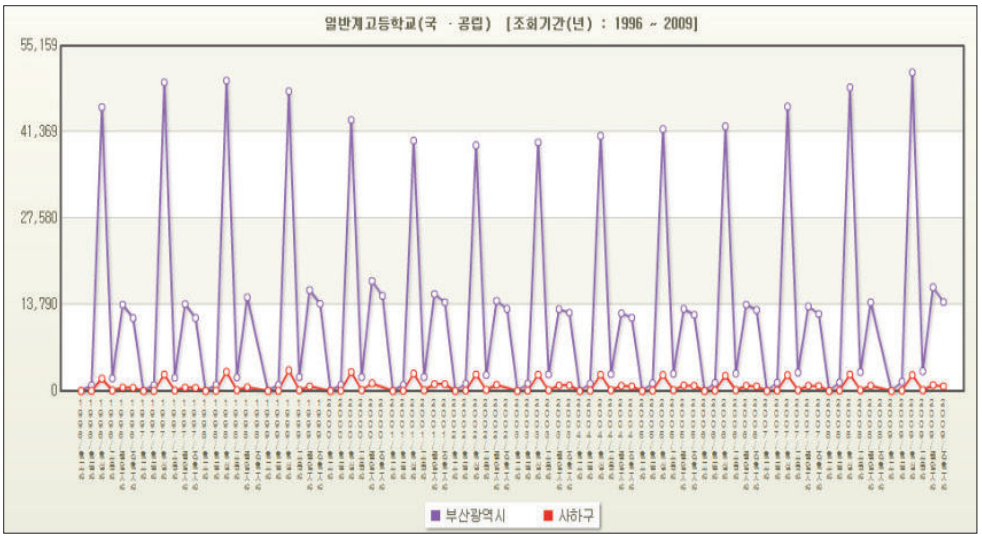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사하구에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점은 이 시기에 아파트단지의 조성과 신평·장림공단의 조성 등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부산시 일반과 사하구의 비교)



중학교(부산시 일반과 사하구의 비교)



고등학교(부산시 일반과 사하구의 비교)

이상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1996년에서 2009년까지 사하구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부산시의 학교 증가와 같이 증가하고 있다.

2. 종교

1) 불교

(1) 부산 지역의 불교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때는 삼국시대이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남쪽 낙동강 유역에 가야가 있었고, 그곳에 불교문화가 들어왔다는 전설이 있다. 당시 받아들인 불교는 외래 종교임에는 틀림없었으나, 불교는 단순한 종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현상으로서 민족문화의 모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문화는 육로를 통해서 고구려에 전해졌고, 바다를 건너서 백제로 전해졌다. 고구려에서 받아들인 불교문화는 주로 전진을 비롯한 북방 중국의 불교문화였으며, 백제는 주로 동진을 비롯한 남쪽 중국의 불교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처음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고, 그

뒤로는 백제와 중국의 남조 수나라 당나라 등지에서도 전래되었다. 이렇게 하여 받아들여진 불교문화는 고대 신앙이나 고유 습속 등 전래의 문화와 잘 융합되어 훌륭한 민족문화로 형성되어졌다. 부산 지역의 불교는 신라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신라는 제23대 법흥왕에 이르러 불교가 공인되었고, 진흥왕대에 들어서면서 흥륜사 황룡사 창건, 승니의 양성과 구법유학 지원, 불사리와 불상의 조성 및 승통제 마련, 국선화랑의 단체 설치 등 불교문화를 진흥시켰다. 통일신라는 민족적 불교문화의 완성에 주력하였다. 고려는 개국 초부터 태조의 적극적인 숭불정책에 따라 팔관회를 베풀어 연례행사로 삼았고, 많은 고승 대덕을 존경하여 예우하였다. 태조의 숭불호법의 국가적 정신은 역대의 왕들이 모두 계승하여 6대 성종은 송나라로부터 대장경을 각판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대각 국사·보조 국사와 같은 훌륭한 고승이 배출되었고, 불교의 여러 종파가 이때부터 비롯되어 화엄종·자은종·남산종·조계종·천태종 등이 있었다.

조선은 억불책으로 불교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세종이 즉위하면서 기존의 종단은 선종과 교종의 양종으로 정리되었고,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들 수양에게 『석보상절』을 짓게 하는 등 그간의 억불책에서 다소 후퇴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세조는 불교보호정책을 펴 인경 간행과 불전의 번역 및 불교가무의 창제에 힘썼고, 불교음악인 『영산회상』은 조정의 정악으로 되었으며, 또 불교무용인 연화대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조 사후 조선의 불교는 유생들에 의해 가혹한 배척을 받아 1566년(명종 21)에는 양종과 승과가 폐지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 뒤 산중에 은거하던 승려들은 임진왜란 때 휴정과 유정 등이 의승군을 조직,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써 불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산중불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입성금지령이 해제되는 등 그 핍박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899년(고종 36) 동대문 밖에 원흥사가 세워져, 한국불교의 총종무소가 되면서 전국의 사원을 통할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때부터 국가 행정의 범위 안에서 불교를 보호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관심 밖으로 방치되었던 전국의 사찰 및 승려의 위치는 차츰 개선되게 되었다. 한편 1906년에는 최초의 근대적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가 원흥사를 교사로 하여 세워졌는데, 이는 오늘날 동국대학교의 모체이며, 한용운 등이 수학한 곳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불교교단은 일본 총독의 지배 하에 30본산으로 나뉘어 각각 30군데의 교구로 성립되기에 이르렀으나,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통제하는 기구는 마련되지 않았

다.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설립되어 중앙통제기구로서의 체제를 갖추었으나, 곧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시 총본산 운동이 전개되었다. 1941년 봄 태고사(지금의 조계사)를 세워 총본산으로 삼고,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고 불리던 종단의 이름을 조계종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뒤 1945년 해방 후 조선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조계종으로 재정비,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부산 불교 흐름을 언급하도록 한다. 삼국시대 부산 지역은 법흥왕대에 금관가야(金官伽倻)가 신라에 흡수된 이래로 신라 불교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다. 668년 삼국통일 이후 부산 지역의 불교계와 주요 사찰은 크게 원효와 의상 계열이 중심을 이루었다.

먼저 원효 계열로는 창건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오래된 사찰로서 기장군의 장안사(長安寺)와 척판암(擲板庵)이 있다. 이들 사찰은 673년(문무왕 13)에 원효 대사에 의해 함께 창건되었다. 원효 대사는 불교의 참뜻을 알리고 불교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입히기 위하여 실천의 길에 나섰다.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사(居士)의 차림으로 경주를 벗어나 전국을 다니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던 인물이다. 장안사는 쌍계사(雙溪寺)가 시조이며, 애장왕 때 개명했다고 한다. 척판암은 『송고승전』에 창건과 관련한 설화가 실려 있다. 중국 장안성의 종남산 기슭에 있는 운제사라는 절에서 승려 천여 명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는데, 대웅전 대들보가 썩어 무너지게 되자 원효 대사가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옆에 놓여 있는 소반에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는 여덟 자를 적어 힘껏 던져 천여 명의 승려를 구하였다고 한다. 당시 원효 대사가 소반을 던졌던 곳에 암자를 지었는데, 이것이 척판암이다. 또한 조선 중기에 찬술된 『기장군읍지(機張郡邑誌)』에 선여사, 취정사, 안적사, 장안사 등 기장의 4대 사찰이 모두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부산 특히 기장 지역의 사찰들은 신라불교 중에서도 원효 계통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상 계열로는 대표적으로 범어사를 들 수 있다. 범어사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의상 대사가 화엄십찰의 하나로 신라 문무왕 때 창건하였다는 것과 신라 흥덕왕 때 창건하였다는 설이다. 물론 현재 범어사에는 초창기에 해당하는 석조 유물이나 자료가 없고, 의상 단계의 화엄종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문으로 남기는 하지만, 『삼국유사』에 678년에 창건되었다고 보고 있어 전자인 의상 대사 창건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범어사는 문무왕 때 소규모 내지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곳에서 창건되었고, 현존하는 범어사는 흥덕왕대에 비로소 대규모 사찰로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금정산 범어사를 중심으로 의상 계통의 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야의 수로왕과 허왕후가 폐백을 드린 곳이라는 전설이 전하는 명월사지(明月寺址)는 오늘날 강서구 지사동 명동마을에 있는 흥국사 주변 일대이다. 명월사지 경내에 '가락국태조왕영후유허비(駕洛國太祖王迎后遺墟碑)'가 서 있다. 불교 전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지만, 강서구 녹산 일대의 유물과 사지를 통해 부산 강서구가 가야불교의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고려시대 부산 지역의 동래현과 동평현은 울산과 양산의 속현으로 편성되어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 전기 자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불우조(佛宇條)에 의하면 금정산 범어사(梵魚寺)와 효의사(孝義寺)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부산 지역 사찰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초창(初創)하였고, 그 뒤 흥덕왕대에 중창되어 부산 지역에서 화엄사찰로서, 그리고 기장현의 장안사와 척판암 역시 고려시대에도 일정하게 사격(寺格)이나 사세(寺勢)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효의사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강서구 범방동에 소재한 3층석탑의 양식과 제작기법이 신라 석탑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고려 초기 작품으로 범방동 일대에 고려 초기 사원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발굴성과를 반영하면 만덕사도 대표적인 사찰로 들 수 있다.

만덕사지(萬德寺址)는 출토된 대부분의 유물들의 내용과 특징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에 초창되어 고려 말기에 폐사된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만덕사와 관련한 사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고려시대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가 이곳에 유배를 왔다는 기록이다. 물론 출토유물로 보아도 사격이 매우 높았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실제 왕자의 유배지로 될 정도라면 대단한 위상을 자랑하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만덕사와 범어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부산이 일본과 가장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왜구를 진압하는 비보사찰(裨補寺刹)의 하나로서 중요한 사찰이라는 점이다. 왜적의 침입이 잦았던 변경지역에 사찰을 세움으로써 부처님의 힘으로 왜적을 막으려 하였고, 또한 왜적을 막는 군사거점으로 활용하였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강조되면서 여러 억불 시책이 시행되어 불교계는 그 위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조선시대 지역의 사찰은 금정산 범어사와 효의사(孝義寺), 그리고 마하사, 선암사, 운수사, 국청사, 해월사, 명월사 등과 기장의 선여사, 안적사, 장안사, 척반암, 위정사, 옥정사 등 10여 개가 조사되었으나 자세한 기록은 알 수 없다. 숭유억불

시책으로 사원들은 그 기능을 일부 상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선암사 즉 견강사(見江寺)는 일본사신 접대소로, 범어사·국청사(國淸寺)는 일본 침략 수비소로 또는 공물 생산 담당소 등으로 군현 정부의 천역·군역 담당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사원은 역담당소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민간신앙의 대리 역할을 하면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범어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뒤 10여 년을 폐허로 있다가 1602년(선조 35)에 관선사(觀禪師)가 중건하였다. 곧 화재로 소실되었고, 1613년(광해군 5), 숙종 10년과 26년에 각각 중창되었다. 1700년(숙종 26) 동계(東溪)라는 사람이 범어사의 창건과 유래, 중창의 과정, 그리고 가람의 위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목판으로『범어사 창건 사적(梵魚寺創建事蹟)』을 간행하였다.

조선시대 부산 불교계의 동향에 있어서 사명 대사의 활약은 주목된다. 임진왜란 때 승병장(僧兵將)이었던 사명 대사는 3차에 걸쳐서 부산에 머물렀다. 1594년(선조 27) 울산 서생포에 주둔했던 가등청정(加藤淸正)의 영중(營中)을 3차 정탐할 때와 1601년 자성대를 수축할 때이다. 그리고 1604년 2월 왕명으로 일본과의 강화를 위한 사신으로 탐적사(探賊使)로 파견되어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서 덕천막부(德川幕府)와 담판하여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1605년 4월에 3,000여 명의 포로와 같이 동행했던 삼준상인(三俊上人), 법원상인(法源上人), 혜구(惠球), 혜은(惠誾), 준사(俊師) 스님들과 함께 귀국했다.

한편 조선 조정은 18세기 봉건 질서 해체기에 승려들이 조직적이고 단합된 역량을 구축할 수 없도록 부역 승군으로 대규모 요역에 징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산 지역의 승군(僧軍)과 관련하여『동래부축성등록(東萊府築城謄錄)』에 의하면, 영조대에 일반 민들보다도 승군의 승역(僧役)이 매우 가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산성(山城)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승작대(僧作隊)를 두어 승역(僧役)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승작대 운영은 사원의 경제력 피폐로 이어졌으며, 일부 승려들은 개별적으로 탁발, 전지(田地)의 개간을 비롯하여 누룩 만들기, 품팔이까지 하여 사원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나, 개별적인 소량의 수입만으로는 사원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원은 계(契)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범어사의 경우 1811년부터 1930년 사이에 갑계(甲契)를 통해 사원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불교의 명맥은 개항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훼손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불교가 대거 들어오고, 또 이것이 지배의 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불교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일본 불교는 일본 침략세력의 앞잡이로서 조선불교계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에서 일본 불교의 포교가 적극적이었다. 1877년 일본 정토진종(淨土眞宗)은 오촌원심(奧村圓心) 등을 파견하여, 1878년 12월에 대곡파(大谷派) 본원사(本願寺) 분원을 부산에 개원하였다. 지금의 부산시 중구에 위치한 대각사(大覺寺)에 분원이 설치되었고, 오촌원심은 조선어와 조선 풍속을 잘 아는 승려를 육성하기 위해 1878년에 부산에 '(조)선어학사'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범어사 출신인 승려 이동인(李東仁)은 대곡파와 개화파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1881년에는 일련종(日蓮宗)의 도변일운(渡邊日運)이 부산에 건너와서 일종회당(日宗會堂)을 건립하였고, 1890년에 일본 코토(京都) 묘각사(妙覺寺)의 주지 욱일묘(旭日苗)가 부산으로 건너와서 조선 포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장(管長)에게 품신(稟申)하여 일종해외선교회(日宗海外宣敎會)를 조직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이후 을사늑약 체결 때까지 정토진종을 비롯하여 임제종, 일련종, 정토종, 조동종, 진언종 등 일본의 거의 모든 종파가 부산을 비롯한 각처에 포교소나 사찰을 건립하고, 한국 승려들을 포섭내지는 개종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파격적인 방법은 조선시대 불교 탄압의 상징이었던 승려들의 도성 출입금지 해제였다. 그리고 일본 불교계는 친일승 이회광(李晦光)을 매수하여 일본 불교 조동종으로 한국 불교 전체를 그 아래로 복속시키려고까지 하였다.

사찰령이 공포되는 1911년까지 조선에 상륙한 일본 종파는 당시 12개 종단 49개 종파들 가운데 6개 종단 11개 종파에 달했다. 이처럼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일본 불교인 정토진종을 필두로 그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이 그 첫 번째 포교 대상지였던 것이다.

이에 범어사를 중심으로 한 부산 불교계는 적극 대응하였다. 19세기 초 선(禪)에 관한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불교계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선결사(修禪結社)가 범어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허 성우(鏡虛 惺牛)는 1900년에 범어사에서 선원을 개설하고, 1902년에는 『선문촬요』를 편찬하였으며 이듬해 결사를 주도하였다. 경허가 범어사에 주석할 때 그의 영향을 받은 범어사 주지 오성월(吳惺月)은 1899년 음력 10월 금강암주 월송의 합의로 금강암 선원에서 선원을 개설하였고, 1901년에는 해인사 수좌와 함께 발기하여 내원암 선원을, 1905년 이담해, 포응 등과 함께 내원암 선원을 개설하였다. 1906년 6월 원효암, 그리고 1909년 안심료·응당, 1910년 10월 대성암 등에 선원과 선회를 창설하여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1900년 초의 선풍(禪風) 진작 등 범어사가 행한 일련의 활동은 1800년대 이후 구축한 각종 계(契)의 조직과 활동이 토대가 되었다. 당시 여러 사찰들은 어려운 사찰 경제를 타계하고 불교 현실에 대한 자각이 싹트게 되었는데, 이때 원활한 사원 경영을 위하여 계(契) 조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이 바로 범어사였다. 범어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조직한 계 가운데 하나가 갑계(甲契)인데, 이 계가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확충은 훗날 포교당 설치와 같은 교육 사업은 물론 선풍 진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범어사는 1910년 한국불교의 '선종수사찰(禪宗首寺刹)'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1909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국권을 상실하였다. 일제는 1911년 제정 반포한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을 통해 한국불교의 행정체계를 총독부에 종속시키고 승려의 세속화를 권장하면서 그 전통을 붕괴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불교계는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였다. 이에 지역 불교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범어사는 사찰 본래의 정체성을 지키고 구현하고자 자주적인 임제종 노선을 지키면서 그 사격(寺格)을 유지하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였다.

1909년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의 주도 하에 선풍 진작 도량으로 전환하면서 불조 혜명을 잇는 중심 도량으로, 선 수행의 거점 도량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 당시 식민지불교 정책의 구도에서 나온 선교양종이라는 종명을 사용치 않고,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범어사(梵魚寺)'라는 종지를 내세우면서, 그 독자성을 지켜냈다.

한편 일제강점기 범어사는 교육부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명정(明正)학교 설립을 통해 주로 무산(無産)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교육 계몽적인 기능까지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근대 교육운동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배출된 청년 승려들이 민족운동에 깊이 관여하는 바탕이 되었다. 지역의 3·1운동 당시 범어사는 명정학교의 젊은 학승 및 학생들에 의해 전개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제에 의해 조선불교계를 황폐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한 노력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부산 지역은 범어사 주도로 대응하여 부산 불교의 정체성은 물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해방이 되고 난 이후 본격적인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났다. 이 때도 범어사가 중심에 있었다. 동산은 그의 은사 용성의 뜻을 이어 1940년대부터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잘못된 불교를 바로잡아 조사의 종풍을 일으켜 세울 것을 역설하면서 왜색승(倭色僧)들이 왜곡하고 있는 불교를 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945년 해방되었을 무렵 우리나라 불교는 왜색불교의 혼탁으로 대처승이 1만 2천여 명이나 되었다. 1954년 4월 불교정화를 의논하기 위하여 통

도사에서 전국승려대표자대회와 고승대회가 개최되고, 이 해 5월에는 전국 납자들에게 격문을 보내었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불교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취지문이었다. 그러나 이 일로 동산은 범어사에서 쫓겨나고 영천 은해사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954년 9월과 10월에 차례로 불교정화중앙종회가 열리고 동산을 비롯한 300명이 단식에 돌입하였다. 이후 전국비구대회 등을 개최하여 1955년에 드디어 불교정화운동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부산 지역은 현재 2,500여 개의 크고 작은 암자와 3,000여 명의 승려, 그리고 2백만 불자들이 있다. 전통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범어사, 선암사, 운수사, 마하사, 해운정사, 혜원정사, 내원정사, 홍법사 등의 사찰에서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대한불교 천태종인 백양산 삼광사가 1960년대 중반에 가람불사를 시작한 이후 많은 신도가 운집하여 그 사세가 매우 크다. 그 밖에 법맥을 이어오는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법화종, 일붕선교종, 원효종 등 부산에서 활동하는 종단의 수는 25개 종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종단은 친목도모를 위해 부산불교연합회 부설로 종단지도자모임을 상설화하여 종단교류와 승가와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사하구 지역의 불교

사하구의 사찰은 대략 50여 개 정도이다. 이들은 대부분은 1980년대 이후 이곳의 개발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찰로 이름나 있는 관음사와 해인정사를 살펴본다.

① 관음사

학을 타고 있는 산이라는 뜻을 가진 승학산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부산분원인 관음사가 있다. 이 사찰은 1940년 5월 1일 일련 스님이라는 분이 관음사라는 조그마한 초막을 지어 수행하고 포고하면서 처음 설립된 것이라고 한다. 그 뒤에 해인사에서 수행하던 봉구, 해운 스님 등이 대를 이었고, 1963년 봉구 스님에 의하여 부산시에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였다. 1979년 정법령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1981년 요사채 건립, 1984년 법당과 후원을 짓고 도량을 넓혔으며, 1983년 송광사 부산분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현 주지인 지현 스님이 1981년에 부임하였다. 2011년 현재 주지 외 4명의 스님이 상주하고, 신도조직으로는 신도회, 청신사회(남자 신도 모임), 합창단, 청년회, 중고등학생 법회, 어린이 법회, 자림회(교사 모임), 간호사회가 있다. 주 전각으로는 대웅전과 관음전(원통보전; 圓通寶殿)이 있다.

특히 현 주지인 지현 스님은 복지와 장학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지의 경우, 1995년 다대포에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1998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을 설립하여 부산시로부터 인가를 받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사하도송자활후견기관을 위탁운영하고, 2008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인 환희정을 건립하고, 환희불교복지대학을 설립하여 불교학, 불교호스피스교육, 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각종 복지기관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불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불교의 본연의 의무인 포교활동을 위하여 포교지 '늘 기쁜 마을'을 창간하여 지금까지 회보수가 150여 회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포교를 위하여 '자인당'을 2004년 신축하고, 교사모임인 자림법회를 운영 지원할 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된 포교는 어린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지 스님의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관음사는 지역 내 직장불교단체들의 보금자리 역할도 한다. 사하구청 법우회, 부산경남세관 관불회 등이 관음사에서 법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재가복지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등도 함께 운영한다. 불우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늦추지 않고 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이 늘 끊이지 않고 있다.



관음사

② 해인정사

승학산 기운을 감싸 앉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자리한 해인정사(주지; 수진 스님)는 1996년 작은 토굴에서 출발하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지난 1999년 8월 5,000평의 사찰 부지를 마련하고, 불사를 시작했다. 현재는 6개의 당우와 문화회관, 불교조각 전시장 등을 마련하고, 여법한 가람으로서 위용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도량의 중심에는 80평 규모의 대적광전이 위치해 있다. 2000년 6월 불사를 시작해 3년만인 2003년 4월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한 해인정사 대적광전은 전통 목조기법에 따라 건립됐다. 김수열 조원불교조각원장의 솜씨로 조성된 대적광전의 수미단과 닷집은 화엄경을 근간으로 불교전통을 따르되 창조정신을 살려내 불교건축 전문가들로부터 시대의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적광전 바깥의 벽화는 화엄변상도로 부산, 경남에서는 유일하다고 한다.



해인정사

대전광전 좌·우에 자리 잡은 25평 규모의 지장전과 관음전은 2001년 봄 불사에 들어가 대적광전과 함께 점안식을 봉행했다.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며 도량의 무게를 더하고 있는 3층 건물은 복해당과 덕해당이다. 연면적 200평 규모의 복해당은 종무소, 시민선방, 공양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 초 완공된 100평 규모의 덕해당

은 스님들이 머무는 요사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일주문을 겸한 3층 높이의 범종루를 비롯해 최신 음향설비를 갖춘 120평 크기의 문화회관, 대적광전 아래에 조성된 불교조각 전시장 등은 도량을 한층 장엄하고 있다.

해인정사는 주지 수진 스님이 수도와 포교라는 불법의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잘 운영하고자 하여 해인불교경전대학과 선(禪) 센터, 그리고 장학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의 재가불자들을 위한 경전대학으로 자리잡은 해인불교경전대학은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개강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선방인 선센터를 건립하여 스님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선과 교를 겸한 도량으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진 스님은『화엄경청량소초』230권을 번역할 계획으로, 현재 거의 반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불법포교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 외 매년 지역민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쌀 108포 나눠주기 운동 등 많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해조음이라는 불교 그룹사운드를 2005년 가을에 창단하여 수진 스님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음악을 통한 부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색적인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2) 기독교

(1) 부산 지역의 기독교

기독교 즉 개신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확증하기 어렵다. 다만 1884년에 신교의 최초 선교사인 감리교의 미국인 메클레이 목사와 장로교 선교사인 알렌 의사가 한국에 왔으며, 한국인 서상륜이 1875년부터 무역을 위해 만주 등지에 머물고 있을 때, 당시 만주에 있던 영국 선교사 로수 목사와 메킨 타이어가 함께 한글로 번역한「누가복음」과「요한복음」을 서상륜이 1883년에 가지고 돌아왔던 시점에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884년 황해도 송천에 교회를 설립한 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 원두우 목사가 1887년 9월 27일 서울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다. 즉 1884년 신교가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된 후, 1890년 전후에 선교구 조정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서울을 본거로 하여 순회 전도로서 교파세력을 확대하여 갔다.

개항 이후 대부분의 선교사가 요코하마와 시모노세끼를 거쳐 부산으로 입항하였기 때문에 부산은 비교적 기독교와의 접촉이 빨리 이루어진 곳이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한국 최초의 거주 선교사였던 알렌을 비롯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구미의 선교사들이 부산

을 통해 들어왔다.

부산에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던 최초의 기관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883년 말까지 부산과 남부 지역에 약 2천 권의 기독교 관련서를 배포하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부산에 최초의 선교사인 영국 성공회 계통의 영국교회선교회 소속 중국 선교사 월프가 입국하였다. 그 뒤 선교사 게일, 의료선교사 하디 부부 등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후 부산의 선교는 장로교회에서 주도하였는데, 그것은 대부분 호주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되었다. 호주 장로파의 첫 선교사는 헨리 데이비스였는데, 그는 1889년에 처음 입국하였다. 헨리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의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약 5개월 간 서울에 있다가 경상남도를 선교지로 정하고 부산으로 왔다. 이들 중 데이비스 목사는 1890년 4월 15일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으며 부산에 몸을 묻었다.

그 뒤 미국 북장로교 첫 선교사인 윌리엄 배어드 부부가 부산에 들어왔다. 미국 북장로 선교부는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나, 평양과 부산에도 선교지부를 개설하기로 하고 부산에 베어드를 파견하였다. 베어드는 자신의 방을 개방하여 전도를 위한 접촉점으로 삼았으며, 또 한국인 전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한국 초기 신자의 한 사람인 서상륜(徐相崙)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호주의 데이비스 선교사를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는 멕카이 목사 부부와 선교사 멘지스, 페리, 그리고 페셋 등 5명이었다. 이들은 1891년 10월에 부산에 도착하여 일본인 거주 내의 주택에 기거하면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후 아담슨이 잇달아 들어와 20년간 활동을 하였다.

1900년을 시작으로 호주 장로교의 한국선교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호주선교부 내의 한국 선교인식이 정리되면서 엥겔(한국명; 王吉之, 1868~1939)이 파견되었다. 그는 1938년 은퇴하기까지 한국에서 38년간 봉사하였다. 그는 1911년 하단교회, 산상교회 등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다.

호주 선교부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 사업은 전도사업으로 사회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들이었다. 먼저 사회사업으로 1910년에 고아원을 개원하였다. 이것은 부산에서 고아원의 효시가 된다. 의료사업으로는 1920년 조사에 의하면 병원 및 시료소 2개소가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부산나병원(釜山癩病院)은 유명한 곳이다. 이 병원은 처음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인 어을빈 의사가 1910년 3월 수명의 환자를 수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1911년 10월에는 영국 나환자 구호회의 경영으로 옮겨서 호주 선교사 멧켄지가 그 관리자

가 되었다. 또한 이들 나환자의 미감염 아동들을 격리하기 위하여 1932년 5월 15일에 범일동에 격리고아원을 설치하였다. 이것이 부산에 있는 현존 고아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교육사업으로는 1920년 조사에 의하면 호주 선교 구역인 경남도 내에 호주 선교부 경영의 고등보통학교가 5개소, 보통학교가 5개소가 있었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는 1895년 10월 5일에 호주 선교부 관리 아래 부산진 좌천동 소재에 사립 일신여학교가 창설되었다.

일본강점기 이후 일본에서도 직접적으로 전교하였다. 일본의 신교 교파 중에서 부산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일본 기독교파였다. 이 교파의 전도국 간사 귀산행차랑(貴山幸次郎)이 천진의 교회를 보정(保定)에 설립하면서 한국 전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후 1904년 일본 기독교파가 추원무웅(秋元茂雄) 목사를 부산에 파견하였는데, 그 교회는 보수동에 있었다. 이 때의 신도나 포교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이 주가 되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기독교파는 본국 동경에 연합기독회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 안의 요지 및 그 때의 식민지인 대만에 전도사 겸 위문사를 파견하여 전쟁터에 나간 출정 군인 및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포교에 노력하였다. 이것을 볼 때 일본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기독교 부산전도교회는 이러한 성격으로 1904년 2월 창설되었는데, 처음에는 7~8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차츰 늘어났다. 그리고 그 교회 유지비의 반은 일본 기독교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반은 신자의 헌금으로 충당하였지만, 1914년 이후부터는 본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족하게 되어 독립교회가 되었다. 교회당은 1910년 11월에 건축되었다. 이것이 바로 광복교회당이었다.

이 외에 일본의 기독교 계통에서 부산에 들어온 것은 1906년 1월에 성공회, 1913년에 일본 Methodist 교파, 1920년 7월에 구세군 등이었다. 한편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군사적 침략정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문화적인 동화정책도 강화시켜 나갔다. 외래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근대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특질 가운데서의 필연성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이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인간이나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발전에서 찾지 않고, 자기 나라 중심으로 진행시켜 갔다. 일본의 군부 관료가 천황제 기구로서 천황제 군대를 구축하여 파시즘화하려면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것도 살아 있는 현신이어야 했다. 따라서 일본의 새종교 신도(神道)가 생겼다. 이 신도를 전국민에게 밀어부치려면 딴 종교를 허용할 수 없었다. 기독교 박해는 이러한 사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신도를 만세일계(萬世一係)의 식민지의 동화종교로 삼고 보급시키기 위해 각처에 신사를 세웠지만, 1930년대까지는 한국인에게 강요함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30년이 지나면서 학교마다 신사의 대신 격인 봉안전을 만들고, 신책(神柵)이란 것을 집마다 세우게 함으로써 유일신인 하나님 이외의 신이 존재할 수 없는 기독교와 대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선교사나 교인까지 일본의 소위 현인신(現人神)의 조상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이란 신을 모신 신사를 참배하게 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현인신이 있다는 궁성을 향해 요배까지 강요했다.

진주만 사건을 계기로 미일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외국인 선교사는 한국에서 추방을 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심해지자 한국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제는 날로 심해졌다.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당하고, 2천여 명의 목사·신자들이 투옥되고, 50여 명이 순교를 당했다.

이처럼 교회가 일제의 폭압을 받아 무너져 갈 때 일본 기독교 계통은 대부분 신사참배를 지지하였지만, 이에 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본 기독교단에 항쟁하는 교역자도 있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옥사하였다.

광복 전 부산 교계는 한국 전체의 교계와 함께 위축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 때의 상황은 부산교회는 장로교가 6개소(초량교회, 부산진교회, 영주동교회, 항서교회, 부산교회, 동래읍교회)였고, 그 교인수는 모두 1,000여 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성결교회는 수정동과 온천동 두 군데였고, 구세군은 범일동에 교회가 있었을 뿐이었다. 가령 1931년 부산의 교회(신교) 교인수는 초량교회를 제외하고도 전부 992명이었는데, 14년 뒤인 1945년의 교인수가 1,000명 내외였다면 일제의 압제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자 기독교에서 교회의 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사참배를 둘러싼 문제였다. 이것은 신앙의 중심 문제로서 해방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의 분열은 참으로 심각하였으며, 또 교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었다가 해방 후 출옥한 교역자를 중심으로 고신파(高新派)가 형성되어 부산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고신파의 동태를 살펴보자.

일제 말기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옥고를 겪다가 해방을 맞은 주남선(朱南善) 목사를 비롯한 출옥 성도들은 해방 후 한 달여 만인 1945년 9월 20일에 평양 산정현교회(山頂峴敎會)에서 모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한국교회 재건 원칙을 결정하였다. 첫째,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참배를 하였으니 귄징의 길을 취하여 통회 정화한 후 교역에

나설 것, 둘째, 권징은 자책이나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 간 통회 자복할 것, 셋째,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넷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에 전달하여 일제히 실행하게 할 것, 다섯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원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일제에 순응한 목회자들은 참회와 친일세력의 청산이라는 자숙은 하지 않고, 오히려 출옥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노회 제47회 정기노회가 1945년 12월 3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회집되었고, 여기서 북한에서 남하한 주남선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주남선 목사는 이를 거부하고 회계와 자숙을 외치면서 구체적인 실행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정작 자숙을 해야 할 일부 교직자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교권신장에만 몰두하였다. 그런데 출옥한 한상동(韓尙東) 목사는 북한에서 남하하다가 서울에서 우연히 박윤선(朴允善) 목사를 만나 신학교 설립 문제를 이야기 하였으니, 이것이 후에 고려신학교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다가 1946년 12월 3일 진주 봉래동 교회에서 열린 경남노회 제48회 정기노회에서 일제 때 경남 교구장을 지내고 신사참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길창(金吉昌)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노회는 신사참배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도록 가결하였으며, 더 나아가 앞서 설립된 고려신학교의 인정을 취소하고 신학생 추천도 취소할 것을 결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상동 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노회를 탈퇴하였다. 한상동 목사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노선을 따르는 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켜서 진해 경화동교회를 시발로 초량교회, 문창교회, 부산진교회, 거창읍교회, 영도교회, 남해읍교회 등 6개 교회는 부패한 경남노회를 바로 잡기 위하여 투쟁하기로 하고 1947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김길창 목사 이하 전임원이 노회를 사퇴하고 문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교회의 영적 갱신운동과 재건운동은 갈등과 분리를 거듭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정통교단인 고려파 교단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경남노회가 이와 같이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자 부산·경남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 따라 혼동을 겪고 있는 동안, 이 지방교회에 하나의 반가운 일이 무르익고 있었다. 신사참배 문제로 폐쇄되었던 평양신학교를 대신하여 1940년에 세워진 조선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교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학적 상황에서 보수신앙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칠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상동과 주남선 목사는 1946년 4월 서울에서 박윤선 목사를 만나 그의 협조를 약속받게 되었고, 5월 20일에는 진해에서 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평양신학교를 계승한 고려신학교 설립의 발판이 되었고, 그 해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해교회에서 박윤선 복사를 강사로 2개월 하기 신학강좌를 개설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고려신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한 것은 1946년 9월 20일 부산 금성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시작되었다. 동교는 애초에 교장으로 초빙하기로 한 박형룡 박사의 초빙이 성사되지 않아 박윤선 목사를 교장으로 하고, 한상동 목사와 이성근 선생, 한부선 선교사를 교수진으로 하여 본과 3년, 예과 2년, 별과 3년, 여교역자 양성과 3년 과정의 편제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가운데 1948년 9월 21일 부산 항서교회에서 열린 제49회 경남노회 임시노회에서 고려신학교가 장로교 총회의 승인을 청원치 않은 이유 등으로 고려신학교에 대한 인정 취소가 결정되었고, 김길창 목사 측은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하여 마침내 1949년 3월 8일에는 자신이 시무하는 항서교회에서 이를 실현시켰다. 이 사건이야말로 실로 한국교회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와는 관계없이 마산문창교회에서는 1949년 3월 7일 제51회 정기 경남노회가 열렸는데, 한상동 목사의 노선을 따르는 고신 측의 경남노회 법통을 계승한 노회가 열렸다. 이어서 1949년 4월 19일 새문안교회 제35회 총회에서는 고려신학교는 우리 총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결의하였고, 1950년 4월 21일 대구 제일교회당 제36회 총회에서는 총회의 주도권을 가진 교권주의자와 그 배후에서 활약하는 기회주의자들의 교권적 행동으로 출옥 교역자 중심의 고려신학교 측을 제외한 경남노회를 승인하게 되어 고려신학은 완전히 축출되었다.

이에 고려신학은 고려신학만의 노회를 조직하여 이름을 법통노회(회장; 한상동)라 하고 교세 확장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당에서는 이약신 목사를 임시 회장으로 하여 제57회 경남 법통노회가 열렸다. 목사 50명, 장로 37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장로회 정신을 떠나 이교파적으로 흐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바로잡아 참된 장로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라는 취지와 목적을 내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 조직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1952년 10월 16일 삼일 교회당에서 발회식을 가짐으로써 교회의 최고 통괄적 처리회인 대한예수회 장로회의 정통교단인 고려파의 모체가 발족한

것이다.

1954년 4월 29일 제37회 총회에서 고신파는 총회와 관계 없다는 총회 측의 재천명과 법통노회의 대표자 엄주신 장로의 고별선언으로 고신파는 총회에서 이탈하였다. 그 후 1960년 9월 24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모인 총회에서 고신파와 합동을 추진키 위해 합동위원을 선정해서 이들에게 일임하고, 동년 12월 13일 같은 승동교회에서 양측 대표의 합동조인을 보았으나 1962년 다시 분열되고 말았다.

(2) 사하구의 교회

사하구에는 교회가 일찍부터 들어섰다. 1950년대 전후로 몇 개의 중요 교회가 사하 지역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은 이 시기 하단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하단은 조선시대 이래로 포구와 장터가 많이 있어 교통 중심지의 역할을 한 곳이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곳은 서양문물의 전래도 빠르게 전개되어 일찍부터 신교가 전파되었다. 이 장에서는 1950년대 전후의 교회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그 이후에 설립된 교회는 대부분 1980년대 이후 지역개발과 함께 들어섰기 때문이다.

먼저 1904년에 설립된 하단교회를 보자. 하단교회는 『조선예수회 장로회 사기』(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발행, 1928년)에 의하면, "1911년 동래군 하단리 교회가 성립하다. 선교사 왕길지가 전도하야 입회하고 예배당을 신축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하단교회 1회 당기록을 보면, "1904년 본 교회의 시작은 김정숙 씨와 이달지 씨가 하단동에 초가삼간을 헐어 예배당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니 교인은 14명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설립시기가 이와 같이 7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당시 목사가 없는 미조직 교회도 교회라고 보았을 때 후자가 설립시기로 인정된다고 한다.

하단교회는 그 후 교회신도가 늘어나자 1935년 대지 약 300평, 건평 약 50평 정도의 예배당을 신축하였으며, 1958년에 당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김길창 목사가 1935년 제3대 당회장으로 부임하여 교회가 내적 외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는 신사참배를 주도하였고, 해방 후에는 총회의 총대권도 인정하지 않아 교단을 분리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이후 교회의 분열이 거듭되고 김길창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남노회의 횡포에 저항하기 위하여 1952년 9월 목사와 장로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예수교 장로회의 고려파의 모체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족된 고려파에 소속된 하단교회는 1970년 하단중앙교회와 분열하

였다. 그러나 1974년과 1979년 등 몇 차례에 걸친 교회당의 건립이 이루어졌고, 2002년 다섯 번째의 교회당이 지금의 위치에 설립되어 교세를 이루고 있다.

다대교회(고신파)는 안명환 장로가 박창근 전도사와 함께 다대실용학교 건물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한용삼의 헌금으로 15평 가량의 목조건물을 신축하여 1923년 다대교회로 발족하였다. 현재 다대교회 목사의 전언에 의하면 설립자인 안명환과 박창근에 대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지만, 교사인 한상동(고신대학 설립자)은 기독교의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한상동(1901~1976)은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다. 어려서 한학을 하였고, 1910년 다대포실용학교(多大浦實用學校)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운 다음 1916년에 졸업하였다. 1918년 같은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924년 박창근(朴昌根)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추방되어 1927년 다대포를 떠나 진주광림학교(晉州光林學校)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였다. 이후 신사참배반대운동을 벌이고 고신대학을 설립하였다. 한상동은 앞서 언급한 김길창 목사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괴정중앙교회는 1951년 부산으로 피난 온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이계한 목사와 이우정 여전도사가 이 목사와 동창인 강대석(전 삼성여자고등학교 이사장) 씨와 부친인 강중기 장로를 만나게 되어 가정을 돌며 예배를 드리다가 1951년 2월 4일 설립되었다. 이후 1959년과 1960년에 걸쳐서 일어난 에큐메니칼운동[교회일치운동(敎會一致運動), ecumenical movement; 교파나 교단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교 신도의 일치 결속을 도모하는 세계교회 일치운동]에 괴정중앙교회가 중심에 있었다. 괴정중앙교회는 에큐메니칼운동과 거리를 두고 힘겨운 싸움 끝에 차츰 안정을 찾게 되었다. 1978년 전기누전으로 교회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1982년에야 지금의 교회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 외 감천교회는 1937년, 동신교회는 1950년에 설립되었다. 신평로교회와 산정현교회는 각각 1949년과 1950년에 서구 부평동과 서대신동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1980년대에



산정현교회

사하구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이는 1980년대에 교세가 확장되고, 사하구 지역의 인구증가가 그 배경이 되었다.

그 외 특기한 점은 감천중앙교회가 1957년 칼빈교회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이렇듯 사하구는 1904년에서 1950년대까지 여러 종파에서 집중하여 교회 설립을 했음이 찾아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곳이다.

사하구의 대표적인 교회

교 회 명	연 혁	주 소
하 단 교 회	1904년 창립한 부산의 대표적 교회	하단동 620-3
다 대 교 회	1923년 창립한 부산의 대표적 교회	다대동 183-2/4
감 천 교 회	1937년 창립한 부산의 대표적 교회	감천1동 30-9
신평로교회	1949년 창립한 부산의 대표적 교회	신평동 18
동 신 교 회	1950년 창립한 부산의 대표적 교회	당리동 512
괴정중앙교회	1951년 창립한 부산의 대표적 교회	괴정3동 431
산정현교회	1950년 창립한 부산의 대표적 교회	괴정3동 284-3
감천중앙교회	1957년 창립한 칼빈교회	감천1동 480-3

3) 천주교

(1) 부산 지역의 천주교

천주교는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 등이 조선에 소개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카톨릭을 천학 또는 서학이라고 불러 다만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이었으나, 안정복의 문인이던 권철신, 정약전, 이벽 등에 이르러서는 교리를 연구하는 종교운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정약전의 매부(妹夫) 이승훈은 그의 부친을 따라 베이징에 건너가 정조 18년 봄 북천주당의 신부 그라몽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와 한국 최초의 세례신자가 되었다. 그는 귀국 후 곧 이벽과 더불어 교리를 연구하고, 중인 역관 김범우의 집에 모여 주일행사를 지내고, 평신도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성직자가 밖에서 들어와 전교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를 창설한 것은 세계 교회사상 한국 교회만의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의 카톨릭 수용 직후부터 조정의 탄압대상이 되어 교회 창설 이듬해인 1785년부터 한국-프랑스수호통상조약이 비준된 1887년까지 1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

1785년에는 1784년에 창설한 조선교회가 발각되어 김범우가 유배당하였고, 1791년에는

모친상을 당하고도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살랐다는 고발로 이른바 '진산사건'이 일어나 윤지충·권상연이 처형당하였다. 그러나 카톨릭 신자들은 계속되는 압박에도 굽히지 않고, 베이징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황에게까지 거듭 편지를 보내어 성직자의 파견을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창설 11주년이 되던 1795년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처음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1801년 순조 즉위 뒤부터는 조직적이고 전반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득세한 노론 벽파가 종교를 빙자하여 남인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게 되었다. 이것이 신유박해이다. 이로 인해 주문모와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이 거의 순교하고, 성서도 대부분 압수되었다.

이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신자가 경상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신앙공동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815년의 을해박해와 1827년의 정해박해는 이 지역 천주교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을해박해는 그 대상이 피난민들로 구성된 경상도와 강원도 지방이었는데, 특히 전년에 일어난 심각한 기근현상으로 신자들의 재산을 노린 배교자 전지수의 탐욕이 지방관을 부추겨 일어난 것이다. 정해박해는 경상도 북부지방에서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여 곧 충청도, 전라도 지역까지 파급되었다. 특히 1859년에 일어난 경신박해는 경상도 남부지방에까지 신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상도 특히 부산과 가까운 울주군 지역에 공소가 설립되어 있었다. 최초의 공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관월 불당골(지금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이다. 공소라는 것은 신자들의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때로는 그에 속한 신자들이 모이는 집회장소로서의 강당을 가리키기도 한다. 지금도 이곳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피난처 또는 공소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후 양산, 김해, 기장, 동래 지역에까지 박해가 미쳐서 신자들은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1866년 그 유명한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천주교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벽파(僻派) 대신들이 철종과 함께 온건한 정책을 폈던 시파(時派)를 대신하여 조정을 장악하자 천주교에 대한 강경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이 마침 통상을 요구해 온 러시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천주교와 교섭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는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기를 놓친 천주교도의 대응과 청나라의 천주교 박해, 자신이 권력을 잡게 해준 풍양조씨(豊壤趙氏)에 대한 배려 등등으로 대원군의 태도는 급변하게 되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 박해로 당시 6천여 명의 평신도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 등이 처형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병인양요의 발발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병인박해는 부산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처음은 1868년 동래 지역의 신자들이 일본인과 접선을 하려던 것이 발각이 되면서 발생되었다. 이때 잡힌 신자는 모두 11명인데, 그 가운데 동래에서 체포된 사람은 8명이었다. 이정식, 이관복, 박소사, 이삼근, 차장득, 이월주, 양재현, 옥소사 등이 동래의 사형장인 장대(將臺)에서 효수 당하였다. 이정식은 동래사람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선달직에 있으면서 동래 병영의 장교로 있었고, 영남회장이라고 불리던 박요한의 누이와 결혼하면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이 박해로 아들인 이관복, 며느리 박마리아(박소사), 동생 이삼근이 모두 죽어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 뒤 천주교는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상도 남부에 신자의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188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다. 즉 1881년에 양산에서 신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주교인 우병연이 동래왜관에 들어갔고, 이또오라는 일본인이 그에게 천주교를 배우려고 하자 그가 이또오를 대구로 데려가려고 했음이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우병연은 효수되었지만, 이 지역에 직접적인 박해는 가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82년을 계기로 조선정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점은 선교사들의 전교활동을 점차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1887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한국 천주교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조약의 제9관 2조인 "양 국민이 왕래하여 언어, 문자, 격치(格致), 율례(律例), 기예(技藝) 등을 학습(學習) 혹 교회(教誨)하는 데 상호 보조와 편의가 제공될 것이다."라는 것에서 교회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폭넓은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 천주교의 가르침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제4관 6조에서는 프랑스인이 구체적인 여행 목적을 밝히지 않더라도 여행을 위해 호조(護照)라는 여행증명서를 얻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었고, 프랑스인이 과실로 체포될 때 가장 가까운 프랑스 영사관에 인도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치외법권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이로써 프랑스 선교사들은 '교회'를 목적으로 호조를 발급받아 국내 각지로 여행할 수 있는 동시에 여행 도중에 조선 형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합법적인 전교활동은 할 수 없었고, 또 수도와 멀리 떨어진 경상도의 포교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여러 신자들의 순교와 활동으로 경상도의 교세가 확대되어 부산을 근거지로 한 경상도 남부가 독립하게 되었다. 이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던 블랑 주교는 다음의 이유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으며, 그 대상 지역이 신부 혼자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한불조약이 체결된 이후 개항지인 부산에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대지를 매입하여 성당 건축을 할 수 있었으며, 외국과의 관문인 부산이 빠르게 발전할 소지가 있고, 또한 호

조를 발급받는 절차를 갖지 않더라도 전교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에서 본당의 설립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에 이러한 임무를 죠조(Jozeau, 趙得夏) 신부에게 맡겼다.

죠조 신부는 처음에는 부산 시내에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절영도에 머물렀다.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초량에 본당 설립을 위한 대지를 구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오두(Oudot, 吳保錄) 신부가 1893년에 부임하여 사제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그 해 8월에 성체까지 옮겨와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완공된 초량성당은 1916년 5월 범일동으로 본당이 이전되기까지 경남 일대의 사목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99년 진주본당의 창설로 경남은 부산본당의 구역, 진주본당의 구역, 그리고 밀양 임시 본당의 구역 등으로 나뉘어져 전교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지역을 다시 현재의 교구별로 구분하여 보면, 부산교구에 속하는 부산·밀양 본당 지역과 마산교구에 속하는 진주 본당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하였다. 1911년 조선교구에서 대구교구가 분할 독립되어 경상도와 전라도가 편입되었고, 기존의 조선교구는 경성교구로 개칭되었다. 당시 대구교구에 속하는 본당은 부산 본당을 비롯한 18개이고, 공소는 391개였다. 그리고 18개 본당 중 7개는 경상도에, 11개는 전라도에 있었다. 경상도에서는 대구, 김천, 칠곡의 가실, 영천의 용평, 부산, 마산포 등이었다. 또 공소는 부산교구 지역에 해당하는 것만을 추려보면, 부산 본당의 26개 공소 중 울산, 동래, 언양, 기장, 양산 등이었다.

1915년에 부임한 페셀(Peschel, 白鶴老) 신부는 본당을 이전하기 위하여 1916년 부산 범일동(지금의 성당 및 데레사 여자고등학교 자리)에 매지를 구입하고 초량성당 대지를 매각하였다. 이 해에 목조로 성당을 신축하고 '부산진 본당'으로 본당 명칭을 확정하였다. 그는 부산 지방의 '천주공교협회(天主公敎協會)'를 창립하였다. 그것은 각 공소 회장과 평신자 대표들로 하여금 평신도 활동을 조직화하고 교회의 재산 관리를 맡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리하여 신자들에게 신용대부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고, 기금도 마련하였으며, 각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여 소작료의 수입으로 재산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교세의 확대와 함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제도였으며, 1931년 4월 30일 해체되어 이듬해 1월 17일에 '부산 지방 재산관리위원회'로 변경되기까지 부산 지역의 전교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해체되기까지 15년 동안 이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회장 최태홍, 부회장 김태일을 비롯하여 각 지역 공소의 회장들이었다. 이 임원 가운데에 하단의 송경수(宋慶洙)가 등장한다. 송경수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괴정성당 설립에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1926년 경주 본당과 1927년 언양 본당 지역이 분할되어 부산진 본당은 더욱 관할이 축소되어 부산, 기장, 김해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당의 분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신자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1932년 청학동 본당이 분할되었으며, 다양한 자선과 교육사업에 종사하여 신자수를 늘려갔다.

1940년대에는 일제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켜 조선을 본격적인 병참기지화로 만들어 나갔다. 이무렵 외국인 신부들이 연금되고 국외로 추방되는 사건이 일어나 천주교 위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획책으로 1942년 일본인 하야사까 이레네오[早坂久兵衛] 신부가 대구교구로 임명되어 신사참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체포하여 투옥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된 인물로 대구교구의 부주교 박재수와 김영호, 정재석, 최재선, 권영조 신부 등이다.

일제는 이 시기에 교회 건물과 시설의 징발도 강압적으로 행하였다. 대구교구의 관할 아래에 있던 본당들 또한 이러한 일제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왜관의 학교, 부산진 성당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또 일제는 성당에 일장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국민복 착용을 명하였으며, 징병과 징용을 강요하고 성당의 종을 헌납하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사하구의 천주교 신자수의 변동은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사하구 천주교 신자수 변동 현황

연도	포교지역	신자수	연도	포교지역	신자수
1912	하단	34	1928	하단	43
1913	하단	33	1929	하단	49
1914	하단	40	1930	하단	81
1915	하단	78	1931	하단	50
1916	하단	41	1932	하단	57
1917	하단	35	1933	하단	50
1918	하단	49	1934	하단	50
1919	하단	52	1935	하단	51
1920	하단	62	1936	하단	58
1921	하단	59	1937	하단	60
1922	하단	65	1938	하단	56
1923	하단	38	1939	하단	41
1924	하단	41	1940	하단	41
1925	하단	41	1941	하단	40
1926	하단	41	1942	하단	41
1927	하단	35			

해방 후 교세의 확대와 더불어 성직자와 신자들의 노력으로 부산진 본당에서 여러 본당

이 분할 신설되었다. 즉 대청동, 중앙 본당 등이었다. 이러한 부산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 한국교회 전체의 성직자, 수도자, 신자 등이 대부분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어 부산지역 교회는 신자수의 갑작스런 증대와 더불어 피난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 매우 중요한 점이 바로 수도회가 이곳에 진출하여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물론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올리배따노성 베네딕도 수녀회가 부산 중앙성당에서 활동하였으며, 메리놀회 수녀들이 의료사업을 전개한 사실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 여러 수도회들이 부산에 진출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 시기 부산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본당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부산진, 중앙, 청학동 본당 이외에 동래, 초량 등 2개 본당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힘입어 다른 지역에서도 본당 설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점이 1957년 부산교구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교구'는 교회의 일정한 지역에 교회의 수위권자인 교황에 의해 임명된 주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교회를 말한다. 즉 지역교회의 완전한 교계제도(敎階制度)를 설정하게 된 것이었다.

부산교구는 한국 교회의 11번째 교구로 탄생되었다. 부산교구의 관할 구역은 경남 전역으로 모두 6개의 시와 20개 군이었다. 6개 시는 부산, 마산, 진주, 진해, 충무, 삼천포, 울산 등이었다. 본당은 27개였고, 부산 지역에는 동항, 신선동, 서대신, 수영 본당이 있었다. 이 가운데 사하구 지역과 관련되는 것은 서대신 본당이다. 서대신 본당이 독립되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는 괴정, 하단, 다대포, 감천 등의 공소가 산재하여 있었다. 당시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인 신부는 초량 본당에 있던 권요셉 신부였다. 그는 이 지역의 신자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자 본당 설립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54년에는 서대신동에 대지를 구입하여 성당을 신축하던 중 이듬해 2월 1일자로 교구청의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55년 4월 14일에 성당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권 신부는 본당 초대 주임 신부로서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하여 교무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56년 1월 3일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쁘레시디움'을 창설하여 신심운동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 레지오 마리애 활동은 제2대 변로이 신부(1957~1959년 재임) 때에 더욱 활성화되어 본당 신심 단체의 기초가 다져지기도 하였다.

부산교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66년에는 31개 본당의 증설을 보았다. 이때 사하구의 독립적인 본당인 괴정 본당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다음 장에 서술하도록 한다. 이 시기 괴정 본당을 신촌 본당이라고도 불렀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유래가 있다. 신촌은 글자 그대로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이 마을은 용두산공원 화재와 역전 대화

재로 인해 생긴 마을이다. 1954년 12월 10일 새벽, 피난민 판자촌 1천여 채가 빼곡이 들어선 용두산공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때 판자촌 전체를 태우고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달 전인 1953년 11월 27일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부산역전에서 일어났다. 밤 8시 30분경 때마침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화마가 이 일대의 판자촌을 완전히 집어 삼켜 판자촌 3천 1백여 채가 한꺼번에 불타버렸다. 사상자 29명, 6천여 세대의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 두 건의 화재로 졸지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신촌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곳에는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사하구 지역의 중심지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천주교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2) 사하구의 성당 – 괴정성당

사하구에는 몇 개의 대표적인 성당이 소재하고 있다. 다만 괴정성당을 제외하고는 1980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므로 여기서는 괴정성당의 역사를 통해서 사하구 지역의 초기 천주교 전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괴정성당의 설립은 1890년경 하단에 이주한 서호영(토마스)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주일마다 1년 전에 설립된 부산의 유일한 본당인 범일동 성당까지 주일미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1907년경 그의 어린 삼촌인 서석국이 하단으로 이사오자 그에게 전교하였다. 서석국의 집안은 시집간 딸을 제외한 12명의 가족을 범일성당에서 영세 입교시켰으며, 서석국도 요한이란 세례명을 받았다.

이후 신자수가 늘어 공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926년 이전에 공소로 사용되었던 집은 초대 공소회장을 역임했고, 범일성당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산 지방 평신도 협의회인 '천주공교 협의회' 하단 대표로 활약했던 송경수(안토니오)의 집 큰방이었으며, 그 후 1926년부터 가을 판공성사 때까지의 21년 동안 서석국(요한)의 큰방을 공소로 이용하였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으면서 교세는 급격히 상승해 갔다. 이후 공소는 여러 신자 집으로 옮겨가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48년 8월 1일 중앙 본당이 설립되면서 중구, 서구, 사하구 일원이 중앙성당 관할로 변경되었고, 중앙성당 초대주임 이명우(야고보) 신부의 사목권한에 예속하게 되었다. 1955년 2월 1일 서대신동 본당이 중앙 본당에서 분리 인가됨으로써 사하 지구 일원은 서대신동 본당에 속하게 되었다. 30년 동안에 개인주택을 공소로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공소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56년 10월에 하단 공소의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괴정성당이 있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하단 공소 이



괴정성당

외에 을숙도 공소(1950년 초 설립, 1973년 폐지), 다대포 공소(1958년 설립, 1981년 폐지), 장림 공소(1956년 설립), 감천 공소(1957년 설립, 1960년 폐지)가 만들어져 신자들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사하구 일대의 교세가 확대되어 나가자 부산교구에서는 1961년 6월 1일부로 이 지역을 서대신동 본당에서 분리하여 '괴정 본당'을 신설하고, 메리놀회에서 그 사목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단 공소는 본당이 설립된 1961년 6월까지 공소로서의 기능을 잘 이행하여 왔으나, 본당이 설립되면서 본당과의 거리가 10리(4㎞) 안에 들게 되자, 당시 교회 법규에 따라 공소를 폐지하고 모든 신자는 본당으로 와서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962년에 본당에서 공소 건물을 철거한 후 여러 용도의 종교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후 교세가 확장되어 성전이 협소해 지자 현대식 건축양식의 성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9년 5월 26일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성당 기공식을 가졌다. 이 성당은 예산의 부족, 건축 기술 부족, 자재 구입난 등이 겹쳐 1974년 2월 10일에야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부산시 개발계획에 따라 괴정에서 감천 방향 도로 확장이 고시되면서 성당이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야만 하였다. 1980년 4월 교구의 승인을 받아 지금의 괴정성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사하구의 대표적인 성당

성당 이름	성당 연혁	주 소
괴 정 성 당	부산의 대표적 천주교 성당	괴정동 1066-1
하 단 성 당	1988년 만들어진 성당	하단1동 354
사 하 성 당	1997년 만들어진 성당	괴정3동 475-1
다 대 성 당	1997년 만들어진 성당	다대2동 4-1
몰운대성당	1998년 만들어진 성당	다대1동 1549
장 림 성 당	1998년 만들어진 성당	장림1동 1033-5

4) 신종교 - 태극도

사하구 지역에서 특이한 신흥종교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극도이다. 감천2동에는 태극도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옥녀봉에서 천마산으로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양이 마치 그리스의 마을 산토리니와 흡사하다. 태극도 마을은 1950년대에 형성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와서 보수동에 자리를 잡았던 태극도 교도들이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감천2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변에 판자집 800여 호가 새롭게 건축되었다. 이후 1958년 충북 괴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태극도 교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마을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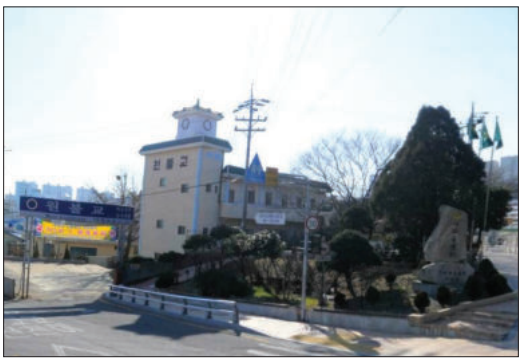
태극도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한 조철제가 강일순(姜一淳)의 증산교(甑山敎)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입산수도하다가 1916년 귀국하여 충청남도 안면도를 중심으로 포교하여 무극도(無極道; 일명 天人敎)를 세웠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극은 태극으로서 우주 본연의 법칙과 신비함을 간직한 유일한 존재를 가리킨다. 1923년에는 정읍시 태인면 대흥리에 120여 칸의 교당을 짓고 무극대도로 개칭하였다.

이 때의 신도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조천자(趙天子)라고 불렀다. 1936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산령으로 교당 건물이 철거되고 본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교세가 위축되었다가 8·15광복과 더불어 새로 포교를 시작하였다. 1958년 그의 사망으로 교단은 신·구파로 분열되었다. 구파는 그의 아들 조영래(趙永來)를 중심으로 혁신작업을 벌이다가 이갑성(李甲性)에게로 이어졌고, 신파는 박한경(朴漢慶)이 신도를 거느리고 이탈하여 서울에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를 세웠다.

그 외 원불교 등이 대표적인 신흥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다.



태극도



원불교 다대교당



제8장
민속문화

1. 당산신앙
2. 구비문학
3. 사하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제8장 민속문화

1. 당산신앙

당산신앙이란 각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함께 산신과 당산신 등 마을 수호신에게 제의를 베푸는 민속신앙을 말한다. 당산신앙은 고대 천신신앙과 산신신앙의 전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간신앙의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역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 전승되고 있는 이러한 당산신앙은 그 지역사화의 사회 문화적 역사를 담아내고 있음은 물론 지역민의 세계관과 미의식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민속 문화적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다.

현재 사하구에 전승되고 있는 당산신앙은 여타 부산지역의 당산신앙에 비해 산신에 대한 신앙이 상대적으로 강한 한편 당산신의 신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을 모시는 시기 역시 각 마을마다 다채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하구의 당산신앙에서 산신에 대한 신앙의 전승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하구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당산신앙의 전통을 비교적 온전하게 잘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으며, 당산신의 신격과 제의시기가 다양한 현상은 각 마을의 독자적 민속문화적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로 변모해가면서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고 그에 따라 당산신앙역시 점차 그 전승기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신을 모시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엄격하게 지켜오던 금기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고, 골대장군, 장승, 돌탑 등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지킴이에 대한 신앙 역시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산신과 당산신, 용왕신께 두루 제의를 올렸던 전통 역시 번잡하다 하여 이제는 당산신께 올리는 제의로 제한하여 간소화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의 추이에 따라 점차 쇠락해 가고 있는 당산신앙의 전통을 사하구에서 재발견해 보는 일은 사하구의 문화적 기반과 문화적 저력을 가름해 보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사하구에서 전승되고 있는 각 마을 당산신앙의 사례들이다.

1) 감천1동의 산제당과 하당

감천1동에서는 상당으로 '천마산신령'을 모시고 있는 산제당이, 하당으로 '안동 장씨 할매'를 모시고 있는 제당과 당산나무가 있다. 산제당이 건립된 시기는 1934년이다(開國五百四拾參年甲戌六月十五日戊戌時立柱同月二十五日戊申卯時上樑).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제당은 기와 맞배지붕(지금은 기와가 낡아 시멘트로 덧씌웠다)으로 제당 앞면은 적벽돌로 옆면과 뒷면은 돌과 시멘트를 섞어 쌓은 형태다. 산제당 안에는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의 제단이 있는데, 제단 위에는 '천마산신령신위(天馬山神靈神位)'라 쓴 나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제당 안 위패



감천1동 제당

하당은 슬레이트 맞배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건물로 제당 안에는 나무판자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제단 벽면 위에는 '하당목신신위(下堂木神神位)'라 쓴 나무 위패가 붙어 있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72년 조사 당시에는 위패에 '신령목신지위(神靈木神之位)'라 쓰여 있었다고 하며, 하당은 인동 장씨 할매라 하는데 이 마을 입주자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을 모셨다고 한다. 제당 옆에는 이 마을 당산목으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주엽나무가 서 있다. 주엽나무의 안내판에 기록된 바에 의하며 이 나무는 수령이 430여 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목으로 감천의 시조격인 안동 장씨가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이 나무를 심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원래 매해 음력 3월 초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 제의를 지냈으나, 근자에는 10월 초순 한 차례만 제의를 지내고 있다. 원래 이 마을에서는 천제당에서 먼저 산신제

를 지낸 다음 하당으로 내려와 당산할매제를 모신 뒤 용왕제를 올리는 방식으로 지내왔으나, 근자에는 천제당에서 모시는 산신제와 하당에서 모시는 당산할매제가 분리되어 각기 따로 제의를 모시고 있다. 제의를 모실 때에는 먼저 음력 2월 말경 마을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를 선정한다. 제의를 모실 제주는 마을 사람들 중 그해 집안에 초상이나 혼사가 없고 생기복덕이 좋은 이로 가려 선정한다. 제주로 선정된 이는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신을 모시기 위해 부정한 일들을 가린다. 남의 집 혼사와 초상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분쟁도 피하며 근신한다. 예전에는 제주로 선정된 이는 그 해 한 해 동안 엄격하게 부정을 피하는 금기를 행해왔으나, 세월 따라 금기가 약화되어 근자에는 금기를 달리 행하지 않고 있다.



하당



하당 내 위패

제의를 모시는 날, 마을 사람들은 먼저 산제당을 깨끗이 청소한 뒤 제의에 올릴 제물을 준비한다. 제의를 모실 때 올리는 제물은 일반 가정에서 기제사를 모실 때 올리는 제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특이하게도 이 마을에서는 쇠머리(예전에는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올렸다 한다.)를 올린다. 제물은 제주가 장만하는데 제물을 구입할 때에는 첫눈에 드는 것으로 택하되, 절대 값을 깎거나 흥정하지 않는다. 또한 제물을 조리할 때에도 간을 미리 보지 않고 머리카락이나 돌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한다. 만약 제주가 이러한 금기를 어기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산신과 당산신이 노해 제당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제당에 갈 수 없게 된다고 여긴다. 혹 제주가 제의를 모시러 갈 때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 목욕재계하여 정갈히 한 다음 제의를 모신다 한다.

제의를 지내는 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의 제의 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제의를 마친 뒤에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함께 음복한다. 제의를 지낸 제물은 신성한 것이라 여겨 집안에 부정이 있는 이는 음복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2) 감천2동 산제당

이 마을에서는 마을 수호신으로 바위를 모시고 있다. 언제부터 바위를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제의를 베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제당은 달리 없다. 마을 수호신을 상징하는 신체인 큰 바위 밑에 돌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로 만든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신체인 바위 옆에 또 다른 바위가 있으며, 두 바위 사이로 누석단이 있다.

제의는 산제당제만 지내는데 제의를 지내는 시기는 매해 한 차례 음력 정월 14일 자정경이다. 원래 이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제의를 모셨으나, 근자에는 인근의 사찰에서 제의를 대신 지내고 있다. 제의에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진설방식 및 제의 절차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특이한 점은 제의를 올릴 때 돼지머리를 꼭 올리는데, 이



산제당



산제당

때 돼지머리는 산신을 수호하는 호랑이에게 바치는 것으로 여겨 돼지머리를 푹 삶지 않도록 하여 올린다. 그리고 신을 융성하게 대접한다는 의미로 밥은 밥솥채로 떡은 시루채로 올린다.

마을 주민들이 제의를 주관할 때에는 그 해 제주로 선정된 이는 제의 전 3일부터 제의 후 1주일 간 남의 집 길흉사에 참석하지 않고 부정한 음식과 행동을 기피하는 엄격한 금기를 지켰다고 한다. 또한 제주가 제물을 구입하러 갈 때에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며 제물의 가격을 흥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제물을 신성시 여겨 제의를 지내기 전에는 미리 간을 보지 않는데 만약 제를 지내기 전에 제물을 먹으면 신의 노여움으로 제물을 먹은 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고 여겼다.

현재 부산시에서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천2동의 산제당 주변이 깨끗하지 않

아 조만간 환경 정비 사업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 한다.

3) 감천2동 옥녀 당산

현재 전하고 있는 옥녀 당산은 1971년에 건립되었다(歲在辛亥閏五月拾九日丁酉午時上梓). 제당은 기와 팔작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벽면 구조물이다. 제당 안에는 직사각형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제단 위에는 정화수를 얹는 시멘트대가 있다. 시멘트대 위에는 정화수 세 개가 얹혀져 있고 그 위 벽면에는 호랑이를 대동한 당산할매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 달리 위패는 모셔져 있지 않다.



옥녀 당산

이 마을에서는 매해 한 차례 음력 정월 14일 자정 경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제당에서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당산제를 주관하는 이를 제관이라 칭하는데 예전에는 당산제를 모실 제관을 마을 주민들 중 생기복덕이 좋고 부정이 없는 이로 가려 선정하였으나, 근자에는 당산제를 모시고자 하는 이가 적어 마을 통장이 제를 주관하고 있다. 제의를 모시는 제관은 부정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의를 모시는 날 전후로 약 2주일 간 남의 길흉사에 참석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지 않고 타인과 분쟁하지 않는 등 금기를 행한다.

제의를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제물의 종류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다. 제물을 조리할 때에는 제당 옆에 마련된 부속건물에서 한다. 달리 금기는 없지만 제의를 모시는 제물은 신성하다 여겨 미리 간을 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조리한다.

당산제를 모실 때에는 제당에 제물을 진설한 뒤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의를 지낸다. 제의를 지낸 후에는 마을의 안녕과 해상 무사고, 풍어와 풍요를 기원하는 이령수를 외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재가 하늘 높이 오르면 그 해 운수가 길

할 것으로, 반대로 재가 아래로 뚝 떨어지면 그 해 운수가 흉할 것으로 여겨 소지 할 때에는 재가 하늘 높이 오르도록 한다. 제의를 지낸 후에는 제물을 제당 옆 부속 건물로 옮겨와 제관과 제관을 도와 제물을 조리하고 상차림을 한 이들이 함께 음복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는데, 최근에는 참석한 이들이 모두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옥녀 당산 내 당산할매그림

4) 구평동 천지할매당과 천지할매당

이 마을에는 천지할배당과 산신당, 그리고 천지할매당이 있다. 이들 제당 중 건립 연대를 알 수 있는 제당은 산신당으로 1934년(甲戌四月十一日甲午卯時立柱未時上樑)에 건립되었다 전한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천지할배당에서는 주로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한편, 천지할매당에서는 풍어와 해상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한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 콜레라가 유행하였을 때 다른 마을에서는 콜레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았으나 이 마을에서는 당산신을 잘 모신 덕에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구평동 옛 할배당산

천지할배당사 안에는 세 할배도가, 천지할매당사 안에는 당산할매도가, 산신당사 안에는 산신도와 지장도, 칠성불도가 각기 모셔져 있다.



현 천지할배당사



천지할배당사 내 세 할배도



천지할매당사



천지할매당사 내 천지할매도



산산당 내 상량목



산신당 내 제단

제의는 미해 음력 10월 14일 새벽 2시에 모신다. 제의를 모실 때에는 먼저 제의를 주관할 제주를 선정하는데 근자에는 마을 노인회 회장이 주로 제주를 선정한다. 선정된 제주는 제의를 모시기 3일 전부터 시작하여 제의를 모신 후 한달 동안 남의 길흉사에 참석하지 않고 부정을 가리는 금기를 행한다.

제의를 모실 때에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한 제물을 올리나 특이한 점은 이 마을에서는 산신들이 먹는 음식이라 하여 가재를 올렸던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은 가재 대신 숭어를 올린다.

제의 절차는 산신제, 천지할배제, 천지할매제, 용왕제 순으로 지낸다. 산신제와 천지할배제, 천지할매제는 각 제당에서 지내며 용왕제는 바닷가에서 따로 제물을 차려 지낸다. 제의를 마친 후에는 노인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함께 음복한다. 이 때 집안에 길흉사나 부정이 있는 이는 참석하지 않는다.

5) 괴정동 산제당

이 마을에서는 산신을 모시는 산제당이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산제당은 1915년에 건립(大正四年乙卯二月二日未時立柱上樑), 1974년에 개축되었다(檀紀四阡三百七年陰三月二十九日巳時上樑). 제당 안에 있는 '산제당(山祭堂) 고사(古事)'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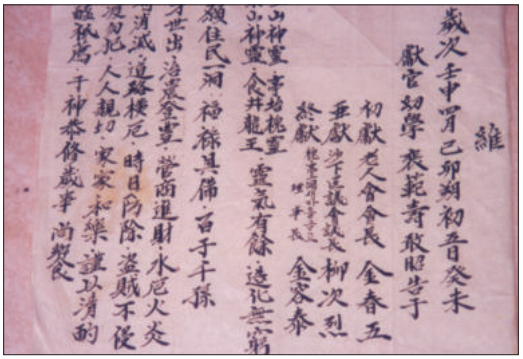
괴정 산제당

첫째, 우리 마을은 약 육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로서 본산제당(本山祭堂)은 그 당시부터 마을 주민의 무사안태(無事安泰)를 기원하는 산신(山神)을 모신 돌무지곳이라 함. 둘째, 1915년 2월 2일 동민(洞民)의 풍악(風樂)놀이 기타 희사금(喜捨金) 등으로 목조와가(木造瓦家)가 신축 되었음.

산제당은 우진각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건물로 제당 문 위에는 '산제당(山祭堂)'이라 쓴 현판이 붙어 있다. 산제당은 돌과 시멘트로 만든 담장에 둘러 쌓여 있으며 담장 뒤로 수령이 100년 이상인 노송 한 그루가 있다. 제당 안에는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의 제단이 있는데, 제단 위에는 '주산신령지위(主山神靈之位)'라 쓴 위패와 향로가 얹혀 있다.



산제당 내 위패



제당 오른쪽 벽면에 붙어 있는 축문

예전에 이 마을에서는 매해 음력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제의를 모셨는데, 근래에는 양력 5월 7일 한 차례만 제의를 모시고 있다. 제의를 모시는 절차 역시 세월따라 변화하여 예전에는 주산제를 모시고 난 다음 샘제, 팔정자제, 회화나무제 순서로 제의를 모셨으나, 근자에는 주산제를 제외한 다른 제의는 더 이상 모시지 않고 있다. 제의를 모실 때에는 3일 전에 마을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의를 주관할 제주를 선정한다. 제주를 선정할 때에는 집안에 대소사나 부정이 없는 이를 가린다. 제주로 선정된 이는 제의 전후로 다른 이의 길흉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부정한 것을 보지 않는 등 금기를 행한다. 제의 때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진설방식 및 제의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제의 경비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재앙가시세'라 하며 거두었다 한다

6) 다대동 홍치 당산

현재 이 마을의 당산신을 모시고 있는 당산은 1997년에 새로 건립되었다. 이 마을에 당산신을 모신 제당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1970년대 이 마을 당산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당산은 1943년에 건립(昭和拾八年癸未九月初九日戊戌時立柱上樑)되었던 기와 맞배지붕에 회벽의 구조물이었다 한다. 산록에 위치한 당산은 슬래브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형태다. 당산 안에는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의 제단이 있으며 제단 위에는 '당상신모(堂上神母)' '상조대신(上祖大神)'이라 쓴 나무 위패 2위가 모셔져 있다.



다대동 홍치 당산



홍치 당산 내 위패

원래 이 마을에서는 매해 한 차례 정월 초열흘 안에 좋은 날을 가려 당산제를 지내왔으나, 근자에는 문수사에서 정월 4일에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당산제를 지내는 절차는 먼저 제당 밖에서 제물을 간단히 차려 놓고 산신제를 지낸 다음 제당 안에서 당산 할배와 당산힐매제를 올리는 순이다. 조사에 의하면 스님이 신중청, 산신청, 당산청, 용왕청 순으로 불경을 왼다고 한다. 당산제를 모실 때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제의 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7) 다대동 주산당


다대동 주산당

주산당은 다대동 윤공단 앞에 위치해 있다. 주산당은 삼층 건축물로 지붕은 시멘트로, 벽은 블록과 시멘트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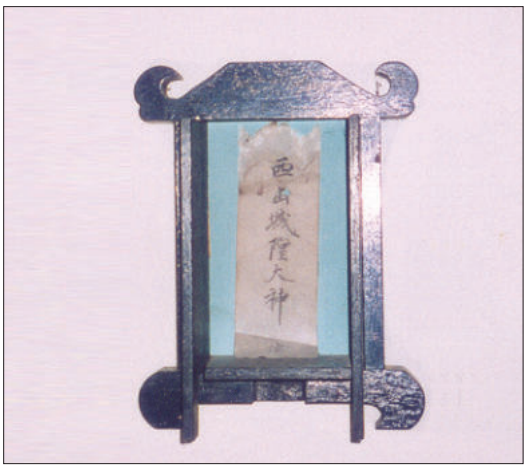
제당 안에는 시멘트로 만든 직사각형의 제단이 있으며, 그 위 벽면에는 나무 위패 3개가 걸려 있다. 위패는 좌로부터 '서산성황대신위(西山城隍大神位)', '북산성황대신위(北山城隍大神位)', '동산성황대신위(東山城隍大神位)'라 씌여 있다. 각 위패 아래에는 술잔이 놓여 있고, 제당 벽에는 3벌의 두루마기와 한복이 걸려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해 한 차례 정월 초하루 자정 무렵에 제당에서 제의를 모신다. 제의를 모실 때에는 각 위패 앞에 제물을 차려 놓는데, 제물의 종류와 진설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다. 제물을 차린 후에는 유교식으로 제의를 모신다. 제의 절차는 예전에는 주산당제, 산신제, 서부당산, 동부당산, 장승제, 거릿대제 순으로 모셨으나, 근자에는 주산당제만 모시고 있다.

제의를 지낸 다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음복한다. 그런데 제의날이 정월 초하루라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음복에 참여하는 일는 많지 않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제당을 지을 때 목수가 삼층으로 지은 탓에 제당을 건립 한 후 마을에 시끄러운 일이나 차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마을 청년들이 변고를 당하는 일이 많았다 한다. 또한 제당을 지었던 목수도 제당을 지은 후 망했다고 한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는 '산신당', '주산당', '서부당', '동부당' 등 4개의 제당이 있었다 한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동부당은 없어졌다 한다. 당시 제당에 모셨던 신위도 지금과

달리 주산당에는 '다대동주산성황신위(多大洞主山城隍神位)', 산신당에는 '다대동산신위(多大洞山神位)', 서부당에는 '다대동서부당신위(多大洞 西部堂神位)'라 씌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입구 오목 고개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나무 장승 한 쌍이 서 있었는데, 이 장승은 한국전쟁 때 외인부대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주산당 내 위패



주산당 내 옷

당산제의 영험함과 관련된 이야기로 예전에 주산당에서 마을제의를 올리지 않거나, 올렸다 하더라도 제주가 금기를 어기거나 제물이 부정을 타게 되면 다대포에 하나밖에 없었던 공동우물 물이 마르거나 탁해졌다 한다고 그리하여 제의를 모실 때에는 부정타지 않도록 지극 정성을 다해 모셨다고 한다.

8) 당리동 제석할매당과 돌탑



당리 제석할매당



제석할매당 현판

제석할매당은 무학사 서북쪽 계곡 건너편에, 돌탑은 당리동 316-1번지에 위치해 있다. 제석할매당이 언제 건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제석할매당에는 '제석곡신당(帝釋谷神堂)'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제석할매당은 예전에 기우제를 지내던 제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이 마을에서는 매해 음력 3월 3일 새벽 1시경에 제의를 모신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제의를 모셨으나, 근자에는 무학사에 의뢰해 무학사 스님이 제의를 주관하고 있다. 제의는 산신제, 장군당제, 제석할미제, 탑제 순으로 모시는데 제의 때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진설방식 및 제의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다.



당리 제석곡 산신제단



당리 제석곡 장군제단



당리 제석곡 용왕당

9) 장림1동 산신제당, 채씨 할매당

현재 전해오고 있는 산신제당과 채씨할매제당은 1986년에 건립되었다.(西紀壹九八六年(丙寅)陰六月拾六日午時立柱上樑) 제당 안에는 각기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다. 산신제당의 제단 위에는 '산령위(山靈位)'라 쓴 지방이 위패함에 붙어 있고, 그 위로 산신도가 걸려 있다. 채씨 할매당의 제단 위에는 '유인평강채씨지신위(孺人平康蔡氏之神位)'가 쓴 지방이 위패함에 붙어 있고 그 위로 할매도가 걸려 있다.



장림본동 동제당



장림1동 채씨할매당



채씨할매당 내 채씨할매도

채씨할매를 당신신으로 모신 내력은 '유인평강채씨제당비(孺人平康蔡氏祭堂碑)'에 기록되어 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진정(進正) 서력 1686년 낙동강 하구 청정해역을 이용하여 생활 근거지로 농어업에 종사하고저 첫 입주하신 평강 채씨 할머니를 장림포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동민

전체의 무사태평함을 기원하는 풍속으로 이곳에 제당을 세워 해마다 채씨 할머니의 기일(忌日)인 음력 십이월 칠일을 기하여 자정에 당제를 모셔오던 중 산신당과 제당이 노후(老朽)되어 1986년 음력 십이월 칠일 장림동 어촌계원 전체의 정성으로 복원 건립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1988년 6월 5일자 제당 내외부의 단청을 단장하고 채씨 할머니를 자손대대로 후세에 그 넋을 기리기 위하여 이곳에 제당비(祭堂碑)를 건립합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제의를 모셔왔으나, 근자에는 인근의 금덕사에 의뢰해 금덕사 스님이 제의를 주관하고 있다. 제의를 모실 때에는 먼저 산신제당에 주과포와 정화수를 올린 뒤 산신제를 지낸 다음 채씨 할매당에서 할매제를 지낸 뒤 골미당 산제를 지낸다. 제의에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진설 방식 및 제의 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특이함 점은 산신제를 지낼 때에는 살아 있는 돼지의 목을 탈로 찔러 그 비명소리를 산신이 듣도록 한다는 점이다. 제의를 지낸 다음에는 마을 주민들 중 집안에 길흉사나 부정이 없는 이들이 참석하여 음복한다.



신평동 모래구찌 산신제당 내 산신도와 위패



골미 당산

10) 장림2동 천지할배당



장림2동 천지할배당

장림2동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천지할배당이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현재 전하고 있는 천지할배당은 1989년에 건립되었다(西紀壹阡九百八拾九年六月拾六日 檀紀四阡參百貳拾貳年五月拾參日己巳五月拾參日巳時立柱上樑). 제당 안에는 '당산(堂山) 할아버지 할머니 신위(神位)'라 쓴 위패가 모셔져 있다.



천지할배당 내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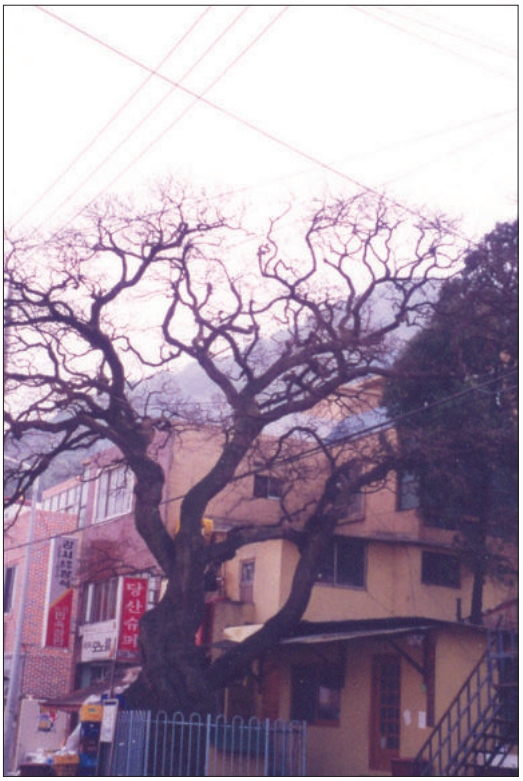
이 마을에서는 매해 음력 12월 7일 자정 무렵에 제의를 모시고 있다. 제의를 주관하는 제주는 제의를 모시기 앞서 마을 노인들이 모여 마을 주민들 중 집안에 부정이 없고 생기복덕이 좋은 사람을 가려 선정한다. 선정된 제주는 제의를 모시기 3일 전부터 시작하여 제의를 모신 후 일주일 간은 남의 집의 길흉사에 참석하지 않고 부정을 가리는 등 엄격한 금기생활을 한다.

제의를 모실 때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진설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나, 특이한 점은 제물로 바칠 수탉은 미리 조리하지 않고 산채로 제당에 가져가 제당에서 삶아 솥 채로 올린다는 점이다.

제의를 모시는 절차는 예전에는 당산제, 용왕제, 걸대할배제 순으로 지냈으나, 지금은 용왕제와 걸대할배제를 따로 지내지 않고 제당에서 당산제만 올리는 것으로 간소화되었다. 제의를 모시는 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나 제의 말미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에는 재가 하늘 높이 보기 좋게 오르면 그 해 운수가 길한 것으로 믿는다. 제의를 마친 후에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음복한다, 이때 집안에 부정이 있는 이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11) 하단동 당산

하단동의 제당은 특이하게도 아주 작은 구조물이며, 제당 안에는 제단이나 신체나 위패 등이 없다. 할매 당산나무는 수령이 300여 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검팽나무다.



하단의 할매 당산나무



할매 당산나무 아래의 당산



할배 당산나무

이 마을에서는 매해 음력 정월 2일 자정에 제의를 모신다. 제의를 주관하는 제주는 마을 유지들이 모여 선정한다. 제의는 당산할배제, 당산할매제 순으로 지내는데, 제물의 종류와 진설방식 및 제의 방식은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동일하다. 예전에는 당산나무 옆에 길대장군 혹은 거릿대 장군이라 하여 나무로 오리 모양 형상을 만들어 세웠으나 요즘에는 세우지 않는다. 당산제를 지낸 다음에는 마을 어른들이 모여 함께 음복한다.

2.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 한다. 구비문학은 크게 일정한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인 설화와 사설을 노래에 얹어 부르는 민요로 나뉜다. 이 중 설화는 이야기의 대상에 따라 다시 신화, 전설, 민담으로 갈래지어진다. 신화는 신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혹은 역사적 사실로 간주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통상 그에 따른 증거물이 제시된다. 그리고 민담은 허구로 일상적 삶을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다. 민요는 민요가 불리는 상황에 따라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 의식을 거행할 때 부르는 의식요, 여흥을 즐기기 위해 부르는 유희요 등으로 갈래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비문학은 오랜 세월 지역민의 삶과 긴밀히 연계되어 전승되고 있기에 그 어떤 민속문화 보다 지역민의 정체성과 미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사하구에 전승되고 있는 구비문학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아직 힘들다. 사하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비문학을 두루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하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와 50여 년 가까이 사하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아온 지역 어른들이 기억하고 있는 민요와 설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전해오는 이야기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로는 민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개발로 마을을 떠난 당리동 당산할매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사회 사하구 당산신앙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로, 일명 터럭손으로 통용되고 있는 바다귀신 해치에 대한 이야기는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던 사하구민들의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로 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랑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에 모두 호랑이를 두려움의 대상 혹은 적대적 대상을 넘어 인간적 속성을 가진 대상 혹은 인간과 교감하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다. 이는 산신신앙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온 사하구의 당산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산신을 수호하는 호랑이와의 교감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지혜를 담아내고자 한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당리동의 아파트 개발로 마을을 떠난 당산할매 이야기

이 당산은 우리가 원 뿌리를 모릅니다. 내가 나기는 여기서 나고 크고 했습니다. 나고 크고 해도, 우리 애릴서부터 우리 나무가 다 섰고 우리가 소나무 저쪽 저기다가 매어 놓고 그네를 타고 했어요.

내가 나가 팔십 여섯인데. 이래도 이 당산은 여기는 할매고, 저 우엔 또 산에 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우엔 할배가 계시고. 또 애나 저 골짜기엔 큰 제당이 있지. 그기 그 승학사 절 맞은편에 그 제당이 옛날에는 그 할매 계실 때, 애나 우리 애릴 때는 우리가 애리서[어려서] 스무살 먹고 시집을 가도 우리가 제당 앞에 거기 마음대로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거기 당산 앞에 가면 시퍼렇게 물웅덩이가 있어. 웅덩이가 있는데, 그 제단 앞을 지나갈라 카면 여자 생게[생리] 있제. 거 생게 있는 사람은 그 앞을 못 지나갔는 기라. 부정탄다고.

근데 그 몇 년 전에 애나 여기 본토백이로 시집살고 핸 사람들이, 할매가 있었는데 그 할매 꿈에 당산할매가 시끄러바 못 살겠다고 이사로 가야되겠다고 했답니다. 제당 할매가. 근데 거기 왜 시끄러웠냐 하면, 그 앞에 산을 깍아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그 산을 깎을 적에 당산할매가 이사를 간다꼬 밤새 우에 나 앉았더라고. 제당 뒤에 가면 큰 방구가 있는데, 그 방구 우에 그 무슨 고개냐 하면 문바우 고개라 카는데, 그 문바우 고개라카는 그 고개 방구 우에 앉아서러 "내가 이사를 간다." 그래 그러커더랍니다. 그뒤로 사람들이 그래칸다꼬 할매가 마 온창 시끄럽고 해서 떠났는갑다. 그래카데.

깨진 바가지를 주면 해코지를 하지 않는 해치 이야기

우리 아부지가 그라는데 거 가면 거 바다로 고기잡으로 나가면 해치라는 놈이 욱신욱신 노를 젓고 고기잡이 배로 온다요. 그라면 고기잡이 간 사람들이 해치를 보고

"바가지 줄까? 하고" 바가지를 물기를 빼갔고 주면 해치가 바가지를 들고 고기잡이 배에 물을 퍼붓다가 퍼붓다가 가는기라. 이게 해치라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바다에 고기잡으러 갔다가 해치를 만났는데, 한다는 말이 해치한테 바가지를 밑기를 빼뿌고 주니 해치가 암만 자가지로 물을 퍼여니 물이 퍼지나. 그래 배에서러 이래 상투를 옛날에 다 건져나 누버자니까니 상투를 마 땡겨가지고 물에가 끌고 드가고 그래하드랍니다.

해치가. 그래 큰 달이 질라 카면 해치가 그래 난답니다.

그래 우리보고 앉혀놓고 그래 이바구를 하데요 그래 우리가 큰 달이 질라카면 배에서르 배에서 사고가 나면 그라거든 그래인자 그거를 바가지를 밑기를 빼가지고 주거든.안그라면 해치가 배에다 물을 퍼부으면 사람이 죽을거 아닌겨.

그래 그 옛날에는 그래 많이 했습니더. 인자는 기간이 뺏겨서 그렇지. 옛날에는 풍수 때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 해치가 많이 나더랍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님의 생명을 구한 바리데기 이야기

그런데 막내이 딸로 갔다가 쫓아 내버렸어. 인자 일곱째를 놓고 보인게 딸리라서르. 이 딸이 안죽어 살았어 너머 집에 살았어. 살았는데 저거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인자 무슨 말을 했냐하모 서천 서역국에 약을 길이가 오면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 할매를 살릴 수아바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어덴지도 모르고 이 딸이 찾아갔는기라 내비린 딸이 막내이가 막내이가 저거 아버지를 인자 살리려고 찾아가가지고 이거 이야기라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이야긴데 그래 찾아가가지고 참 서천 서역곡이라는데 갔어.

가가지고 그래가 인자 그 천도복숭이라하는거 그런거 땄다카든가 마 이야기하는데 도사가 갈쳐주는 약을 땄어.

따가지고 그래가 오지를 몬하고 거게 사람이 딸아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아둘이를 데고 내려왔다 갔다. 가가지고 오니까 마침 오니까 형상이 나가더라이기라.

어, 할배가 죽어가지고 나가더라. 나갔는데 나갔는데 근데 이거 옛날이야기라 옛날 이야긴데. 그래인자 나가는데 그 죽은 행상에 죽은 사람이 누구요? 이래 물었어 딸이 그 약지어오는 딸이 아 둘이 뎄고, 물으니까네 역시 즈그 아버진기라.

그래가지고 행상내려와가지고 그 각구에 뜯고 뜯고 그 자기 약간가 그거를 갖다가 보랬다던가 어쨌다카던가 그거를 몸에 지레서 입에도 넣고 막 그 할배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라.

방귀를 뀌어서 집을 반듯하게 세운 며느리

며느리가 방구로 끼가. 그래 인자. 이쪽에서 방구 끼니 까네 집이가 일루 씨러지고 저 쪽에서 방구 끼니 까네 집이 일루 씨러지고 시아바씨가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아가 아가 방에 가서 끼라" 이래가지고 방에 가서 끼니까 집이 딱 바리 되더라카데.

가난한 할머니를 태워 준 호랑이 이야기

김해서 그 꺼정 시집을 가니깐. 이게 그때 정월달인 갑다. 눈이 와서 태산 같는데. 아이구 이놈의 뭐 사돈의 팔촌꺼정 하나하나 앉아서 폐백을 받는 기라. 오새는 뭐 이 저 합동으로 그거를 절을 받는데.

하나하나 앉아서 그러는데, 이놈의 뭐 추버서 죽을 판인데. 시댁 식구들이 죽자고 하나하나 씩 앉아. 그것도 인자 방에는. 촌방이 얼마나 작노. 쪼끄마한 방에 포개서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쬔데.

그 때 우리가 낀 저 그거 시간을 보니 깐에 새벽 1시가 다 되가. 근데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꼬츠리이 해가지고. 그래 뭐 음석을 갖다 나르고 얼추 치버노니깐 다가고 그런데 그 할매가 있는데.

그래 내가 그게 그 집안사람 같아서

"아이구 이 저 할머이는 우째 집에도 안가고 저래 이래 늦게꺼정 저라고 수발을 들고 있노"이라니까.

"아이구 이 저 할매는 호랭이 타고댕기는 사람이요"

이라더라고.

그래 내가

"호랭이를 우째 타고 댕기노"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호랭이를 우째타고 댕기노"

그래가 나중에 보니깐에, 그게 먹던 거 뭐 음식을 소쿠리로 요새 이런 소쿠리가 아니고 여기 요래 되가. 요게 오래된 그 소쿠리에다 밥도 담궈 뭣도 담궈 음석 묵다가 남안거[남은 것] 묵다가 남안거는 그 사람들 다가가는 거라.

그래 내가

"뭣을 저래 저런 것만 가져가노"

내가 이러니까

"아가 둘이고 남편이 오래오래 병 그거해서 저 고개 넘어에 산다"

고 이라더라고.

"아이고 이 저거를[저것을] 들고 저 눈 속을 고개너머를 우째 가냐"

고 하니까

"아이고 저 고개만 올라가면 저 할머이는 저 호랑이를 타고간다니까 괜찮소"

모두 이러더라고. 그게 있는 사람마저.

그래, 내가 그때만해도 내가 그때만해도 한 30살이나 백게[밖에] 안됐는데 그러고 나는 본데 가덕도 김해로 가가 김해서 사이까 그 호랭이가 우째 생겼는둥 그거를 모르고 그거 하니까,

그래인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 사람들이 너머 제사집에 댕김서 그래가 이 음석얻어가지고 그래가서 그 병든 남편하고 그래가 산다고 그래서,

"아니고 답답해라"

이 그래가 저거를 이고 아이고 오새는 동그라기는하지 소쿠리이래 생긴 이거는 요쪽은 낮고 이쪽은 높으고 체인 맨크로 연산 체인 맨크로 그리생겼어.

"아이고 저걸 이고 우째가노"

카니 고개 너머만 가면 호랭이가 그거한다고.

그래인자 그 고개너머는 호랭이가 나오는덴데 그게가믄 그 할매가 어짼가 맨날 그라고 댕기니까.

한번은 가니까 호랑이가 덩~ 누워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아이구 이 짐승아 나는 이 세상 살기도 구찮다 날 잡아칼라면 잡아가라"

카믄서 음석을 나두고 앉아가 있으니까 호랭이가 와서 저~ 엎드려가 있어

한참 엎드려가 있어서

"그러면 니가 나를 태워다 줄래?"

카니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랭이가 타고 그래 즈그 집안까정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인자 그 할매가 아무데로 댕기도 늦게만 가면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래 실어다 주더랍니다.

동자승의 피를 먹고 쫓겨난 해인사의 호랑이 이야기

그래 합천 해인사 가니까 이거는 합천해인사 절에 얘긴데 합천 해인사. 저 우에 올라 가면은 산지당이라고 있어예. 예, 산지당 그 합천 해인사하고 굉장히 멀어예.

그 산지당에는 그게 그럽디다. 그때만해도 지금은 절이라카면 신도들이 많애서 허덕거리는데 그때만해도 참 신도들도 없는데 한 스님이 그 산지당에서 동자하나하고 호랭이하고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나[나눠]먹고 이랬는데 저실이 되어서 아무것도 묵을게 없으니까 스님이 한다는 말이

"너가 이 내 올 동안에 이 산지당을 지키고 있거라, 내가 밑에 마을에 가서 묵을거를 해가고 오꾸마"

이라고 내려갔는데 스님이 아무리 그거해도 눈 속에는 몬 올라와서 제법 시일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묵을게 없으니까 그러고 이 뭣을 풀뿌리를 뽑아가지고 이래 뭣을 하다가 고마 그 동자가 이 그 손가락을 비었어예.

그래 이래 널지는 동안 동자가 생각하기는 이것도 내가 핀데 호랭이를 보고

"니가 빨아 묵으라"

캐서 빨아 믹이나 놓으니까 이 호랭이가 아니 암묵어봔 고기고 그 피가 굉장히 맛이있어예. 그런데다가 배가 고프니 몇 일지내이 결국 그 동자를 물어서 피를 빨아 묵고 그 동자는 죽고 그래.

그래 스님이 그 절꺼정 오니까 그 근치가 확~비린내가 나더랍니다. '아차~내가 너무 와서 너무 오래 있다가 와서 일이 생겼구나' 그래 근는데,

그 호랭이도 배가 고플 적에는 아무생각이 없고 피를 빨아먹었는데 지가 피를 빨아먹고 생각해보니 '아~스님이 시키던 이 짐승이지만 형제간같이 자랐는데 저거를 피를 빨아먹고' 그거해서 그 시체를 안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 그 스님이 한다는 말이

"내가 이적 꺼정 너거한테 가르켜서 그거해놔도 결국은 니는 사람이 안되고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지키는데 니는 그거를 못지킸으니까 니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럼서 한다는 말이 호랭이를 보고

"니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 합천 해인사 안에서는 절대로 호랭이가 사람 잡아먹는 짓을 없도록해라"

카니까 그 호랭이가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랍니다. 그런서 내보냄서 그래고 나서는 그 합천 해인사서는 호랭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입디더. 그것도 나도 들은 이야기고

나물바구니를 가져다 준 호랑이 이야기

옛날에는 처녀들이 산에 나물을 캐러 갔거든. 나물 캐러 강께네. 나물 캐다 본께는 호랭이 새끼가 있는 기라. 처녀들이 호랭이 새끼로 예쁘다고 요요 쓰다듬어 싼께네,

호랭이가 나타나 으흥! 어짜꼬 이래뿟는 기라. 호랭이가 지 새끼를 처녀들이 좋아한다고 한긴데 처녀들이 그걸 모르고 그래 처녀들이 놀래가지고 도굴도굴 구불러 가는 기라. 굴러가지고 마을로 와가 있으니께네, 누워 자고 나니께네 호랭이가 나물 소꾸리를 마을로 다 갔다 났더란다. 거 호랭이도 지 새끼를 좋아하니께네.

무덤을 파 시체를 먹은 여우 이야기

우리 저거 일제 시댄데예. 그래가 사상 그 동사무소 뒤 그 있었는데 영감 할마이가 살았는데 그래 자슥을 못낳어예. 자슥을 못 낳아가 공을 산으로 가서르 공을 들었어르 그래서 아를 가졌어.

할마이가 가졌는데 참 공을 밤, 낮으로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큰 바우가 있어요. 그래있는데 거서 공을 만날 아침, 저녁으로 들여서 아를 가졌어예.

그래인자 참 아를 가져가지고 인자 놓을 달 되가지고 아를 낳았는데 딸로 낳았으예 딸로 하나 낳았는데, 딸이 낳아노니 만 너무너무 인물이 좋았어예.

참 인물도 좋고마 그래가 옛날에 그때는 초등학교 댕길 때는 머리를 질러가가 이래가 댕기고 이랬는데 처녀가 너무 너무 인물이 좋았어.

그 집에 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여는 공동 샘이가 있어예. 공동 샘이가 있는데 그 물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러 인자 물도 기러가는 사람도 오따갔다 그 다 기르러 오고 그 물이 참 맛이가 좋고 이래서러, 근데 그 처녀가 생긴 배겉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처녀가 참 인자 건건히 학교 6학년까지만 마쳐가지고 만날 앉아가 뒷방에 앉

아가지고 골미같은거 있는거 줍고, 수로 놓고 수로 내 놓고 앉아가지고 생긴 암만 한번 볼라캐도,

그런데 내가 쪼께 한 열 여덟 일 적에 그 집 이모 집 초상이 났어예. 났는데 처녀가 너무 인물이 생전 볼라캐도 옛날에 일제시대가 되어났는게 파출소가 전신에 일본 사람만 다 저기했어 건물을 했어예 그랬는데 처녀를 볼라고 아무리해봐도 못 봤지요,

안 봐준는데 그래가 초상이 났어요. 영감, 할마니 참 공을 공을 들여가 딸로 낳아 오만사람 딸 놓고 한 번씩 보면 마 말도 못 하고 보도안하고 마 보면 마 소문나 또 달천이라고 이래 소문이 났어예.

그래가지고 한 번 그 집에 초상이 났는데 영감쟁이가 초상집에 갔는데 인자 옛날에는 대문을 인자 나무 대문을 가지고 저거를 대문을 했어예.

그래 인자 참 그 날은 참 달밤에 달이 떠서 참 좋은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누가 영감쟁이가 한번은 누가 영감님이 초상집으로 가고 그래가 할마이가 그래 내도 소문이 귀에 들어오는데 도저히 못 참는 기라.

그래 그 초상이 나가지고 그 초상을 출사를 시켜가지고 그날 갰는데 산에 갔다 묻었는데 이 처녀가 참 달밤에 그날 밤 저녁에 마당 즈그 집 대문 앞에서 새벽한 2시 한 3시 반 요정도 돼서 온 대를 돌더만은 박수를 한 세 번을 치더라요.

그래 칠 때 이 처녀가 머리를 풀고 야시 꼬랑대를 야시가 되었어예. 그래 저걸로 해가지고 그 매해 부터는 아무리 이 매해 초상만 되면 못잡는 기라. 그래 인자 이거를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했어예.

신고를 해가지고 잡을라고 인자 '야시가 났다' 이런 소문이 났었어예.

그래가지고 그때

"사상면에 큰 소문이 안 났어예? 요 소문 다 났어요 야시가 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머리도 마 초성같이 땋아가지고 마마 이래 처녀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야시를 잡을라고, 인자 파출소가 그때는 일제시대가 되노니 왜놈들이 다 있었는데 총을 매가지고 막 잡을라고.

그래 인자 어마이는 공을 들여가 딸로 낳았는데예 즈그 자식인지 몰랐다하는기라 그래 매가면 저거를 했어예. 즈그 집 마루밑에 전신에 옷을 다 벗겨가 다 갖다 여놨다. 그래 여놨는데 그래가 수를 그렇게 잘 놔요.

솜씨가 좋아서 처녀가 너무 인물도 좋고 이랬는데 그래가 인자 왜놈이 한 놈이가 그 처녀를 한 번 볼라고 마 내 그 근방을 돌아서 안나오거든. 전 신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즈그

지 방 밑에 바로 밑에 전신에 갖다 재놨어.

그래가지고 한숨치 이거를 도저히 몬해서 동네사람들이 등을 들고 산 중에서를 막 잡을라꼬 그때는 또 나타나도 않하고 그래서 하루는 해가 떡 보니까네 아 그 집에 대문쪽으로 걔가 넘어가 드가더라.

인자 요래 봤어예 그랬는데 도저히 어마이는 그런 힌트를 안내고 몰랐는기라예 몰라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인자 파출소에다가 할수없이 어마이를 갔다가 어마이가 뒤로 돌아가니 마 내미가 쿡쿡한 내미가 나고 마 마루 밑에 비가올라카면 썪는 내가 나고 내미가 나더라,

그래가지고 파출소 어마이가 가가지고

"우리집에 한번 오가지고요 마루 밑에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인자 이래해서

"그마 나 딸 하나 안 낳다고 자슥 없는 거라고 하고 직이주꼬마 총살하고마 직이주꼬마"

이래했어. 그래가 인자 그 순경 갖다가 쏴서러 저거를 해놨는데 나 때는 안가거든 마 수마 밑에 앉아서가 머리를 철썩철썩 너무 인물도 좋고 이러는데, 차마 순경이가 총살로 시킬카니 너무 인물이 좋아서로 보니 문을 열마이 너무 좋더라이 이래서러.

그래마 어마이는 뒤에 숨어가 있고 밑에부터 조사를 하니께니 전신에 옷으로 전신에 벗겨가 즈그 집에 갖다놓은 기라 비가 올라카면 날이 궂을라 카면 냄새가 막 쿵쿵함서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인자 어마이가 막 신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짜사라 인자 순경이가 총을 가지고 살 뒤로 들어오가 차마 순경이가 문을 못 열고 한 번보니 어찌 인물이 좋고 너무 좋아서러 마 순경이가 깜짝 놀랐다 안카나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문새 거다가 딱 저거를 해가지고 총를 쐈다 그러더라.

그래서 죽였어예, 어 총살로 죽였어예. 그래가 죽여가지고 그 야시를 죽이고 나니까네 동네에 야시가 없더라.

2) 전해오는 노래들

현전하는 민요들로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주를 이루며 이와 더불어 어린 아이를 어루면서 부르는 노래와 여흥을 즐기면서 부르는 유희요가 있다.

노동요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노래는 다대포 후리소리와 방아타령이다. 다대포 후리소

리는 멸치잡이로 성행했던 다대포의 옛 역사는 물론 멸치잡이의 조업과정과 조업민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으며, 방아타령은 옛 농경사회의 노동양상과 서민들의 진솔한 욕망과 해학을 엿볼 수 있다.

유희요의 경우 화투노래·창부타령·청춘가, 노랫가락 등은 여타 지역에서 불리는 유희요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늙음에 대한 한탄과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노래하는 '호박이 늙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잘 채록되지 않는 노래로 주목된다.

(1)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모심기 노래

＊ 모심기 노래는 논동사와 관련된 민요로 이 외 모끼기 노래와 논매기 노래 등이 있다. 모심기 노래는 교환창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래의 사설은 모를 심는 광경을 담아내거나 수확의 바램과 기쁨 또는 남녀간의 연정을 그려내는 등 다양하다. 이러한 노래는 힘든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속에서 다양한 삶의 애환을 그려내며 신명을 풀어내고 있다.

[모야모야 노랑모야]

모야모야　노랑모야　니언제커서　열매열래
이달커고　두달커고　칠팔월에　열매열래

낭창낭창　벼루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나도죽어　군자되어　처자권속만　섬길라네

[물고철철 흘러놓고]

물고야철철　흘러놓고　첩의야방으로　놀러갔다
퐁당퐁당　찰수제비　사우야상에　다올랐네

할마이는 어데가고 딸의동자를 왜시긴노

[쌍금쌍금 쌍가락지]

쌍금쌍금 쌍가락지 주석질로 녹가락지
멘데보이 달일네야 잦에보이 처잘네라
저처자에 자는방에 숨소리가 두가질세
청도복시 오라버니 거짓말씨 말아줄소
나한풍이 드리부니 풍지우는 소리내라
명지천을 목에걸고 딱에칼로 품에안고
자는듯이 죽고지라

방아타령

＊ 방아타령은 방아를 찧을 때 부르는 노래로 일정한 내용을 담은 사설과 흥취를 돋구는 후렴구로 구성되어 있다. 선창자가 사설을 한 대목 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후렴구를 메긴다. 이 노래는 노동의 리듬을 이끌어내는 경쾌한 가락으로 구성된다.

어허 덜커덩 방아 어허 덜커덩 방아야
이방아는 이방아요 어허 덜커덩 방아야
강태공이 어이 조작방아 어허 덜커덩 방아야
조상대대로 찧어오던방아 어허 덜커덩 방아야
우리도한번 찧어보세 어허 덜커덩 방아야
쿵덕쿵덕 디딜방아 어허 덜커덩 방아야
철커덕철커덕 가래방아야 어허 덜커덩 방아야
방아방아 무슨방아 어허 덜커덩 방아야
우리한섬 나락하자 어허 덜커덩 방아야
밤새도록 찍고 나네 어허 덜커덩 방아야
덩지석달 긴긴 밤을 어허 덜커덩 방아야

방아찧다가 찍 왔네	어허 덜커덩 방아야
쿵덕쿵덕 방아소리나	어허 덜커덩 방아야
울담너머로 다넘어가고	어허 덜커덩 방아야
아낙네들 말소리는	어허 덜커덩 방아야
웃음안에서 뱅뱅돈다	어허 덜커덩 방아야
신화씨몸댕이 공중에두고	어허 덜커덩 방아야
저자야몸맵시 곱아야좋고	어허 덜커덩 방아야
보리방아받고는 겉치레야좋다	어허 덜커덩 방아야
안~고는 무르진대는	어허 덜커덩 방아야
오곡잡곡을 떠먹고마는	어허 덜커덩 방아야
아좁세에 새해지는	어허 덜커덩 방아야
억울하게도 매만맞네	어허 덜커덩 방아야
영감아곶감아 개떡잡숴	어허 덜커덩 방아야
부자집에 밥퍼주사	어허 덜커덩 방아야
영감님줄라고 개떡을쪄서	어허 덜커덩 방아야
개떡을찌거든 작게나쪘나	어허 덜커덩 방아야
섬말치솥에 석반을쪄서	어허 덜커덩 방아야
열두번찧는 곡식을	어허 덜커덩 방아야
나라상반 아니하고	어허 덜커덩 방아야
부모님봉양을 안할쏜가	어허 덜커덩 방아야
어허 덜커덩 방아야	어허 덜커덩 방아야

다대포 후리소리(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1987년 7월 2일 지정)

＊ 옛 다대포는 멸치잡이로 유명했던 곳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멸치잡이와 관련한 어로요가 자연스럽게 형성·전승되어 왔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수영구의 어방놀이, 기장군의 멸치 후리소리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어로요라 할 수 있다. 다대포 후리소리는 풍어를 기원하는 비나리 사설에서 부터 멸칩잡이의 전 노동과정을 담아내는 사설 그리고 풍어의 기쁨을 노래한 사설에 이르기 까지 모두 여덟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대포 후리소리 시연 장면

당산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앞터당산 서낭님요 뒷터당산 서낭님요
두골목에 서낭대신 그물걸리 좋은시에
기도발원을 드리오니 굽어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위해
조그만한 배를모아 그물한채를 배에싣고
부모형제 처자들을 손을들어 작별한후
파도속으로 헤쳐가니 굽어살펴 주옵소서
풀어주소 풀오주소 모신악살을 풀어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이별살도 풀어주소 수재살도 풀어주소
풍랑살도 막아주고 화재살도 막아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를 떠나가니 재수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도 풍년들고 바다에도 풍년들어
양풍년이 겹쳐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반백성이 풍년만나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용왕제



다대포 후리소리 중 용왕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전에 비나이다
동해바다 용왕님요 서해바다 용왕님요
남해바다 용왕님요 북해바다 용왕님요

물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황실 용왕제를 지극정성 드리오니
사해바다 용왕님요 굽어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위해
조그마한 조각배에 그물한채를 내어싣고
오색가지 서낭기와 용왕깃발을 달은후에
돛대한쌍 높이달고 닻줄은거둬 실은후에
부모형제 처자들을 손흔들어 작별한후
풍악울려 배를띄우고 만경창파로 들어가니
간데마다 순풍만나 무사태평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정에 비나이다
멸치잡이를 떠나가니 재수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는 풍년들고 바다에는 풍어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그물 싣는 소리

(앞소리)에-헤이 사리야 (뒷소리) 에-헤이 사리야

사려보세 사려보시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를 사려보세 에-헤이 사리야
이그물을 낼적에는 에-헤이 사리야 어이하여 내었는고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이를 가려하니 에-헤이 사리야 그물이없어 못가겠에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를 내자하니 에-헤이 사리야 명주실이 어디있소 에-헤이 사리야
뒷동산에 뽕을 심어 에-헤이 사리야 앞동산에 잠실을 지어 에-헤이 사리야
뽕잎으로 밥을주니 에-헤이 사리야 무럭무럭 자라나서 에-헤이 사리야
한잠두잠 석잠한후 에-헤이 사리야 구슬같은 고치를쳤네 에-헤이 사리야
그고치를 따가지고 에-헤이 사리야 돌고물레 실을뽑아 에-헤이 사리야
가랑물레 실을잣아 에-헤이 사리야 큰아기 손끝으로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를 내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웃시울에 우끼를달고 에-헤이 사리야
아래시울에 봇을달아 에-헤이 사리야 그물한채 꾸며다가 에-헤이 사리야

고깃배에 사려실어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이 떠납시더	에-헤이 사리야
삼치꽁치 칼치를두고	에-헤이 사리야	멸치잡아 무엇하리	에-헤이 사리야
열두독 젓을담아	에-헤이 사리야	황금빛에 맛들거든	에-헤이 사리야
첫째독은 헐어가다	에-헤이 사리야	나라에다 상납하고	에-헤이 사리야
두째독은 헐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부모님전에 봉양하고	에-헤이 사리야
셋째독은 헐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형제간에 갈라먹고	에-헤이 사리야
네째동근 헐어다가	에-헤이 사리야	이웃간에 노놔먹지	에-헤이 사리야
남은독은 팡아다가	에-헤이 사리야	논밭전지를 많이사서	에-헤이 사리야
부귀영화를 누려보세	에-헤이 사리야		

고기 잡으러가는 소리

(앞소리) 어여사 (뒷소리) 어여사

달도발고	어여사	고요한데	어여사	메레치생각	어여사
절로난다	어여사	동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서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남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내	어여사	북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사해바다	어여사	용왕님네	어여사		
용왕님의	어여사	은덕으로	어여사	이그물을	어여사
놓거들랄	어여사	재수소망	어여사	점지나하소	어여사
메레치만선	어여사	시켜나주소	어여사	물색좋다	어여사
도미등아	어여사	팔팔뛰는	어여사	숭어등아	어여사
반짝이는	어여사	메레치등아	어여사	넓적하다	어여사
광어등아	어여사	우리후리에	어여사	다들어오소	어여사
화조월석	어여사	오는순풍	어여사	누힘으로	어여사
막을소냐	어여사	바람아동풍아	어여사	불지를말아가	어여사
오느메레치	어여사	되돌아간다	어여사	뒷동산에	어여사
진달래는	어여사	만발하도	어여사	다대포라	어여사
앞바다에	어여사	메레치가	어여사	풍년일세	어여사
어기여차	어여사	저어나주소	어여사	화조월석	어여사

오는춘풍	어여사	누힘으로	어여사	막을소냐	어여사
객사지동	어여사	쩍벌어진데는	어여사	왕거미줄이	어여사
제격이요	어여사	선주선원들	어여사	벌어진데는	어여사
메레치가제격이다	어여사	우리어부들	어여사	벌어진데는	어여사
술과담배가	어여사	제격이요	어여사	어기여차	어여사
노를저어가	어여사	여보시오	어여사	선원들아	어여사
힘을주고	어여사	저어나주소	어여사	메레치가	어여사
많이있소	어여사	빨리가서	어여사	땅겨나주소	어여사
어기여차	어여사	저어나주소	어여사		

그물 당기는 소리



다대포 후리소리 중 그물당기기

(앞소리) 어기영차 당겨주소 (뒷소리) 어기영차 당겨주소

용왕님의 은덕으로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풍년이 돌와왔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산은첩첩 천봉이요 어기영차 당겨주소
우리다대포 꽃이피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풍년이 아닐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삼경인들 변할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일구월심 변할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떼가 몰려오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항구인들 막을소냐 어기영차 당겨주소
봄가늘이 제일일세 어기영차 당겨주소
판이슬오기마 기다리고 어기영차 당겨주소
이도령오기만 기다린다 어기영차 당겨주소
조자룡오기만 기다린다 어기영차 당겨주소
메레치오기만 기다린다 어기영차 당겨주소
오늘날에 풍년일세 어기영차 당겨주소
부귀영화를 탐치마소 어기영차 당겨주소
오막살이 단칸이라도 어기영차 당겨주소
부지런히 일을해서 어기영차 당겨주소
나라부강 하연후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어기여차 당겨나주소

물은잔잔 백옥인데 어기영차 당겨주소
꽃피고 봄이오니 어기영차 당겨주소
십오야 둥근달이 어기영차 당겨주소
똘똘뭉친 우리어부 어기영차 당겨주소
만경창파 푸른물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철따라서오는 메레치를 어기영차 당겨주소
춘하추동 사시절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푸릇푸릇 봄배추는 어기영차 당겨주소
남원옥중 춘향이는 어기영차 당겨주소
강동장비 유현덕은 어기영차 당겨주소
다대포라 어부들은 어기영차 당겨주소
어젯날에없던 메레치가 어기영차 당겨주소
여보시오 어부네들 어기영차 당겨주소
고대광실 부러마소 어기영차 당겨주소
태평성대가 비친다네 어기영차 당겨주소
나라상납 하연후에 어기영차 당겨주소
태평성대를 누려보세 어기영차 당겨주소

그물 터는 소리

(앞소리) 에-산자 (뒷소리) 에-산자

산자로다- 에-산자 많이도들었구나 에-산자
오뉴월 에-산자 삼복더위에 에-산자
황소불알같이 에-산자 늘어졌구나 에-산자
에-산자 에-산자 고리등같이 에-산자
둥둥떴다 에-산자 녹산이방우같이 에-산자
쩍벌어졌구나 에-산자 산이야 에-산자
반갑도다 에-산자 이메레치야 에-산자
어데서놀다가 에-산자 이제사왔나 에-산자



다대포 후리소리 중 그물털기

기장바다에서	에–산자	놀다왔나	에–산자
대마도바다에서	에–산자	놀다왔나	에–산자
학수고대	에–산자	기다린메레치	에–산자
오늘날에	에–산자	당도하였네	에–산자
에–산이야	에–산자	무쇠같은	에–산자
내동무들아	에–산자	팔다리에	에–산자
힘을주어서	에–산자	그물을많이잡고	에–산자
앞을숙였다	에–산자	뒤로넘어가면	에–산자
쪼아나주소	에–산자	에–산자	에–산자
이산자가	에–산자	누산자고	에–산자
강원도바다에	에–산자	명태어장에	에–산자
산자도아니요	에–산자	포항바다	에–산자
청어어장에	에–산자	산자도아니요	에–산자
물맑고	에–산자	인심좋은	에–산자

우리다대포	에–산자	우리어장에	에–산자
메레치를	에–산자	많이잡아	에–산자
불통쪼으는	에–산자	산자로다	에–산자
에–산이야	에–산자	너무나쪼으다가	에–산자
불통이터지면	에–산자	고생한것이	에–산자
허사가돼요	에–산자	그만쪼으고	에–산자
메레체를폅시다	에–산자		

가래소리

(앞소리) 어–넝청 가래로다 (뒷소리) 어 –넝청 가래로다

이가래가 누가랜고	어 –넝청 가래로다	다대포첨사의 가래로다	어 –넝청 가래로다
이가래가 누가랜고	어 –넝청 가래로다	한선주의 가래로다	어 –넝청 가래로다
용왕님의 은덕으로	어 –넝청 가래로다	메레치풍년이 되었구나	어 –넝청 가래로다
십오야 둥근달은	어 –넝청 가래로다	삼경인들 변할소냐	어 –넝청 가래로다
똘똘뭉친 우리어부	어 –넝청 가래로다	일구월심 변할소냐	어 –넝청 가래로다
양류색이 천만사인데	어 –넝청 가래로다	오는춘풍을 막을소냐	어 –넝청 가래로다
양류색이 사사록하니	어 –넝청 가래로다	오류촌이 다대포요	어 –넝청 가래로다
무정세월 한허리를	어 –넝청 가래로다	양류사로 매어놓고	어 –넝청 가래로다
우리어부는 가래질한다	어 –넝청 가래로다	이화도화 만발하고	어 –넝청 가래로다
행화방초 휘날리는데	어 –넝청 가래로다	메레치는 풍년일세	어 –넝청 가래로다
값싸고맛좋은 메레치를	어 –넝청 가래로다	있을적에 사들가소	어 –넝청 가래로다
이메레치를 팔아다가	어 –넝청 가래로다	나라상납 하연후에	어 –넝청 가래로다
부모봉양 안할소냐	어 –넝청 가래로다	어화청춘 소년들은	어 –넝청 가래로다
백발보고 괄세말아	어 –넝청 가래로다	우리도엊그제소년이더니	어 –넝청 가래로다
오늘백발 잠간일세	어 –넝청 가래로다	어젯날에 메레치가	어 –넝청 가래로다
오날에 풍년일세	어 –넝청 가래로다	메레치를 많이잡았으니	어 –넝청 가래로다
임도보고 뽕도딸겸	어 –넝청 가래로다	술밥간에 많이먹고	어 –넝청 가래로다
겸사겸사 잘놀아보세	어–어넝청 가래로다	어 –넝청 가래로다	

풍어소리



다대포 후리소리 중 풍어소리

(앞소리) 캐지나 칭칭나네 (뒷소리) 캐지나 칭칭나네

가자가자 어서가자	캐지나 칭칭나네	이수강변 백로가자	캐지나 칭칭나네
청천하늘에 잔별도많고	캐지나 칭칭나네	시냇가에는 자갈도많다	캐지나 칭칭나네
정월이라 대보름날	캐지나 칭칭나네	달밤에나온 소년들은	캐지나 칭칭나네
답교하고 노니는데	캐지나 칭칭나네	이월이라 한식날은	캐지나 칭칭나네
나무마다 춘기들고	캐지나 칭칭나네	가지가지 순이난다	캐지나 칭칭나네
삼월이라 삼짇날은	캐지나 칭칭나네	강남서 나온제비	캐지나 칭칭나네
내왔노라 현신하고	캐지나 칭칭나네	소상강변 기러기는	캐지나 칭칭나네
내가노라 하직한다	캐지나 칭칭나네	용왕님이 주신복지	캐지나 칭칭나네
태평무궁 빛내보세	캐지나 칭칭나네	우리겨레 단결하여	캐지나 칭칭나네
피땀으로 세운나라	캐지나 칭칭나네	너도나도 건설해서	캐지나 칭칭나네

억천만년 누려보세 캐지나 칭칭나네 칭칭소리 잘하는양반은 캐지나 칭칭나네
탁주일배 별주로다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캐지나 칭칭나네

(2) 아이를 어루면서 부르는 노래

＊ 아이를 어루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세워 몸동작을 함께 하며 부른다. 이러한 노래는 아이의 신체 발육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지와 정서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주로 가족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담은 사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자동아 옥자동아 니어디갔다가 인자와
노란다리를 건내다가 속곳밑을 젖혀가지고
우리나라 모구단지가 노란다리서 다되갔네
어허둥둥 어디서왔나 니어디갔다 어디서왔나
니얼굴을 내가보니 눈은빵빵 대별눈이요
코를보니 유자 코요 얼굴을보니 반짝반짝
입을보니 앵두입슬 귀를보니 깜짝귀요
손을보니 꼬스락손이라 니어데갔다가 인자왔나

불매 노래

불매야 불매야 이불매가 누불맨고
부르라딱딱 불어라~ 전라도에 불매든가
경상도라 불매든가 부어라딱딱 불어라~
어디서 니가낳노 누가누가 너를낳노
어데사니가 인자왔나 첩첩상중에서 니가왔나
지기넝쿨 모래넝쿨 칭칭걸려서 니가왔나
앞을봐도 만냥이고 뒤를봐도 만냥인데
누가너를 아연는고 불매불매 이불매야
어디서왔길래 이렇게좋아 앞을봐도 만냥이요

뒤를봐도	만냥인데	불매불매	내불매야
이렇게좋은	불매가왔어		

3) 여흥을 즐기며 부르는 노래

＊ 여기의 노래들은 일정한 기능을 따로 갖지 않고 노래의 흥취를 즐기고자 부르는 유희요 들이다. 유희요에는 삶의 애환, 세월의 무상함, 애잔한 연정, 세상살이에 대한 풍자와 해학 등 다양한 일상적 삶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사설들이 펼쳐져 있다.

화투 노래

새여볼까	새여나볼까	화투로한번	새야볼까
정월솔가지	속속한마음	이월매주가	맺아놓고
삼월사쿠라	될동말동	사월흑싸리	오소다리
오월난초	나비가날라	유월목단에	춤잘춘다
칠월홍돼지	홀로누워	팔월공산에	달도밝다
구월국화	굳었던마음	십월강풍에	다떨어진다
오동추야달이	둥실밝아	님에손가락	꿈이더냐
앉아서니	님이오나	누워서니	잠이오나
님도잠도	아니나오고	모진강풍이	날속인다
얼씨구나좋네	지화자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창부타령

에헤야~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노자놀아	젊어서놀아	늙어야지면은	못노는디
봄이와서	봄이왔네	이강산삼천리	봄이와서
남한북청	보리타작은	방방곡곡	농부간데
송백수야	푸른초가집	높다랗게	분비로놓고
오고가는	미인들이	오락가락을	부쳐날때
걸어온다	걸어온다	남한에광한로	춘향이가

얼섬같은 버선발로 살끔살끔 걸어온다
니가무슨 반달이라고 고롷게도 살끔걸어오나
초생달이 반달이고 보름에저달이 온달이다
얼씨구나 절씨구 정말로 좋다

청춘가

젊어서 놀아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야 달도차면 기우는데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놀지는 못하리라

호박이 늙으면

호박은 늙으면 단맛이나 있것만은
인간의 늙은것은 쓸곳이 없더라
탐내지마라 모진손으로 꺽들마라
꺽을라거든 버리지말고 버릴라거든 꺽들마라
나비는 봄한철이고 금붕어연못은 산상이로다
배고파서 받은밥상은 이도많고 돌도많네
이많고 돌많은것은 힘없는 탓이로다
우리는언제나 우런님안에서 이없고돌없는밥을 먹어나보나

노랫가락

오늘보메는 초맹인데 내일보메는 구맹이라
구맹초맹 다재치나놓고 재미있기를 놀아보소
꼬튼꺾어서 머리에꽂고 잎은훌터서 입에물고
산에올라 들길을가니 가는햇님이 내엄보고넘어가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좋다 저절시고

3. 사하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사하구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문학작품은 요산 김정한의 『모래톱이야기』와 『슬픈해후(邂逅)』다. 요산 김정한은 줄곧 낙동강 하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질박한 삶의 군상들을 그의 작품에 담아내었다. 그 중 1966년 『文學』 제6호에 발표했던 『모리톱이야기』와 1985년 『12人 新作小說集 · 슬픈해후』에 각기 하단과 명지 그리고 엄궁이 그의 주요 문학적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요산은 『낙동강의 넋두리』(『낙동강의 파수꾼』 한길사, 1985)에서 "낙동강 가까이서 자라고 낙동강 가 농민들의 슬픈 생활의 내력을 알기 시작한 나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낙동강 가 땅에 목을 매달고 살아온 민중을 잊을 수가 없었다. 민족에 관계 되는 일을 생각하고,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늘 이 강과 이 강가 사람들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회고하였다. 『모래톱이야기』의 '갈밭새 영감'은 낙동강이 만들어 준 그들의 삶터를 권력으로부터 지켜나가고자 했던 사하구민들 삶의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갈밭새 영감' 일가의 슬픔과 강인한 생명력 역시 한 개인의 삶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아픈 역사적 삶을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슬픈해후』의 '성수'는 해방 후 자주독립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활동했던 성수가 연합군 사령부에 쫓겨 엄궁으로 숨어들었다. 엄궁의 귀환동포 주인집 신씨는 성수를 받아들이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푼다. 『슬픈해후』에서는 엄궁에 뿌리를 두고 살았던 이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엄궁은 단지 성수가 숨기 좋은 외진 공간을 넘어 자주독립을 염원했던 당시 민중의 역사의식을 투영시킨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당시 '재첩 껍질들이 쌓여 있는', '비스듬한 산 발치에서 낙동강을 향해 자리 잡고 있는', '물가에는, 아니 가운데도 길쭉한 갈대가 드문드문 서 있는', '군데군데 염소 떼가 매어져 있는 강둑길' 등 당시 엄궁의 전경들과 더불어 새벽이면 재첩국을 팔러 다녀야 했던 당시 척박했던 엄궁 주민들 삶의 모습도 담겨 있다.

참고문헌

사하구 향토지 최종_1장~8장 12. 2. 29. 오후 1:43 페이지 484

참고문헌

단행본

『여지도서』.

『경상남도 동래군가호안』. 1904.

『다대진지』 1895.

『동래부지』 1940.

강태석, 『낙동강하류의 식물상』 낙동강보존회, 1983.

慶尙南道, 『慶尙南道における移住漁村』 1921.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부산시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2010.

久納重吉, 『東萊案內』 1917.

『교구삼십년사』 천주교구사편찬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괴정성당25년사』 괴정성당.

『괴정중앙교회 40년사』 괴정중앙교회, 1991.

금광식 외, 『한국의 기후』 일지사, 1973.

다대초등학교·다대초등학교총동창회, 『다대백년사』 2004.

부경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 – 근현대편』 선인, 2004.

부산광역시 사하구, 『91 구정백서』 1991.

부산광역시 사하구, 『92 구정백서』 1992.

부산광역시 사하구, 『93 구정백서』 1993.

부산광역시 사하구, 『94 구정백서』 1994

부산광역시 사하구, 『95 구정백서』 199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백서 1996』 199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백서 1997』 199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백서 1998~1999』 199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백서 2000』 2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1~2002 구정백서』 2002.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2~2003 구정백서』 2004.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4~2005 구정백서』 2006.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6~2007 구정백서』 2008.

부산광역시 사하구, 『2008~2009 구정백서』 2010.

참고문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교육사』 1987.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의사』 1982.

부산시 사하출장소, 『사하통계연보(제2회)』 1979.

부산직할시 사하구, 『통계연보(제5회~제10회)』 1983~1988.

부산직할시 사하구, 『사하구통계연보(제12회, 제14회~제15회)』 1990, 1992~199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통계연보(제16회~제19회)』 1 994~1997.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계연보(제20회~제23회)』 1998~200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통계연보(제24회~제30회)』 2004~2009.

부산시, 『시세일람』 195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세기 부산을 빛낸 인물(1)』 200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198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4권, 199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201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1995~2002.

부산일보사, 『부산일보사』 1984.

사하구청, 『사하구지』 1993.

사상구청, 『사상구지』 2005.

사하구,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사하이야기』 세종문화사, 2011.

사하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사하초등학교 총동창회, 『사하초등학교 백년사』 2008.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우용태, 『낙동강하구의 조류연구』 낙동강보존회, 1983.

張炯馥 편저, 『감천2동 향토지』 2004.

『조선교육대관(중)』 1932.

朝鮮總督府農商工部, 『釜山方面商工業調査』 1911.

채상식·서치상, 『범어사』 대원사, 1994.

하단교회, 『하단교회 100년사』 2005.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낙동강류역개발지원조사보고서』 1973.

『한국지명총람』 1986.

『한국지지』 – 지방편 Ⅲ,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5.

『한국지지』 – 총론편,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0.

『한국하천일람』 한국수자원공사, 2009.

참고문헌

참고 논문

김순석, 「개항기 불교계의 변화와 〈국내사찰현행세칙〉의 성격」『동국사학』 37, 2002.

김 승, 『1920년대 경남동부지역 청년운동』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라, 「통일신라·고려시대 부산지역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항도부산』 23, 2005.

박용숙 · 김동철, 「개항기의 부산」『부산시사』 1, 1989,

박우영, 「보라빛 마음의 소원」『4·19의 민중사』 학민사, 1984.

박종길, 「낙동강하구의 대기환경특성」『인제대학교 환경연구소 발표논문집』 1992.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 철새도래지 생태계 조사」 2000.

新納 豊, 「鐵道開通 전후의 洛東江 船運」『韓國近代經濟史 硏究의 成果』 형설출판사, 1989.

정미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 사상계의 동향」『항도부산』 19, 2003.

차철욱, 『이승만정권기 무역정책과 대일 민간무역구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채상식, 「일본 명치년간 정토진종의 추이와 그 특성-한말 불교침탈과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민족문화』 1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홍순권, 「근대 개항기 부산의 무역과 상업」『항도부산』 11, 1995.

신문 자료

『국제신문』 / 『부산일보』

『경향신문』 / 『동아일보』 / 『국제신보』 / 『조선일보』

『조선총독부 관보』 제1951호, 소화 8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2794호, 소화 11년

『황성신문』 / 부산고등학교 교지 『청조』 10호(1960년)

지도

『1872년 지방군현지도』(규장각), 1872.

『동여도』(규장각), 19세기 중엽.

『해동지도』(규장각), 18세기 중엽.

『지형도』(1 : 50,000), 국토지리정보원, 1950.

『지형도』(1 : 50,000), 국토지리정보원, 1976.

『우리ㄱ람 길라잡이』 한국수자원공사, 2008.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청, 2008.

참고문헌

사이트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http://www.saha.go.kr)
신평·장림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jbu.com)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kospo.co.kr)

인터뷰 자 료

감천교회의 부목사 공중식 인터뷰(2011년 10월 28일)
감천중앙교회의 장로 손창호 인터뷰(2011년 10월 28일)
김대상 구술(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업, 면접자 김선미)
김승 구술(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참가자 구술사업, 면접자 김선미)
김춘석 증언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 인터뷰(2011년 10월 29일, 면접자 김현라)
권태정(90) 증언
괴정성당 신자 최병남 인터뷰(2011년 10월 27~30일)
괴정성당 신자 최병남 인터뷰(2011년 10월 27~30일)
다대교회 강도사 권시목 인터뷰(2011년 10월 28일)
동신교회 장로 박영학 인터뷰(2011년 10월 28일)
박수임 증언
신평로교회 부목사 임민철 인터뷰(2011년 10월 28일)
이성철 증언(남, 71세, 괴정3동 거주)
이형호 구술(200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업, 면접자 김선미)
장재묵 증언(남, 78세, 괴정3동 거주)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인터뷰(2011년 10월 29일, 면접자 김현라)

사진 출처

이 책에 인용된 사진 자료는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사하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한 것임.
이 책에 인용된 고지도와 금석문 자료는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였음.

시단법인 **부경역사연구소**
The Pukyung Institute for Korean History

사단법인 부경역사연구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으며 부산경남지역의 역사 연구자모임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1994년 창립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ww.pkh.co.kr 051-514-6401)

원고 집필자 소개

선석열 부산대 사학과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기혁 부산대 지리교육과
김강식 동서대 교양교육원
정용범 부경대 사학과
하유식 부산대 사학과
배석만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김현라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황경숙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역사 속 사하구 모습

사하구지

발행일 2012. 2
발행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원고 집필 부경역사연구소
기획/디자인/인쇄 동양정판 T.051-265-4913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사하구청의 사전동의 없이 복사·촬영·제작·번역을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라도 변환·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 317-16) 사하구청 문화관광과
Tel. 051-220-4081, 4083

(비매품)